

2026 | 02

26-B552111-000030-01

#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 · 활용 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a Program Supply-Utilization System for  
the Expansion of Neulbom School



한국과학창의재단  
Korea Foundation for Science and Creativity



# 제 출 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2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협력부서 : 교육활동지원실

주관연구기관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기간 : 2025.5.7. ~ 2026.2.28.

연구책임자 :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보고서 초록

과 제 번 호	연 구 기 간	2025.5.7. ~ 2026.2.28.	
연구사업명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연구		
연구과제명	(한글)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연구 (영문) A Study on Establishing a Program Supply-Utilization System for the Expansion of Neulbom Schools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참여연구원수	총 6명
		연 구 비	40,000천원
요 약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의 프로그램 공급 확대 및 대학·전문기관 공급 체계 안착 방안 모색</li> </ul> </li> <li>● 연구 내용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학교 수요, 참여 요인,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파악</li> <li>- 대학 및 전문기관 프로그램 개발·공급 참여 현황 및 향후 개선 과제의 파악</li> <li>-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li> </ul> </li> <li>● 주요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요 및 공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 만족도, 향후 수요 분야 등 수요 측면 분석을 위한 학부모, 학교 담당자 설문 및 면담</li> <li>-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실태 및 개선점 분석을 위한 공급기관 설문 및 면담</li> </ul> </li> <li>2.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우처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한 초등학교 3학년 바우처 운영 시사점 도출</li> <li>- 외부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우수 사례 제시</li> </ul> </li> <li>3.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제 방안 도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위학교의 늘봄프로그램 활용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유형 분류 및 맞춤형 운영 모델 제시</li> <li>- 학교 밖 자원 연계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li> </ul> </li> <li>2)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공급을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수요 기반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체계 제시</li> <li>-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개발-공급-평가-환류 체계 제시</li> </ul> </li> <li>3)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학교 프로그램 품질관리 전문기관 및 늘봄허브 고도화 방안 제시</li> <li>-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돌봄 협력 체계 제시</li> <li>-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제시</li> </ul> </li> </ol> </li> </ol> </li> </ul>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외부 자원 연계, 학교 수요 기반, 바우처) (영문) (Neulbom School, program supply, external resource partnerships, school demand-based, voucher)		



# 요 약 문

## I. 제목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연구

##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안착해감에 따라 현재 1~2학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고학년에 맞게 확대 및 활성화할 필요
-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과 고학년으로 인한 수요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고학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 파악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공급 계획 마련 필요
- 늘봄허브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개선할 필요
- 이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전문기관 공급 체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수요 및 공급 조사

-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요와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 담당자 및 학부모 설문
-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급 기관 설문
- 참여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수요 분야, 기타 의견 파악을 위한 학교 담당자 및 학부모 면담
- 공급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공급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급 기관 담당자 면담

### 2. 사례 조사

- 바우처 운영 사례 검토
- 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사례 검토

### 3.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제 방안 도출

- 단위 학교의 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방안
- 대학 및 전문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공급 참여 확대 방안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공급 체계 기반 구축 방안

## IV. 연구 결과

### 1. 수요 및 공급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학부모, 학교 만족도는 높으나 프로그램 내용 질 제고와 학부모 수요 반영(분야, 시간대 등)이 요구됨. 특히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특화, 우수 프로그램

램이 필요함.

- 학교 공간 부족 문제 및 운영 여건 문제 개선이 필요함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대학 및 기관과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급 기관에서 학교 수요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급기관에 수요 리포트를 정기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강사 품질 관리 양성 체계 강화 필요

## 2. 사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다양한 바우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수요자 기반 바우처 운영 방식 고려 필요
- 바우처가 사교육비 보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용자 규제 및 기관 인증 병행이 필요
- 프로그램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한 늘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학, 외부기관, 지자체 등과 같은 외부 자원 연계가 필요함.

## 3.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제 방안 도출

### ● 단위학교의 늘봄프로그램 활용 제고방안

- 학교 유형별 특성 파악 후 맞춤형 운영 모델 운영 필요(①학교중심 지역 협력형 ②지역 네트워크 협력형 ③지역거점 집중 지원형 ④학교 중심형)
- 학교 밖 자원 연계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①지자체 시설 연계형 ②대학 연계형 ③거점센터 집중형 ④학교 내 다원화형)
- 고학년 늘봄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이 요구됨.

### ●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공급을 지원 방안

- 현장 수요 기반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체계를 구축 필요
- 프로그램 수요(내용, 수준, 운영 방식)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 대학·전문기관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 추진.
-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시 각 분야별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설계.
-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개발-공급-평가-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기반 조성

- 늘봄학교 프로그램 품질관리 전문기관 기능 향상
- 수요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늘봄허브 고도화 추진
-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돌봄 협력 체계 구축
-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SUMMARY

(영문요약문)

## I. Title

A Study on Establishing a Program Supply–Utilization System for the Expansion of Neulbom Schools

## II.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 Expansion and activation of Neulbom programs for upper grades
- Identification of upper-grade demand reflecting developmental differences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program supply plan
- Improvement of the Neulbom program supply system centered on the Neulbom Hub
- Institutionalization of a university/specialized-institution program supply system and expansion of tailored/elective programs to all elementary grades

## III. Research Contents and Scope

### 1. Demand and Supply Assessment

- Surveys of school coordinators and parents on Neulbom program demand and improvement needs
- Surveys of provider organizations on the current status of program provision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 Interviews with school coordinators and parents on participation status, satisfaction, future participation intentions, demand areas, and additional feedback
- Interviews with provider-organization staff on program development and provision conditions and improvement needs

### 2. Case Studies

- Review of voucher operation models and implementation cases
- Review of external education program operation and school-level utilization cases

### 3. Policy Options for the Neulbom Program Supply–Utilization System

- Strategies to enhance school-level program utilization
- Strategies to expand participation of universitie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in program development and provision
- Strategies for a Neulbom program development–provision system

## IV. Research Findings

### 1. Findings from Demand and Supply Assessment

- High overall satisfaction among parents and schools, with strong needs for program quality enhancement and reflection of parental demand (fields, time slots, etc.)
- Demand for differentiated, high-quality programs competitive with private tutoring
- Need to address constraints in school space and operating conditions
- Need for locally differentiated programs and strengthened linkages with local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 Difficulties in identifying school demand, requiring strengthened school-provider matching networks and regular provision of demand reports
- Reinforcement of instructor quality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s

### 2. Findings from Case Studies

- Consideration of demand-based voucher models based on voucher operation cases
- Prevention of vouchers being diverted into private tutoring subsidies through eligible-use restrictions and provider accreditation
- Strengthening external resource linkages (universities, extern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for program quality improvement and system sustainability

### 3. Policy Options Derived

- Enhancing School-Level Utilization of Neulbom Programs
  - Implementation of tailored operation models by school type ①school-centered local partnership model, ②local network partnership model, ③regional hub intensive support model, ④school-centered model
  - Establishment of foundations for out-of-school resource linkages ①local government facility linkage model, ② university linkage model, ③hub-center intensive model, ④in-school diversified model
  - Voucher system to increase participation among upper-grade students
- Supporting Program Provision by Universitie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 Establishment of an on-the-ground demand-based program planning system and systematic analysis of demand (content, level, delivery format)
  - Launch of program development calls for proposals targeting universitie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 Demand-reflective program design by field for upper-grade programs
  -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provision-evaluation-feedback cycle for university/specialized-institution programs
- Building the Foundation for Program Supply and Utilization
  -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institutions for Neulbom program quality management
  - Advancement of the Neulbom Hub to enhance user choice
  - Establishment of education-care collaboration systems at central and regional levels
  - Development of a legal basis for operating Neulbom and after-school programs

# CONTENTS

(영문목차)

<b>Chapter 1.</b> Introduction .....	1
<b>Chapter 2.</b> Background of the Study .....	11
<b>Chapter 3.</b> Survey Findings .....	21
<b>Chapter 4.</b> Interview Findings .....	117
<b>Chapter 5.</b> Case Study Review .....	143
<b>Chapter 6.</b> Policy Options for Establishing the Neulbom Program Supply- Utilization System .....	155
<b>Chapter 7.</b> Summary and Recommendations .....	185



# CONTENTS

##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5
3절   연구방법 .....	7
4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10

## 제2장 연구의 배경

1절   늘봄학교 정책 추진 및 운영 현황 .....	13
2절   방과후 학교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7
3절   초등돌봄교실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9

## 제3장 설문조사 결과

1절   조사 개요 .....	23
2절   학부모 조사 결과 .....	29
3절   학교 담당자 조사 결과 .....	54
4절   공급기관 조사 결과 .....	76
5절   2차 조사 결과 (학부모 및 학교 담당자) .....	103
6절   소결 및 시사점 .....	110

## 제4장 면담조사 결과

1절   학부모 면담 .....	119
2절   학교 담당자 면담 결과 .....	132

3절 | 요약 및 결론 ..... 141

## 제5장 사례 조사

1절 | 바우처 운영 사례 ..... 145  
2절 | 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사례 ..... 149  
3절 | 요약 및 시사점 ..... 152

## 제6장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방안

1절 | 단위 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활용 제고 방안 ..... 157  
2절 | 대학·전문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방안 ..... 167  
3절 |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기반 조성 방안 ..... 177

## 제7장 요약 및 제언

1절 | 요약 ..... 187  
2절 |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189

## 참고문헌

## 부록

부록1 | 설문 조사 질문지 ..... 194  
부록2 | 면담 조사 질문지 ..... 210  
부록3 | 설문조사 문항별 기초분석 결과 ..... 214

# CONTENTS

## 표 목차

〈표 1〉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및 참여율	18
〈표 2〉 초·중·고 사교육 참여 실태	18
〈표 3〉 조사 대상 학교	23
〈표 4〉 조사틀(학부모)	25
〈표 5〉 조사틀(학교 담당자)	26
〈표 6〉 조사틀(공급기관)	28
〈표 7〉 학부모 응답자 특성	30
〈표 8〉 현재 자녀의 늘봄학교 참여 여부	31
〈표 9〉 자녀 돌봄 교육 방식	32
〈표 10〉 늘봄학교 대신 선택한 이유	33
〈표 11〉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이용 시간	34
〈표 12〉 현재 참여하고 있는 늘봄과정 유형	35
〈표 13〉 가장 선호하는 늘봄과정 유형	36
〈표 14〉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37
〈표 15〉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38
〈표 16〉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39
〈표 17〉 학교 편성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40
〈표 18〉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41
〈표 19〉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42
〈표 20〉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올라갔을 때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	43
〈표 21〉 현재 참여중이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 그 이유	44
〈표 22〉 늘봄학교 참여 참여 또는 참여 시간 확대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	45
〈표 23〉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식	46
〈표 24〉 학년군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에 대한 의견	47
〈표 25〉 초 3~4학년군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분야	48
〈표 26〉 초 5~6학년군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분야	49
〈표 27〉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의 관계	50
〈표 28〉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	51
〈표 29〉 자유 의견(학부모)	53
〈표 30〉 조사 대상 특성(학교 담당자)	55
〈표 31〉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방식	56
〈표 32〉 늘봄과정 유형별 프로그램 강좌 수(평균, 표준편차)	57
〈표 33〉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비율(평균, 표준편차)	58
〈표 34〉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늘봄학교 유형	59
〈표 35〉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60
〈표 36〉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	61

〈표 37〉 선택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	62
〈표 38〉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	63
〈표 39〉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	64
〈표 40〉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 .....	65
〈표 41〉 현재 수강료(강사료+교구비)가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부담 정도 .....	66
〈표 4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간 부족 정도 .....	67
〈표 43〉 공간 부족 시, 외부 공간 또는 협력 가능한 돌봄 기관 등을 활용할 의사 .....	68
〈표 44〉 외부 공간, 기관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 그 이유 .....	68
〈표 45〉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	69
〈표 46〉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	70
〈표 47〉 학교에서 향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고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분야 .....	71
〈표 48〉 대학·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 기관이 좀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 .....	72
〈표 49〉 자유 의견(학교 담당자) .....	75
〈표 50〉 조사대상 특성(공급기관 조사) .....	77
〈표 51〉 공급 중인 프로그램 분야 .....	79
〈표 52〉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 수 .....	80
〈표 53〉 프로그램 공급 학급 공급 규모 .....	81
〈표 54〉 기관이 보유한 소속 강사 자원 .....	82
〈표 55〉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보 방식 .....	83
〈표 56〉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확보 방법 .....	84
〈표 57〉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수준 .....	85
〈표 58〉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내용 .....	86
〈표 59〉 프로그램 학교 매칭 방법 .....	87
〈표 60〉 공급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 .....	88
〈표 61〉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	89
〈표 62〉 강사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90
〈표 63〉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91
〈표 64〉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 .....	92
〈표 65〉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	93
〈표 66〉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활용 촉진 요인 .....	94
〈표 67〉 소속 강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	95
〈표 68〉 학교밖 지역 돌봄센터 등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	95
〈표 69〉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공급 경험시 어려움 종류 .....	96
〈표 70〉 고학년 학생들에게 교과 프로그램 공급 의향 정도 .....	97
〈표 71〉 공급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	98
〈표 72〉 교과 프로그램 확대 방향 .....	99
〈표 73〉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 .....	100
〈표 74〉 자유 의견(공급기관) .....	102
〈표 75〉 조사틀(학부모) : 2차 조사 .....	103
〈표 76〉 조사틀(학교 담당자) : 2차 조사 .....	104
〈표 77〉 학부모면담 참여자 현황 .....	119
〈표 78〉 학교담당자 면담 참여자 현황 .....	132
〈표 79〉 교육복지거점학교 T 초등학교 운영 사례 .....	150

〈표 80〉 새 꿈 그라운드 운영 내용 .....	150
〈표 81〉 늘봄학교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 비교 .....	158
〈표 82〉 늘봄학교 맞춤형 운영 모델 유형별 특징 및 운영 전략 .....	161
〈표 83〉 늘봄학교 맞춤형 운영 모델 유형별 주요 운영 요소 .....	161
〈표 84〉 학교·지역 연계를 통한 늘봄학교 돌봄 운영 모델 비교 .....	164
〈표 85〉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프로그램 분야별 수요 및 개발 방향 .....	169
〈표 86〉 늘봄학교 공급 유형별 주관기관과 핵심 특성 .....	169
〈표 87〉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개발-공급-평가-환류 체계(안) .....	171
〈표 88〉 늘봄허브를 통한 프로그램 매칭 절차(안) .....	173
〈표 89〉 교육·돌봄 협의체별 운영관련 사항(안) .....	182

# CONTENTS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절차 및 추진 전략	7
[그림 2] 늘봄학교 한눈에 보기	15
[그림 3] 현재 자녀의 늘봄학교 참여 여부	31
[그림 4] 자녀 돌봄·교육 방식	32
[그림 5] 늘봄학교 대신 선택한 이유	33
[그림 6]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이용 시간	34
[그림 7] 현재 참여하고 있는 늘봄과정 유형	35
[그림 8] 가장 선호하는 늘봄과정 유형	36
[그림 9]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37
[그림 10]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38
[그림 11]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39
[그림 12] 학교 편성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40
[그림 13]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41
[그림 14]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42
[그림 15]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올라갔을 때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	43
[그림 16] 현재 참여중이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 그 이유	44
[그림 17] 늘봄학교 참여 참여 또는 참여 시간 확대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	45
[그림 18]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식	46
[그림 19] 학년군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에 대한 의견	47
[그림 20] 초 3~4학년군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분야	48
[그림 21] 초 5~6학년군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분야	49
[그림 22]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의 관계	50
[그림 23]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	51
[그림 24]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방식	57
[그림 25] 늘봄과정 유형별 프로그램 강좌 수	57
[그림 26]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비율	58
[그림 27]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늘봄학교 유형	59
[그림 28]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60
[그림 29]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	61
[그림 30] 선택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62
[그림 3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63
[그림 32]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64
[그림 33]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	65
[그림 34] 현재 수강료(강사료+교구비)가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부담 정도	66
[그림 35]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간 부족 정도	67

[그림 36]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	69
[그림 37]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	70
[그림 38] 학교에서 향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고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분야 .....	71
[그림 39] 대학·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 기관이 좀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 .....	72
[그림 40] 공급 중인 프로그램 분야 .....	79
[그림 41]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 수 .....	80
[그림 42] 프로그램 공급 학급 공급 규모 .....	81
[그림 43] 기관이 보유한 소속 강사 자원 .....	82
[그림 44]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보 방식 .....	83
[그림 45]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확보 방법 .....	84
[그림 46]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수준 .....	85
[그림 47]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내용 .....	86
[그림 48] 프로그램 학교 매칭 방법 .....	87
[그림 49] 공급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 .....	88
[그림 50]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	89
[그림 51] 강사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90
[그림 5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91
[그림 53]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 .....	92
[그림 54]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	93
[그림 55] 소속 강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	94
[그림 56] 학교밖 지역 돌봄센터 등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	95
[그림 57]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공급 경험시 어려움 종류 .....	96
[그림 58] 고학년 학생들에게 교과 프로그램 공급 의향 정도 .....	97
[그림 59] 공급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	98
[그림 60] 교과 프로그램 확대 방향 .....	99
[그림 61]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 .....	100
[그림 62]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부모 2차 조사) .....	105
[그림 63] 초 3학년 이후 참여 의사 (학부모 2차 조사) .....	105
[그림 64] 고학년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부모 2차 조사) .....	106
[그림 65] 초 3학년 학교 돌봄의 필요성 (학부모 2차 조사) .....	106
[그림 66] 초 3학년 이후 참여율 제고 방안 의견 (학부모 2차 조사) .....	107
[그림 67]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교 담당자 2차 조사) .....	108
[그림 68] 학교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개선 의견 .....	109
[그림 69] 초과 돌봄 수요 발생 시 지역 돌봄센터 이용에 도움이 되는 요인 .....	109
[그림 70]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한 국가바우처 사업 .....	148
[그림 71] 학교 여건에 따른 늘봄학교 운영 모델 유형화 .....	159
[그림 72] 다층적 초등 교육·돌봄 협의체 구성(안) .....	179



# 제 1 장

## 서론

1절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절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절 | 연구방법

4절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 심화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 현상의 영향은 교육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교육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제기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한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증가이다.

초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발달과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와 함께 아동의 생활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정규 교육과정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이후 특기·적성교육, 방과후교육, 돌봄교실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 2006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다(김수동 외, 2017). 또한 방과후학교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서비스 요구에 따라 특기적성 교육과 함께 초등돌봄교실이 중요한 기능으로 포함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20년 이상 정규교육과정이 포괄하지 못하는 교육과 돌봄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또 다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해진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방과후학교에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수강하기 어렵거나 돌봄교실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점은 교육과 희망자 전원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초등 방과후·돌봄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23년 방과후학교를 늘봄학교로 변경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23).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의미한다(교육부, 2025a). 늘봄학교 도입은 교육과 돌봄 이원체제를 보완하고자 하였고, 시범도입(2023)과 전면도입(2024)을 통해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늘봄지원실, 늘봄지원센터 등 학교 운영체계 구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늘봄허브 구축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늘봄학교로의 변화는 1-2학년의 빠른 하교 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하루 2시간씩 무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방과후학교는 1-2학년 대상의 맞춤형 교육,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선택형 교육,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인 선택형 돌봄 등으로 프로그램 유형이 세분화되었다(교육부, 2025a: 4).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방과 후 시간 자녀 돌봄의 사교육 의존도를 경감하기 위해서 단위학교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전문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다

각적으로 추진한 것도 이전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이후 늘봄학교 확대 및 완성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프로그램 질 제고, 운영체제의 안정화와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의 체계적 지원 등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1-2학년의 늘봄학교 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학년의 경우는 늘봄학교(기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고학년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고학년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고학년 수요와 필요에 맞는 양질의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한다.

현재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측면은 초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는 면이 있다.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은 늘봄허브 운영을 통해 교육 및 교육청, 대학, 교육기부, 범부처, 지자체(RISE 사업) 연계와 마을교육, 지역기관, 지역 산업체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늘봄허브 구축은 과거 개별 학교가 프로그램 확보를 해결하던 것에서 개인강사, 지역(마을), 대학·전문기관, 위탁 영리업체, 기업의 교육기부 등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의 프로그램을 학교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산출하였다.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안착해 감에 따라서 현재 1-2학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고학년에 맞게 확대 및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과 고학년으로 인한 수요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고학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 파악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공급 계획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늘봄허브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늘봄학교 확대와 완성을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수요-공급 연결 및 활용 체계 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전문기관 공급 체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서 연령, 지역, 학교특성에 따라 새로운 분야와 부족한 분야가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공급의 가능성 분석과 대학 및 전문기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또한 고학년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및 전문기관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제 단위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 및 전문기관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개발 공급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늘봄학교 참여 활성화는 초1-2 학년 학생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봄학교의 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늘봄학교의 고학년으로의 확대에 대비하여 초등 고학년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급·활용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활용 방안

- 늘봄학교 대상 확대(초 1~2→초 전학년)에 따라 고학년 학생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 학생 참여 촉진 요인 분석, 늘봄학교 참여율과 효과성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학교군과 저조한 학교군 간 비교 분석
-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식 제시
- 대학·전문기관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단위 학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제시
  - 학교 여건별 활용 방식, 우수사례의 운영 특성 분석
  - 단위학교 운영 표준 모델 제안

#### 나 대학·전문기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방안

- 학년별, 지역별로 프로그램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확대가 필요한 프로그램 분야, 수준, 내용 등 제시
  - 학부모, 학교 담당자 등 수요 조사를 통한 학년별, 지역별, 학교 특성별(규모, 여건 등) 수요 분석
- 대학·전문기관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원 활용 방안 제시
  - ※ 지역 내 전문기관, 영재교육원 등 우수한 교육 자원을 보유한 기관 등
  - 대학 및 전문기관 참여 요인 분석
  - 공급 기관의 참여 활성화 및 지역자원 활용 지원 방안(대학·전문기관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

#### 다 프로그램 공급·활용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한 전국(교육부), 지역(교육청), 공급기관 단위의 과제 및 품질 관리 체계 제시
- 중앙·지역에서 정부(지자체), 프로그램 공급 기관, 수요 기관(학교, 거점센터 등)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제시

- 늘봄학교 프로그램 활용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제시
  - 교육부(창의재단), 범부처, 지자체(RISE), 교육청 등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분석
  - 단위학교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 및 개선 방안 제시

##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대학 및 전문기관의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에 대한 것으로 하였다. 공급주체와 관련한 연구 범위는 수요·운영 측면에서는 대학 및 전문기관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하고, 공급측면에서는 대학 및 전문기관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 종류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뿐만 아니라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도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포괄하되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학년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었다. 다만 중,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연구 범위로 포함하지 않았고, 지역 연계(예를 들어, 마을학교 연계 등)는 다수의 학교가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급 프로그램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의 중심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 3절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초 1~2 맞춤형에서 고학년 선택형까지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전문기관 공급 체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제 분석, 데이터 및 자료 수집, 원인 및 과제 분석, 방안 도출 등의 연구 절차 및 추진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 절차 및 추진 전략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및 자료 수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 1 문헌 연구

- 관련 선행연구, 행정자료, 문서 자료 등을 수집 검토하여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과제 도출
- 학생들의 참여 촉진/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검토
  - 기존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의 방향 설정 및 학생 참여 촉진 요인 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의 시사점 도출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청, 지자체 RISE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행정문서 및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 자료 검토 및 분석
  - 다양한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 2 현황 및 실태 조사

- 초등학생 방과 후 시간 교육 수요, 현재 프로그램 수요자 만족도, 대학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늘봄학교 담당자 및 학부모, 공급 기관 담당자
  - 표집 설계 :
    - 학교 담당자 및 학부모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규모와 늘봄학교 참여율을 고려하여 250개 학교를 추출하고 그 학교 소속 늘봄학교 담당자와 2학년 재학생의 학부모를 표본으로 선정함
    - 공급 기관 담당자 : 한국과학창의재단 늘봄허브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대학, 공공기관, 민영리기관 등 전체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함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 조사 내용 :
    - 학교 담당자 및 학부모 : 늘봄학교 운영 현황(여건, 프로그램 현황, 참여율, 만족도 등), 신규 수요 분야(프로그램), 늘봄학교 참여 촉진 및 저해 요인, 이후 참여 의사, 고학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3장 설문조사 및 부록 대상별 설문지 참조)
    - 공급 기관 담당자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제공 현황, 프로그램 개발·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 향후 고학년 프로그램 개발·제공 의사, 고학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3장 설문조사 및 부록 대상별 설문지 참조)
- 분석 방법 : 기술통계 및 배경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참여 실태 분석
  - 문항별 기술통계 산출을 통한 현황 및 실태 분석
  - 문항별 응답의 학교, 학부모 배경 및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통한 늘봄학교 운영 방식, 늘봄학교 참여 실태, 향후 늘봄학교 개선 의견 등에 대한 영향 요인의 탐색

## 3 초점집단면담(FGI) 조사

- 초등학생 방과 후 시간 교육 수요와 이유, 현재 프로그램 수요자 만족도, 대학 및 전문기관의 공급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한 관계자 및 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담 시행
  - 면담 대상 : 학교 담당자(5명), 학부모(17명), 공급 기관 담당자(4명)
    - ※ 학부모는 초2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다른 학년도 일부 포함
  - 면담 방법 : 전화 및 온라인 화상회의
    - ※ 학교 담당자, 기관 담당자, 학부모 등 대상별로 별도 면담 실시
  - 면담 내용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신규 수요 분야(프로그램), 늘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필요 지원, 고학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늘봄학교공급 참여를 위한 조건과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분석 방법 : 면담 내용의 유목화를 통한 핵심주제 발굴, 늘봄학교운영(참여, 또는 공급) 어려움 발생 원인과 지원 방안에 대한 분석

## 4 사례 조사

- 초등학교 늘봄학교의 고학년 확대 과정에서 방과후 바우처, 외부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관련 사례 조사
  - 바우처 활용 사례
  - 학교에서 외부 프로그램 활용 사례
- 조사 방법 : 관련 연구물 검토, 온라인 자료 및 문헌 탐색, 관련 기관 관계자 면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해당 사례 선정 및 자료 수집
- 분석 내용: 바우처 및 외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상, 지원 내용, 운영 방식, 특이점, 성과와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별 정리 제시

## 5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전문가 자문진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정책 방향 및 개선 방안의 실효성 제고
- 연구 추진 전략 및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 늘봄학교 연구자 협의를 통해 연구설계 및 추진 방법 등 전반적인 연구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선행연구검토, 이론적 연구모형 설정 등에 대한 검토
- 수요 조사 및 실태 조사(사례 조사, 면담 조사 포함)의 적절성 확보
  - 학교 및 공급 기관의 현장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협의를 통해 조사의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 검토
  - 조사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 추출의 적합성 검토
- 교육부 및 교육청 정책과의 일관성 확보
  - 교육부 및 교육청 늘봄학교 담당자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 정책 추진 계획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 검토

## 4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이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년 학생(학부모)들의 필요와 요구, 학교 및 공급 기관의 의견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사업 운영에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공급 확대와 고학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늘봄학교 참여에 대한 촉진 또는 저해 요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늘봄학교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학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의 늘봄학교 참여도를 높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제에 대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대학 및 전문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체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공급·활용 체제 마련으로 품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 저하 현상을 예방하고 늘봄학교의 효과를 제고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장

# 연구의 배경

1절 | 늘봄학교 정책 추진 및 운영 현황

2절 | 방과후 학교 관련 선행연구 검토

3절 | 초등돌봄교실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절 늘봄학교 정책 추진 및 운영 현황

### 1 늘봄학교 추진 배경 및 경과

늘봄학교 정책은 기존의 초등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하여, 정규 수업 이후 시간대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초등교육 운영 체제이다(교육부, 2023).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구 증가, 돌봄 공백 문제의 구조화, 학교 기반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분리되어있던 방과후·돌봄 체계를 재구조화하려는 정책적 시도이다.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2023학년도 1학기에는 214개교, 2학기에는 459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돌봄 공백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면 도입되었다. 이후 2025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연차적 확대되었고, 초등학교 3~6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 형태로 기존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학년별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한 이원적 운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12월 설명 자료를 통해 2026년 늘봄학교의 전 학년 일괄 확대 대신 학년별 수요를 반영한 운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25b). 이는 2025년 기준 초등학교 3학년의 늘봄학교 내 돌봄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참여율 6.0%)한 것을 고려하여 단순 돌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고학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년의 학생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제공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에도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전담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교사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늘봄 운영이 학교 교육과 분리된 추가 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25b).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정책의 초기 목표가 일정 부분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 해소 효과가 나타났다. 2024년 1학기에는 2,963개교,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초1 학생 35만 4천 명 중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29만 6천 명 전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참여율이 83.4%로 나타났다(교육부, 2025b: 2).

운영 기반 측면에서도 일정한 확충이 이루어졌다. 각 학교에는 늘봄 행정 전담 인력이 총 9,536명 배치되었고, 41,409개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39,264명의 프로그램 강사가 확보되었

다(교육부, 2025b: 2). 이는 늘봄학교 운영을 기존 교원 중심 구조에서 분리하여, 행정·운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 설계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늘봄학교는 학교 내부 자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및 범부처 협력 체계를 통해 운영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2024년 2월 출범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자원이 발굴·공유되었으며, 학교별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여 늘봄학교를 위한 교육청(학교)-자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었다. 2024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총 582종의 프로그램과 6,802개의 학교 밖 공간이 늘봄학교 운영에 활용되었고, 다수의 시·도교육청(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교육청)이 공무원연금공단 늘봄학교 자원봉사 협약을 체결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였다(교육부, 2025b: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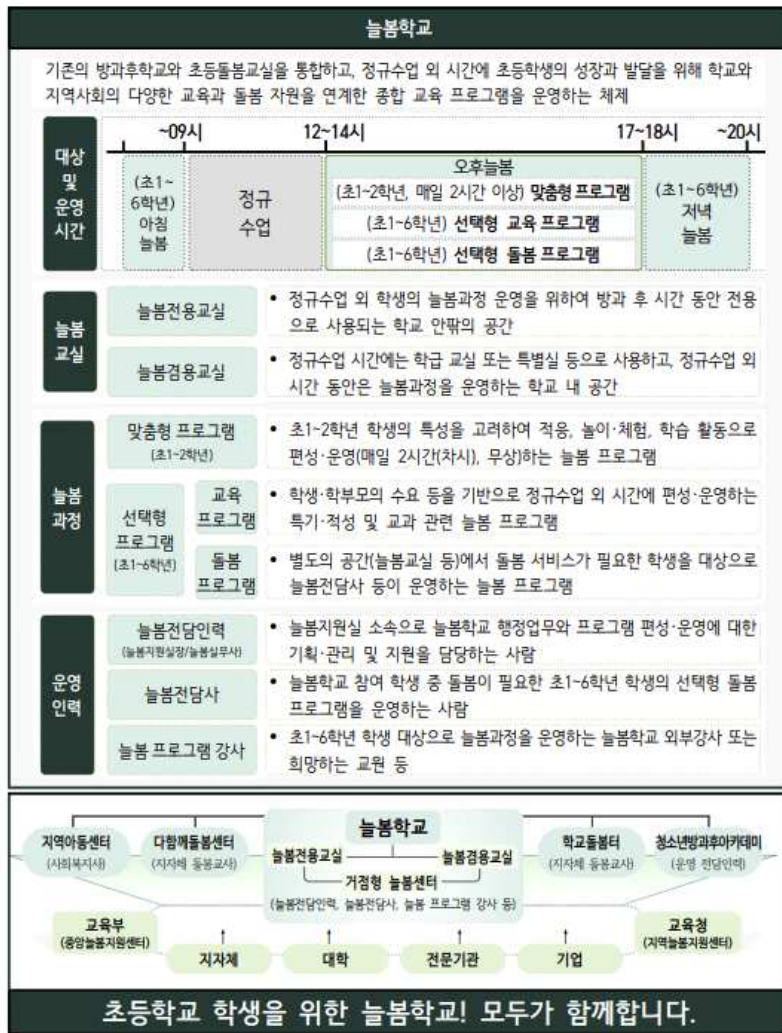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운영 성과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4년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학생의 87.4%, 학부모의 85.7%가 늘봄학교 운영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교육부, 2025b: 3). 또한 참여 학생의 92.7%가 2025년에도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요 기반이 일정 수준 확보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2]는 늘봄학교의 운영 구조를 운영 시간, 프로그램 구성, 인력 및 지역 연계 체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운영 시간 측면에서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전과 이후의 시간대를 모두 아우르며, 오전 돌봄-정규수업-오후 늘봄-저녁돌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늘봄학교가 단순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하루 생활 흐름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운영 체제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차시)씩 운영되는 무상 프로그램으로, 초1~2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선택형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돌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한 수요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지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 인력 측면에서는 늘봄지원실 소속 전담인력인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사가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초1~6학년을 대상으로 늘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내부의 희망 교원과 외부 강사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늘봄학교 운영을 교사의 추가 업무로 전가하지 않고, 별도의 전담 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나아가 늘봄학교는 학교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 대학, 전문기관, 기업 등이 늘봄 프로그램의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는 외부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기반 협력과 외부 자원 연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교육부(2025a),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그림 2] 늘봄학교 한눈에 보기

## 2 2025년 늘봄학교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2025년 늘봄학교 정책은 ‘정규 수업 외 새로운 초등교육 체제로서의 늘봄학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늘봄학교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질 높은 종합 교육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단순한 돌봄 확대를 넘어, 교육적 질과 운영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2025년 늘봄학교의 주요 추진 과제는 네 가지로 제시되었다(교육부, 2025b). 첫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집중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저학년 돌봄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공급 기반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넷째, 늘봄학교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 대학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는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한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와의 매칭을 지원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 대학이 함께 지역의 학생·학부모·학교가 희망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16개 부·처·청이 연중 총 76종의 프로그램을 전국 약 4,300개 학교에 보급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교육부, 2025b: 7).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대학,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농·산·어촌 등 프로그램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중점 발굴·지원하고 있다. 충남의 대학 연계 늘봄캠프(문화예술체육·AI 등 프로그램 제공), 전북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농업기술원 등), 전남의 다도해국립공원 연계 주말 늘봄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가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25b: 7).

아울러 2025년 2월부터 늘봄 프로그램의 상시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늘봄허브’가 본격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관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등록·제공할 수 있으며, 학교는 상시적으로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프로그램(강사) 풀을 탑재하거나 기존 매칭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늘봄허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 수업 이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비용 부담 없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2절 방과후 학교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 방과후 학교 정책 흐름

제도 도입 초기의 기본적인 목표인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이었다. 현재에 이르러 돌봄과 같은 복지 서비스로 확대되어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이희현 외, 2022).

방과후학교 정책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1997년 ‘과의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하나로 방과후 교육활동이 도입되면서 정책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교육부, 2025a). 이후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교육 경감 기조 속에서 점차 제도화되었고, 2004년에는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가 전국 모든 학교에 일제 도입되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유승민, 2025). 확산 과정에서 2007년 17개 광역, 기초 단위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했고, 2011년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본 지침과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표준화와 질 관리 방향을 강화했다. 이후 2016년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운영 개선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다.

최근에는 돌봄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방과후학교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2019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계획(안)’의 일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안이 제시되면서, 방과후학교는 단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넘어 돌봄 체계와 접점을 갖는 프로그램 공급 기반으로서 재구성되는 방향을 띠게 되었다.

### 2 방과후 학교 성과 분석

방과후 학교 운영 측면에서는 2024년 기준 전체 11,302교(95.5%)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은 6,168교(99.8%)로 운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4). 연도별로는 2019년 98.6%에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67.7%로 크게 감소했다가 2021년 89.9%, 2022년 97.3%, 2023년 97.0%로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 측면에서는 2024년 기준 전체 참여 학생이 197.2만 명(38.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 참여율이 52.9%로 가장 높고, 중학교는 20.4%, 고등학교는 29.0%로 상대적으로 낮다. 연도별 참여율도 2019년 48.6%에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19.8%로 급감한 뒤 2023년 39.5%까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참여율은 <표 1>과 같다.

〈표 1〉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및 참여율

구분	초	중	고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운영학교수 (교)	6,168	3,074	2,060	11,302	11,688	8,038	10,739	11,622	11,459
비율 (%)	99.8	93.9	86.6	95.5	98.6	67.7	89.9	97.3	97.0
참여학생수 (천명)	1,321	273	379	1,972	2,648	1,051	1,534	1,811	2,059
비율 (%)	52.9	20.4	29.0	38.4	48.6	19.8	28.9	34.6	39.5

출처: 교육부(202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정책 도입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교육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정책 운영의 성패가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방과후학교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운영될수록 사교육 대체 효과가 커져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프로그램의 질, 접근성, 운영 체계가 미흡할 경우 사교육 의존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표 2〉는 2018~2024년 초·중·고 사교육 참여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29.1만 원에서 2024년 47.4만 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20년은 제외하면 2018년 72.8%에서 2024년 80.0%로 전반적 상승 추세를 보인다. 주당 참여시간 역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8년 기준 6.2시간에서 2024년 9.4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사교육 가운데 일반교과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2023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18년 53.4%에서 2024년 64.9%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통계청, 2025).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시기의 일시적 위축 이후 사교육이 빠르게 확대되고, 특히 교과 중심 사교육 수요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려면 단순 운영 확대를 넘어 교과, 진로 등 수요가 집중되는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품질,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공급 기반을 보강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2〉 초·중·고 사교육 참여 실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29.1	32.1	30.2	36.7	41.0	43.4	47.4
사교육 참여율(%)	72.8	74.8	67.1	75.5	78.3	78.5	80.0
주당 참여시간(시간)	6.2	8.7	7.9	8.9	9.2	9.3	9.4
일반교과 비중(%)	53.4	56.7	52.7	61.1	63.2	62.9	64.9

출처 : 통계청(2018-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 3절 초등돌봄교실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 초등돌봄교실 추진 배경 및 정책 흐름

핵가족화의 심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초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확대되었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4). 특히 초등돌봄 공백은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활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으며, 이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초등 돌봄과 관련된 정책이 논의되었고 이후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도입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확대와 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 흐름이 전개되었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2004년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을 발표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9년에는 초등보육교실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이 시범 도입되며 돌봄 시간 확대가 추진되었고, 2010년에는 초등보육교실의 명칭을 ‘초등돌봄교실’로 변경하면서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2013년에는 학교 기반 돌봄의 내실화를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모델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동시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학교-지자체-정부 간 연계 기반이 강화되었다. 201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이 확대되며 저학년 중심의 보편적 접근이 한층 뚜렷해졌다. 이후 2017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확정되고, 2018년 온종일 돌봄정책이 발표되면서 돌봄을 학교 내부 사업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해야 하는 공공 인프라로 재정 의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긴급돌봄이 운영되며 위기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이 재확인되었고, 2021년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이 발표되면서 운영 기준과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 및 발전해 왔다.

#### 2 초등돌봄교실 성과 분석

2023년 3월 기준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약 1만 5천 명 규모의 대기자가 발생했으며, 대기자의 97.9%가 초등학교 1, 2학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의 45.1%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등 시도별로 대기자 발생 편차가 커 지역별 여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다만 이후 대기 해소 노력이 진행되면서 2023년 4월 기준 대기자는 8,700명으로 감소하였다(김지애, 2023.5.7.).

한편 초등돌봄에 대한 학부모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초등돌봄 희망 비율은

2019년 30.2%에서 2021년 45.2%, 2023년 49.5%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기관 유형에서도 초등돌봄교실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은 13~16% 수준).

초등돌봄교실 이용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교육부 설문(학부모 22만 명 대상)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부모의 96.1%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해, 높은 선호와 함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인된다(한병규, 2023.5.8.) 이는 초등돌봄교실이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돌봄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지역별 공급 역량 차이에 따른 대기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3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공급 사례

#### 가 지역대학 연계형(대학 인프라 활용)

지역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체능, 심리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학생 멘토링을 학교 현장에 직접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기교육청-경인교대 협력 사례에서는 경인교대 재학생이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AI 튜터 등을 활용해 방과후 학생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지원을 운영하였으며, 학교는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 다양성과 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 나 민관(재단) 협력형(기업·대학 참여 기반)

기업, 대학 등이 교육청과 지자체 등과 함께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협력 구조를 구축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델이다. 실제 운영 사례인 ‘SK 행복한학교’는 SK가 교육청·지자체 등과 설립한 재단법인 형태로, 서울·부산·대구·울산 등 4개 지역에서 지역 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단독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비교적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 검증기관 풀 연계형(진로체험기관 매칭)

초등학생 진로교육, 체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검증된 진로체험기관을 늘봄학교와 연계해 강사 및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223개 진로체험운영지원센터가 진로체험기관을 검증·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검증된 기관 24,078개와 프로그램 178,094개가 확보되어 있어 학교는 신뢰도 있는 공급자 풀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프로그램 품질을 담보하면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 설문조사 결과

1절 | 조사 개요

2절 | 학부모 조사 결과

3절 | 학교 담당자 조사 결과

4절 | 공급기관 조사 결과

5절 | 2차 조사 결과 (학부모 및 학교 담당자)

6절 | 소결 및 시사점



# 1절 조사 개요

## 1 학부모 및 학교 담당자 조사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전반적 품질과 운영 실태, 그리고 강사 지원 체계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인식을 확인하고, 개선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있다.

조사 대상은 <표 3>과 같이 전국 17개 교육청을 기준으로 교육청별 10~22개교를 배정하여 총 256개교를 선정하였다. 표본은 초 1-2 맞춤형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평균보다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를 동일하게 각 128개교씩 구성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학교 규모(대·중·소)와 지역 유형(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고려해 분포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으며, 참여율이 높은 학교는 대규모 28개교, 중규모 46개교, 소규모 54개교로 총 128개교로 구성되었다. 참여율이 낮은 학교 역시 대규모 43개교, 중규모 46개교, 소규모 39개교로 총 128개교로 구성되어 전체 256개교 표본을 형성하였다. 또한 괄호로 표시된 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 추진센터에서 추진하는 대학 또는 범부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학교 수를 의미하며, 전체 256개교 중 102개교가 해당 연계 운영 학교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참여율이 높은 학교 집단에서는 43개교, 참여율이 낮은 학교 집단에서는 59개교가 연계 운영 학교로 집계되었다.

<표 3> 조사 대상 학교

학교 규모		대	중	소	합계
참여율이 높은 학교	대도시	14 (8)	21 (2)	20 (7)	55 (17)
	중소 도시	10 (2)	15 (5)	14 (5)	39 (12)
	농어촌	4 (0)	10 (5)	20 (9)	34 (14)
	소계	28 (10)	46 (12)	54 (21)	128 (43)
참여율이 낮은 학교	대도시	17 (6)	20 (8)	18 (9)	55 (23)
	중소 도시	21 (10)	12 (6)	8 (5)	41 (21)
	농어촌	5 (1)	14 (8)	13 (6)	32 (15)
	소계	43 (17)	46 (22)	39 (20)	128 (59)
합계	대도시	31 (14)	41 (10)	38 (16)	110 (40)
	중소 도시	31 (12)	27 (11)	22 (10)	80 (33)
	농어촌	9 (1)	24 (13)	33 (15)	66 (29)
	합계	71 (27)	92 (34)	93 (41)	256 (102)

※ ( ) : 사업추진센터 프로그램 연계 운영 학교의 수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11일(금)부터 8월 8일(금)까지 시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부모 설문은 표집 학교의 초2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참여를 안내하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하여 참여 의사를 기반으로 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학교 담당자 설문은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등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하는 1명이 대표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제 조사 참여 인원은 학교 담당자 234명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2,715명으로 나타났다. 학교 담당자는 216개교에서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학교에서 여러 번 응답이 있는 경우 중복되는 담당자를 삭제하여 최종 분석에서는 216개교, 216명만으로서 하였다. 학부모 조사는 228개교, 2,71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부모 조사는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의 이용 실태와 프로그램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학년으로의 확대 운영에 대한 수요와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의 돌봄 여건, 늘봄학교 참여 양상, 프로그램의 질적 특성, 사교육과의 관계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총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가정 여건 및 이용 행태 영역에서는 맞벌이 여부 등 가정의 자녀 돌봄 환경과 거주 지역의 학원 밀집도, 정규수업 종료 이후 자녀가 이용하는 돌봄·교육 서비스의 유형을 중심으로 가정 배경 변인을 파악하였다.

둘째, 늘봄학교 참여 현황 영역에서는 늘봄학교 참여 여부와 미참여 시 대체 돌봄 방식 및 그 사유를 조사하고, 정규수업 이후 늘봄학교 평균 이용 시간, 참여 중인 늘봄학교 과정의 유형과 선호도, 해당 유형 선택 이유 등을 통해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만족도 및 품질 영역에서는 현재 참여 중인 프로그램의 세부 분야를 확인하고,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내용, 교육 효과, 강사 전문성 등), 그리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넷째, 고학년 늘봄학교 확대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진급 시 늘봄학교 참여 의향과 참여 중단을 고려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보완 사항과 고학년 늘봄학교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또한 학년군별 프로그램 차별화의 필요성과 확대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섯째, 사교육 연계성 영역에서는 사교육과 늘봄학교 간의 관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현재 사교육에서 교육 중이거나 향후 희망하는 교육 분야를 파악하여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 역할 분담 및 보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 개선 및 정책 제언 영역에서는 자유 응답 문항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정성적 개선 요구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4〉 조사틀(학부모)

조사 영역	조사 항목
가정 여건 및 이용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돌봄 상황(맞벌이 여부 등)</li> <li>• 거주 지역 학원 밀집도</li> <li>• 정규수업 후 자녀 돌봄·교육 서비스 참여 유형</li> </ul>
늘봄학교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학교 참여 여부 및 미참여 시 돌봄 방식(사유 포함)</li> <li>•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평균 이용 시간</li> <li>• 참여 늘봄 과정의 유형 및 선호도</li> <li>• 해당 유형 선택 이유</li> </ul>
프로그램 만족도 및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중인 프로그램 세부 분야</li> <li>•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li> <li>• 프로그램 참여 결정 시 중요 요소(내용, 효과, 강사 등)</li> <li>• 프로그램 개선 필요 사항(수요 반영, 내용, 비용 등)</li> </ul>
고학년 늘봄학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3 진급 시 늘봄학교 참여 의향 및 참여 중단 고려 사유</li> <li>• 지속 참여를 위한 보완 사항(특기적성 확대 등)</li> <li>• 고학년 늘봄학교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li> <li>• 학년군별 차별화 필요성 및 확대 분야</li> </ul>
사교육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육과 늘봄학교의 관계 인식</li> <li>• 사교육에서 교육 중이거나 희망하는 분야</li> </ul>
운영 개선 및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의견을 통한 정성적 개선 요구 수렴</li> </ul>

다음으로 학교 담당자 조사는 늘봄학교 운영의 구조적 여건과 프로그램 편성·운영 실태를 학교 차원에서 분석하고, 강사 활용 방식, 운영상의 애로 요인, 고학년 확대 전략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 환경, 프로그램 구성, 인적 자원 활용, 운영 제약 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총 일곱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학교 여건 및 환경 영역에서는 늘봄학교 운영 인력 구조를 중심으로 편성 책임자의 직위와 실장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 학교 규모, 학원 밀집도 등 학교가 처한 환경적 여건을 조사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영역에서는 학부모 수요 조사 방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늘봄학교의 운영 규모를 유형별 강좌 수와 참여 학생 비율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및 그 선택 이유를 분석하였다.

셋째, 강사 활용 및 관리 영역에서는 학교의 강사 활용 방식 현황을 조사하고, 강사 활용 방식별 선호도와 그 선호 이유를 파악하여 학교 현장의 인적 자원 운영 특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분야 및 선호 영역에서는 맞춤형 및 선택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호되는 프로그램 분야를 조사하고,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편성상의 제약 요인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운영 애로사항 영역에서는 수강료 부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학교 내 공간 부족 정도와 외부 공간 또는 외부 기관 활용에 대한 의사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외부 공간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약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고학년 확대 전략 영역에서는 고학년 늘봄학교 참여율 제고를 위한 핵심 요인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조사하고,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확대 시 희망하는 프로그램 분야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 개선 및 정책 제언 영역에서는 자유 의견 문항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정성적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5〉 조사틀(학교 담당자)

조사 영역	조사 항목
학교 여건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인력 구조: 편성 책임자 직위, 실장 배치 현황</li> <li>• 학교 환경: 지역 특성, 학교 규모, 학원 밀집도 등</li> </ul>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수요 조사 방식 인식</li> <li>• 운영 규모: 유형별 강좌 수 및 참여 학생 비율</li> <li>• 선호도: 유형별 학생·학부모 선호도 및 그 이유</li> </ul>
강사 활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강사 활용 방식 현황</li> <li>• 강사 활용 방식별 선호도 및 선호 이유</li> </ul>
프로그램 분야 및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및 선택형 프로그램별 선호 분야</li> <li>• 편성 제약: 선호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li> </ul>
운영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강료 부담 정도 인식</li> <li>• 공간 문제: 공간 부족 정도 및 외부 공간·기관 활용 의사</li> <li>• 외부 공간 활용 희망 시 제약 요인</li> </ul>
고학년 확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학년 참여율 제고를 위한 핵심 요인 및 정책 지원 방안</li> <li>• 고학년 대상 확대 희망 분야</li> </ul>
운영 개선 및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의견을 통한 정성적 개선 요구 수렴</li> </ul>

## 2 공급기관 조사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공급 실태(기관 여건, 프로그램 개발·확보 방식, 강사 확보 및 연수, 매칭 방식, 운영상의 애로 등)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고학년 프로그램 확대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요를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실태 및 개선 방향 조사」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25년 9월 2일(화)부터 9월 19일(금)까지이었다.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조사 대상은 창의재단, 범부처 사업, 교육청 위탁, RISE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사업에 참여 중인 프로그램 공급기관의 공급 책임자로 총 11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기관의 운영 여건과 프로그램 제공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 매칭 과정과 단계별 운영 애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고학년 확대 및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의 기본 여건, 프로그램 공급 구조, 학교 연계 방식, 운영 과정상의 제약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총 일곱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기본 정보 및 기관 여건 영역에서는

기관의 소재지와 참여 사업 유형(창의재단, RISE 등), 기관 유형(대학, 공공, 민간 등)과 초등 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 별도의 전담 조직 구성 여부, 행정 인력과 전문가 인력으로 구분한 조직 인력 규모를 조사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공급 현황 영역에서는 체육, 문화예술 등 기관이 공급하는 프로그램 분야와 프로그램 종 수를 파악하고, 실제 공급 학급 규모 및 보유 강사 자원 규모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 방식과 강사 확보·선발 방법, 강사 사전 교육(연수)의 수준과 시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품질 관리 체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교 매칭 및 운영 수준 영역에서는 늘봄허브, 교육청 협력 등 학교 매칭 방식을 조사하고, 당초 계획 대비 실제 학교 활용도의 충족 여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단계별 운영 애로사항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의 수요 파악의 어려움, 전문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조사하고, 모집·매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외 지역 강사 부족, 매칭 학교 확보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의 학생 관리, 학교와의 소통, 공간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고학년 확대 및 품질 제고 영역에서는 고학년 늘봄학교 참여율 제고를 위한 핵심 요인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조사하고,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수강료 단가 인상 등), 기관 프로그램 활용 촉진 요인(홍보 강화, 인지도 제고 등), 강사 운영 역량 제고 방식(강사료 인상, 연수 강화 등)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외부 기관 연계 및 교과 확대 영역에서는 학교 밖 지역 돌봄센터 운영 경험과 프로그램 공급 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고학년 대상 교과 프로그램(영어·수학·과학) 공급 확대 의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고, 확대 시 바람직한 운영 방향(놀이 연계형 운영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영 개선 및 정책 제언 영역에서는 자유 의견 문항을 통해 기관 관점에서의 정성적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늘봄학교 운영 체계 개선과 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6〉 조사틀(공급기관)

조사 영역	조사 항목
기본 정보 및 기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및 참여 사업 유형(창의재단, RISE 등)</li> <li>• 기관 유형(대학, 공공, 민간 등) 및 초등교육 이해도</li> <li>• 사업 참여 기간 및 별도 전담 조직 구성 여부</li> <li>• 조직 인력 규모 (행정 인력 vs 전문가 인력 구분)</li> </ul>
프로그램 공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 분야(체육, 문화예술 등) 및 공급 프로그램 종 수</li> <li>• 실제 공급 학급 규모 및 보유 강사 자원 규모</li> <li>• 프로그램 개발 방식 및 강사 확보/선발 방법</li> <li>• 강사 사전 교육(연수) 수준(시간) 및 교육 내용</li> </ul>
학교 매칭 및 운영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매칭 방식 (늘봄허브, 교육청 협력 등)</li> <li>• 당초 계획 대비 실제 학교 활용도(충족 여부)</li> </ul>
단계별 운영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단계: 수요 파악 어려움, 전문가 부족 등</li> <li>• 모집·매칭 단계: 소외 지역 강사 부족, 매칭 학교 부족 등</li> <li>• 운영 단계: 학생 관리, 학교 소통, 인프라(공간) 부족 등</li> </ul>
고학년 확대 및 품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학년 참여율 제고 핵심 요인 (교과 과정 확대 등)</li> <li>•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법 (수강료 단가 인상 등)</li> <li>• 기관 프로그램 활용 촉진 요인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등)</li> <li>• 강사 운영 역량 제고 방식 (강사료 인상, 연수 강화 등)</li> </ul>
외부 기관 연계 및 교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지역 돌봄센터 운영 경험 및 공급 시 애로사항</li> <li>• 고학년 교과 프로그램(영·수·과) 공급 확대 의향</li> <li>• 공급 미희망 사유 및 확대 시 운영 방향(놀이 연계 등)</li> </ul>
운영 개선 및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의견을 통한 정성적 개선 요구 수렴</li> </ul>

## 2절 학부모 조사 결과

### 1 조사 대상 특성

학부모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응답자는 총 2,7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대구(10.0%), 경북(8.1%), 부산(7.3%), 경기(7.0%), 전남(7.0%)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울산(2.8%), 충남(3.4%), 대전(3.9%) 등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표본 구성이 확인되었다.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부모 모두 돌봄이 어려워 학원·돌봄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56.6%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부모 중 1인이 돌봄 가능한 경우는 35.0%, 조부모 등 가족 지원을 받는 경우는 8.4%로 나타나, 방과 후 돌봄 수요가 전반적으로 크다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참여 유형(복수응답)에서는 늘봄학교(44.3%)가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38.3%)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정 돌봄·교육(13.5%)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외부 돌봄기관(2.8%)과 기타(1.1%)는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방과 후 시간에 공교육 기반 프로그램(늘봄학교)과 사교육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근 학원가 밀집도는 '보통'(38.7%)과 '낮음'(31.8%)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높음'(22.5%)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확인되었다. '없음'(6.9%)은 소수로 나타나, 다수 응답자 환경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교육 접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학부모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2,715	100.0
지역	서울	183	6.7
	부산	199	7.3
	대구	272	10.0
	인천	153	5.6
	광주	167	6.2
	대전	107	3.9
	울산	76	2.8
	세종	112	4.1
	경기	190	7.0
	강원	144	5.3
	충북	123	4.5
	충남	92	3.4
	전북	132	4.9
	전남	190	7.0
	경북	220	8.1
	경남	179	6.6
	제주	176	6.5
	자녀 돌봄 상황	맞벌이 가정 등으로 부모 모두 돌봄 불가(학원이나 돌봄기관 이용 필요)	1,536
맞벌이 가정 등이지만 조부모 등이 자녀 돌봄 지원		229	8.4
부모 중 1인이 돌봄 가능		950	35.0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자녀의 돌봄·교육 참여 유형	늘봄학교	2,093	44.3
	가정 돌봄·교육	637	13.5
	사교육 참여	1,813	38.3
	외부 돌봄기관	133	2.8
	기타	53	1.1

		사례수(명)	비율(%)
전체		2,715	100.0
인근 학원가 밀집도	없음	188	6.9
	밀집도 낮음	864	31.8
	보통	1,051	38.7
	밀집도 높음	612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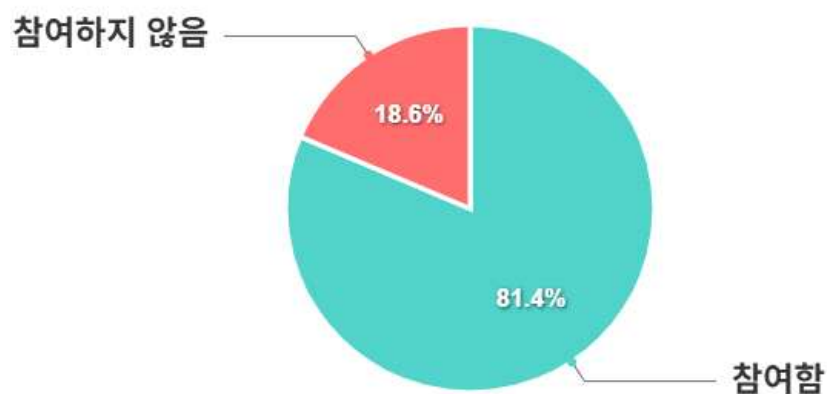
## 2 분석 결과

### 1) 현재 자녀의 늘봄학교 참여 여부

현재 자녀의 늘봄학교 참여 여부를 보면, 전체 2,483명 중 참여(예)가 2,020명(8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미참여(아니오)는 463명(18.6%)으로 나타났다.

〈표 8〉 현재 자녀의 늘봄학교 참여 여부

구분	현재 자녀의 늘봄학교 참여 여부	
	N	%
예	2,020	81.4
아니오	463	18.6
계	2,4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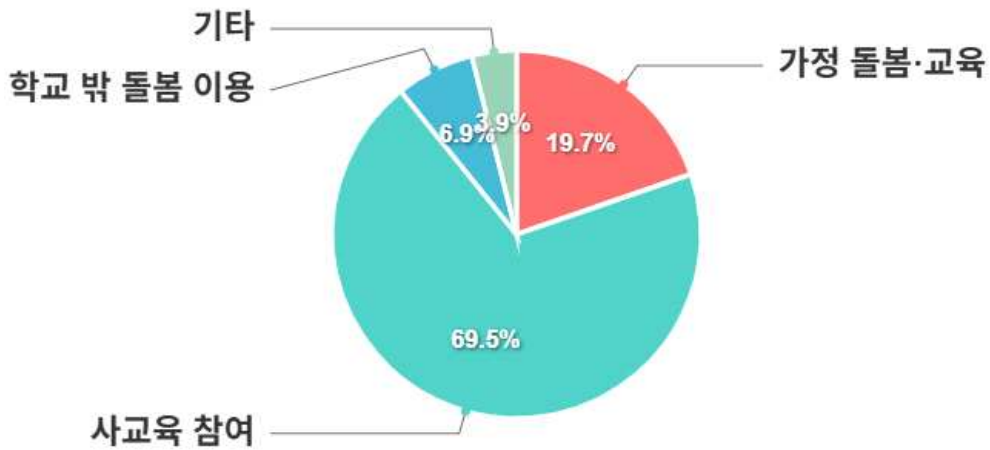
[그림 3] 현재 자녀의 늘봄학교 참여 여부

## 2) 자녀 돌봄·교육 방식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 돌봄·교육 방식을 보면, 사교육 참여가 322명(69.5%)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돌봄·교육이 91명(19.7%)으로 그다음이었다. 학교 밖 돌봄 이용은 32명(6.9%), 기타는 18명(3.9%)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9〉 자녀 돌봄·교육 방식

구분	자녀 돌봄·교육 방식	
	N	%
가정 돌봄·교육	91	19.7
사교육 참여	322	69.5
학교 밖 돌봄 이용	32	6.9
기타	18	3.9
계	4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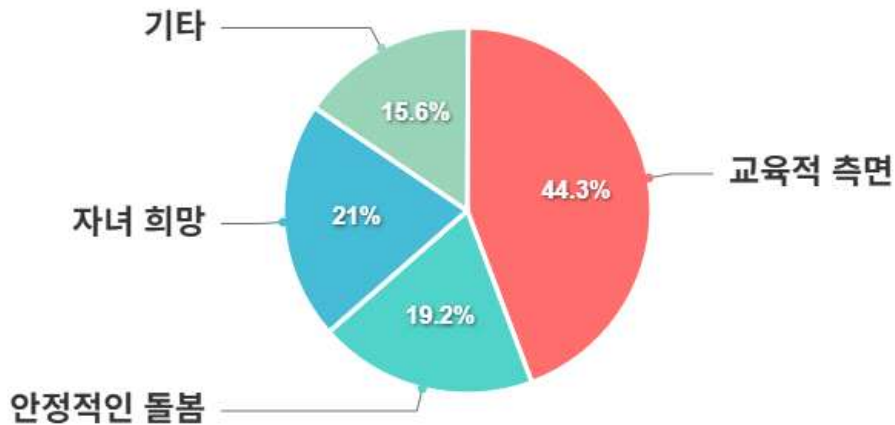
[그림 4] 자녀 돌봄·교육 방식

### 3) 늘봄학교 대신 선택한 이유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선택한 이유로는 교육적 측면이 205명(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희망이 97명(21.0%), 안정적인 돌봄이 89명(19.2%) 순이었다. 기타 이유는 72명(15.6%)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늘봄학교 대신 선택한 이유

구분	늘봄학교 대신 선택한 이유	
	N	%
교육적 측면	205	44.3
안정적인 돌봄	89	19.2
자녀 희망	97	21.0
기타	72	15.6
계	4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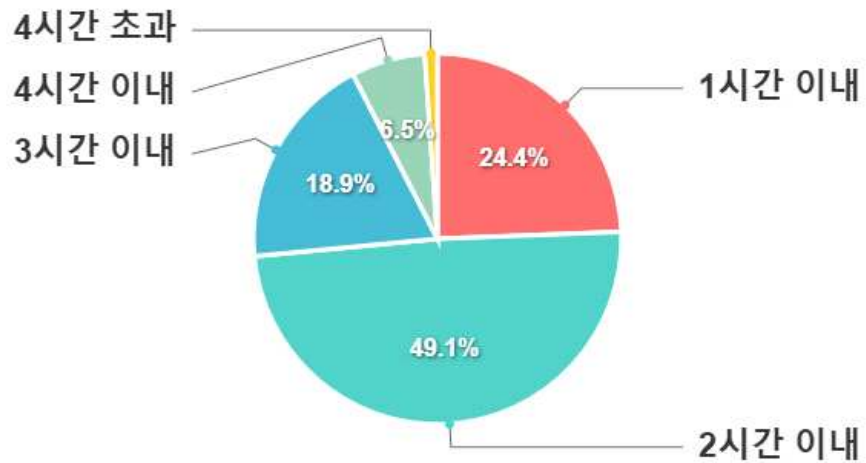
[그림 5] 늘봄학교 대신 선택한 이유

#### 4)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이용 시간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이용 시간을 보면, 2시간 이내가 991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내가 492명(24.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3시간 이내는 382명(18.9%)이었으며, 4시간 이내는 132명(6.5%), 4시간 초과는 23명(1.1%)으로 소수에 그쳤다.

〈표 11〉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이용 시간

구분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이용 시간	
	N	%
1시간 이내	492	24.4
2시간 이내	991	49.1
3시간 이내	382	18.9
4시간 이내	132	6.5
4시간 초과	23	1.1
계	2,0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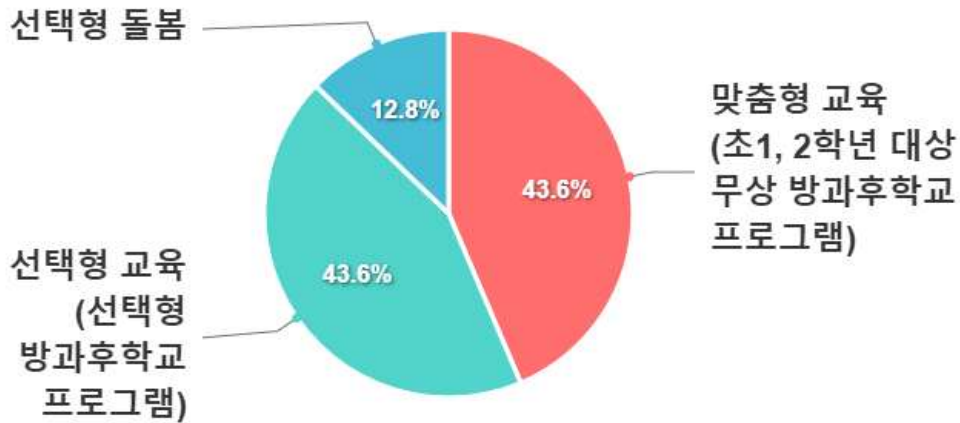
[그림 6]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이용 시간

### 5) 현재 참여하고 있는 늘봄과정 유형

다음은 늘봄학교 참여 유형을 조사한 결과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늘봄학교의 3가지 유형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응답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고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맞춤형 교육과 선택형 교육이 각각 1,479명(응답비율 43.6%, 사례비율 67.3%)과 1,481명(응답비율 43.6%, 사례비율 67.4%)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형 돌봄은 43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응답 기준 비율로는 12.8%, 응답자 기준으로는 19.8% 정도가 이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사례비율이 154.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형 수는 평균 1.5개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현재 참여하고 있는 늘봄과정 유형

구분	N	응답비율 (%)	사례비율 (%)
맞춤형 교육 (초 1, 2학년 대상 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479	43.6	67.3
선택형 교육(선택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481	43.6	67.4
선택형 돌봄	435	12.8	19.8
계	3,395	100.0	1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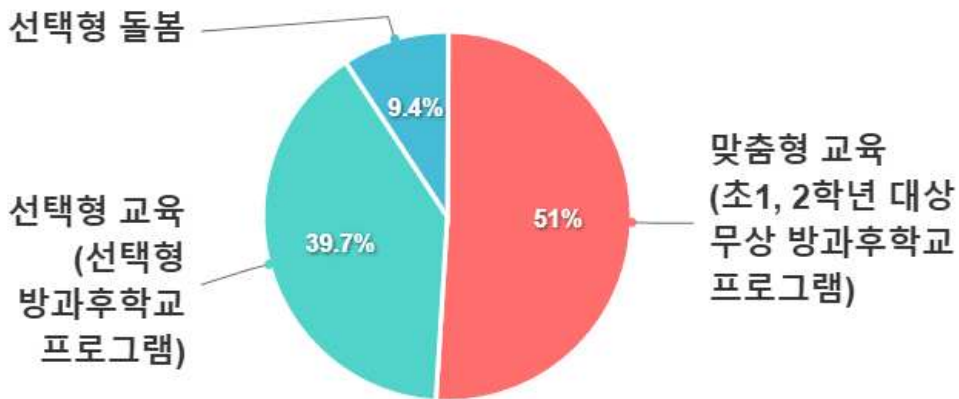
[그림 7] 현재 참여하고 있는 늘봄과정 유형

## 6) 가장 선호하는 늘봄과정 유형

가장 선호하는 늘봄과정 유형으로는 맞춤형 교육이 1,030명(5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택형 교육이 801명(39.7%)으로 뒤를 이었다. 선택형 돌봄은 189명(9.4%)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13〉 가장 선호하는 늘봄과정 유형

구분	가장 선호하는 늘봄과정 유형	
	N	%
맞춤형 교육 (초 1,2학년 대상 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030	51.0
선택형 교육(선택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801	39.7
선택형 돌봄	189	9.4
계	2,0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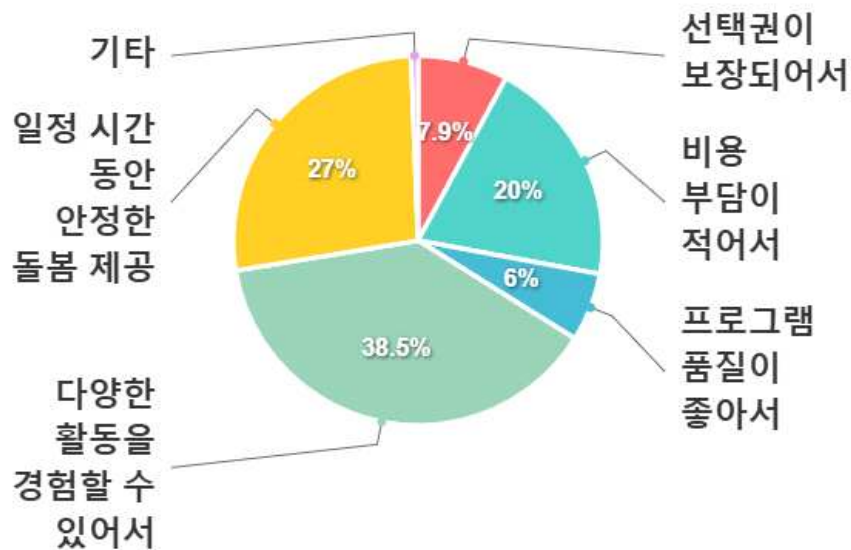
[그림 8] 가장 선호하는 늘봄과정 유형

### 7)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해당 늘봄과정 유형을 선택한 이유로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가 777명(38.5%)으로 가장 높았고, 일정 시간 동안 확실한 돌봄 제공이 546명(27.0%), 비용 부담이 적어서가 403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선택권 보장(7.9%), 프로그램 품질(6.0%), 기타(0.6%)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14〉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구분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N	%
선택권이 보장되어서	159	7.9
비용 부담이 적어서	403	20.0
프로그램 품질이 높아서	122	6.0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777	38.5
일정 시간동안 확실한 돌봄 제공	546	27.0
기타	13	0.6
계	2,0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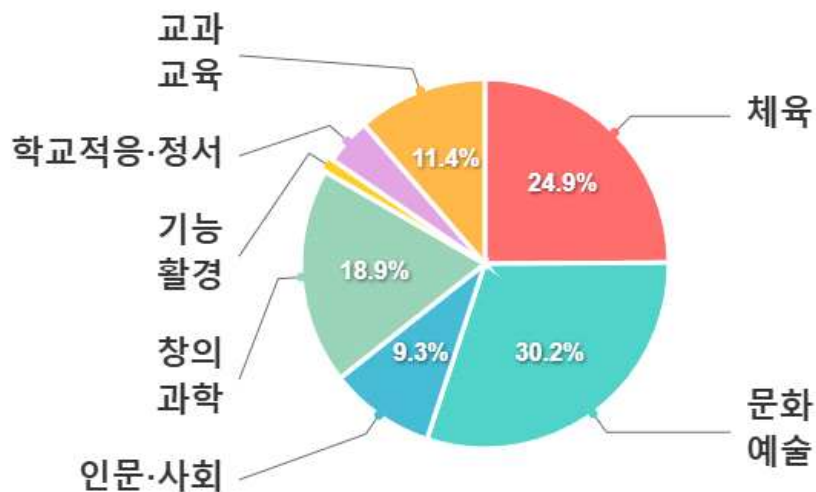
[그림 9]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 8)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다음은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영역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문항은 여러 프로그램 동시에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문항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이 1,228명(응답비율 30.2%, 사례비율 55.9%)으로 가장 높았고, 체육이 1,013명(응답비율 24.9%, 사례비율 46.1%)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창의과학이 767명(응답비율 18.9%, 사례비율 34.9%), 교과교육이 464명(응답비율 11.4%, 사례비율 2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사례비율이 184.9%로 나타나서 학생들이 평균 1.8 개 정도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5〉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구분	N	응답비율 (%)	사례비율 (%)
체육	1,013	24.9	46.1
문화예술	1,228	30.2	55.9
인문·사회	377	9.3	17.2
창의과학	767	18.9	34.9
기후환경	47	1.2	2.1
학교적응·정서	166	4.1	7.6
교과교육	464	11.4	21.1
기타	0	0.0	0.0
계	4,062	100.0	1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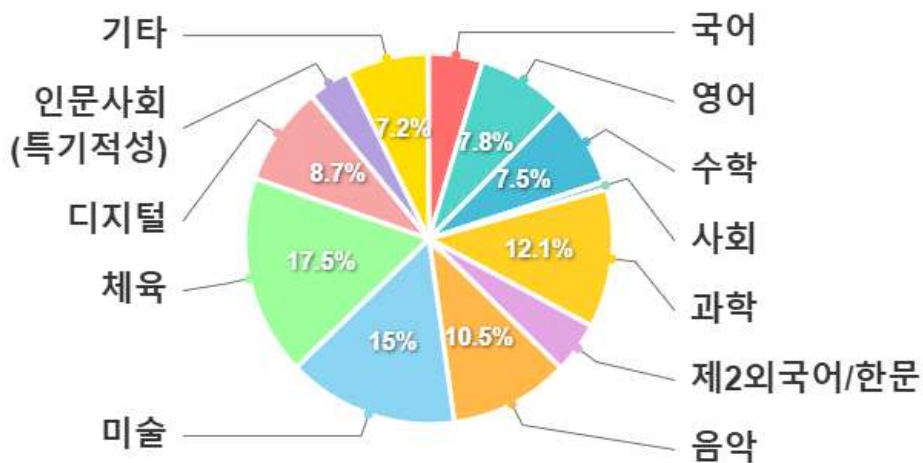
[그림 10]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 9)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체육이 802명(응답비율 17.5%, 사례비율 36.5%)으로 가장 높았고, 미술이 686명(응답비율 15.0%, 사례비율 31.2%), 과학이 556명(응답비율 12.1%, 사례비율 25.3%)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분야들의 경우도 음악과 디지털, 영어, 수학 등도 비교적 고르게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비율은 208.5%로 학생들이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 평균 2개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6〉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구분	N	응답비율 (%)	사례비율 (%)
국어	213	4.7	9.7
영어	359	7.8	16.3
수학	345	7.5	15.7
사회(교과)	31	0.7	1.4
과학	556	12.1	25.3
제2외국어·한문	206	4.5	9.4
음악	483	10.5	22.0
미술	686	15.0	31.2
체육	802	17.5	36.5
디지털	398	8.7	18.1
인문·사회(특기적성)	171	3.7	7.8
기타	331	7.2	15.1
계	4,581	100.0	2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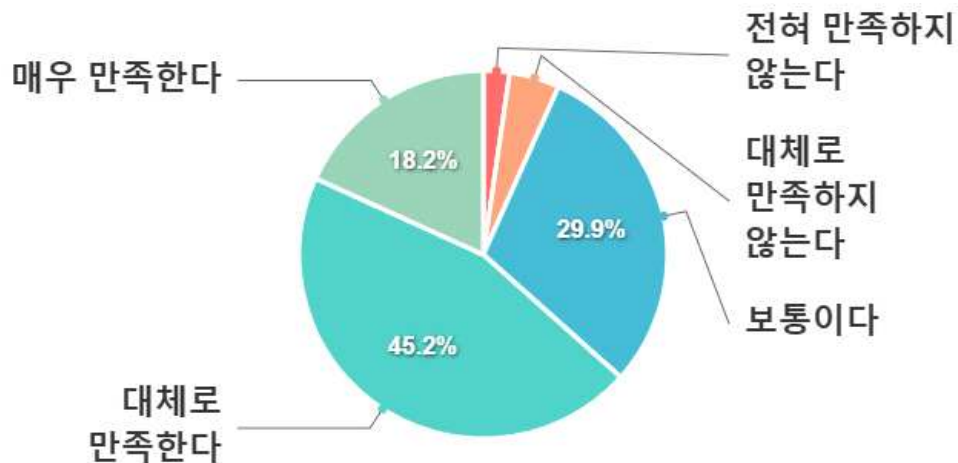
[그림 11]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

### 10) 학교 편성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다음은 학교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가 1,122명(45.2%)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한다도 451명(18.2%)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3%,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4.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보통이다는 29.9%로 나타났다.

〈표 17〉 학교 편성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구분	학교 편성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N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8	2.3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08	4.4
보통이다	741	29.9
대체로 만족한다	1,122	45.2
매우 만족한다	451	18.2
계	2,4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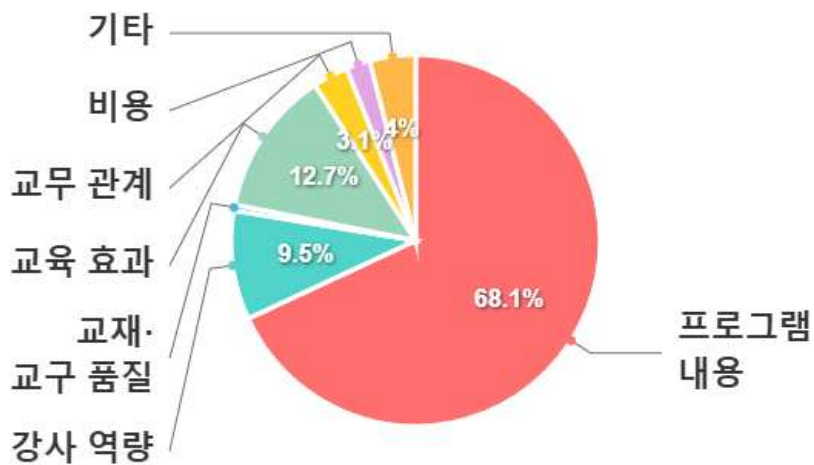
[그림 12] 학교 편성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1)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는 프로그램 내용이 1,690명(68.1%)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효과가 316명(12.7%), 강사 역량이 235명(9.5%) 순이었으며, 비용과 교우 관계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18〉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구분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N	%
프로그램 내용	1,690	68.1
강사 역량	235	9.5
교재·교구 품질	12	0.5
교육 효과	316	12.7
교우 관계	77	3.1
비용	51	2.1
기타	99	4.0
계	2,4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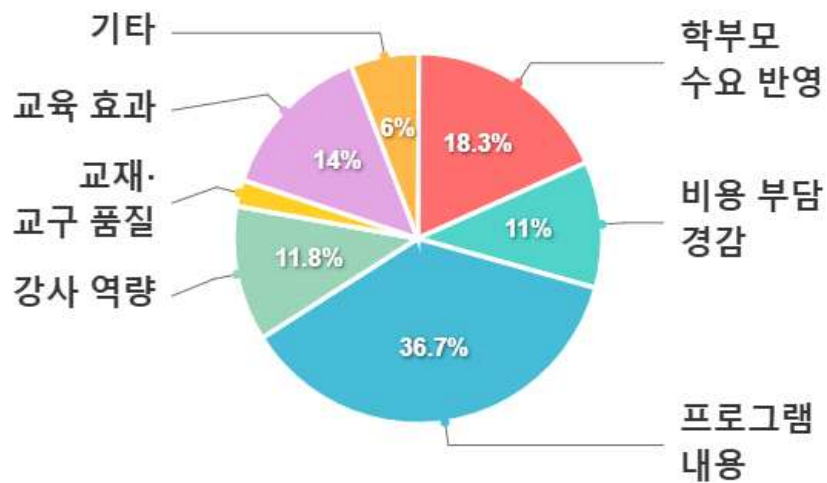
〈그림 13〉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 12)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이 909명(36.7%)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학부모 수요 반영이 454명(18.3%), 교육 효과가 346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강사 역량(11.8%)과 비용 부담 경감(11.0%)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재·교구 품질과 기타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19〉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구분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N	%
학부모 수요 반영,	454	18.3
비용 부담 경감	272	11.0
프로그램 내용	909	36.7
강사 역량	293	11.8
교재·교구 품질	58	2.3
교육 효과	346	14.0
기타	148	6.0
계	2,4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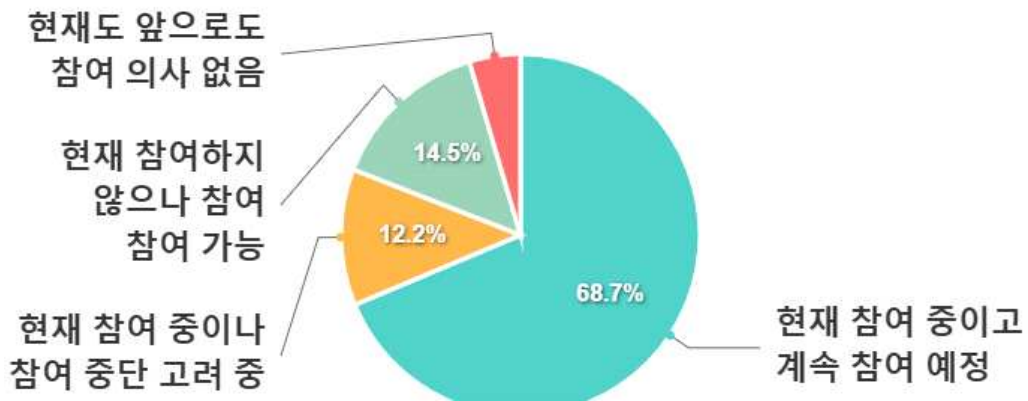
[그림 14]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 13)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올라갔을 때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진급할 경우 늘봄학교 참여 의사를 보면, 현재 참여 중이며 계속 참여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1,704명(68.7%)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현재 참여 중이나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는 303명(12.2%)이었고, 현재는 참여하지 않지만 향후 참여 가능하다는 응답은 360명(14.5%)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참여 의사가 없다는 비율은 4.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올라갔을 때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

구분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올라갔을 때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	
	N	%
현재 참여 중이고 계속 참여 예정	1,704	68.7
현재 참여 중이나, 참여 중단 고려 중	303	12.2
현재 참여하지 않으나 향후 참여 가능	360	14.5
현재도, 앞으로도 참여 의사 없음	113	4.6
계	2,4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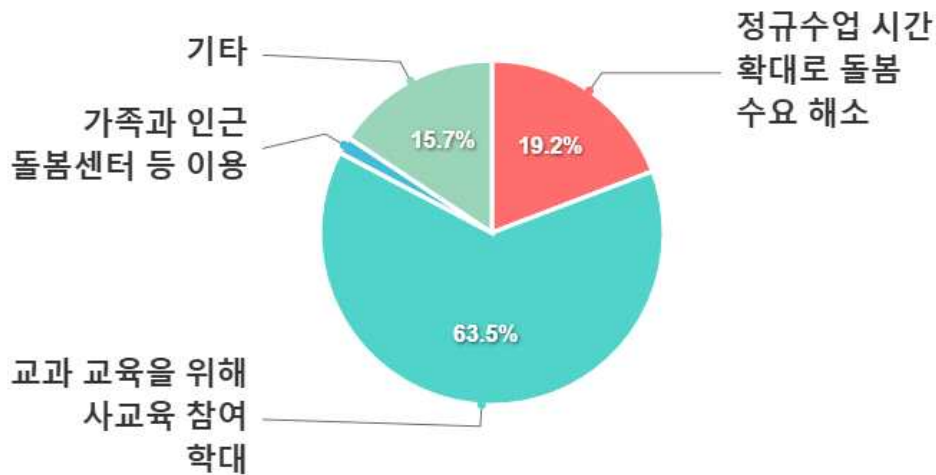
[그림 15]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올라갔을 때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

#### 14) 현재 참여중이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 그 이유

현재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교과 교육을 위해 사교육 참여를 확대하려는 경우가 198명(63.5%)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정규수업 시간 확대로 돌봄 수요가 해소된다는 응답이 60명(19.2%)이었으며, 기타 이유는 49명(15.7%)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인근 돌봄센터 이용은 1.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21〉 현재 참여중이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 그 이유

구분	현재 참여중이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 그 이유	
	N	%
정규수업 시간 확대로 돌봄 수요 해소	60	19.2
교과 교육을 위해 사교육 참여 확대	198	63.5
거주지 인근 돌봄센터 등 이용	5	1.6
기타	49	15.7
계	3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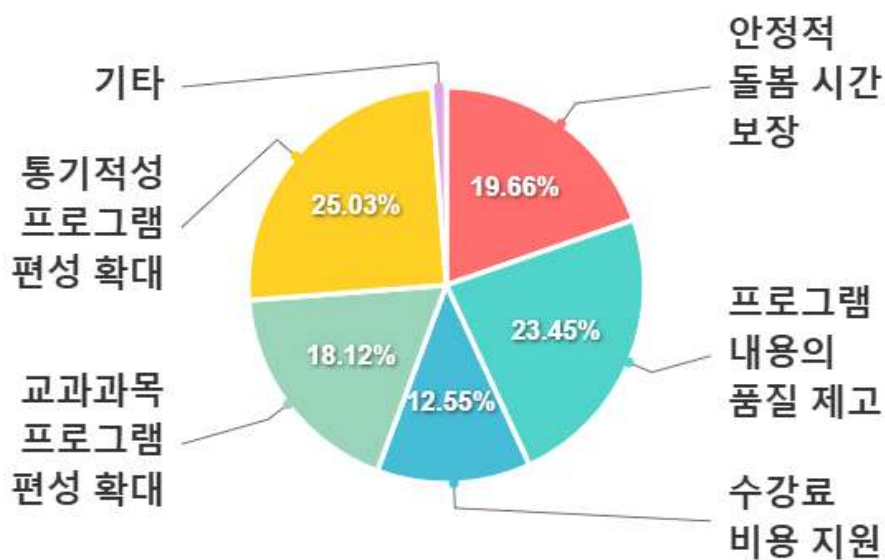
[그림 16] 현재 참여중이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 그 이유

15) 늘봄학교 참여 또는 참여 시간 확대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

다음은 늘봄학교의 지속 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 문항은 개선 사항으로 여러 요소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응답을 허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응답 결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편성 확대가 1,344명(응답비율 25.03%, 사례비율 49.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내용의 품질 제고가 1,259명(응답비율 23.45%, 사례비율 46.42%)로 뒤를 이었다. 또한 안정적 돌봄 시간 보장과 교과과목 프로그램 편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비율을 보면 198.01%로 참여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완될 요소로 학부모들은 평균 2개 정도를 중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2> 늘봄학교 참여 참여 또는 참여 시간 확대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

구분	N	응답비율 (%)	사례비율 (%)
안정적 돌봄 시간 보장	1,056	19.66	38.94
프로그램 내용의 품질 제고	1,259	23.45	46.42
수강료 비용 지원	674	12.55	24.85
교과과목 프로그램 편성 확대	973	18.12	35.88
특기적성 프로그램 편성 확대	1,344	25.03	49.56
기타	64	1.19	2.36
계	5,370	100.00	19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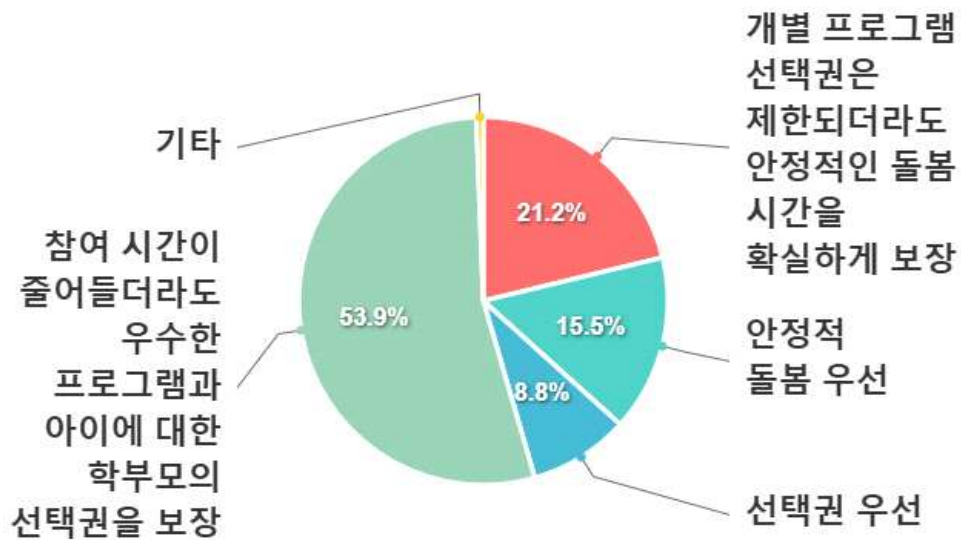
[그림 17] 늘봄학교 참여 참여 또는 참여 시간 확대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

### 16)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식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참여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1,336명(5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인 돌봄 시간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21.2%와 15.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선택권만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8.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식

구분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식	
	N	%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은 제한되더라도 안정적인 돌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	525	21.2
안정적 돌봄 우선	384	15.5
선택권 우선	219	8.8
참여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	1,336	53.9
기타	16	0.6
계	2,4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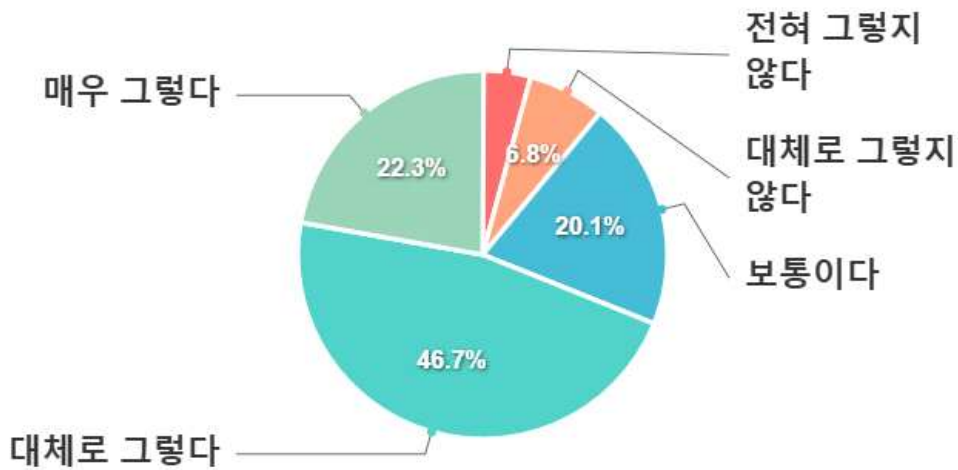
〔그림 18〕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식

17) 학년군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에 대한 의견

학년군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22.3%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가 학년군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1.0%로 비교적 낮았으며, 보통이라는 20.1%로 나타났다.

<표 24> 학년군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에 대한 의견

구분	학년군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N	%
전혀 그렇지 않다	104	4.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8	6.8
보통이다	499	20.1
대체로 그렇다	1,157	46.7
매우 그렇다	552	22.3
계	2,4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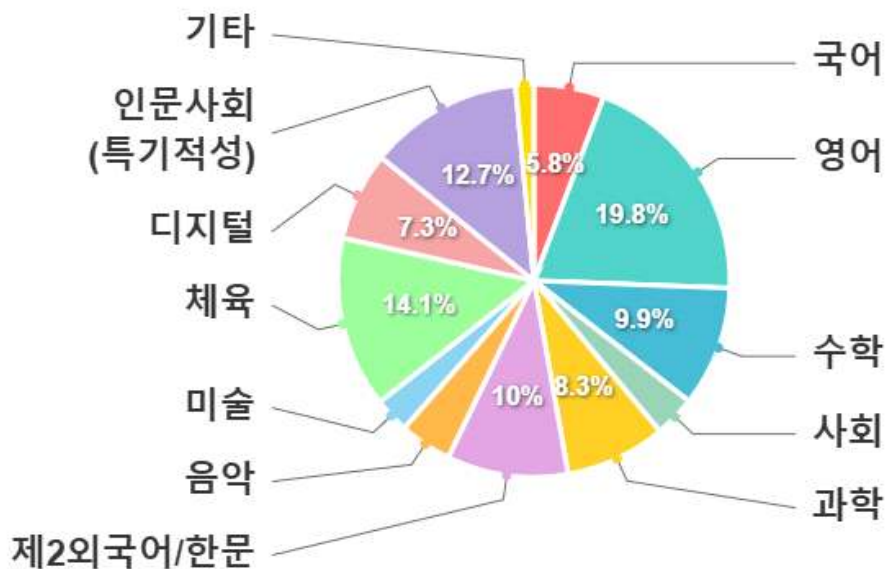
[그림 19] 학년군별 운영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에 대한 의견

### 18) 초 3~4학년군은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초3~4학년군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된 프로그램 분야로는 영어가 492명(1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육이 350명(14.1%), 인문·사회(특기적성)가 314명(12.7%) 순이었다. 그 밖에 제2외국어·한문과 수학, 과학 분야도 일정 수준의 수요가 확인되었다.

〈표 25〉 초 3~4학년군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분야

구분	초 3~4학년군은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N	%
국어	143	5.8
영어	492	19.8
수학	246	9.9
사회(교과)	85	3.4
과학	205	8.3
제2외국어·한문	249	10.0
음악	106	4.3
미술	72	2.9
체육	350	14.1
디지털	181	7.3
인문·사회(특기적성)	314	12.7
기타	37	1.5
계	2,4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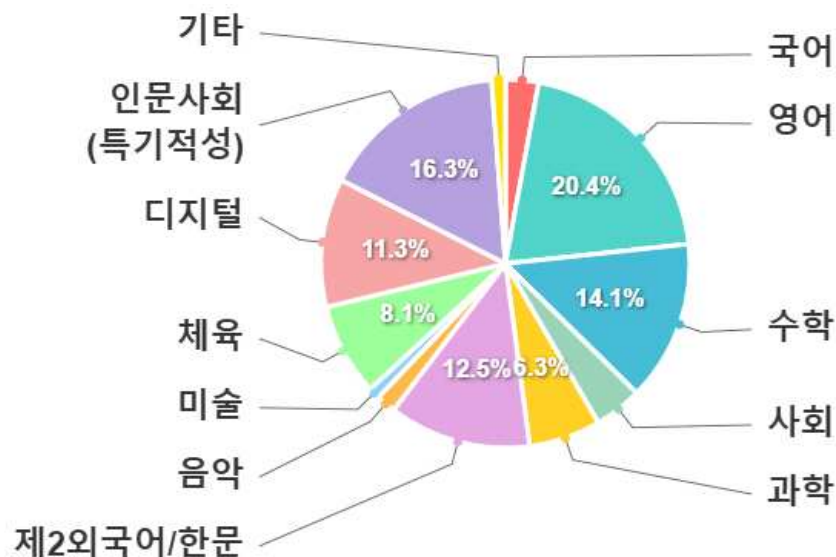
[그림 20] 초 3~4학년군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분야

19) 초 5~6학년군은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초5~6학년군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된 프로그램 분야로는 영어가 506명(20.4%)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특기적성)가 404명(16.3%), 수학이 349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외국어·한문과 디지털 분야에 대한 수요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6〉 초 5~6학년군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분야

구분	초 5~6학년군은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N	%
국어	72	2.9
영어	506	20.4
수학	349	14.1
사회(교과)	105	4.2
과학	157	6.3
제2외국어·한문	310	12.5
음악	43	1.7
미술	24	1.0
체육	202	8.1
디지털	279	11.3
인문·사회(특기적성)	404	16.3
기타	29	1.2
계	2,4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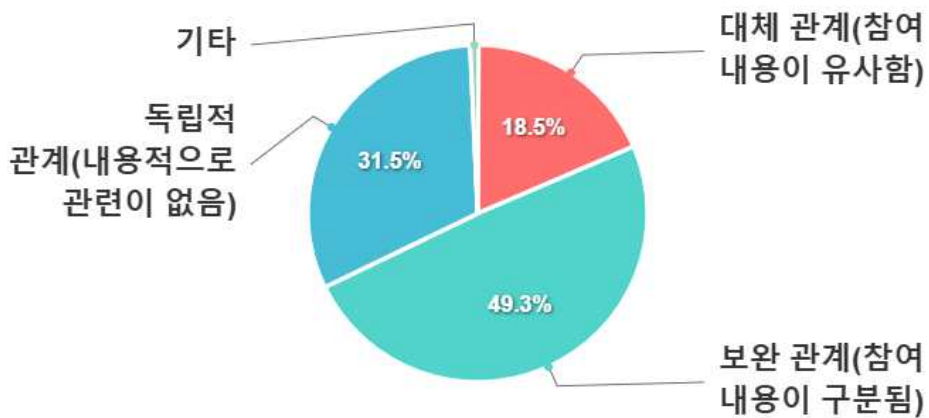
[그림 21] 초 5~6학년군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분야

## 20)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의 관계

다음은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완 관계라는 인식이 1,222명(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립적 관계라는 응답도 31.5%로 적지 않았다. 반면, 대체 관계라고 인식한 경우는 18.5%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타 의견은 0.8% 정도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의 관계

구분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의 관계	
	N	%
대체 관계(참여 내용이 유사함)	458	18.5
보완 관계(참여 내용이 구분됨)	1,222	49.3
독립적 관계(내용적으로 관련이 없음)	781	31.5
기타	19	0.8
계	2,4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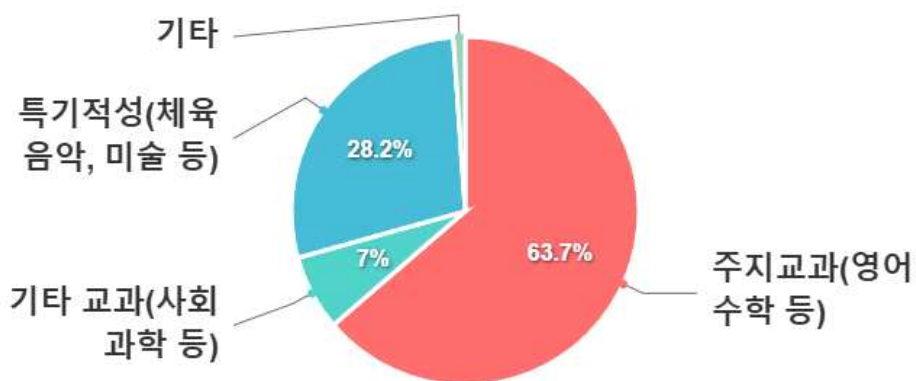
[그림 22]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의 관계

21)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

다음은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 결과, 주지교과가 1,580명(6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기적성 분야도 699명(28.2%)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기타 교과와 기타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체로 영어, 수학 등 주지교과에 대한 학습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8〉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

구분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	
	N	%
주지교과(영어, 수학 등),	1,580	63.7
기타 교과(사회, 과학 등),	173	7.0
특기적성(체육, 음악, 미술 등)	699	28.2
기타	28	1.1
계	2,480	100.0



[그림 23]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

## 22) 자유 의견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선 요구를 다수 제시하였다. 먼저 운영 대상과 기간의 확대 필요성이 두드러졌는데, 3학년 이상 고학년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정에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방학 중에는 돌봄 시간 연장과 점심(급식) 제공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운영 방식 측면에서는 참여 시간의 선택권을 넓혀 요일별·시간별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매일 일정 시간 ‘일괄 참여’ 방식은 가정의 사교육·학원 일정과 충돌할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며, 중간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한 탄력적 시스템 도입도 요구되었다. 동시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추첨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인기 프로그램은 반(班) 증설 등으로 수용 인원을 확대해 희망 학생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프로그램 내용과 질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음악·미술·체육·쿠킹·공예·과학 실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의 다양화뿐 아니라 코딩, AI,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독서·논술 등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활동과 함께, 영어·수학·국어 등 주요 교과외 보강 수업처럼 사교육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학년별 수준에 맞게 차별화해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예체능 영역에서는 악기 수업(피아노·바이올린·오카리나 등) 확대와 축구·농구·배드민턴·수영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강사와 운영의 질 관리도 핵심 과제로 언급되었다. 학부모들은 ‘시간 때우기식’ 운영을 지양하고 체계적·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증된 전문 강사 채용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강사의 학생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연수 체계도 요구되었다. 특히 특정 논란 사례(예: 리박스쿨)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었다.

시설·환경 및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늘봄 전용 교실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교실 이동을 최소화해 학생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더불어 참여 학생 대상 간식 제공과 방학 중 급식 지원 확대 등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 지원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맞벌이 가정 지원 측면에서는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6시까지 돌봄을 보장하고, 긴급 상황 시 임시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돌봄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되었다. 방학 기간에는 ‘방학만 참여 가능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등 현실적 대안도 언급되었다.

행정·시스템 개선 요구도 뚜렷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개선하고 출석 관리 및 학부모 알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지해 학부모의 선택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운영 방침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용 측면에서는 전 학년 무상 지원 확대,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

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정책적 요구도 제기되었다. 충분한 인력 배치로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생 간 갈등 상황에 대한 적절한 개입, 하교 지도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수업 분위기와 생활 지도, 맞춤형 지도, 인성·사회성 발달 지원 등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도 함께 제시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제도 안정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균등 지원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늘봄·돌봄·방과후 등 복잡한 명칭과 체계를 정리해 학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재편하고, 프로그램 간 중복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었다. 종합하면,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의 취지와 필요요소에 공감하면서도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 대상 확대, 운영 유연화, 프로그램 질 제고, 안전·행정 체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 29〉 자유 의견(학부모)

구분	주요 의견	세부 요청 내용
대상 및 시간 확대	고학년 확대 및 방학 돌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학년 이상 고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필요</li> <li>방학 중 돌봄 시간 연장 및 점심(급식) 제공 절실</li> </ul>
운영 유연화	요일/시간 선택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괄 참여' 방식이 아닌, 사교육 일정에 맞춘 요일별·시간별 유연한 선택제 요구</li> <li>중간 신청 및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한 탄력적 시스템 도입 필요</li> </ul>
수용 인원 확충	추첨제 개선 및 반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참여 제한(추첨제) 지적</li> <li>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반 증설을 통해 희망 학생 전원 수용 요청</li> </ul>
프로그램 질 제고	내용 다양화 및 교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형(코딩, AI, 스포츠, 악기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li> <li>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과(영·수·국) 연계 프로그램 요구</li> </ul>
강사 관리	전문성 검증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 때우기식' 운영 지양 및 검증된 전문 강사 채용 강조</li> <li>강사의 학생 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연수 체계 마련</li> </ul>
시설 및 복지	전용 공간 확보 및 간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늘봄 전용 교실 확보를 통한 안정적 환경 조성 및 교실 이동 최소화</li> <li>간식 제공 및 방학 중 급식 지원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강화</li> </ul>
행정 및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및 정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및 출석 알림 기능 강화</li> <li>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선택권 보장</li> </ul>
비용 및 안전	무상 지원 확대 및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학년 무상 지원 확대 및 선택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요청</li> <li>하교 지도 및 학생 간 갈등 중재를 위한 충분한 안전 인력 배치</li> </ul>

## 3절 학교 담당자 조사 결과

### 1 조사 대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학교 담당자는 총 21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8명(8.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16명(7.4%)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와 경남은 각각 15명(6.9%)이었으며, 울산과 경북은 각각 14명(6.5%)으로 나타났다. 인천·대전·전북은 각 13명(6.0%), 광주·충북은 각 12명(5.6%), 전남은 11명(5.1%)으로 집계되었다. 강원과 제주가 각 9명(4.2%), 충남과 세종이 각 8명(3.7%)으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편성 책임자 직위는 '늘봄실장'이 102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늘봄실무사'가 89명(41.2%)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기간제'는 8명(3.7%), '교감·교사'는 5명(2.3%)으로 소수였으며, '기타'는 12명(5.6%)으로 나타났다. 실장 배치 여부를 보면, '실장 배치'는 80명(37.0%)이었고, '인근학교 실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87명(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배치'는 49명(22.7%)으로, 약 4분의 1 수준에서 전담 실장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응답 학교의 지역 특성은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가 100명(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가 61명(28.2%), '읍면지역'이 55명(25.5%)으로 나타나 대도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학교 규모는 '중규모(13~30학급)'가 113명(52.3%)으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대규모(31학급 이상)'가 56명(25.9%), '소규모(12학급 이하)'가 47명(21.8%)으로 집계되었다. 인근 학원가 밀집도는 '보통'이 80명(37.0%), '낮음'이 78명(36.1%)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높음'은 39명(18.1%), '없음'은 19명(8.8%)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 학교는 중규모 학교가 중심을 이루고, 대도시 소재 비중이 높으며, 학원가 밀집도는 '보통~낮음' 수준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였다.

〈표 30〉 조사 대상 특성(학교 담당자)

		사례수(명)	비율(%)
전체		216	100.0
지역	서울	16	7.4
	부산	16	7.4
	대구	15	6.9
	인천	13	6.0
	광주	12	5.6
	대전	13	6.0
	울산	14	6.5
	세종	8	3.7
	경기	18	8.3
	강원	9	4.2
	충북	12	5.6
	충남	8	3.7
	전북	13	6.0
	전남	11	5.1
	경북	14	6.5
	경남	15	6.9
	제주	9	4.2
	편성 책임자	늘봄실장	102
늘봄실무사		89	41.2
기간제		8	3.7
교감·교사		5	2.3
기타		12	5.6
실장 배치 여부	실장 배치	80	37.0
	인근학교 실장이 겸임	87	40.3
	미배치	49	22.7
지역 특성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	100	46.3
	중소도시	61	28.2
	읍면지역	55	25.5

		사례수(명)	비율(%)
전체		216	100.0
학교 규모	대규모(31학급 이상)	56	25.9
	중규모(13학급~30학급)	113	52.3
	소규모(12학급 이하)	47	21.8
	없음	19	8.8
인근 학원가 밀집도	밀집도 낮음	78	36.1
	보통	80	37.0
	밀집도 높음	39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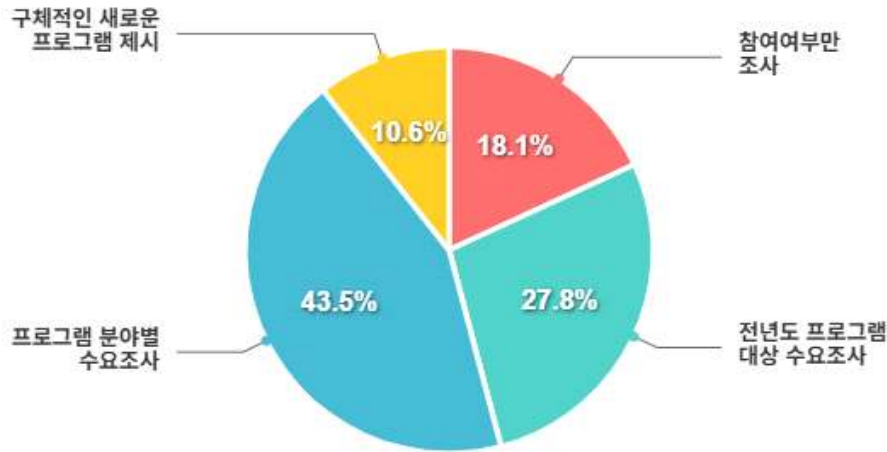
## 2 분석 결과

### 1)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방식

다음은 학교에서 학부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방식으로는 프로그램 분야별 수요조사가 94명(43.5%)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되었으며, 전년도 프로그램 대상 수요조사가 60명(27.8%)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참여 여부만 조사하거나 구체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방식

구분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방식	
	N	%
참여 여부만 조사	39	18.1
전년도 프로그램 대상 수요조사	60	27.8
프로그램 분야별 수요조사	94	43.5
구체적인 새로운 프로그램 제시	23	10.6
계	2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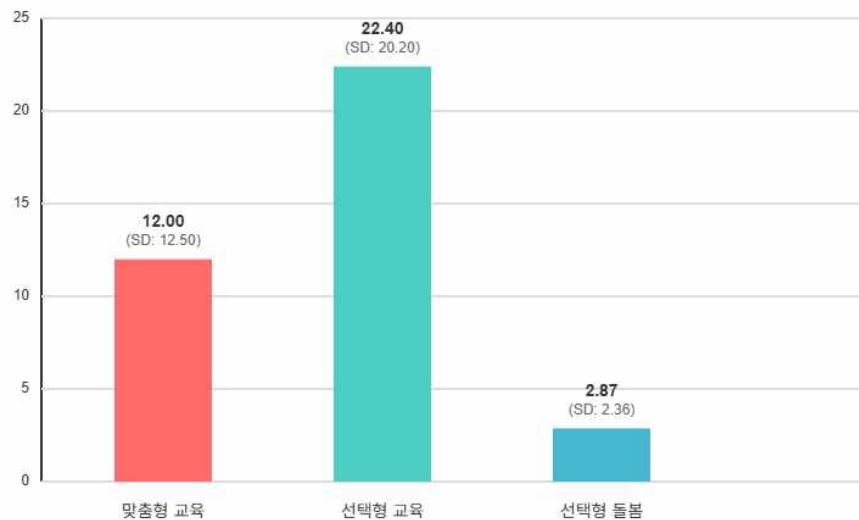
[그림 24]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방식

## 2) 늘봄과정 유형별 프로그램 강좌 수

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과정 유형별 프로그램 강좌 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선택형 교육이 22.4개로 가장 많았고, 맞춤형 교육은 12.0개, 선택형 돌봄은 2.87개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선택형 교육과 맞춤형 교육은 학교 간 편차가 비교적 큰 반면, 선택형 돌봄은 강좌 수와 편차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표 32〉 늘봄과정 유형별 프로그램 강좌 수(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늘봄과정 유형별 프로그램 강좌 수(평균, 표준편차)		
	맞춤형 교육	선택형 교육	선택형 돌봄
216	12.0(12.5)	22.4(20.2)	2.87(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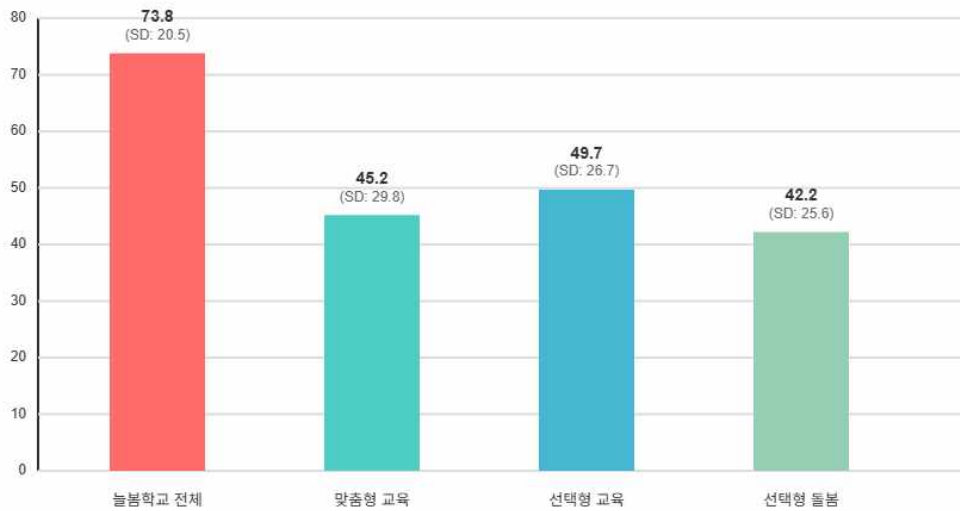
[그림 25] 늘봄과정 유형별 프로그램 강좌 수

### 3)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비율

다음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이 문항은 해당 학교의 초 1~2학년 전체 학생 수 대비 유형별 참여 학생 수의 비율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체 평균 참여 비율은 7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비율을 보면, 선택형 교육이 49.7%, 맞춤형 교육이 45.2%, 선택형 돌봄이 4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3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표준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유형별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은 학교별로 편차가 상당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비율(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비율(평균, 표준편차)			
	늘봄학교 전체	맞춤형 교육	선택형 교육	선택형 돌봄
216	73.8(20.5)	45.2(29.8)	49.7(26.7)	42.2(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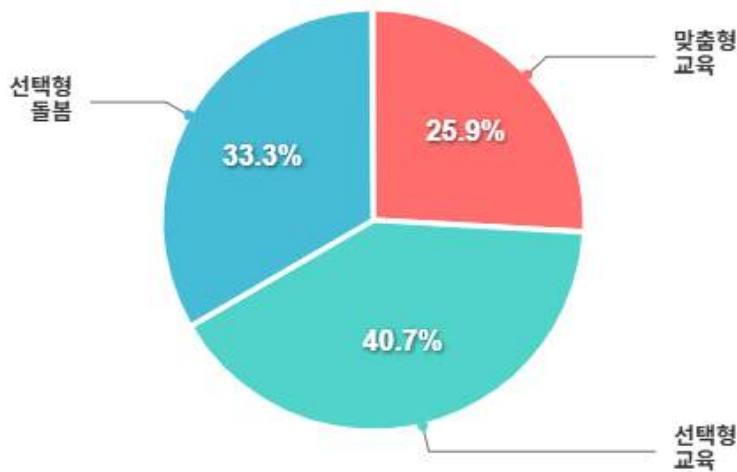
[그림 26]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비율

#### 4)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유형

다음은 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점에서 볼 때 나타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를 파악하는 문항에 대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유형으로는 선택형 교육이 4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택형 돌봄이 33.3%, 맞춤형 교육이 25.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선호한다고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유형별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점과 인식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를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해석 상의 유의가 필요하다.

〈표 34〉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늘봄학교 유형

구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유형	
	N	%
맞춤형 교육	56	25.9
선택형 교육	88	40.7
선택형 돌봄	72	33.3
계	2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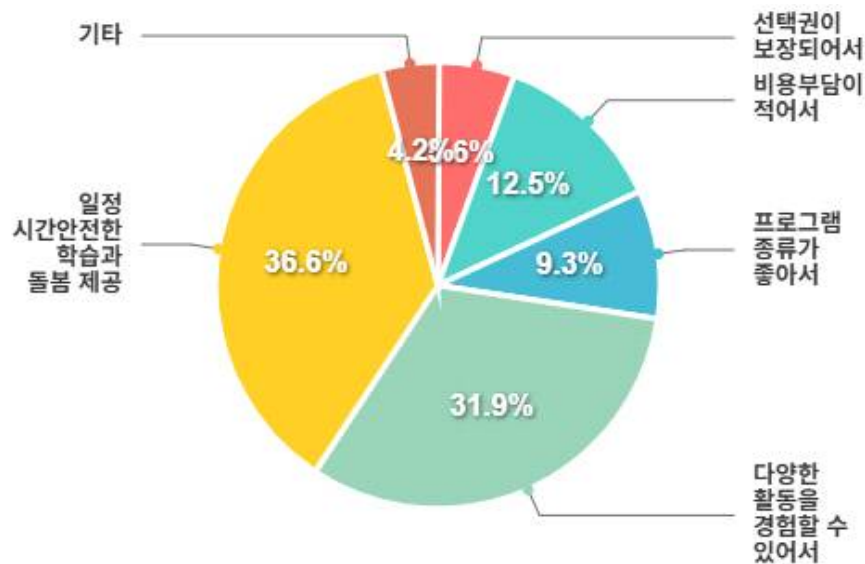
[그림 27]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늘봄학교 유형

### 5)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다음은 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가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한다고 생각한 유형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로는 일정 시간 동안 확실한 돌봄 제공이 36.6%으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가 69명31.9%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비용 부담과 프로그램 품질, 선택권 보장 등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35〉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구분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N	%
선택권이 보장되어서	12	5.6
비용 부담이 적어서	27	12.5
프로그램 품질이 높아서	20	9.3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69	31.9
일정 시간동안 확실한 돌봄 제공	79	36.6
기타	9	4.2
계	2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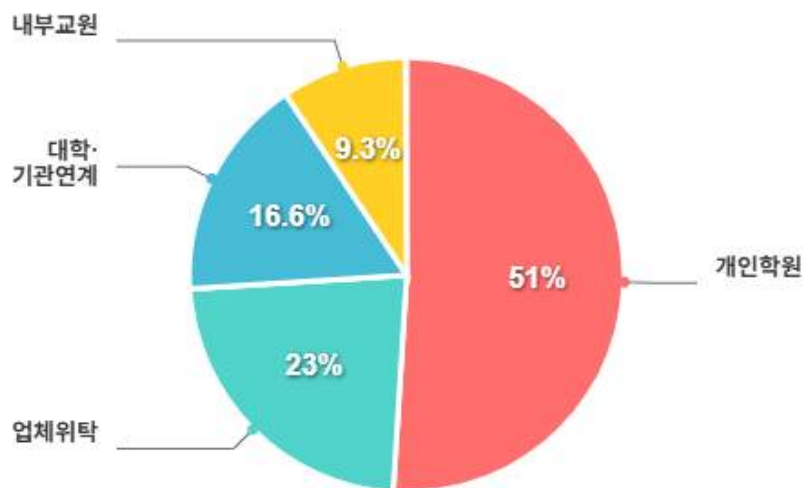
[그림 28]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 6)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

다음은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는 방식을 조사한 것이다. 학교의 강사 활용 방식은 여러 유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개인위탁이 175건(반응비율 51.0%, 사례비율 81.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업체위탁이 79건(23.0%, 36.6%)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대학·기관 연계와 내부교원 활용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비율이 158.8%로 강사 활용 방식이 학교별로 평균 1.58개 정도 중복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6〉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사례비율(%)
개인위탁	175	51.0	81.0
업체위탁	79	23.0	36.6
대학·기관연계	57	16.6	26.4
내부교원	32	9.3	14.8
계	343	100.0	1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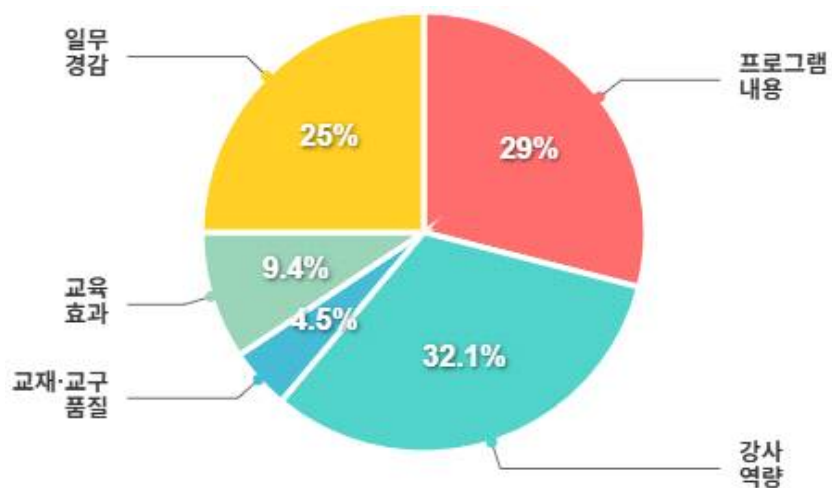
[그림 29]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

## 7) 선택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다음은 강사 활용 방식 선택 이유에 대한 것이다. 학교에서 강사 활용 유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선택지 중에서 해당 되는 것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해당 강사 활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로는 강사 역량이 113건(반응비율 32.1%, 사례비율 5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내용이 102건(29.0%, 47.2%), 업무 경감이 88건(25.0%, 4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사례비율이 163.0%로 강사 활용 방식 선택의 이유가 복수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7〉 선택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사례비율(%)
프로그램 내용	102	29.0	47.2
강사 역량	113	32.1	52.3
교재·교구 품질	16	4.5	7.4
교육 효과	33	9.4	15.3
업무 경감	88	25.0	40.7
기타	0	0.0	0.0
계	352	100.0	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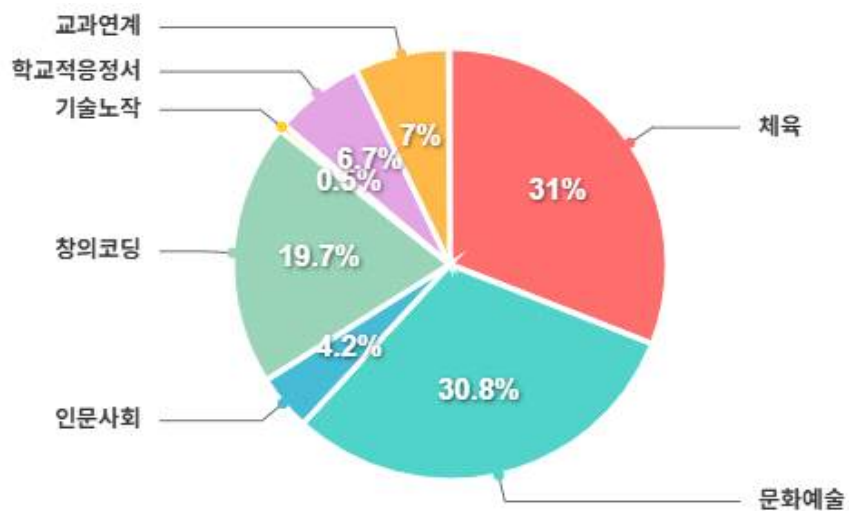
[그림 30] 선택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8)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다음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결과이다. 이 문항은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3개까지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조사되었다. 체육과 문화예술이 각각 198건(반응비율 31.0%, 사례비율 91.7%)과 197건(30.8%, 9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창의과학이 126건(19.7%, 58.3%)으로 높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사례비율(%)
체육	198	31.0	91.7
문화예술	197	30.8	91.2
인문·사회	27	4.2	12.5
창의과학	126	19.7	58.3
기후환경	3	0.5	1.4
학교적응·정서	43	6.7	19.9
교과교육	45	7.0	20.8
기타	0	0.0	0.0
계	639	100.0	2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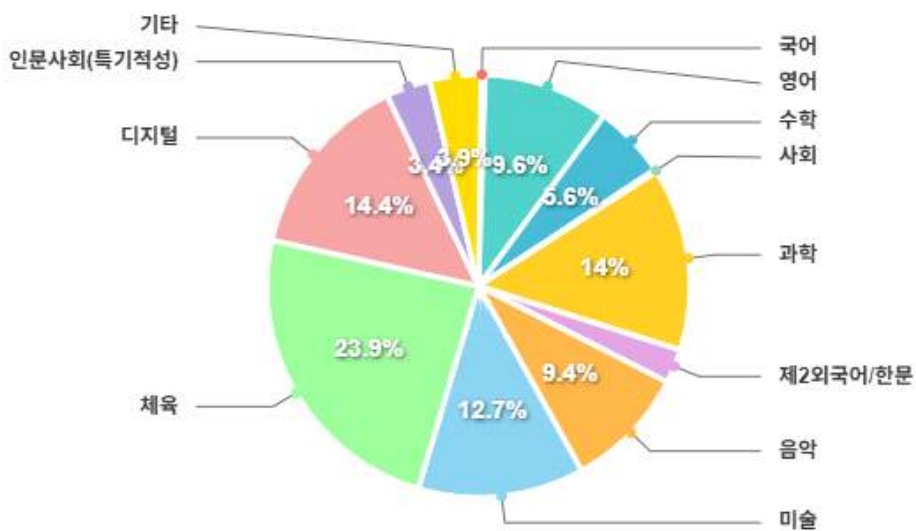
[그림 3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 9)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다음은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의견이다. 이 문항은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3개까지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조사되었다. 체육이 155건(반응비율 23.9%, 사례비율 71.8%)으로 가장 높았고, 디지털이 93건(14.4%, 43.1%), 과학이 91건(14.0%, 42.1%), 미술이 82건(12.7%, 3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사례비율(%)
국어	3	0.5	1.4
영어	62	9.6	28.7
수학	36	5.6	16.7
사회(교과)	1	0.2	0.5
과학	91	14.0	42.1
제2외국어·한문	17	2.6	7.9
음악	61	9.4	28.2
미술	82	12.7	38.0
체육	155	23.9	71.8
디지털	93	14.4	43.1
인문·사회(특기적성)	22	3.4	10.2
기타	25	3.9	11.6
계	648	100.0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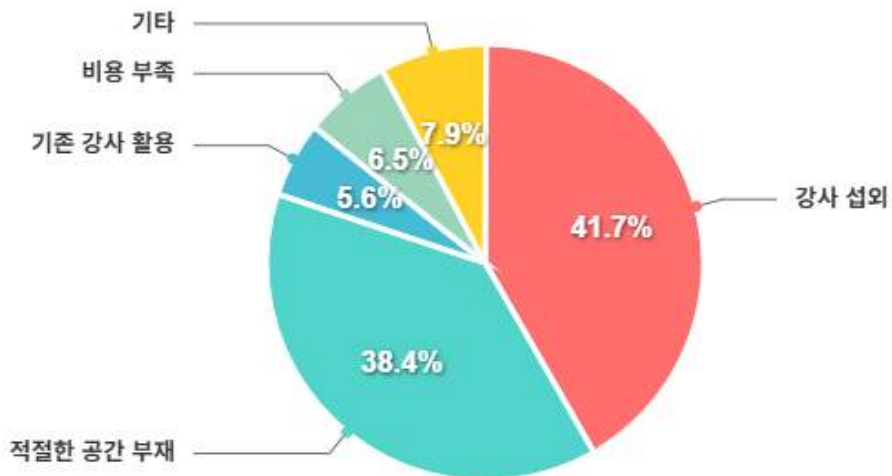
[그림 32]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10)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 90명 (41.7%)으로 가장 높았고, 적합한 공간 부재가 83명(38.4%)으로 뒤를 이었다. 비용 부족과 기존 강사 활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기타 이유도 일부 제시되었다.

〈표 40〉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

구분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	
	N	%
강사 섭외 애로	90	41.7
적합한 공간 부재	83	38.4
기존 강사 활용	12	5.6
비용 부족	14	6.5
기타	17	7.9
계	2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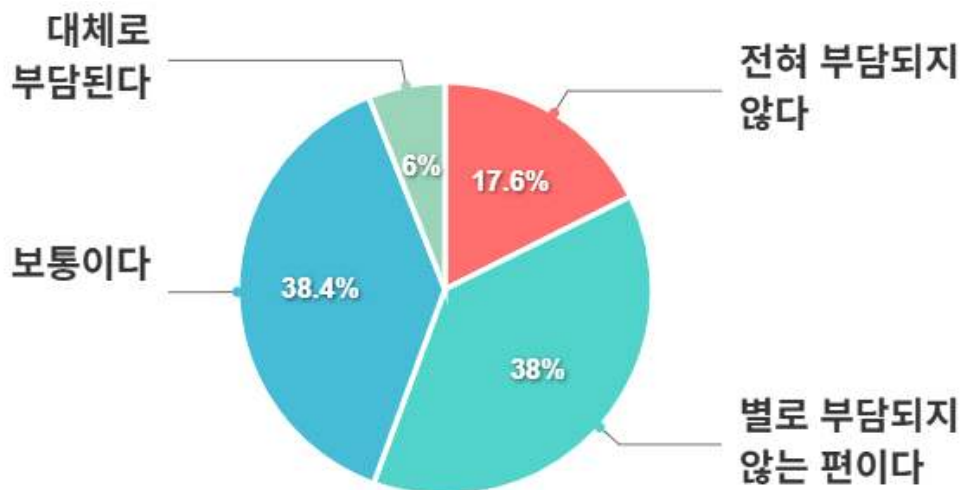
[그림 33]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

### 11) 현재 수강료(강사료+교구비)가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부담 정도

현재 수강료가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83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별로 부담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도 38.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6.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41〉 현재 수강료(강사료+교구비)가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부담 정도

구분	현재 수강료(강사료+교구비)가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부담 정도	
	N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38	17.6
별로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82	38.0
보통이다	83	38.4
대체로 부담이 되는 편이다	13	6.0
매우 부담이 된다	0	0.0
계	2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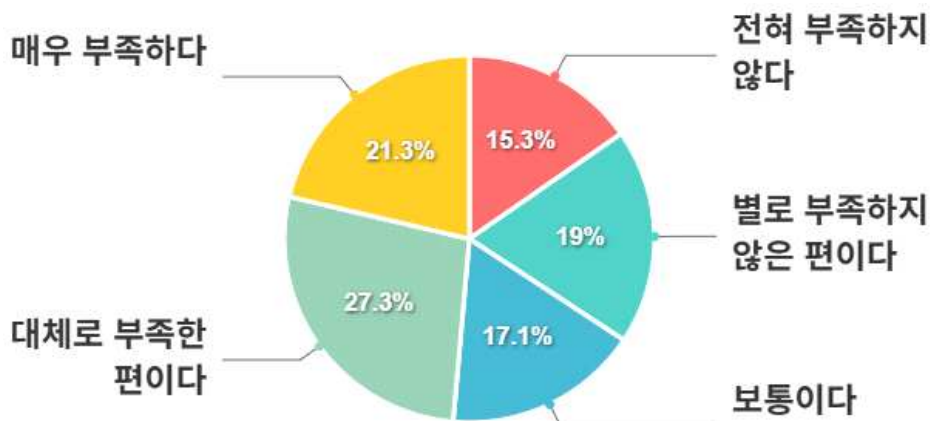
[그림 34] 현재 수강료(강사료+교구비)가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부담 정도

## 1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간 부족 정도

다음은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공간 부족에 대해 의견을 묻는 문항의 결과이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공간 부족 정도를 보면,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27.3%와 21.3%로 나타나 공간 부족을 체감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은 34.3%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통이다는 17.1%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 수의 학교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간 부족 정도

구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간 부족 정도	
	N	%
전혀 부족하지 않다	33	15.3
별로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41	19.0
보통이다	37	17.1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59	27.3
매우 부족하다	46	21.3
계	216	100.0



[그림 35]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간 부족 정도

### 13) 공간 부족 시, 외부 공간 또는 협력 가능한 돌봄 기관 등을 활용할 의사

학교는 충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외부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공간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공간이나 협력 가능한 돌봄 기관을 활용할 의사에 대해서는 없음이 150명(69.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있음은 66명(30.6%)으로 나타나 외부 공간 활용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43〉 공간 부족 시, 외부 공간 또는 협력 가능한 돌봄 기관 등을 활용할 의사

구분	공간 부족 시, 외부 공간 또는 협력 가능한 돌봄 기관 등을 활용할 의사	
	N	%
없음	150	69.4
있음	66	30.6
계	216	100.0

### 14) 외부 공간, 기관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 그 이유

외부 공간이나 기관을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안전사고 등 학생 관리에 대한 우려가 118명(78.7%)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학부모 선호도가 낮아서라는 응답이 11.3%였으며, 활용 가능한 공간이나 기관이 없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었다.

〈표 44〉 외부 공간, 기관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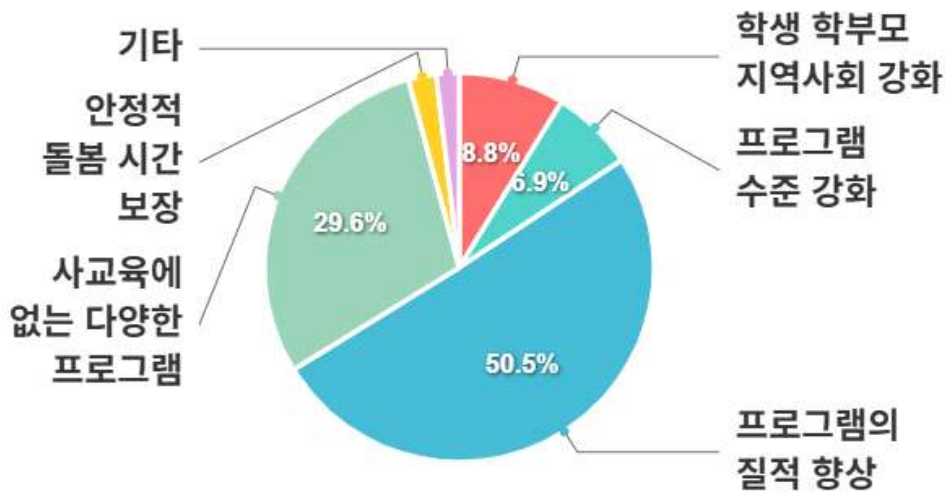
구분	그 이유	
	N	%
활용 가능한 공간, 기관 없음	7	4.7
안전사고 등 학생 관리 문제	118	78.7
학부모 선호도 낮음	17	11.3
외부 공간/기관 프로그램의 낮은 질	2	1.3
외부기관과 협력 채널 부재	1	0.7
기타	5	3.3
계	150	100.0

### 15)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고학년의 늘봄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가 109명(5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교육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64명(29.6%)으로 나타났으며, 선택권 강화와 수강료 경감, 안정적 돌봄 시간 보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45〉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구분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N	%
학생·학부모 선택권 강화	19	8.8
프로그램 수강료 경감	15	6.9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109	50.5
사교육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64	29.6
안정적 돌봄 시간 보장	5	2.3
기타	4	1.9
계	2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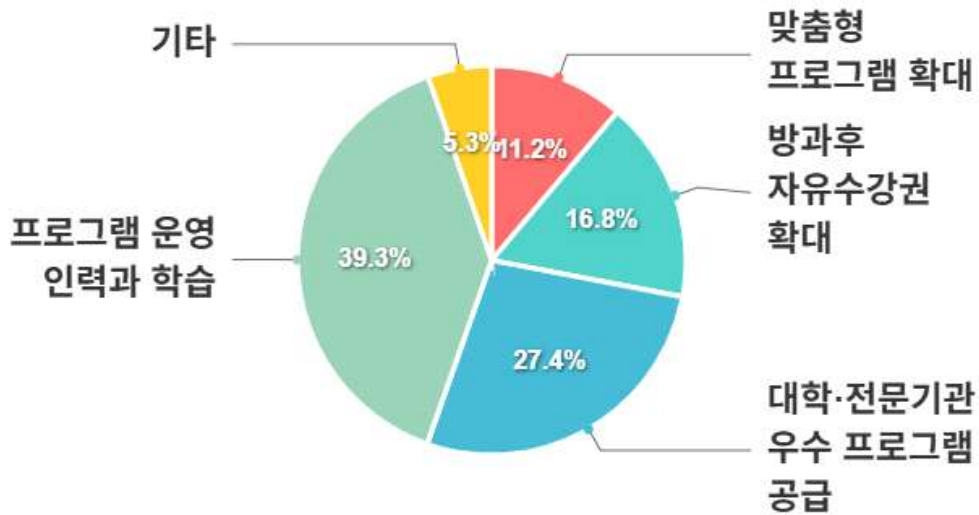
[그림 36]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 16)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고학년의 늘봄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확충이 126건(반응비율 39.3%, 사례비율 58.3%)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어 대학·전문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공급이 88건(27.4%, 40.7%)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 자유수강권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도 일부 제안되었다.

〈표 46〉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	사례비율 (%)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36	11.2	16.7
방과후 자유수강권 확대	54	16.8	25.0
대학·전문기관 우수 프로그램 공급	88	27.4	40.7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확충	126	39.3	58.3
기타	17	5.3	7.9
계	321	100.0	1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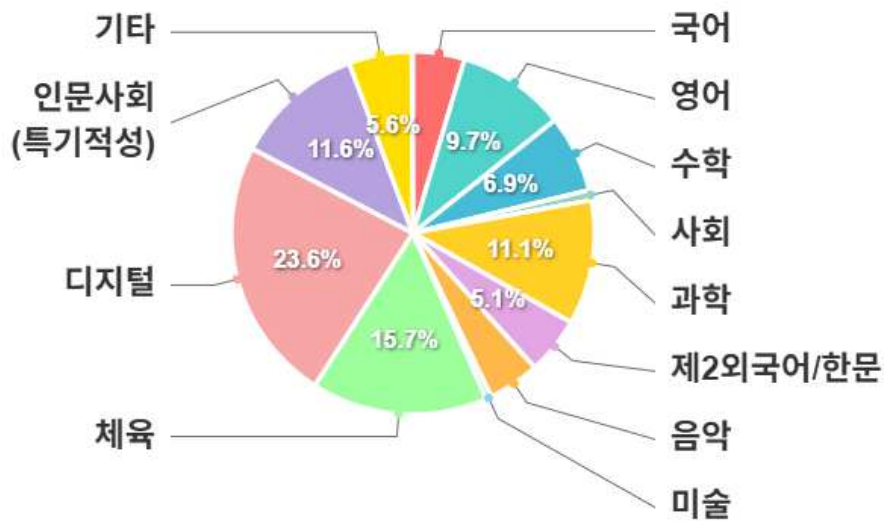
[그림 37]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17) 학교에서 향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고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분야

학교에서 향후 확대하고자 하는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 분야로는 디지털이 51명(2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육이 34명(15.7%), 인문·사회(특기적성)와 과학이 각각 11% 내외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 교과와 미술 등 일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47〉 학교에서 향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고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분야

구분	학교에서 향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고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분야	
	N	%
국어	10	4.6
영어	21	9.7
수학	15	6.9
사회(교과)	2	0.9
과학	24	11.1
제2외국어·한문	11	5.1
음악	10	4.6
미술	1	0.5
체육	34	15.7
디지털	51	23.6
인문·사회(특기적성)	25	11.6
기타	12	5.6
계	2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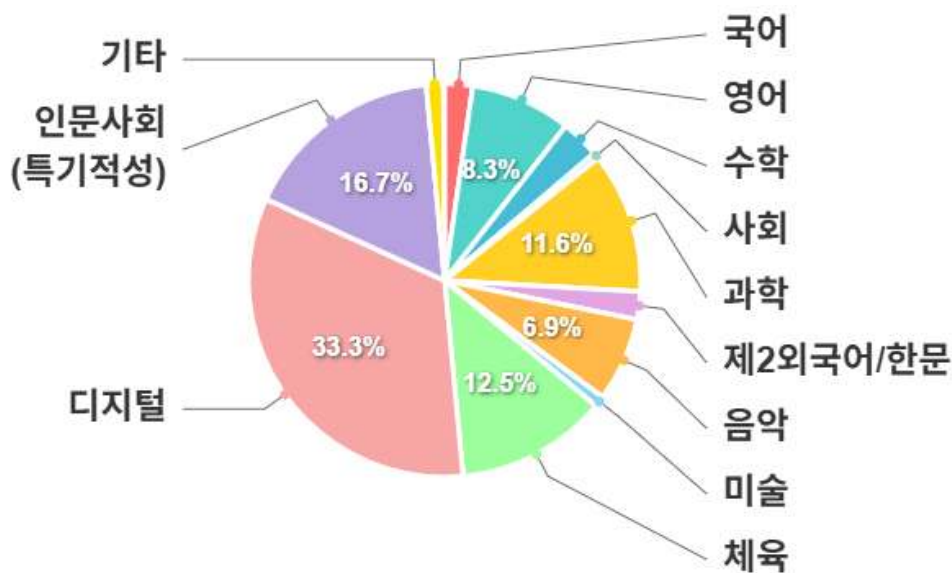
[그림 38] 학교에서 향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고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분야

### 18) 대학·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 기관이 좀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

대학·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 기관이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디지털이 72명(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사회(특기적성)가 36명(16.7%), 체육과 과학이 각각 12.5%와 11.6%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과 중심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48〉 대학·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 기관이 좀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

구분	대학·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 기관이 좀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	
	N	%
국어	5	2.3
영어	18	8.3
수학	7	3.2
사회(교과)	1	0.5
과학	25	11.6
제2외국어·한문	5	2.3
음악	15	6.9
미술	2	0.9
체육	27	12.5
디지털	72	33.3
인문·사회(특기적성)	36	16.7
기타	3	1.4
계	216	100.0



[그림 39] 대학·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 기관이 좀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

## 19) 자유 의견

학교 담당자는 늘봄학교가 확대되면서 운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부족해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두드러졌다. 아침·틈새·저녁늘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학교당 늘봄실장(1교 1늘봄실장) 배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30학급 이상 대규모학교는 늘봄실장의 고정 배치와 함께 늘봄실무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늘봄실무사가 특수, 돌봄, 복지, 보건, 사서 업무까지 폭넓게 떠안는 구조로 인해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늘봄행정실무사 역시 업무 부담과 조직 내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늘봄팀장이 늘봄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되었다.

강사 수급과 질 관리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섭외가 어렵고 1~2학년 학생 관리 부담이 커 운영 난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농어촌·읍면 지역은 강사 확보 자체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강사 역량의 편차가 커 검증된 강사 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고, 일부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는 학생 관리나 운영이 부실하다는 현장의 불만도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 인상과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함께 제시되었다.

공간과 시설 부족 역시 운영의 병목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늘봄교실이 부족해 겸용교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별도의 늘봄지원실(물리적 거점 공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과밀학교는 교실 자체가 부족해 운영 확장이 어렵고,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다목적강당 등 실내 활동 공간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맞춤형과 선택형의 구조 재정립 요구가 두드러졌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자유수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실제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맞춤형보다 높다는 현장 인식이 공유되었다. 맞춤형·선택형으로 이원화된 예산을 단일화해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도담도담 등 기존 체계를 선택형 교육으로 통합 운영하길 원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년별로는 맞춤형이 1~2학년에게 상대적으로 적합하며, 저학년은 돌봄 중심의 편안한 휴식 공간과 안정적 보호가 중요하다는 반면, 고학년은 교과 중심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 수요가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고학년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원 일정으로 참여율이 낮다는 현실을 전제로, 디지털·AI, 유튜브 제작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와 교과 연계형 심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시되었다. 특히 사교육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는 교과 프로그램 확충과 진로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 설계가 고학년 참여를 높일 핵심 방향으로 언급되었다.

행정 및 시스템 측면에서는 종이 접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늘봄학교 신청 시스템 구축, 2학기에 다음 연도 프로그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방과후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불필요한 설문조사·현황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대면 인계(업무 인수인계) 방식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농어촌 지역은 이미 돌봄이 100%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도시와 농어촌은 수요 구조가 다르므로 획일적 정책이 아닌 지역별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 학

교와 과밀학교 또한 운영 조건이 크게 달라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함께 제시되었다.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정권 변화에 따라 늘봄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크며, 장기적 안목의 계획 수립과 충분한 준비 기간 제공,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아울러 등하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자원봉사자 검증·관리의 어려움, 외부 프로그램 연계 시 안전관리 우선 등 안전 관리 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끝으로 예산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선택형·맞춤형의 중복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억지로 예산을 소모'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49〉 자유 의견(학교 담당자)

구분	주요 의견	세부 요청 내용
인력 및 업무 체계	전담 인력 배치 및 업무 과중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당 1인의 '늘봄실장' 고정 배치 및 대규모 학교 실무사 증원 필요</li> <li>• 늘봄실무사가 보건, 복지, 사서 등 타 업무까지 병행하는 구조 개선</li> <li>• 늘봄팀장이 전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체계 재정비 요구</li> </ul>
강사 수급 및 관리	안정적인 우수 강사 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읍면 지역의 구조적인 강사 확보 어려움 해결 방안 마련</li> <li>• 강사 역량 편차 해소를 위해 검증된 강사 풀을 교육청 차원에서 공급</li> <li>• 강사 참여 유인을 위한 강사로 인상 및 지역별 차등 지원 필요</li> </ul>
공간 및 시설	늘봄 전용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교실을 함께 쓰는 '겸용교실' 탈피 및 전용 공간(늘봄교실) 확충</li> <li>• 물리적 거점인 '늘봄지원실' 및 체육 활동을 위한 실내 공간 확보</li> <li>• 과밀학교의 교실 부족에 따른 운영 확장 제약 문제 해결</li> </ul>
프로그램 및 예산	운영 구조 개편 및 예산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무상)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선택형(자유수강권)으로 통합 운영</li> <li>• 맞춤형·선택형으로 이원화된 예산을 단일화하여 중복 및 낭비 방지</li> <li>• 고학년 대상 시, 디지털 등 사교육 대비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충</li> </ul>
행정 시스템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 접수 방식을 대체할 온라인 신청 및 출석 관리 시스템 도입</li> <li>• 불필요한 설문 및 현황조사 간소화를 통한 행정 부담 경감</li> <li>• 방과후학교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관리 체계 마련</li> </ul>
안전 및 정책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정책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하교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 측 책임 부담 완화</li> <li>• 정권 변화와 무관한 장기적 로드맵 제시 및 정책 안정성 확보</li> <li>• 지역별(도시/농어촌) 수요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적용</li> </ul>

## 4절 공급기관 조사 결과

### 1 조사 대상 특성

다음 <표 50>은 프로그램 공급기관 응답자(총 114명)의 기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지역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28명(2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서울이 23명(20.2%)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경북은 13명(11.4%)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인천과 대전이 각각 9명(7.9%), 충남이 8명(7.0%)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5명(4.4%), 전남은 4명(3.5%)이었고, 울산·전북·경남은 각각 3명(2.6%), 부산과 제주가 각각 2명(1.8%)으로 집계되었다. 강원과 충북은 각각 1명(0.9%)에 그쳤으며, 광주와 세종은 응답이 없었다(각 0.0%). 전체적으로 수도권(서울·경기) 응답 비중이 높고, 일부 권역(광주·세종)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확인된다.

늘봄학교·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참여 범유형(중복 응답)은 ‘교육청 위탁’이 58명(4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RISE’가 36명(24.8%), ‘범부처’가 30명(20.7%), ‘창의재단’이 15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5명(3.5%)으로 소수였다. 기관 유형은 ‘종합대학’이 44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9명(16.7%), ‘전문대학’ 17명(14.9%), ‘민간기관’ 14명(12.3%), ‘교육대학’ 11명(9.6%), ‘기타’ 9명(7.9%) 순으로 분포하였다. 즉, 대학(종합·전문·교육대학) 기반 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공공 및 민간기관도 일정 비율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의 초등교육 분야 이해도는 ‘매우 높음’이 52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소 높음’이 39명(34.2%)으로 뒤를 이어, 응답자의 약 80%가 초등교육 분야 이해도를 ‘높은 편’(다소 높음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보통’은 17명(14.9%)이었으며, ‘다소 낮음’ 5명(4.4%), ‘매우 낮음’ 1명(0.9%)으로 낮은 편에 응답은 소수였다.

늘봄학교·방과후학교 관련 활동 기간은 ‘1년 미만’이 48명(4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비교적 최근에 사업 참여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5년 이상’은 24명(21.1%)으로 나타나 장기간 관련 경험을 보유한 기관도 일정 수준 존재하였다. 그 외에는 ‘1~2년 미만’ 18명(15.8%), ‘2~3년 미만’ 17명(14.9%), ‘3~4년 미만’ 3명(2.6%), ‘4~5년 미만’ 4명(3.5%) 순으로 분포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 여부를 보면,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구성’이 58명(50.9%)으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정부 사업과 무관히 늘봄학교·방과후 관련 조직 구성’이 21명(18.4%)으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는 35명(30.7%)으로, 약 3분의 1 수준에서는 전담 조직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력 구성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인력 규모는 총 인원 평균 9.18명(표준편차 13.8명)으로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행정 인력이 평균 2.61명(표준편차 2.12명), 전문가 인력이 평균 5.91명(표준편차 8.4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공급 기관들이 대체로 전문가 인력이 행정 인력보다 많은 구조를 보이지만, 기관별 인력 규모와 역량 수준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50〉 조사대상 특성(공급기관 조사)

		사례수(명)	비율(%)
전체		114	100.0
지역	서울	23	20.2
	부산	2	1.8
	대구	5	4.4
	인천	9	7.9
	광주	0	0.0
	대전	9	7.9
	울산	3	2.6
	세종	0	0.0
	경기	28	24.6
	강원	1	0.9
	충북	1	0.9
	충남	8	7.0
	전북	3	2.6
	전남	4	3.5
	경북	13	11.4
	경남	3	2.6
	제주	2	1.8
늘봄학교·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참여 범유형	창의재단	15	10.4
	범부처	30	20.7
	RISE	36	24.8
	교육청 위탁	58	40.0
	기타	5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44	38.6
	전문대학	17	14.9
	교육대학	11	9.6
	공공기관	19	16.7
	민간기관	14	12.3
	기타	9	7.9
기관의 초등교육 분야 이해도	매우 낮음	1	0.9
	다소 낮음	5	4.4
	보통	17	14.9
	다소 높음	39	34.2
	매우 높음	52	45.6

		사례수(명)	비율(%)
전체		114	100.0
늘봄학교·방과후학교 관련 활동 기간	1년 미만	48	42.1
	1~2년 미만	18	15.8
	2~3년 미만	17	14.9
	3~4년 미만	3	2.6
	4~5년 미만	4	3.5
	5년 이상	24	21.1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 여부	없다	35	30.7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구성	58	50.9
	정부 사업과 무관히 늘봄학교·방과후 관련 조직 구성	21	18.4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인력 구성	총 인원	평균 9.18명	표준편차 13.8명
	행정 인력	평균 2.61명	표준편차 2.12명
	전문가 인력	평균 5.91명	표준편차 8.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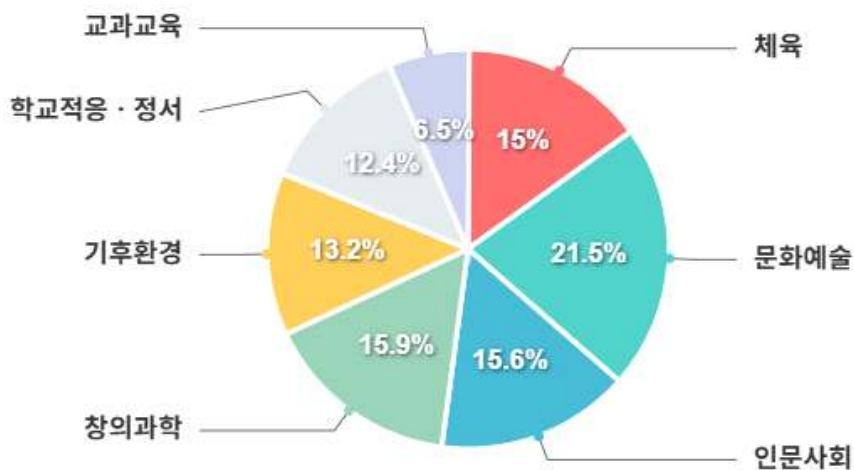
## 2 분석 결과

### 1) 공급 중인 프로그램 분야

현재 공급 중인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문화예술이 2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의과학(15.9%), 인문사회(15.6%), 체육(15.0%)이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 기후환경과 학교적응·정서 분야도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과교육은 6.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1〉 공급 중인 프로그램 분야

구분	공급 중인 프로그램 분야	
	N	%
체육	51	15.0
문화예술	73	21.5
인문사회	53	15.6
창의과학	54	15.9
기후환경	45	13.2
학교적응·정서	42	12.4
교과교육	22	6.5
계	3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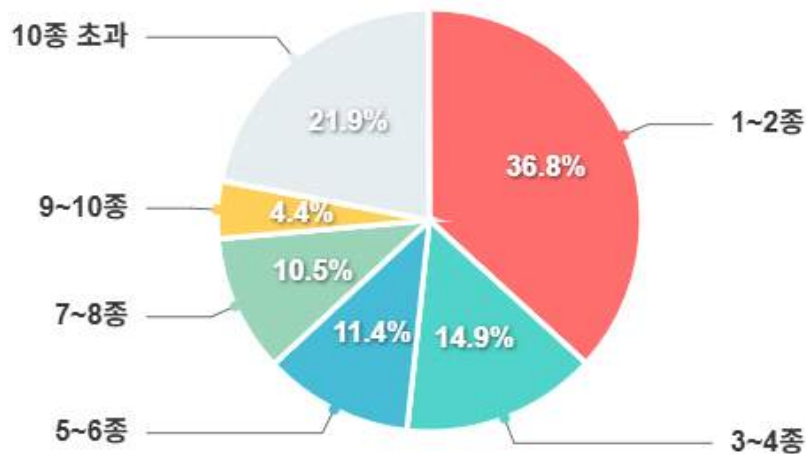
[그림 40] 공급 중인 프로그램 분야

## 2)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 수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 수를 보면, 1~2종을 운영하는 경우가 42곳(36.8%)으로 가장 많았고, 10종을 초과해 공급하는 경우도 21.9%로 적지 않았다. 반면, 3~8종을 운영하는 경우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 수

구분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 수	
	N	%
1~2종	42	36.8
3~4종	17	14.9
5~6종	13	11.4
7~8종	12	10.5
9~10종	5	4.4
10종 초과	25	21.9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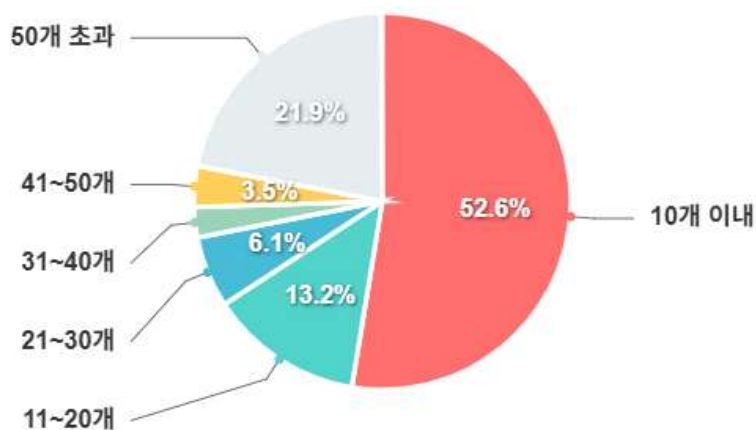
[그림 41]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 수

### 3) 프로그램 공급 학급 공급 규모

다음은 프로그램 공급 학급 규모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이내가 60곳 (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50개를 초과해 공급하는 경우도 21.9%로 나타났다. 반면, 11~40개 규모로 공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대부분의 기관이 10개 이내의 적은 학급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지만, 50개 이상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하여 프로그램 공급 규모에서 기관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별도 예산을 지원받아 프로그램 개발·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범부처 기관처럼 해당 기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3〉 프로그램 공급 학급 공급 규모

구분	프로그램 공급 학급 공급 규모	
	N	%
10개 이내	60	52.6
11~20개	15	13.2
21~30개	7	6.1
31~40개	3	2.6
41~50개	4	3.5
50개 초과	25	21.9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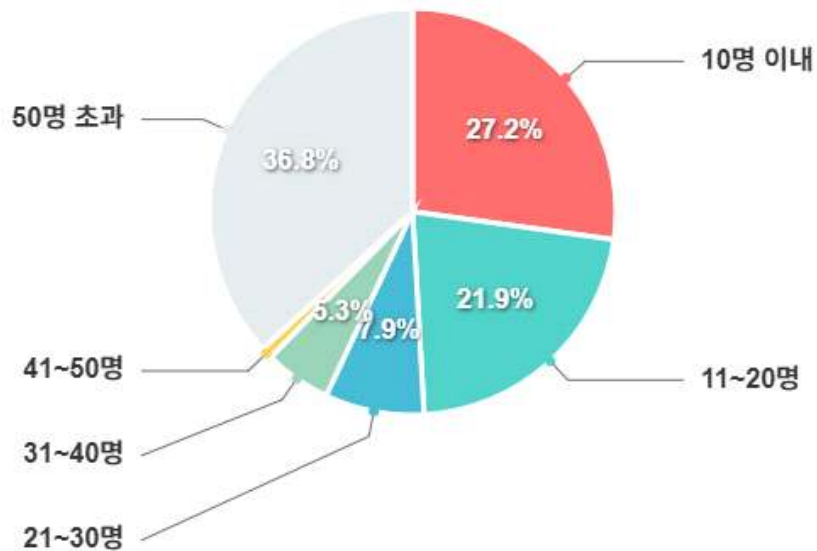
[그림 42] 프로그램 공급 학급 공급 규모

#### 4) 기관이 보유한 소속 강사 자원

기관이 보유한 소속 강사 자원을 보면, 50명 초과가 42곳(36.8%)으로 가장 많았고, 10명 이내도 31곳(27.2%)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21~50명 구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54〉 기관이 보유한 소속 강사 자원

구분	기관이 보유한 소속 강사 자원	
	N	%
10명 이내	31	27.2
11~20명	25	21.9
21~30명	9	7.9
31~40명	6	5.3
41~50명	1	0.9
50명 초과	42	36.8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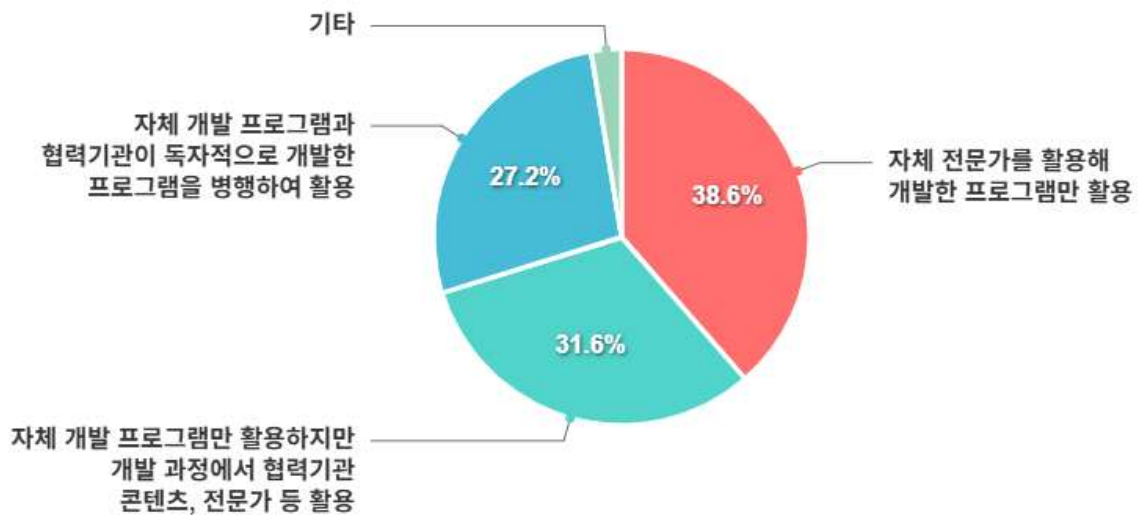
[그림 43] 기관이 보유한 소속 강사 자원

### 5)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보 방식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확보 방식을 보면, 자체 전문가를 활용해 개발한 프로그램만 활용하는 경우가 44곳(3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발 과정에서 협력기관의 콘텐츠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31.6%였으며,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 협력기관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경우도 27.2%로 나타났다.

〈표 55〉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보 방식

구분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보 방식	
	N	%
자체 전문가를 활용해 개발한 프로그램만 활용	44	38.6
자체 개발 프로그램만 활용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협력기관 콘텐츠, 전문가 등 활용	36	31.6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 협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활용	31	27.2
기타	3	2.6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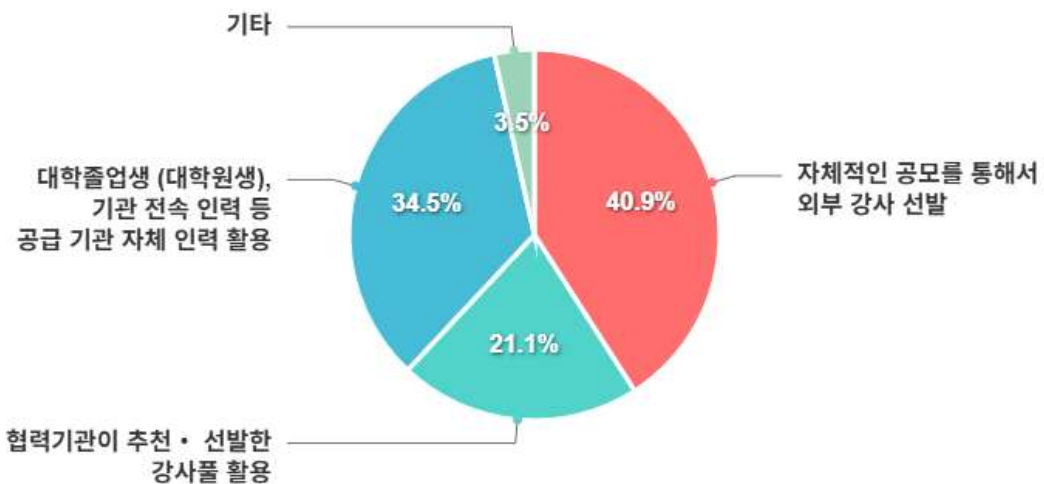
[그림 44]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보 방식

## 6)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확보 방법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 확보 방법에 대한 것이다. 기관별로 강사 확보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 문항은 중복 선택을 허용하여 조사되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확보 방법을 보면, 자체적인 공모를 통해 외부 강사를 선발하는 방식이 40.9%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급 기관이 보유한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34.5%였으며, 협력 기관이 추천·선발한 강사풀 활용 방식도 21.1%로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확보 방법

구분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확보 방법	
	N	%
자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외부 강사 선발	70	40.9
협력기관이 추천·선발한 강사풀 활용	36	21.1
대학졸업생(대학원생), 기관 전속 인력 등 공급 기관 자체 인력 활용	59	34.5
기타	6	3.5
계	1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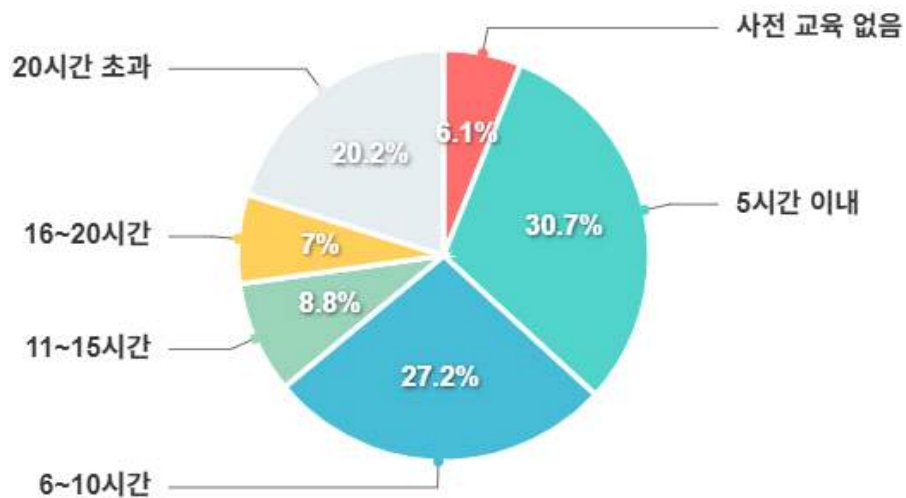
[그림 45]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확보 방법

### 7)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수준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수준을 보면, 5시간 이내가 35곳(30.7%)으로 가장 많았고, 6~10시간이 31곳(27.2%)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전 교육이 없는 경우도 6.1% 있었으며, 20시간을 초과하는 비교적 장시간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는 20.2%로 나타났다.

〈표 57〉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수준

구분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수준	
	N	%
사전 교육 없음	7	6.1
5시간 이내	35	30.7
6~10시간	31	27.2
11~15시간	10	8.8
16~20시간	8	7.0
20시간 초과	23	20.2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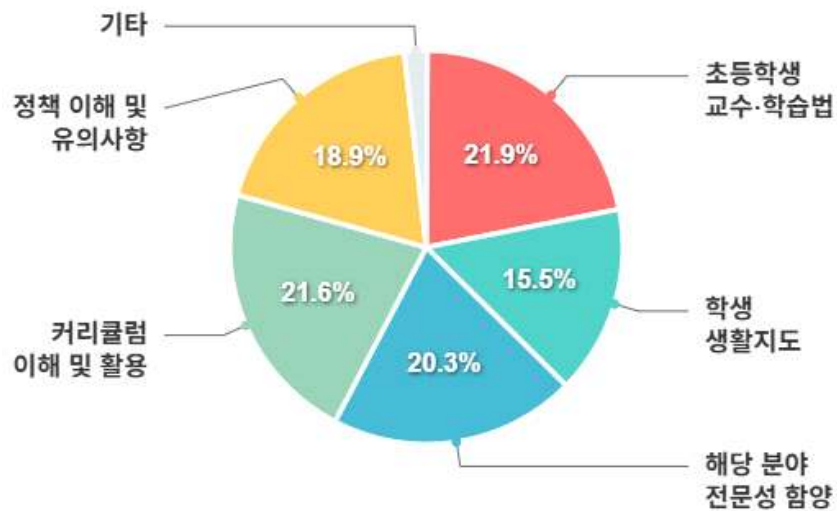
[그림 46]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수준

## 8)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내용

다음은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의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내용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내용으로는 초등학생 교수·학습법이 2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커리큘럼 이해 및 활용(21.6%)과 해당 분야 전문성 함양(20.3%)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정책 이해 및 유의사항, 학생 생활지도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 밖의 다른 내용들도 소수 강사 사전 교육(연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내용

구분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내용	
	N	%
초등학생 교수·학습법	82	21.9
학생 생활지도	58	15.5
해당 분야 전문성 함양	76	20.3
커리큘럼 이해 및 활용	81	21.6
정책 이해 및 유의사항	71	18.9
기타	7	1.9
계	3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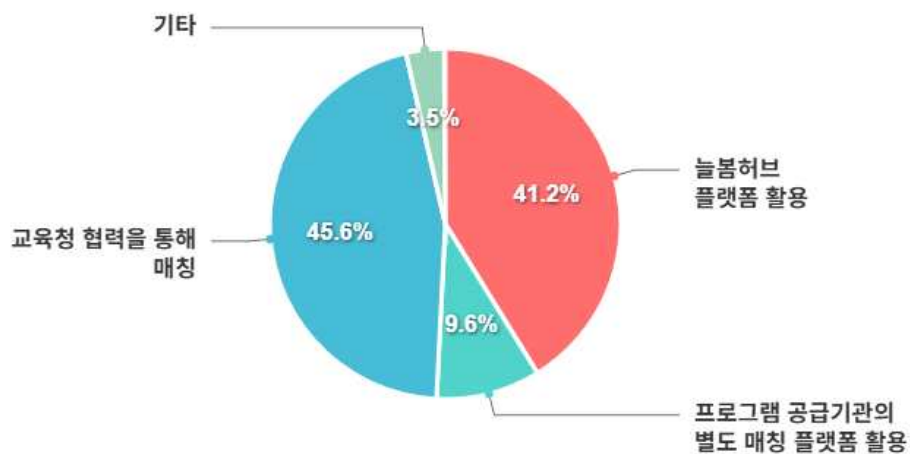
[그림 47]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 내용

### 9) 개발 프로그램의 학교 매칭 방법

다음은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교와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개발 프로그램의 활용에서 학교 매칭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 결과, 프로그램과 학교를 매칭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 협력을 통한 매칭이 52곳(45.6%)으로 가장 많았고, 늘봄허브 플랫폼 활용도 47곳(41.2%)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프로그램 공급기관의 별도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는 9.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관의 학교 매칭 방식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 단위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프로그램 공급 기관과 학교 간 연계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9〉 프로그램 학교 매칭 방법

구분	프로그램 학교 매칭 방법	
	N	%
늘봄허브 플랫폼 활용	47	41.2
프로그램 공급기관의 별도 매칭 플랫폼 활용	11	9.6
교육청 협력을 통해 매칭	52	45.6
기타	4	3.5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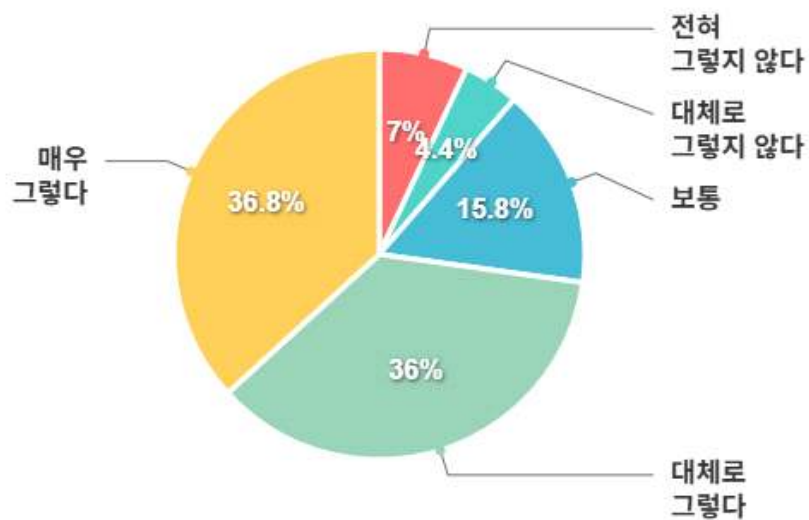
[그림 48] 프로그램 학교 매칭 방법

## 10) 공급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

다음은 개발·공급한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문항의 결과이다. 조사 결과, 공급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36.0%와 36.8%이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7.0%와 4.4%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공급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공급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0〉 공급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

구분	공급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8	7.0
대체로 그렇지 않다	5	4.4
보통	18	15.8
대체로 그렇다	41	36.0
매우 그렇다	42	36.8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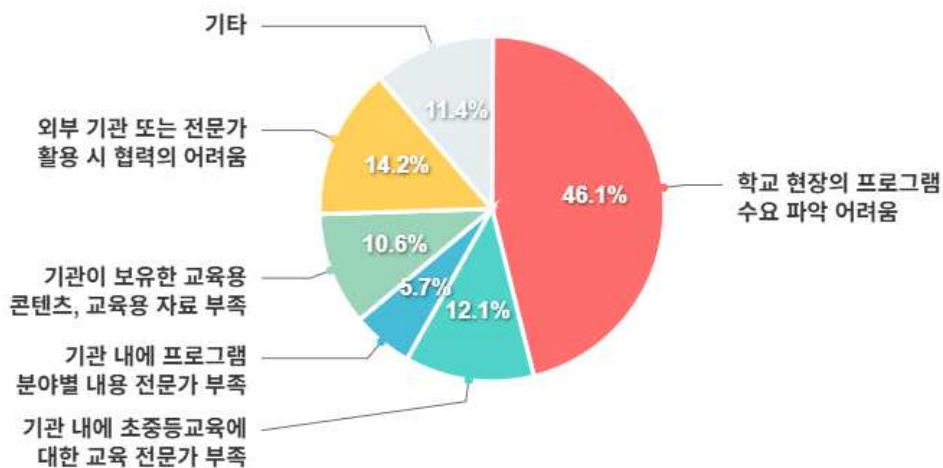
[그림 49] 공급 프로그램의 활용 정도

### 11)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프로그램 공급 기관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어려움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는 학교 현장의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용 콘텐츠나 자료 부족(14.2%),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협력 어려움(11.4%), 기관 내 초·중등 교육 전문가 부족(12.1%) 등이 제시되었다.

〈표 61〉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구분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N	%
학교 현장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어려움	65	46.1
기관 내에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 전문가 부족	17	12.1
기관 내에 프로그램 분야별 내용 전문가 부족	8	5.7
기관이 보유한 교육용 콘텐츠, 교육용 자료 부족	15	10.6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 활용 시 협력의 어려움	20	14.2
기타	16	11.4
계	1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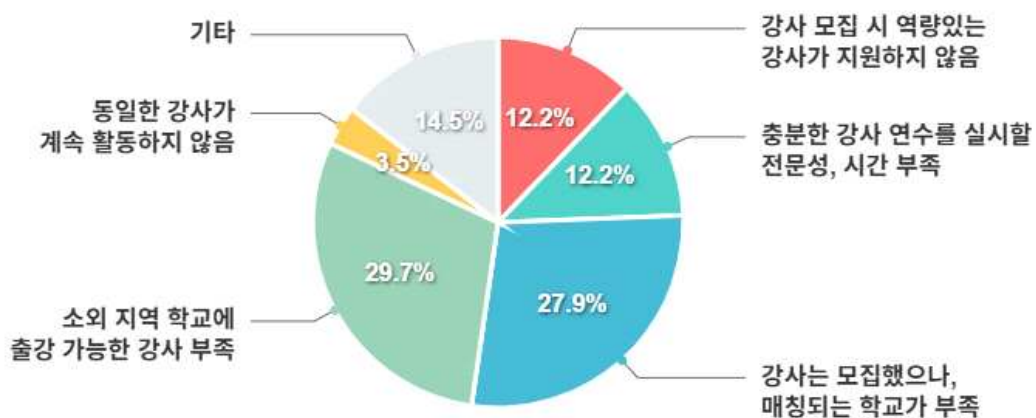
[그림 50]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 12) 강사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다음은 강사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공급 기관의 입장에서 강사 선발 및 운영 과정의 어려움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소외 지역 학교에 출강 가능한 강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았고, 강사는 모집했으나 매칭되는 학교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27.9%로 나타났다. 또한 역량 있는 강사 지원 부족과 충분한 강사 연수 여건 부족이 각각 12.2%로 지적되었다.

〈표 62〉 강사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구분	강사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N	%
강사 모집 시 역량 있는 강사가 지원하지 않음	21	12.2
충분한 강사 연수를 실시할 전문성, 시간 부족	21	12.2
강사는 모집했으나, 매칭되는 학교가 부족	48	27.9
소외 지역 학교에 출강 가능한 강사 부족	51	29.7
동일한 강사가 계속 활동하지 않음	6	3.5
기타	25	14.5
계	1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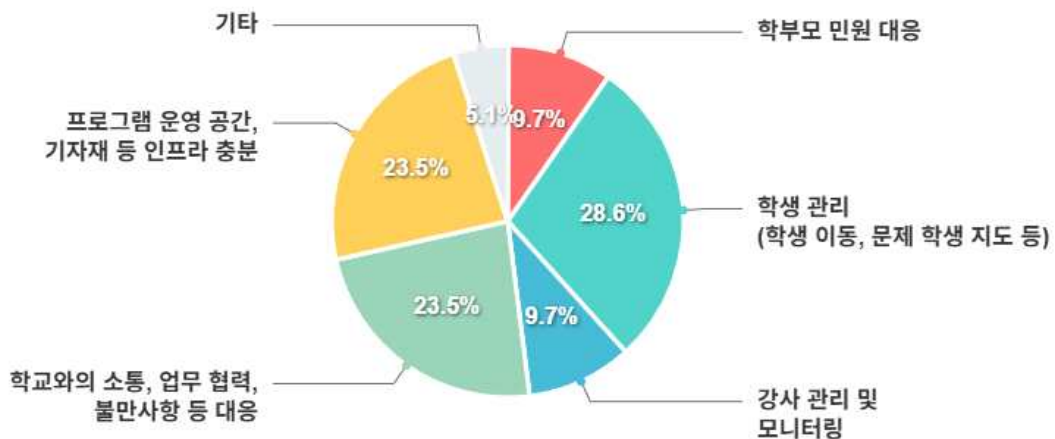
[그림 51] 강사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13)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의 어려움은 공급 기관의 입장에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항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학생 관리 문제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와의 소통·업무 협력 및 불만 대응,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기자재 등 인프라 부족이 각각 23.5%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학부모 민원 대응과 강사 관리·모니터링에 대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3〉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구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N	%
학부모 민원 대응	21	9.7
학생 관리 (학생 이동, 문제 학생 지도 등)	62	28.6
강사 관리 및 모니터링	21	9.7
학교와의 소통, 업무 협력, 불만사항 등 대응	51	23.5
프로그램 운영 공간, 기자재 등 인프라 충분	51	23.5
기타	11	5.1
계	2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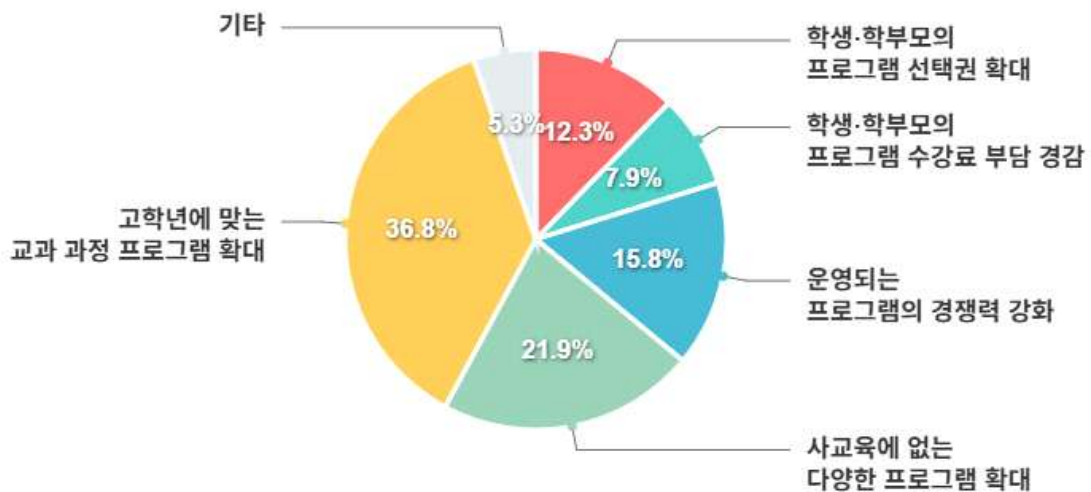
[그림 5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14)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

다음은 프로그램 공급 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이다.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항으로는 고학년에 맞는 교과 과정 프로그램 확대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교육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가 21.9%,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가 1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수강료 부담 경감과 선택권 확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64〉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

구분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	
	N	%
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	14	12.3
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수강료 부담 경감	9	7.9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18	15.8
사교육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25	21.9
고학년에 맞는 교과 과정 프로그램 확대	42	36.8
기타	6	5.3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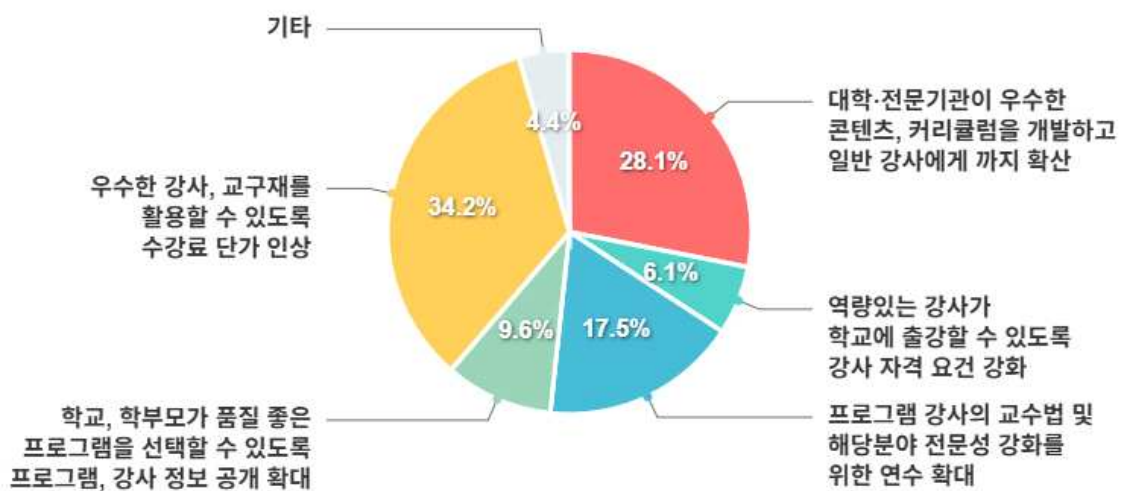
[그림 53]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

15)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우수한 강사와 교구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전문기관이 우수한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개발해 확산하는 방안이 28.1%였으며, 강사 연수 확대에 대한 의견도 17.5%로 나타났다.

〈표 65〉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구분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N	%
대학·전문기관이 우수한 콘텐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일반 강사에게 까지 확산	32	28.1
역량있는 강사가 학교에 출강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요건 강화	7	6.1
프로그램 강사의 교수법 및 해당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20	17.5
학교, 학부모가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강사 정보 공개 확대	11	9.6
우수한 강사, 교구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 단가 인상	39	34.2
기타	5	4.4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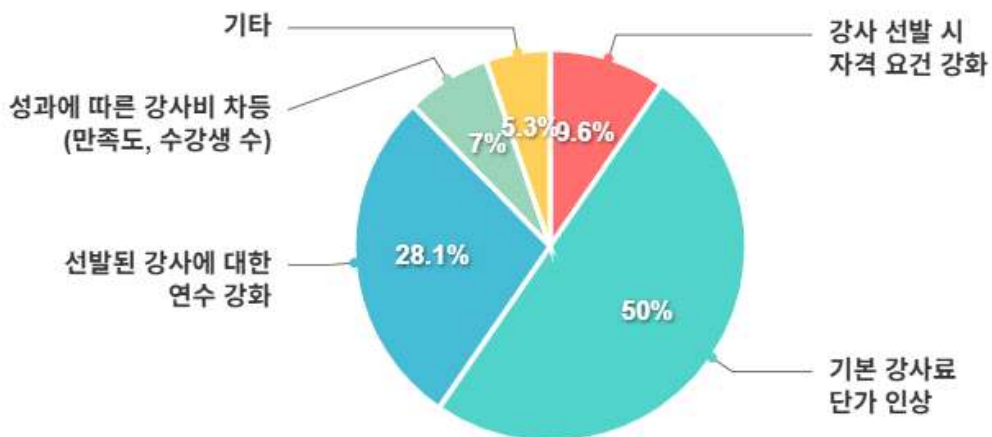
[그림 54]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 16)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활용 촉진 요인

다음은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요인에 대한 것이다. 조사 결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지도 제고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늘봄허브 활성화와 교육청 지원 확대가 28.1%로 뒤를 이었으며, 비용 부담 완화와 수요 반영 확대도 일부 제시되었다.

〈표 66〉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활용 촉진 요인

구분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활용 촉진 요인	
	N	%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학부모 수요 반영 확대	15	13.2
대학·전문 기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	46	40.4
매칭과정에서 늘봄허브 활성화 및 교육청 지원 확대	32	28.1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 인하 (또는 학교에 비용 추가 지원)	15	13.2
학교에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2	1.8
기타	4	3.5
계	114	100.0



[그림 55] 소속 강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 17) 소속 강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소속 강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기본 강사료 단가 인상이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선발된 강사에 대한 연수 강화가 28.1%였으며, 자격 요건 강화나 성과에 따른 강사비 차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67〉 소속 강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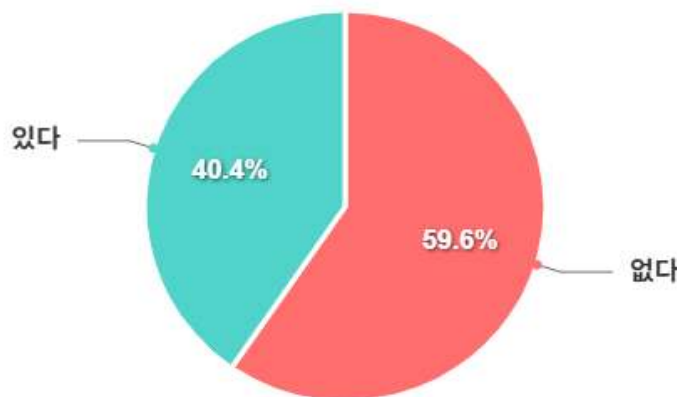
구분	소속 강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N	%
강사 선발 시 자격 요건 강화	11	9.6
기본 강사료 단가 인상	57	50.0
선발된 강사에 대한 연수 강화	32	28.1
성과에 따른 강사비 차등(만족도, 수강생 수)	8	7.0
기타	6	5.3
계	114	100.0

### 18) 학교 밖 지역 돌봄센터 등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학교 밖 지역 돌봄센터 등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9.6%으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4%으로 나타났다.

〈표 68〉 학교밖 지역 돌봄센터 등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구분	학교밖 지역 돌봄센터 등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N	%
없다	68	59.6
있다	46	40.4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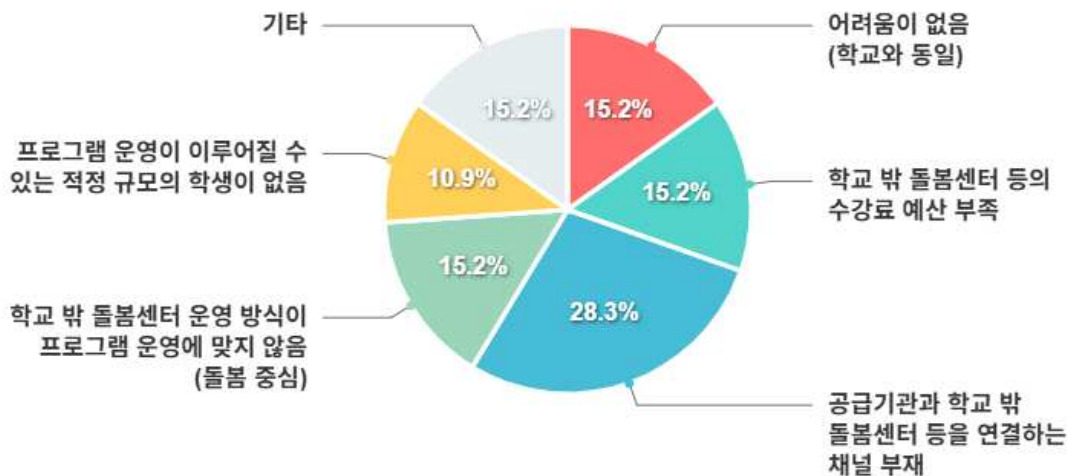
[그림 56] 학교밖 지역 돌봄센터 등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 19)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공급 경험시 어려움 종류

다음은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이 문항은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 한정하여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공급기관과 돌봄센터를 연결하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8.3%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수강료 예산 부족, 돌봄 중심 운영 방식으로 인한 제약, 적정 규모의 학생 확보 어려움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표 69〉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공급 경험시 어려움 종류

구분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공급 경험시 어려움 종류	
	N	%
어려움이 없음(학교와 동일)	7	15.2
학교 밖 돌봄센터 등의 수강료 예산 부족	7	15.2
공급기관과 학교 밖 돌봄센터 등을 연결하는 채널 부재	13	28.3
학교 밖 돌봄센터 운영 방식이 프로그램 운영에 맞지 않음 (돌봄 중심)	7	15.2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생이 없음	5	10.9
기타	7	15.2
계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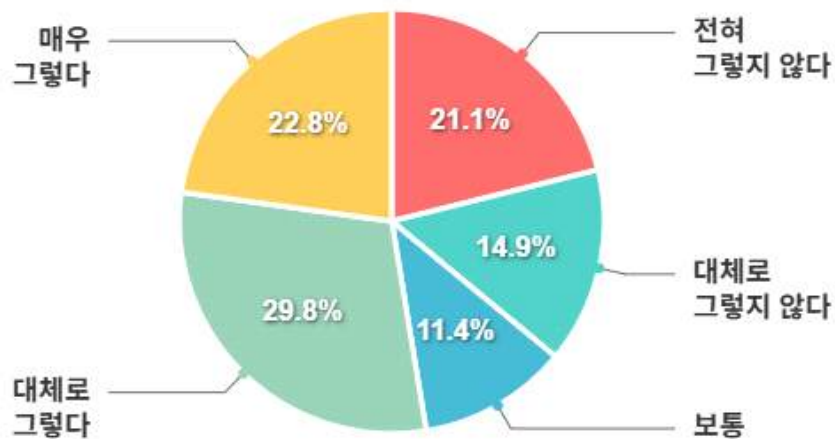
[그림 57]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 공급 경험시 어려움 종류

## 20) 고학년 학생들에게 교과 프로그램 공급 의향 정도

고학년 학생들에게 교과 프로그램을 공급할 의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29.8%와 22.8%로 나타나서 공급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1.1%와 14.9%로 나타나서 공급 의향이 낮은 기관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고학년 학생들에게 교과 프로그램 공급 의향 정도

구분	고학년 학생들에게 교과 프로그램 공급 의향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24	21.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7	14.9
보통이다	13	11.4
대체로 그렇다	34	29.8
매우 그렇다	26	22.8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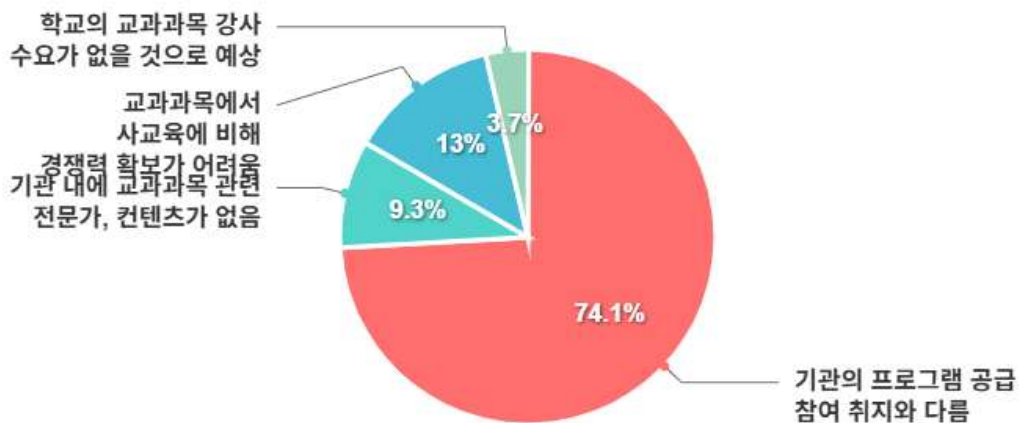
[그림 58] 고학년 학생들에게 교과 프로그램 공급 의향 정도

## 21) 공급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다음은 고학년 대상 교과 프로그램 공급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이 문항은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 공급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에 한정하여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는 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참여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74.1%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교과과목 분야의 전문 인력이나 콘텐츠 부족, 사교육 대비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일부 제시되었다. 현재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이 1-2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져 이루어지고 있고, 범부처 기관들은 본격적인 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고학년 대상 교과 프로그램을 공급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급 기관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표 71〉 공급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구분	공급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N	%
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참여 취지와 다름	40	74.1
기관 내에 교과과목 관련 전문가, 콘텐츠가 없음	5	9.3
교과과목에서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7	13.0
학교의 교과과목 강사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2	3.7
기타	0	0.0
계	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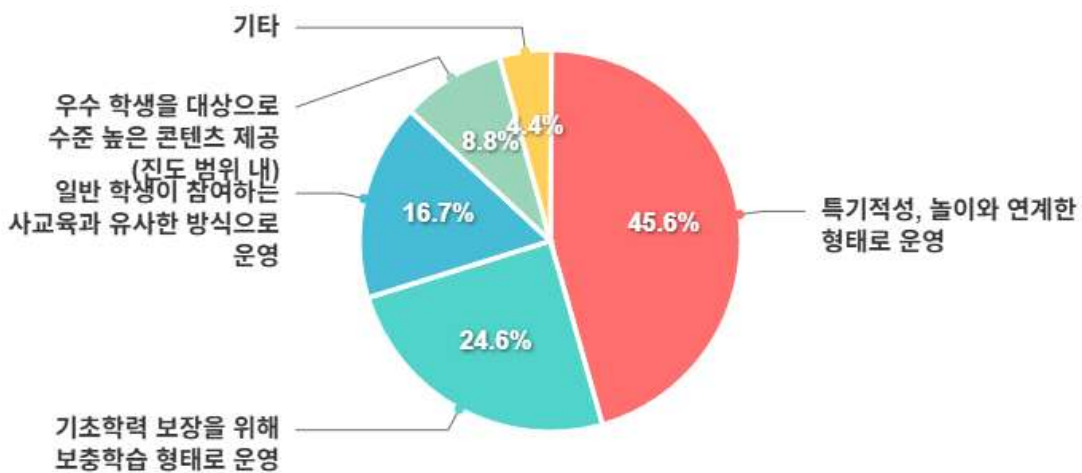
[그림 59] 공급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

## 22) 교과 프로그램 확대 방향

다음은 고학년 대상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그 방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교과 프로그램 확대 방향으로는 특기적성이나 놀이와 연계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52곳(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학습 형태가 24.6%였으며, 사교육과 유사한 방식이나 우수 학생 대상 심화 운영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결과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고학년 대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직접적인 교과 학습보다는 다양한 활동이 결합된 창의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72〉교과 프로그램 확대 방향

구분	교과 프로그램 확대 방향	
	N	%
특기적성, 놀이와 연계한 형태로 운영	52	45.6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형태로 운영	28	24.6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사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19	16.7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 (진도 범위 내)	10	8.8
기타	5	4.4
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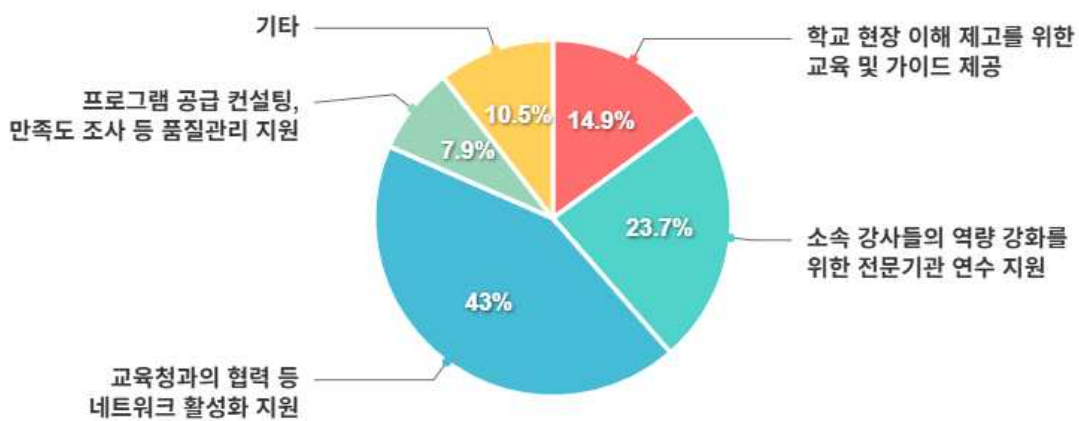
[그림 60] 교과 프로그램 확대 방향

### 23)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

다음은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는 교육청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4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소속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수 지원이 23.7%였으며, 학교 현장 이해를 돕는 교육·가이드 제공도 일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교육청 협력 등 네트워크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수요 파악과 함께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매칭의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73>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

구분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	
	N	%
학교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가이드 제공	17	14.9
소속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수 지원	27	23.7
교육청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49	43.0
프로그램 공급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품질관리 지원	9	7.9
기타	12	10.5
계	114	100.0



[그림 61]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

## 24) 자유 의견

공급기관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지역 여건과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농어촌과 도시 간 운영 방식(수강료 등)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제도 설계에 반영이 부족하고, 교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과 늘봄을 혼합 운영하다 보니 동선·관리·수업 안정성 측면에서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사업 예산 집행 시기와 실제 운영 일정이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계획 수립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교육청·지자체·거점센터 간 지원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 식도 공유되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부담이 큰 데 비해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프로그램 개발·운영 측면에서는 개발 주체(대학 등) 중심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 수업 환경과 괴리가 있어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기간에 고품질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및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개발 성과가 축적·확산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더불어 프로그램 질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참여 학생의 수준 편차를 반영한 운영이 어렵고 학업과의 연계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학생 수요와 무관하게 공급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어 수요조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강사 관련해서는 낮은 강사로 단가로 인해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고, 교통비나 지역별 여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계약, 출석 관리, 각종 요구 서류 등 강사에게 부과되는 행정 부담이 과중하며, 강사 연수도 부족해 심화연수 확대, 현장 참관, 초등 교사 참여형 양성 체계 등 전문성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장기간 고정 스케줄과 낮은 보수 구조가 지속되면서 강사 참여 희망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교구와 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교구재비가 부족해 학생 1인당 교구재비를 상향할 필요가 있고, 교구 관리 체계와 투명한 비용 산정 방식 마련이 요구되었다. 장기 활용 가능한 교구와 소모성 교구를 구분해 예산을 설계·집행해야 하며, 예산 잔여가 발생해도 활용이 어려운 구조가 있어 탄력적인 예산 운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홍보·인지도 및 매칭 체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인지도와 홍보가 부족해 공급이 저조하고, 기관이 개별적으로 학교를 접촉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조사, 스케줄 공유, 학교-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늘봄허브’와 같은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학부모 대상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문의가 폭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 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정책·제도 개선 요구로는 권역별 지정학교 운영제 도입, 프로그램 공급·운영의 법제화 및 저작권 보호 제도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성과지표 중심의 관리보다 시스템 자체를 안정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범부처·지자체 연계를 강화해 초기 물량 부족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우수 프로그램과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질 높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교육적 가치와 내용 측면에서는 문해력 향상, 마음 돌봄, 특기적성 발굴 등 교육적 효과가

분명한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학생 흥미와 학업 연계를 동시에 고려한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가 제시되었다. 특히 교과 중심 요소와 돌봄 기능이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언급되었으며, 팀티칭이나 지역대학 협력 등 새로운 운영 방식이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되면서,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확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표 74〉 자유 의견(공급기관)

구분	주요 의견	세부 요청 내용
행정 및 제도 기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전담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서류 부담을 전담할 인력 부족 해소</li> <li>• 사업 예산 집행 시기와 실제 운영 일정 간의 불일치 개선 요구</li> <li>• 교육청·지자체·거점센터 간의 유기적인 지원 및 협력 체계 강화</li> </ul>
강사 수급 및 처우	강사로 단가 현실화 및 행정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강사료와 교통비 미반영으로 인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li> <li>• 계약, 출석 관리 등 강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 업무 개선</li> <li>• 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 연수 및 초등교사 참여형 양성 체계 필요</li> </ul>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	현장 적합성 제고 및 저작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주체(대학 등)와 학교 현장 환경 간의 괴리 해소를 위한 수요조사 강화</li> <li>• 단기간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력·시스템 지원 및 저작권 보호 장치 마련</li> <li>• 학생 수준 편차를 반영한 운영 및 학업 연계성 강화 요구</li> </ul>
매칭 및 홍보 체계	플랫폼 중심의 매칭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이 개별적으로 학교를 접촉해야 하는 비효율적 매칭 구조 개선</li> <li>• '늘봄허브' 등 통합 플랫폼을 통한 수요·공급 정보 공유 및 매칭 지원</li> <li>• 인지도 부족 해결을 위한 학부모 대상 홍보 및 정보 제공 체계 강화</li> </ul>
공간 및 예산 운용	운영 인프라 확보 및 예산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과 돌봄의 혼합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 및 수업 불안정성 해결</li> <li>• 학생 1인당 교구재비 상향 및 장기 활용/소모성 교구의 탄력적 예산 설계</li> <li>• 예산 잔여 발생 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운영 방식 도입</li> </ul>
교육 가치 및 정책	정책 안정성 및 교육적 효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권 변화와 무관한 정책 안정성 확보 및 프로그램 공급의 법제화</li> <li>• 문해력, 마음 돌봄, 특기적성 등 교육적 효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확대</li> <li>• 우수 프로그램 및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콘텐츠 질 제고</li> </ul>

## 5절 2차 조사 결과 (학부모 및 학교 담당자)

### 1 조사 개요

학부모 및 학교 담당자 조사는 1년 동안 늘봄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반영한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1차 조사와 동일한 표본 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4일(수)부터 2월 2일(월)까지 2차 조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2차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학부모 설문은 2,213명, 학교 담당자 설문은 162명이었다.

조사 내용은 1차 설문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초 3학년 이후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 문항을 일부 추가로 포함하였다. 1차 설문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은 1년 동안의 늘봄학교 경험 이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학부모 설문은 경우, 자녀 돌봄 상황(맞벌이 여부), 학교 환경(사교육 밀집 정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참여 여부 및 유형), 프로그램 만족도 및 품질(만족도, 프로그램 개선 필요 사항), 고학년 참여 확대(초 3학년 진급 시 늘봄학교 참여 의향 및 참여 중단 고려 사유, 고학년 늘봄학교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학년군별 차별화 필요성) 등이 1차 조사와 동일한 문항이 사용되었고, 초 3학년 이후 돌봄 필요성 변화, 고학년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제고에 도움이 되는 요소 등이 추가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표 75〉 조사틀(학부모) : 2차 조사

조사 영역	조사 항목	1차 조사 문항 여부
가정 여건 및 이용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돌봄 상황(맞벌이 여부 등)</li> <li>• 거주 지역 학원 밀집도</li> </ul>	동일
늘봄학교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학교 참여 여부</li> <li>• 참여 늘봄 과정의 유형</li> </ul>	동일
프로그램 만족도 및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li> <li>• 프로그램 개선 필요 사항(수요 반영, 내용, 비용 등)</li> </ul>	동일
고학년 늘봄학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3 진급 시 늘봄학교 참여 의향 및 참여 중단 고려 사유</li> <li>• 고학년 늘봄학교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li> <li>• 학년군별 차별화 필요성</li> </ul>	동일
초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3학년 이후 돌봄 필요성 변화</li> <li>• 고학년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제고에 도움이 되는 요소</li> </ul>	신규

학교 담당자 설문은 학교 여건 및 환경(지역 특성, 학교 규모),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유형별 프로그램 수, 유형별 참여 학생 현황), 운영 애로사항(공간 부족 정도, 외부 공간·기관 활용 의사) 등이 1차 조사와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무상 프로그램 수, 외부 기관 제공 프로그램 활용 현황, 돌봄 초과 수요 발생 시 지역 내 돌봄센터 활용 시 도움이 되는 요인 등에 대

한 문이 새롭게 추가되어 조사되었다.

〈표 76〉 조사틀(학교 담당자) : 2차 조사

조사 영역	조사 항목	1차 조사 문항 여부
학교 여건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인력 구조: 편성 책임자 직위, 실장 배치 현황</li> <li>• 학교 환경: 지역 특성, 학교 규모</li> </ul>	동일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규모: 유형별 강좌 수 및 참여 학생 비율</li> <li>• 무상 프로그램 수, 외부 기관 제공 프로그램 활용 현황</li> </ul>	동일 신규
개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학년 학생 참여 제고 과정에서 어려움</li> <li>• 방과후·돌봄 고학년 확대에서 예상 어려움</li> <li>• 공간 부족 시 외부 공간·기관 활용 의사</li> <li>• 돌봄 초과 수요 발생 시 지역 돌봄센터 활용 도움 요인</li> </ul>	신규

## 2 조사 결과

### 가 학부모 조사 결과

#### 1)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1차 조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2차 설문에 참여한 초2 학부모 81.4%가 초등 돌봄·교육 이용 증이고, 이용자 중에는 선택형·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율은 1차 조사의 81.4%로 동일하였고, 유형별 참여율은 맞춤형 교육과 선택형 교육은 다소 감소하였고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참여가 19.8%에서 33.0%로 증가하였다. 이는 2학기로 이어지면서 돌봄 프로그램의 확대와 참여 이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만족도는 2차 조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76.3%)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결과(63.4%)와 비교해볼 때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1학기 시행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시행착오를 거쳐 학교별로 안정화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늘봄학교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프로그램 내용(33.5%), 학부모 수요 반영(19.2%) 등이 높은 비율로 응답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내용과 학부모 수요 반영은 각각 36.7%와 18.3%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늘봄학교 개선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는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학부모 수요를 통한 선택권 강화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용 여부	① 이용		② 미이용				
	86.9%		13.1%				
↓ (프로그램 유형은 중복선택 가능, 1,839명 중 해당 프로그램 참가 비율)							
이용 프로그램	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②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③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48.3%	50.7%	33.0%				
만족도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0.8%	3.1%	19.9%	48.4%	27.9%		
개선 필요 사항	① 학부모 수요 반영	② 비용 부담 경감	③ 프로그램 내용	④ 강사 역량	⑤ 교재교구 품질	⑥ 교육 효과	⑦기타( )
	19.2%	14.7%	33.5%	11.3%	4.0%	11.7%	5.7%

[그림 62]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부모 2차 조사)

### 2) 초 3학년 이후 참여 의사

현재 이용자 대부분이 초3에 진학시에도 계속 이용한다는 입장이며, 참여 중단을 고려하는 이유는 사교육 참여가 다수로 나타났다. 1차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계속 참여 예정인 응답은 68.7%에서 63.9%로 다소 감소하였고, 중단 고려 응답은 12.2%에서 18.5%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자녀가 학년이 올라갈 시점에서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맞춤형 교육이나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의 기회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가 사교육이나 지역돌봄센터로 이동하여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3 진학시 이용의사	① 현재 이용 중이고 계속 참여 예정	② 현재 참여 중이나 참여 중단 고려 중	③ 현재 참여하지 않으나 향후 참여 고려	④ 현재도 앞으로도 참여 의사 없음
	63.9%	18.5%	12.6%	5.0%
↓ (②에 응답한 339명의 참여 중단 이유)				
참여 중단 이유	① 정규수업 시간 확대로 돌봄교육 수요 해소	②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사교육 참여 확대	③ 안정적 돌봄을 위해 지역 돌봄센터 등 이용	④ 기타
	20.9%	58.7%	7.4%	13.0%

[그림 63] 초 3학년 이후 참여 의사 (학부모 2차 조사)

### 3) 고학년 프로그램 운영 방식

고학년 운영 방식으로는 ‘참여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참여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의견이 53.9%에서 소폭 감소하고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은 제한되더라도 안정적인 돌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 응답이 21.2%에서 25.1%로 조금 증가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선택권 우

선'의 의견이 8.8%에서 11.1%로 증가한 경향을 함께 고려하면 선택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년군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70.8%으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1차 조사 결과의 69.0%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결과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1-2학년때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는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3 이후 프로그램 운영 방향	①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은 제한되더라도 안정적인 돌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	②안정적 돌봄 우선	③ 선택권 우선	④ 참여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	⑤ 기타
	25.1%	23.1%	11.1%	40.3%	0.4%
학년군별 구분 필요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4%	5.0%	20.8%	50.0%	20.8%

[그림 64] 고학년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부모 2차 조사)

#### 4) 초 3학년 시기 학교 돌봄의 필요성

초 3학년 시기 학교 돌봄의 필요성으로는 학교 돌봄의 필요성 감소, 돌봄보다 교육 활동의 필요성, 학생 특성과 관심에 따른 프로그램 선택권 중요성 등 3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자녀가 초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돌봄의 필요성은 감소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와 같은 필요 해소 방식으로는 '돌봄보다는 교육(학습,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3%로 높았으며, 프로그램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8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 돌봄 필요성의 감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9%	23.9%	22.5%	24.8%	8.8%
돌봄보다 교육(학습, 체험) 활동 필요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6.2%	15.3%	38.9%	36.4%
학생 특성과 관심에 따른 프로그램 선택권 중요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0.5%	1.5%	12.1%	43.8%	42.0%

[그림 65] 초 3학년 학교 돌봄의 필요성 (학부모 2차 조사)

### 5) 초 3학년 이후 참여율 제고 방안

초 3학년 이후 학생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선택형 프로그램 확대, 수강료 지원(바우처 지급), 사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화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질 높은 교과 프로그램 제공 등 4개 문항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초 3학년 이후 방과후 학교 참여를 높이는 데 특기적성 및 교과 선택형 프로그램 확대, 바우처를 통한 수강료 지원, 사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85%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다양한 선택형 프로그램 (특기적성 및 교과) 확대	0.4%	1.2%	13.1%	39.5%	45.9%
수강료 지원 (바우처 지급)	1.5%	2.3%	14.2%	34.5%	47.4%
사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운 특화 프로그램 제공	0.6%	2.6%	12.4%	33.9%	50.5%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질 높은 교과 프로그램 제공	0.9%	2.1%	13.3%	31.8%	51.9%

[그림 66] 초 3학년 이후 참여율 제고 방안 의견 (학부모 2차 조사)

## 나 학교 담당자 조사 결과

### 1)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다음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25학년도 2학기 설문 참여 학교들의 유형별 프로그램 수는 평균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9.48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17.90개,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3.22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무상 프로그램은 38.5% 정도 이었고, 외부 프로그램 활용 비율은 46.4%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 제공 프로그램 활용 시 대학 제공 프로그램이 69.0%로 높았고, 활용 이유는 프로그램 다양성 제고가 85.9%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 제공 프로그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 프로그램 제공과 행정 업무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

되었다.

25. 2학기 유형별 프로그램	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②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③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9.48개	17.90개	3.22개				
무상 프로그램 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무상 프로그램 비율*			
	5.12개	0개	47개	38.5%			
* 학교별 무상 프로그램 수를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수로 나눈 값임							
외부 기관 프로그램 활용	① 활용		② 활용하지 않음				
	46.4%		53.6%				
↓ (유형 및 활용 이유는 중복선택 가능, 활용 응답 71개교 중 응답 비율)							
프로그램 유형	대학 운영	전문기관 운영(범부처)	민간기관 운영	기타			
	69.0%	36.6%	18.3%	16.9%			
활용 이유	① 자체 강사 확보 어려움	② 예산 부족	③ 프로그램 다양성 제고	④ 지역적 필요성	⑤ 학부모 높은 수요	⑥ 사교육 대체 효과	⑦기타 ( )
	23.9%	16.9%	85.9%	22.5%	12.7%	4.2%	1.4%
(외부 프로그램 활용 필요 사항은 중복선택 가능, 전체 학교 153개교 중 응답 비율)							
외부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필요 사항	① 1년 단위 프로그램 운영	② 차년도 계획 수립 전 홍보 및 안내	③ 학교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	④ 프로그램 다양화	⑤ 학교 교실 공간 확보	⑥ 연계 매칭 과정의 행정 업무 간소화	⑦기타 ( )
	60.1%	39.2%	36.6%	38.6%	37.3%	50.3%	5.9%

[그림 67]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교 담당자 2차 조사)

## 2) 학교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개선 의견

다음은 향후 학교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희망하는 초 1~2학년 학생을 모두 참여하게 하는 데 어려움, 방과후·돌봄 집중 지원 대상의 고학년 확대 시 예상되는 어려움, 공간 부족 시 지역 돌봄센터 활용에 대한 동의 정도 등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참여하게 하는 데 공간 부족과 행정 업무 증가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고학년 확대 시 어려움도 유사하게 공간 부족과 행정 업무 증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공간 부족 시 지역 돌봄센터 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4% 정도가(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외부 공간 이용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많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초 1-2 학생 모두 참여하게 하는 데 어려움	① 강사 섭외 애로	② 학교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③ 행정 업무 증가	④ 기타	
	21.6%	34.6%	39.9%	3.9%	
방과후 돌봄 집중 지원 대상의 고학년 확대 시 예상 어려움	① 강사 섭외 애로	② 학교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③ 행정 업무 증가	④ 기타	
	15.7%	34.0%	45.8%	4.6%	
공간 부족 시 지역 돌봄센터 활용 동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2%	8.5%	26.8%	<b>26.1%</b>	<b>33.3%</b>

[그림 68] 학교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개선 의견

### 3) 초과 돌봄 수요 발생 시 지역 돌봄센터 이용에 도움이 되는 요인

다음은 학교에서 초과 돌봄의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 내 돌봄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구체적 정보 제공, 교육청 운영 이동버스 지원, 학교-지역 돌봄센터 네트워킹 구성과 협력, 협력 모델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은 모두 지역 돌봄센터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게 구체적 정보 제공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6%	9.8%	20.3%	<b>32.7%</b>	<b>32.7%</b>
교육청 운영 이동버스 등 지원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8%	5.9%	19.0%	<b>22.2%</b>	<b>45.1%</b>
학교-지역 내 돌봄센터 간 네트워크 구성 협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8%	7.2%	27.5%	<b>26.8%</b>	<b>30.7%</b>
지역 돌봄센터와 협력 모델 및 우수사례 공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8%	10.5%	28.1%	<b>27.5%</b>	<b>26.1%</b>

[그림 69] 초과 돌봄 수요 발생 시 지역 돌봄센터 이용에 도움이 되는 요인

## 6절 소결 및 시사점

### 1 소결

#### 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선택 요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모 응답 기준으로 81.4%가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유형은 맞춤형 교육(43.6%)과 선택형 교육(43.6%)이 동일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택형 돌봄(12.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학교 담당자 응답에 따르면 학생 평균 참여율은 73.8%로 확인되었고, 유형별 참여는 맞춤형 교육(45.2%), 선택형 교육(49.7%), 선택형 돌봄(42.2%)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맞춤형 교육(51.0%)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로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38.5%)가 최다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일정 시간 동안 확실한 돌봄을 제공해서(27.0%)가 높아, 프로그램 선택에서 '활동의 다양성'과 '돌봄의 안정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 학교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및 개선 요구

학교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보면, '대체로 만족'(45.2%)과 '매우 만족'(18.2%)을 합한 만족 응답이 63.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가 우세하였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로 확인되어, 소수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집단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프로그램 내용(68.1%)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교육 효과(12.7%), 강사 역량(9.5%) 순이었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프로그램 내용(36.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부모 수요 반영(18.3%)이 제시되어, '내용의 질'과 '수요 기반 설계'가 개선의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다.

#### 다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에서 선호(참여)가 높은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선호도(참여도)가 높은 분야를 보면, 학교 담당자는 체육(31.0%), 문화예술(30.8%), 창의과학(19.7%)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문화예술(30.2%)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고, 이어 체육(24.9%), 창의과학(18.9%), 교과교육(11.4%)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형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담당자가 체육(23.9%), 디지털(14.4%), 과학(14.0%), 미술(12.7%) 순으로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체육(17.5%), 미술(15.0%), 과학(12.1%), 음악(10.5%) 순으로 나타나 일부 영역에서 우선순위 차이가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체육'은 양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는 핵심 분야이며, 학교 측은 선택형에서 디지털·과학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한 반면 학부모는 미술·음악 등 예술 영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 라 공간 여건과 외부 기관 연계 활용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운영 여건 측면에서 공간 부족 정도에 대한 학교 담당자 인식을 보면, '부족한 편(매우 부족 포함)'이 48.6%로 '부족하지 않은 편(전혀 부족하지 않다 포함)' 34.3%보다 높아, 학교 현장에서 공간 부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간 부족 시 외부 공간 또는 협력 가능한 돌봄 기관 활용 의사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69.4%로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안전사고 등 학생 관리 문제(78.7%)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외부 연계 확대 논의가 단순한 자원 연계 차원을 넘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마 고학년(초3 이상) 늘봄학교 참여 의사 및 참여 확대 조건

현재 초2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3 진급 시 늘봄학교 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 참여 의사에 대한 긍정 응답은 83.2%, 부정 응답은 16.8%로 나타나, 고학년 진입 이후에도 제도에 대한 기본 수요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현재 참여 중인 학부모 중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교과 교육을 위해 사교육 참여 확대(63.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규 수업 시간 확대로 돌봄 수요가 해소(19.2%)된다는 응답도 일부 확인되었다. 한편, 어떤 점이 보완되면 참여 또는 참여 확대를 고려하겠는지에 대해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편성 확대(25.03%), 프로그램 내용의 품질 제고(23.45%), 안정적 돌봄 시간 보장(19.66%) 순으로 나타나, 고학년 단계에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경쟁력'과 '운영의 안정성'이 참여 유지·확대에 중요한 조건임이 드러났다.

### 바 고학년 참여율 제고를 위한 중요 요인과 정책적 지원 방향

고학년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학교 담당자는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50.5%)를 가장 중시하였고, 사교육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29.6%)도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확충(39.3%)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전문기관 우수 프로그램 공급(27.4%)이 그 뒤를 이었다. 학부모는 초3 이후 운영방식에서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53.9%)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년군별 프로그램 내용 차별화 필요(69.0%)가 높게 나타나, 고학년 대상 운영에서는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는 '수준·흥미·진로 탐색과 연계되는 질적 차별화'가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로 확인된다.

### 사 고학년 대상 확대 필요 프로그램 및 대학·전문기관 역할

고학년 학생을 위한 확대 필요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 담당자는 디지털(23.6%), 체육(15.7%), 인문·사회(11.6%), 과학(11.1%) 순으로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3~4학년군에서는 영어(19.8%), 체육(14.1%), 인문·사회(12.7%), 제2외국어·한문(10.0%) 순이었고, 5~6학년군에서는 영어(20.4%), 인문·사회(16.3%), 수학(14.1%), 제2외국어·한문(12.5%), 디지털(11.3%)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영어·수학) 및 인문사회 영역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 및 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기관이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로 학교 담당자는 디지털(33.3%), 인문·사회(16.7%), 체육(12.5%), 과학(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급기관 측에서는 향후 고학년 프로그램 공급 의

향이 긍정(51.6%)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의향이 없음(36.0%)도 적지 않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아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 관계 인식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완 관계(참여 내용이 구분됨)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고, 독립적 관계(내용적으로 관련 없음)도 31.5%로 나타났다.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희망하는 분야는 주지교과(영어, 수학 등) 63.7%가 가장 높았고, 특기적성(체육, 음악, 미술 등) 28.2%로 나타나, 고학년 시기에는 교과 중심 사교육 수요가 강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자 프로그램 공급기관 운영 실태 및 지원 수요

늘봄학교·방과후학교 관련 활동 기간을 보면, 참여유형별로 범부처 기관과 RISE 기관은 1년 미만이 대다수였으며, 교육청 위탁 기관은 5년 이상과 1년 미만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전문대학의 1년 미만 비율(82.4%)이 매우 높았고, 교육대학은 2~3년 미만(27.3%)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프로그램 개발·공급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 여부에서는 참여유형별로 범부처 기관은 별도 조직이 없음(58.3%)이 가장 높았고, RISE 기관은 정부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68.4%) 비율이 높았다. 창의재단 기관은 정부 사업과 무관하게 조직을 구성(37.5%)한 비율이 다른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대학이 정부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81.8%)이 높았고, 민간기관은 정부 사업과 무관한 조직 구성(57.1%)이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별도 조직이 없음(57.9%)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공급 중인 프로그램 종 수는 참여유형별로 창의재단 기관의 10종 초과 공급(68.8%)이 가장 다양했으며, 범부처 기관은 1~2종 공급(75.0%)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종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공급 학급 규모에서도 창의재단 기관은 50개 초과 학급 공급(68.8%)이 높아 규모가 큰 반면, 범부처 기관은 10개 이내 학급 공급(75.0%)이 높아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대학이 50개 초과 학급 공급(63.6%) 비중이 높았고, 공공기관은 10개 이내 학급 공급(84.2%)이 높았다. 수도권 여부별로는 수도권 기관은 10개 이내 공급(60.0%)이 높았고, 비수도권 기관은 50개 초과 공급(33.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공급 규모의 분포 특성이 일부 상이하였다.

선발 강사 대상 사전 교육(연수) 수준은 지역규모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서울은 중간 수준(③) 52.2%, 광역시는 가장 높은 수준(⑥) 32.1%, 도지역은 낮은 수준(②) 39.7% 응답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학교 매칭 방식은 참여유형별로 범부처 기관은 늘봄허브 플랫폼 활용(79.2%)이 높았고, 교육청 위탁 기관은 교육청 협력을 통한 매칭(81.2%)이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광역시 기관은 늘봄허브 플랫폼 활용(64.3%)이, 도지역 기관은 교육청 협력 매칭(58.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학교 활용도 충족 여부는 참여유형별로 창의재단 기관의 '매우 그렇다(⑤)' 75.0%가 높았으나, 범부처 기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①)' 20.8%가 상대적으로 높아 유형 간 체감 성과 차이가 확인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대학의 '매우 그렇다(⑤)' 72.7%가 높았고,

전문대학은 ‘대체로 그렇다(④)’ 17.6%, ‘매우 그렇다(⑤)’ 35.3%와 함께 ‘보통(③)’ 35.3%도 높게 나타나 활용도 인식이 다소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고학년 대상 교과 프로그램 공급 확대 의향을 보면, 참여유형별로 범부처 기관의 ‘매우 그렇지 않다(①)’ 50.0%가 가장 높아 소극적 경향이 확인된 반면, 창의재단 기관은 긍정(④+⑤) 87.5%, RISE 기관은 긍정(④+⑤) 68.4%로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기관유형별로도 공공기관은 ‘매우 그렇지 않다(①)’ 47.4%가 높았고, 교육대학은 긍정(④+⑤) 81.9%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참여유형별로 RISE 기관은 교육청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③) 55.3%를, 창의재단 기관과 민간기관은 소속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수 지원(②) 각각 50.0%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범부처 기관은 기타 지원(⑤) 29.2%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종합대학(54.5%)과 기타 유형 기관(55.6%)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③)을 가장 필요로 했고, 교육대학(45.5%)은 전문기관 연수 지원(②)을 핵심 지원으로 제시하였다.

## 2 시사점

### 가 참여 기관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함

조사 결과, 범부처 기관·RISE 참여 기관·전문대학은 활동 기간이 1년 미만 비율이 높아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집단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신규·초기 단계 기관을 대상으로는 초기 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 패키지(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등)가 필요하다. 반면 창의재단 기관·교육대학은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하고 공급 규모가 크며 학교 활용도도 높게 나타나, 이들 기관의 성과와 노하우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학습 네트워크(멘토링, 공동연수, 공동개발 등)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범부처 기관은 프로그램 종류·공급 규모·활용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만큼, 무리한 확대보다는 특화 분야 집중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형 모델(공동 기획·공동 운영) 개발이 필요하다.

### 나 전담 조직·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개발·공급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관 내부의 운영 기반이 중요하다. 특히 범부처 기관(58.3%)과 공공기관(57.9%)은 절반 이상이 별도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품질 관리에 구조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기관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전담조직 구성 모델 제시, 인력 배치·업무 분장 가이드, 운영 표준(프로세스·품질관리·성과관리 체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민간기관은 정부 사업과 무관하게 자체 조직을 구성(57.1%)해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이러한 자율 운영 모델을 타 기관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 운영 모델 발굴·사례화·확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 지역 특성에 기반한 차등 지원으로 격차를 완화해야 함

지역별로 공급 규모와 운영 여건의 차이가 확인되어 일률적 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수도권은 소규모 공급(10개 이내 60.0%)이 많은 반면, 비수도권은 대규모 공급(50개 초과

33.3%)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요·공급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수도권은 공급기관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절차 간소화, 매칭 지원, 초기비용 지원 등)가, 비수도권은 대규모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운영지원(현장 컨설팅, 안전·강사관리 체계, 운영 표준화 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강사 연수 수준도 광역시는 높은 수준(32.1%), 도지역은 낮은 수준(39.7%)이 많아 지역 간 강사 역량 격차가 우려되므로, 도지역 대상 집중 연수 프로그램 강화, 온라인 연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 **라** 학교 매칭 시스템은 단일화보다 ‘다원화·최적화’가 필요함

기관 유형과 지역에 따라 선호·활용하는 매칭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예: 범부처 기관은 늘봄허브 플랫폼, 교육청 위탁 기관은 교육청 협력 중심). 따라서 매칭을 한 가지 방식으로 강제하기보다 플랫폼·교육청 협력·지역 거점 연계 등 다양한 채널을 병행 제공하고, 각 방식의 장단점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광역시는 플랫폼 활용이, 도지역은 교육청 협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광역시는 플랫폼 기능 개선과 정보 접근성 강화, 도지역은 교육청 협력 체계 강화(조정·중개 기능, 정례 협의 구조 등)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 전략이 필요하다.

### **마** 프로그램 ‘학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진단-개선 체계가 필요함

범부처 기관은 학교 활용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이 20.8%로 높아, 공급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된다. 이에 따라 저활용의 원인(학교 수요 파악 미흡, 홍보 부족, 학교와의 소통 부재, 운영 적합성 부족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개선 지원(수요조사 고도화, 학교-기관 협의 강화, 프로그램 리더 자인, 홍보·안내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창의재단 기관(75.0%), 교육대학(72.7%)처럼 활용도가 높은 기관의 성공 요인을 구조화(설계·운영·강사·지원체계)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형태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바** 고학년 대상 ‘교과 프로그램 확대’는 의향 수준에 따른 이원 전략이 필요함

고학년 교과 프로그램 공급 확대 의향에서 범부처 기관(50.0%), 공공기관(47.4%)은 소극적 경향이 확인되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반 정책 설계(재정 지원 확대, 우수 교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원 연계형 모델 제공 등)가 필요하다. 반면 창의재단(87.5%), RISE(68.4%), 교육대학(81.9%)은 확대 의향이 높아, 단순 독려보다는 실제 개발·공급이 가능하도록 실행 지원(콘텐츠 개발비, 강사풀 구축, 교과-비교과 연계 모델, 성과관리·품질관리 지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사**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원 항목을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지원은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RISE 기관·종합대학·기타 기관은 교육청 협력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수요가 높아, 정기 협의체 운영, 매칭 지원, 지역 거점기관 지정 등 네트워크 기반 지원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창의재단·민간기관·교육대학은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수 지원 수요가 높아, 유형별 맞

춤 연수 과정 개발, 전문기관 연계, 온라인 연수 플랫폼 구축이 우선 과제다. 또한 범부처 기관은 기타 지원 요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형화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수요 파악(심층 면담, 운영 애로 조사)을 통해 맞춤형 지원안을 설계해야 한다.

종합하면,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급과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참여 유형(참여 기관 성숙도), 기관 유형(대학·공공·민간 등), 지역 특성(수도권/비수도권·지역규모)을 동시에 고려한 차등·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 참여 기관의 초기 안착 지원과 경험 많은 기관의 노하우 공유·확산 구조를 병행하고, 지역 및 기관 간 운영 역량 격차를 줄이는 선순환(진단→지원→성과 확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정책 방향으로 도출된다.



## 제4장

# 면담조사 결과

1절 | 학부모 면담

2절 | 학교 담당자 면담 결과

3절 | 요약 및 결론



# 1절 학부모 면담

## 1 참여자

면담 참여자 모집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17명을 대상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참여에 희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5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1회의 전화 면담(15분 내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6년 1월에 동일한 대상으로 2학기 늘봄학교 참여 경험과 이후 정책적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얻기 위해서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

주요 면담 질문은 기초 인적사항에 대한 수집, 현재 참여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수요 분야, 기타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학부모면담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77〉 학부모면담 참여자 현황

구분	학교 소재지	연령 및 성별	자녀 수(연령)	맞벌이 여부	자녀 참여 프로그램명	주변 환경
1	경기도 화성시	40대 여성	2명(중2, 초4)	맞벌이	농구, 컴퓨터 (선택형)	학원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자녀는 국어, 수학, 태권도 참여 중
2	경기도 화성시	40대 여성	1명(초5)	맞벌이	농구, 컴퓨터 (선택형)	학교 주변에 다양한 과목의 학원이 다수 위치하며 자녀는 영어, 수영, 피아노 참여 중
3	경기도 화성시	40대 여성	1명(초1)	외벌이	놀이음악(맞춤형), 클레이(맞춤형)	학원이 많고 사교육 참여가 일반적인 분위기이며, 자녀는 영어·수학·컴퓨터·바둑·줄넘기·구몬 등 다수 사교육에 참여
4	경기도 용인시	30대 여성	2명(초2, 초3)	외벌이	한자/미술/체육(맞춤형) 바둑/큐브 (선택형)	학교 인근 및 단지 내에 학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차량 이동도 가능해 사교육 접근성이 높음.
5	경기도 용인시	40대 여성	2명(초1, 초3)	맞벌이	자녀가 2학년인 현재는 미참여, 1학년 때 돌봄 참여(체육, 생명과학, 역사)	집 앞에는 소규모 예체능 학원이 있고, 지하철 1정거장 거리의 학원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
6	서울시 중랑구	40대 여성	3명(고1, 중1, 초2)	외벌이	블록놀이, 조물락공작, 창의음악, 수보드게임(맞춤형) 주산암산수학, 수체스, 스마트블럭(선택형)	대로변이 아니어서 안전하고, 교과·예체능 학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자녀 모두 근처 학원 이용 중

구분	학교 소재지	연령 및 성별	자녀 수(연령)	맞벌이 여부	자녀 참여 프로그램명	주변 환경
7	서울시 중랑구	40대 여성	2명(초6, 초2)	맞벌이	블록놀이, 책놀이, 보드게임, (맞춤형) 미니어처&토탈공예, 종이접기&클레이(선택형)	학교 인근에 교과-예체능 학원이 입주한 대형 학원 건물이 있어 도보 이용이 가능함
8	서울시 중랑구	40대 여성	2명(초2, 5세)	맞벌이	블록놀이, 조물락공장, 창의음악, 책놀이(맞춤형) 창의융합과학교실, 주산암산수학, 창의사고력수학, 스마트블럭, 축구교실	맞벌이로 인해 학교 주변 사교육 환경에 대해 잘 모르며, 별도의 사교육은 하지 않음
9	서울시 중랑구	30대 여성	2명(초2, 6세)	맞벌이	블록놀이, 조물락공장, 창의음악, 책놀이(맞춤형)	학원 수는 많지 않으나 보통 수준의 사교육 환경으로 인식되며, 자녀는 영어-수학 학원 이용
10	서울시 서초구	40대 여성	1명(초2)	맞벌이	돌봄교실 참여(미술, 운동, 독서) 생명과학(선택형)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 참여가 일반적이며, 학원 셔틀버스 활용해서 스케줄 따라 이동
11	서울시 마포구	30대 여성	2명(초2, 3세)	외벌이	늘봄체육 (맞춤형) 방과후영어 (선택형)	학교 바로 앞에 저학년 위주의 예체능-영어 학원은 있으나, 고학년 대상 학원은 부족
12	경북 청도군	40대 여성	2명(고1, 초6)	맞벌이	과학실험, 배드민턴, 풋살, 웹툰, 국악(선택형)	사교육 환경이 매우 부족하여 외부 지역(대구·경산)으로 이동하며, 학교 셔틀버스 운영 중
13	경북 청도군	40대 여성	2명(중3, 초6)	외벌이	과학실험, 배드민턴, 풋살, 웹툰, 국악(선택형)	집과 학교 주변에 학원이 거의 없고, 학생들은 스쿨버스나 학원차 이용
14	경북 청도군	40대 여성	2명(중1, 초3)	맞벌이	과학실험, 이야기할머니, 배드민턴, 피아노, 바이올린, 편편신체놀이, 미술(맞춤형 선택형 통합운영)	도보가능 거리에 학원이 없고, 학생들은 학원 차량이나 보호자 이동에 의존
15	광주광역시	50대 여성	4명(성인2, 고1, 초2)	맞벌이	로봇, 뉴스포츠(선택형)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학원이 증가하는 추세
16	광주광역시	40대 여성	2명(초3, 초2)	맞벌이	과학실험, 바이올린(선택형)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학원이 늘고 있는 추세, 자녀들은 공부방 이용
17	광주광역시	40대 여성	2명(초4, 초2)	외벌이	플룻, 과학실험, 성장댄스, 미술, 한자 (선택형)	학원이 많지 않으나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2 면담 결과

### 1) 참여자 기초정보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참여자의 학교 소재지는 수도권(경기·서울)과 비수도권(경북·광주)으로 구분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지역(동탄, 수지)과 서울 도심 및 주거 밀집 지역(중랑, 서초, 마포)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학원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환경에 위치해 있다. 반면 경북 청도군과 광주 광역시 북구의 일부 지역은 사교육 인프라가 제한적이거나 형성 중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대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분포하고 있다. 주요 연령대는 40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자녀 수는 1명에서 4명까지 다양하며, 다자녀 가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자녀 연령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분포하나, 초등학교 저·중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보호자들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참여 가정은 맞벌이 가정이 다수를 차지하며, 외벌이 가정도 일정 비율 포함되어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늘봄·방과후 프로그램 및 선택형 프로그램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주변 사교육 환경은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이나 주거 밀집 지역 등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학교 또는 주거 단지 인근에 교과·예체능 학원이 밀집해 있고, 학원 셔틀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사교육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등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도보 가능한 학원이 거의 없으며, 학원 차량·스쿨버스 또는 보호자의 이동 지원을 통해 외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보고되었다.

### 2) 참여 프로그램 현황

면담참여자 자녀들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는 매일 참여하는 경우부터 2개 정도 프로그램 참여하는 경우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녀들은 맞춤형 프로그램(예: 블록놀이, 창의음악, 놀이음악, 조형·공작, 체육 활동 등)과 선택형 프로그램(예: 과학실험, 체육·스포츠, 예술(미술·음악·국악), 교과 중심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돌봄교실에 참여 중인 경우도 있었다. 저학년 자녀의 경우 놀이·체험·예체능 중심,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 및 사교력 중심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3) 참여 프로그램 참여 이유

늘봄 프로그램 참여 이유는 ① 방과 후 시간 공백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돌봄 요구, ② 학원 및 스케줄과의 연계 효율성, ③ 사교육에 대한 비용·이동·심리적 부담 완화, ④ 아동의 다양한 경험과 흥미 탐색 기회 제공, ⑤ 지역적 여건에 따른 구조적 참여 등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늘봄 프로그램을 방과 후 공백 시간 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돌봄 체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부재 상황에서 아동을

혼자 두는 것에 대한 불안이 커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교 내에서 자녀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컸다. 조부모에게 돌봄을 의존하는 가정에서도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늘봄 참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맞벌이다보니까 아이 돌보는 것을 할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있음. 할아버지께서 아이 케어 해주시는데 좀 덜 힘드시면 좋겠다 싶어서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하게 됨, (학부모 8)

늘봄 프로그램 참여는 학교 수업 종료 이후 발생하는 시간 공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학원 시작 전 애매하게 비는 시간, 귀가 후 다시 학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바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일부 참여자는 학원 스케줄과의 연계를 고려해 늘봄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예: 1차 시간) 선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저학년 자녀의 경우 학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스트레스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적은 늘봄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1학년 때부터 방과후 영어는 했었고, 아직 어려서 학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학원 잘 못 다니고 스트레스 받아해서 최대한 안 보내고. 늘봄은 학교에서 하니까 수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잘 다니는 중. (학부모 12)

참여자들은 늘봄 프로그램을 사교육에 비해 비용 부담이 낮고 이동이 필요 없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사교육 비용이 높거나 지역 내 적절한 학원이 부족한 과목(예: 운동, 악기, 컴퓨터 등)을 학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참여 동기로 작용하였다.

운동 과목에는 사교육 비용이 비싼데 방과후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 학교 끝나고 바로 할 수 있어서 이동 필요 없어서 좋음. 컴퓨터도 초등학교생들이 다니기에 적절한 학원은 많지 않아서 방과후를 이용함. (학부모 2)

늘봄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탐색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학부모들은 저학년인 자녀가 사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무 활동 없이 긴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늘봄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실험, 예술, 체육, 공작, 코딩 등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게 하고, 이후 자녀가 스스로 흥미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늘봄 프로그램 선택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였으며, 친구들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1학년 시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 이후 학년에는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래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은 참여 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이가 너무 일찍 마치고보니까 혼자 집에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학원을 돌리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방과후를 선택을 해서 조율을 한 것. 방과후는 아이가 선택하게 해줌. 1학년 때 경험이 많다보니 아이가 고를 수 있어서 과학실험을 고름. 바이올린은 하던 거라 계속 하고 싶다고 함. (학부모 17)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늘봄 프로그램이 사실상 보편적 참여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학교들은 외부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있었으며, 스쿨버스 운행 시간과 연계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경우 참여는 선택이라기보다 학교 일과의 연장선으로 인식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보고되었다.

자녀 모두 100%로 참여해오고 있음. 스쿨버스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어차피 스쿨버스 타고 집에 가야하면 그 전까지는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굳이, 너무 하기 싫은 활동은 개인적으로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던가 그러지만, 특별히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거의 필참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음. (학부모 15)

#### 4) 현재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8점 이상의 평가를 주었으며, 특히 10점을 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전반적인 만족도 외에도, 맞춤형 및 선택형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맞춤형은 7~8점대의 안정적인 만족도를 보였고, 선택형은 9점이 대부분으로 더욱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보호자들이 늘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녀가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가 “재미없다”거나 “하기 싫다”는 반응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프로그램이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학원 교육과 차별화된 점도 보호자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과학실험, 뉴스포츠, 악기 연주, 책 놀이, 보드게임 등 사교육이나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이 제공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10점. 매우 만족. 애가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노는 분위기로 해서 좋아하는 것 같음. 경쟁하다가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만족스러움. (학원과 비교하면 어떤지?) 학원은 가는 거 자체를 싫어했음. 태권도 싫어함. 아예 가는 걸 싫어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를 안 만나니깐(학부모를 만나면 학원 간다고 생각하고 거부) 학교 안에서 하니깐 끝까지 잘 하고 나오는 것. 학교에서는 꼭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음. (학부모 12)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과 태도에 대한 평가도 좋았다.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지도하고, 보호자와의 소통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정규 교과 외 다양한 영역의 소양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맞춤형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8점. 학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어서 좋음. 돌봄처럼 아이들을 보육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 놀이 같은 것을 통해서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책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등이 좋음. (학부모 10)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도, 정규 수업 이후부터 스쿨버스 운행 전까지의 시간을 알차게 활용

할 수 있어 보호자들은 자녀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호자들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녀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동 부담이 없고 학교에서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더욱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에 따라 악기 수업, 국악, 웹툰, 로봇 등 지역 외부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학교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매우 특별한 기회로 인식되었다.

전체적으로 만족함. 학생 수가 많지 않다보니 한 명의 학생이 집중받는 시간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집중을 잘하는 것 같음. 정규 수업 이후~스쿨버스 운행 전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건데, 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웹툰이나 이런 수업을 접하기가 힘든 환경임. 음악 학원도 없고 기본적인 영어, 수학 등의 과목 학원만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주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 이런 접하기 힘든 과목들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면 더 좋을 것 같음. ... 국악의 경우도 원래는 외부로 나가야 배울 수 있었는데, 학교에 국악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타악 종류까지 배워볼 수 있어서 좋음. 올해 관현악단이 창단이 되면서 학교에서 악기들도 다양하게 많이 구비를 해줘서 여러 악기들을 체험하고 배우는 중임. 1-2학년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3학년부터는 국악 관현악단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됨. (학부모 13)

## 5) 만족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영역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특정한 영역에서 아쉬움을 느끼거나 부분적으로 불만족을 표하였다. 이러한 불만족은 대부분 프로그램의 다양성, 운영 방식, 교육 내용의 질, 개별화 부족, 연령 적합성, 학부모와의 소통 부재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선택권 부족이 주요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일부 보호자는 자녀가 참여하고 싶어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으며, 특정 시간대(예: 1부)에 집중된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또한 매년 동일한 주제로 반복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자녀가 흥미를 잃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과학 실험 프로그램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의 커리큘럼 차이가 크지 않아 교육의 깊이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금 만들기 위주의 프로그램 2개를 참여하고 있긴 한데, 다른 과목인데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고, 활동이 좀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 (학부모 8)

둘째, 연속성 부족과 수업의 체계성 결여가 문제로 언급되었다. 일부 프로그램은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분기마다 새롭게 학생이 유입되면서 수업의 연속성과 진도 조절이 어려운 구조였다. 그로 인해 학습의 흐름이나 개별적 성장이 단절된다는 느낌을 받은 보호자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계속 1년에 한번 신입을 받아야하니깐 진도나 아이의 개인적 성장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음.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행기를 했다면 다음에는 산토끼를 했으면 좋겠는데

학원과 다르게 계속 신입생을 받다보니 계속 같은 걸 반복하는 느낌. 과학실험도 어느순간 되면 다시 돌아가는 느낌. 어쩔 수 없는 걸 알겠는데 반복되다보니 아이가 흥미를 좀 잃음. (학부모 17)

셋째, 강사 및 프로그램 질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특정 과목에서는 강사의 언어 수준이 저학년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학습 내용을 단편적으로만 전달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수업 자료의 질이나 교구가 빈약하거나 단순한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재료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재료 사용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났다. 일부 강사의 학생 지도 태도나 친절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드백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이들이 정말 시끄러운 아이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 분이시다보니 제어가 안되었음. 한 데 모아서 그냥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이지 그 안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음. 방과후는 비용을 저렴하게 내긴 하지만 수업료랑 재료비를 따로 내는데도 너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교재가 있는 게 아니고 프린트로 한 장씩 나눠주는 거와 조약해 보이는 과학용 교구로 매주 하다보니 그다지 교육의 질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음. (학부모 6)

넷째, 학생 개별화 지도의 어려움과 과밀한 수업 환경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한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다보니 학습자별 수준 차이를 고려한 수업 진행이 어려웠으며, 과밀학교의 경우 공간의 협소함과 반 인원 과밀 등 물리적 제약도 함께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느린 학습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수업 중에는 학생 간 비교나 압박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무래도 기대도 크지는 않은데 완전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못 챙겨주는 것. 아이들이 많다보니. 아이가 덜 배우더라도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하자 이런 부분. 학생관리 측면. 이해는 하지만. (학부모 18)

다섯째, 소통 부족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일부 보호자는 프로그램 진행 중 학생의 출결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가 직접 전달받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선생님과 일대일 상담이나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불편 요소로 지적하였다. 또한 수업 간 공백 시간(예: 방과 후 수업 전 50분 대기 시간) 동안 자녀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별도 보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구조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방과 후 영어가 2학년 되면서 단계가 올라갔는데 수업하고 방과후 영어 사이에 50분 텅이 있음. 다른 놀봄도 시켜보고 싶었는데 중간에 입퇴실이 안된다고 함. 처음에는 하교 시켰다가 다시 들여보내고 했었음. 지금은 친구랑 도서관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해서 좀 불안함.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학부모 12)

끝으로, 연령 및 관심사에 부적합한 활동 배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학년 남학생이 방송 댄스 프로그램과 같은 과목을 배정받았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이나 선택권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대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첫째는 컴퓨터, 과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음. 그런데 현재 6학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음. 웹툰도 재미있어하는데 배정 시간이 짧은 게 아쉬움. 코딩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아쉬움. 이게 한 학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좋겠음. 1학년때 시작해서 6학년까지도 할 수 있도록. 과학 실험이 현재 2학년, 6학년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커리큘럼이 저학년과 고학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아쉬움. 첫째가 체력이 큰 남학생이다보니까 5학년 때 방송댄스 프로그램은 너무 하고 싶지 않다고 너무 싫다고 부탁을 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그 시간대에는 교실에서 따로 공부/할 일 함. 이런식으로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교실에 남아서 기다리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음. 학교 시스템상 어쩔 수없이 거의 다하는 활동인데, 거기서 빠지면 약간 방지되는 것 같아서. (학부모 15)

이처럼 보호자들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취지와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수준별 맞춤 지도 강화, 소통 및 운영 개선, 안전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6)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수요 분야

보호자 다수는 2학기에도 자녀를 늘봄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일부 가정은 맞벌이 등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응답했으나, 다양한 교육적·정서적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났다.

우선, 정규 수업이나 사교육을 통해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예를 들어 중국어, 체스, 뉴스포츠, 조물락 놀이, 종이접기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는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어 자녀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며, 경쟁 위주의 사교육보다 포용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 이유는 정규 수업 시간이나 사교육을 통해 하기 어려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좋다(중국어, 조물락 놀이 등) 그리고 놀이 형식으로 하다보니 학생이 매우 흥미로워하고 경쟁적인 사교육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포용적이라고 느껴짐. (학부모 9)

또한, 자녀가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고 재미있어하며 자발적으로 계속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같은 반 이외의 학생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 사회성 발달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원 대비 시간·비용 효율성도 보호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 없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프로그램 비용도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아이가 계속 하고 싶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임. 지금 늘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재미있어해서 계속 참여할 예정임. 미술 학원 보내는 것보다 저렴한 것도 좋고,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음. 3시까지 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보내려고 함. (학부모 8)

일부 보호자들은 단계적 성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예를 들어 로봇, 한자, 체육 등의 수업은 지속성과 연계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6학년까지 계속 참여시키고자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로봇 수업의 경우, 형제 자녀가 초등 전 기간 동안 참여했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계속 이용할 예정.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단계가 올라가는 과정이라 그거를 끝까지 했으면. 셋째 고1이 1학년-6학년까지 로봇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좋았음. (학부모 15)

한편, 늘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사교육 대체 효과에 대한 인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일부 보호자는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되고 정규 수업과 연계된다면, 자녀를 사교육에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2학기부터는 영어가 방과후(선택형)에 있어서, 영어 수업에 참여해보고 싶음. 7살 때까지는 (사교육)기관에서 영어를 했었는데, 1-2학년 동안 영어랑 좀 떨어진 것 같아서, 3학년 때부터는 영어가 교과 과목으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다시 영어랑 친해지라는 개념으로 영어를 들어볼까 생각중임. (학부모 7)

일부 보호자들은 다음 학기 참여 의사가 없거나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프로그램의 내용적 한계, 자녀의 흥미 저하, 성장 단계에 따른 보호자의 양육 철학 변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자녀가 지루해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일부 학부모는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조차 단조롭게 운영되어 아이들에게 충분한 흥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담임교사가 운영하는 반에서는 보육 중심의 분위기가 강해 교육적 동기 유발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자녀가 늘봄 활동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참여에 대한 의욕이 낮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늘봄 3반 중에서 1반은 담임, 2반은 외부 강사로 운영 중. 담임이 있는 경우 보육의 느낌이 더 강하고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음. 전문적인 외부 강사가 들어오는 게 좋으나 현재는 외부 강사님이 들어오셔도 너무 단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루해함. 아이들을 늘봄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할 듯함. 만약 1, 2차 메리트가 있으면 사교육 시간을 조정하거나 학원을 줄여서라도 늘봄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음 (학부모 3)

또한, 자녀가 저학년을 지나 자기 결정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이 참여 여부를 자녀의 선택에 맡기고자 하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1학년 시기에는 보호와 돌봄이 중심이었다면, 2~3학년 이후에는 자녀가 원하는 활동 위주로 스스로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쉬는 시간을 주며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보호자 역시 이전까지 늘봄 프로그램을 다수(예: 방과후 8개) 활용했으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모든 활동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계속 자녀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주고 좀 컸으니 좀 쉬고 싶다고 하면 쉬는 시간 주

고 자유롭게 하고자 함. 1학년 때는 보호가 필요했다면 2-3학년 때는 하고 싶어하는 걸로 이어나가면 될 듯. 원래 방과후 8개 했었음. 불안해서. 학교에서 보호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2-3학년 때는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학부모 17)

## 7) 중·고학년 시기 프로그램 참여 의사

보호자들은 자녀가 3학년 이상의 고학년에 진학하더라도 늘봄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향을 대체로 보이고 있으나, 그 결정은 자녀의 희망,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사교육과의 병행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유동적임을 나타냈다.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과 흥미로운 활동을 통한 경험 제공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학원 이동 없이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은 안전상의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학교 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났다. 고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운동, 예체능, 만들기, 로봇 등과 같은 활동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며, 자녀가 즐거워하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낀다면 고학년에도 참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할 의향이 있음. 생각보다 주지교과(수학, 영어 등) 프로그램도 괜찮다고 들었고 지도 교사와 학생 간의 트러블만 없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음. 다만 주지 교과 프로그램에만 참여시키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고학년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해주고 싶음. (학부모 9)

일부 보호자들은 고학년이 되면서 주지 교과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 스스로의 의사가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참여 여부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특히 영어, 수학 등 교과 중심 학습은 사설 학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늘봄 프로그램은 흥미 위주의 활동으로 기능을 분담하길 바라는 경향도 드러났다. 방과 후 시간의 활용 가능성과 학원 시간과의 충돌 여부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고학년이 될수록 영어, 수학 학원을 가게 되니까 시간이 잘 안맞아서 참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큰 아이들(고1, 중1)을 키워본 입장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푸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됨.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자녀가 학교에서 하는 게 재미있다고 하면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 학교에서 하는 것보단 친구들도 다 학원에 있으니까 나도 학원 보내줘~ 하면 학원으로 보낼 것 같음. 아이들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많은 쪽을 희망하는 것 같다고 생각함. (학부모 7)

반면, 참여 의향이 없다고 밝힌 일부 보호자들은 고학년 시기의 교육적 수요에 비해 늘봄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저학년 중심의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깊이와 연계성이 부족하고,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이유로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습 계획을 선호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특히 고학년이 되면 자녀가 혼자 귀가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굳이 돌봄의 형태로 운영되는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학원 스케줄 때문에 늘봄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음. 그 학년 되면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서 덜 보내시지 않을까. 학원스케줄이 수업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스케줄로 이루어져 있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 늘봄에 굳이 참여를 안할 것 같음. (학부모 5)

종합하면, 고학년 시기에도 늘봄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지속 여부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연령 적합성 확보, 시간 운영의 유연화 등 다양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8) 고학년 늘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분야 및 기대

보호자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사교육, 특히 영어·수학 등 주지 교과 중심의 학습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학교 내 늘봄 프로그램이 학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예체능·체험 중심 활동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많은 보호자들은 고학년 수준에 맞춘 예체능·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보드게임, 과학실험, 코딩, 컴퓨터 활용, 음악 활동(합창, 악기), 체육활동(축구, 필라테스, 배드민턴 등), 요리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학원에 보내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교육적으로 가치 있고 아이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수요를 반영한다. 또한 농촌이나 도서지역처럼 문화·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컴퓨터 자격증,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경제교육, 환경교육 등 특화된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한편, 일부 보호자들은 주지 교과와 관련된 방과후 수업은 학원만큼의 깊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교과목 위주의 늘봄보다는 학교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습은 개별 학습이나 학원에서 보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학습이 수학도 창의수학도 있는데 저학년 위주의 수업이다보니. 고학년도 더 하게 하려면 바로바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면 신청할 것 같음. 재미 위주가 아니라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싫어하겠지만 부모입장에서는 그러함. 공부도 공부인데 공부는 나중이고 그래도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초등 때는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도움은 되면서도 노는 거, 발전이 되면서도 노는 거. 오케스트라 활동, 주식 같은 경제교육, 지구환경운동교육 이런 거 좋은 것 같음. (학부모 18)

보호자들은 늘봄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개선도 함께 요구하였다. 출결 관리의 일관성 부족, 인기 프로그램의 신청 경쟁 심화, 운영 시간의 제한 등은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운영 시간 확대, 학생 수 대비 교사 배치 강화, 교실·시설 확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명칭만 보고 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 연간 반복되는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인해 발전이 느껴지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및 커리큘럼 운영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방과후 환경 개선이 필요함. 인원 수를 줄여야 함(사교육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한 반에 들어가지 않음) /강사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학교도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냥 학교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야한다고 생각(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 (학부모 1)

프로그램 별로 시간이 겹치지 않게 잘 배정(컴퓨터 활용 수업을 듣고 싶으나 시간이 안 맞아서 수강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프로그램 사이에 시간이 뜨지 않도록, 수강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같은 요일 및 시간에 몰리는 상황 등), 시간이 짧은 프로그램 지양(예 : 영어 30분씩 주 3회 수업은 프로그램 사이에 틈이 생겨 수강하기 어려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9)

출석률이 다음 늘봄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다보니 좀 번거로울 때가 있음. 특히 방학 때 1시간 반 정도 보내려고 아이를 준비시켜서 보내는 것이 번거로움. 그래서 아예 늘봄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거나 방학 때는 참석을 못해도 양해해주었으면 좋겠음. 3,4학년 때 뿐만 아니라 5,6학년 때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많아야 할 것 같음. 작년에는 각 프로그램 별로 다른 강사님이 왔었는데 올해는 담임 교사처럼 한 교사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함.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다 가르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느낌(학생이 무언가를 배웠다는 느낌은 잘 나지 않음). 물론 한 분이 케어를 하다보니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부분은 있음. 뭐가 낫다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지만 고려할 만한 부분임. (학부모 10)

외부강사님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힘들. 늘봄 행정 선생님이란 연락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불편함.(예 : 아이를 기다리는데 안 나와서 갔는데 늘봄 교실과 학급에 갔는데 아이가 없음. 학급 담임 선생님께 여쭙봤으나 아이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늘봄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난감했음.) 참여하지 않는 날에도 늘봄 결석으로 메시지가 옴. 늘봄 행정 담당자와 소통해야해서 번거로움. (학부모 3)

아직 늘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음. 주양육자가 학부모인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조부모인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 안내가 e알리미로만 오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그런 것들을 잘하시지는 않으니까, 주양육자가 되는 분들을 고려해서 잘 어필을 해주시면 훨씬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도 작년보다는 홍보가 좀 된 것 같은데 예전의 돌봄처럼 잘 알지는 않은 듯함. (학부모 7)

학교 자체에서 늘봄 참여율을 높이려면 공간을 안내하고(어머니들에게 이런 공간에서 수업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더 했으면.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늘봄에 대한 관심도가 없음. 막상 보내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짐. 그런 부분이 체계화되고 아이들 안전관리와 출결상황이 관리가 더 잘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음. 현재는 게시판(공지사항 위주)으로만 소통으로 해서 불편함. (학부모 5)

학교에서 2학년 초반에서 늘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뭘하는지 정확히 말을 안해주시고 늘봄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 정도의 연락만 와서 신청을 안함. 부모가 선택을 하게 할려면 어떤 걸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학교 측에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 같음. 안내가 미흡하다고 느껴졌음. 돌봄/늘봄/방과후 너무 헷갈림. 명확한 설명,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학부모 6)

방학 기간 등 학교의 사정상 돌봄이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방안도 같이 생각해보고 하는 관계임. (학부모 13)

종합적으로, 고학년 보호자들은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춘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즐겁고 유익한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단순 반복을 넘어서는 연계성과 심화된 교육 경험, 그리고 유연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 늘봄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고학년 시기에도 늘봄 프로그램의 활용률과 만족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9) 2차 추가 면담 결과

2차 추가 면담은 자녀가 초 3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에 직면하여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바우처 방식의 수강료 지원에 대한 의견, 3학년 이후의 돌봄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면담을 하였다.

면담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학년 시기 새롭게 추진되는 방과후 바우처 방식(부모가 선택한 방과후 수업에 대한 연간 50만원선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총 14명 중 11명(78.6%)이 바우처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1명의 학부모는 기존의 늘봄 맞춤형 유지를 선호하였고 2명은 뚜렷한 선호 없이 중립적인 응답을 하였다.

바우처 선호의 이유로는 담임제로 진행되는 늘봄 맞춤형은 돌봄에 치중된 느낌이기 때문에 고학년이 될수록 자녀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응답이 있었고, 사교육이나 학원 일정과의 조율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요일이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의 질적 한계를 지적하며, 일정 부분 비용이 수반되는 바우처 방식이 오히려 강사의 책임감을 높이고 수업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바우처 방식을 비선호한 학부모의 경우는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담임제가 교사-학생 간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 점을 언급하였고, 중립적인 의견을 보인 2명의 학부모는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3학년 이후 돌봄교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4명 중 6명(42.9%)이 3학년 이후부터는 돌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다. 고학년이 될수록 자녀가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돌봄교실 자체가 “약자지결하고 비효율적이다”, “유치한 활동 위주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4명 중 6명은 3학년까지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명은 고학년까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나 학원 가기 전 공백 시간 해소를 위한 용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차 면담 결과는 학년별·수요별 맞춤형 늘봄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저학년은 돌봄 중심, 고학년은 자율·선택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및 강사와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강사 선발·평가 기준과 프로그램 질 관리 체계화 및 운영 방식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추진될 바우처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혼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고학년 이후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 지원 방식을 보완적으로 도입하여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유연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2절 학교 담당자 면담 결과

### 1 참여자

학교 담당자 면담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대상은 각 학교의 늘봄지원실장 5명이였다. 면담에서는 기본적인 학교 및 운영 정보에 대한 기초 자료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늘봄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다. 2025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늘봄지원실장 면담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78〉 학교담당자 면담 참여자 현황

구분	참여자	지역	학교규모 (학생수)	늘봄 참여현황 25.2.28 기준	비고
1	실장A	서울	1,255명	초1 121명(85%), 초2 95명(60%)	대규모 학교로 공간 부족, 외부 연계공간 없음. 업체 위탁 방과 후 의존도 높음 사교육 과열지역
2	실장B	서울	1,037명	초1 109명(75%), 초2 91명(63%)	업체 위탁, 컴퓨터(민참), 축구 개인위탁(선수반 축구부 코치) 다소 소외된 지역 환경
3	실장C	경기 동탄	1,114명	초1 139명(85%), 초2 106명(62%)	학교 내 공간 부족 이음터 복합문화시설 활용
4	실장D	광주 광역시	1,115명	초1 187명(91%), 초2 192명(96%)	대규모 학교 맞춤형 5개, 선택형 19개 부서 운영, 아침늘봄 놀이체육 운영(7~9명 대상)
5	실장E	경북 청도	72명	초1 5명(83%), 초2 12명(100%)	농어촌 지역 3:30 스쿨버스로 하교 늘봄 프로그램 무료로 거의 모든 학생 참여(69/72)

## 2 면담 결과

### 1)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학교 지역 환경과 사교육 현황은 학교 소재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늘봄지원실장이 근무 중인 3개 학교는 사교육이 활발한 지역이고, 2개 학교는 학원이 존재는 하지만 인근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고된 지역이었다.

(사교육) 많이 하죠. 5, 6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방과 후 하는 애들이 줄어들고 툭툭 줄어 들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주지교과에 올인하겠다는, 이런 거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원어민 영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인원 수가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학교 애들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영어나 악기 이런 거는 무조건 조금 외부로, 좋은 데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실장A)

사실상 이제 많이 좀 소외된 지역이기는 해요. 서울 안에서 이 지역이 사실상 초등학교 까지는 서울 평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OO구라는 그 지역 특징이 거의 중학교 이상 학군부터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학군들이에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OO동이 그래도 OO구 안에서는 약간 아파트촌이기도 하고, 이래서 좀 교육에 관심을 많이 쏟는 곳이기도 했지만, 이게 사실상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그쪽 역지도 약간 슬럼화가 좀 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이제 조금 사교육을 하려고는 하나, 사실상 그게 이제 다른 타 지역 서울 안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장 B)

맞벌이가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맞벌이가 별로 없고 거기 동탄 같은 경우는 삼성, 현대, 기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한 분은 와이프들은 다 거의 집에서 육아하시는. 그래서 외벌이가 좀 생각보다 많으세요. 학원들이 저희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딱 10년 차가 됐거든요. 처음 생겼을 때는 주변에 학원이 없으니까 뭐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용인, 죽전이나 뭐 수원 이런 데로 학원을 엄마들이 라이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좀 자리를 잡아서 사교육에... 제가 담임을 할 때도 보면 집에 몇 시쯤 가?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밤 8시? 이렇게 가서 밥 먹는다고. 밥 먹을 시간 없이 학원을 돌더라고요... 예체능 입시 학원보다는 그냥 이제 국영수 위주의 그런 입시 학원이 많고 (실장 C)

저희는 이제 광역시고 완전히 이제 도시 거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이제 옆에 교육청과 담을 같이 공유하는 바로 옆에 학교고요. 저희 학교의 특징은 현재 학생 수는 1150명가량이에요. 학급 수는 53학급. 아주 큰 학교고 광주가 초등학교 150개가 있는데 규모상 서열 5위 안에 드는. ... 교사 건물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3년 전에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유입이 돼 가지고 거의 4천여 세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변에 광주에서는 공부를 잘한다는 명문 중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고학년 때 또 전학 오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 때문에 1, 2학년도 막 늘어가고 그래서 거의 20 몇 개 학급이 갑자기 늘어난 상태예요. (실장 D)

농어촌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전교생이 72명입니다. 전교생이 72명이고 기타 다른 곳에 가는 학교는 더 소규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스쿨버스로 하교를 하고 (실장 E)

## 2) 늘봄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현재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맞춤형과 선택형 모두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업체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3개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교생 1200명 규모의 학교에서 약 50개의 선택형 프로그램, 3개의 맞춤형반, 3개의 돌봄반을 운영 중이며, 늘봄학교 참여 희망률이 매우 높음. 매 기수마다 정원 20명이 거의 꽉 차고, 대기자도 10명 정도 받는데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리적인 학교 공간 부족으로 모든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는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모두 겸용 교실을 사용하기에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을 의미함. 맞춤형 프로그램은 2월 말에는 희망 학생(45명)이 많아 급하게 1개반 증설하였으나, 선택형 교육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빠져나가서 20명 가량의 학생으로 1학년, 2학년 각 1개반씩 2개 반 운영하고 있음. 1개반으로 축소하고 싶으나 강사 계약 및 학년 혼합으로 인한 학폭 위험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음. 상시 입급 중임.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1-2학년이 대부분, 4-6학년은 1일 10명 이하임. 교실 부족문제로 수업을 줄여야 함. 특별실을 고학년 정규 수업 5교시나 6교시부터 사용하느라 갈등이 종종 있음. (실장 A)

보통은 이제 맞춤형은 이제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학기별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선택형이랑 이제 같은 업체에서 조금 운영을 같이 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2주 단위로 계속 이제 잘라서 차시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실장 B)

저희 같은 경우는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 방학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겸임하는 학교 모두 다 위탁은 안 해요. 맞춤형 위탁이 없이 한 학교는 위탁 규모가 커 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이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담임제로 운영을 하시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이제 외부 강사 5분, 그 다음에 내부 강사 10분, 이렇게 해서 총 15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 C)

이제 53학급에 1,150명의 프로그램은 이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이 19개거든요. 부서가 19개 그다음에 이제 작년 2학기부터 맞춤형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맞춤형은 5개 이 중에 한 개는 아침 늘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 놀이 체육으로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제 교내 스포츠 강사님이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한 7명에서 9명 정도 학생들이 아침에 7시 40분부터 8시 20분까지 이렇게 아침 늘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 교실이 이제 금년에 변화가 컸는데 저희는 학교가 큰 거에 비해서는 돌봄 교실이 2개예요. 그리고 이제 돌봄 교실 각각 이제 정원이 보통 20명에서 23명인데 일단은 1학년으로 다 차버려요. (실장 D)

친구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정형화된 프로그램대로 저희가 짜진 프로그램대로 거의 100% 소수의 아이들 한두 명 빼고는 72명이 72명 중에 이제 69명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받았을 때 이제 저학년 맞춤형 말고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위탁 강사는 7분. 특이한 게 지역에 이제 국악 재단이 하나 있어서 그 국악 재단을 활용해서 저희 학교가 특색 사업으로 국악 오케스트라단을 이번에 창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당 교사분은 계시지만 그래도 국악 강사님들을 활용하는 거는 또 저희 늘봄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라 지역 연계해서 온누리 국악단과 MOU를 맺어서 저희가 이렇게 여섯 분의 국악 강사님들을 모시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순회 방과 후 지원 사업에서 생활체육 웹툰 이렇게 무료 강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네 번째는 청도군청에서 이제 연계해서 학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신청을 해서 풋살 오카리나 이렇게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도군 생활체육협회에서 또 배드민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늘봄 실무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늘봄 허브에서 이 야기 할머니, 평평 신체 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놓은 상태더라고요. (실장 E)

### 3) 현장 수요에 대한 인식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중에서는 창작무용, 체육, 보드게임, 창의미술, 전래놀이 등 예체능 중심 활동의 수요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고 수업보다 놀이에 가까운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강사의 수업 방식과 학생 관리 역량 또한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저희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전래 놀이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 인기 많고.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한자를 그 내부 교원 선생님이 한자 강의를 또 하세요. 아이들이랑 그리고 생각보다 거기에 또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랑 저희는 그 학교는 내부 강사, 외부 강사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외부 강사 프로그램보다 내부 강사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해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했다가 다 이렇게 옮겨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관리도 안 되고 뭐 출결 알림 같은 경우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게 싹 넘어가시더라고요. (실장 C)

선택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체육, 뉴스포츠, 방송댄스 등 신체활동 중심 프로그램과 웹툰과 같은 예술 프로그램, 고학년을 위한 한자, 창의사고력 수학, 역사·지리 등 학습 기반 프로그램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다음 학기에도 지속 편성될 예정이나, 운영상 지속성도 고려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저희는 무조건 체육이에요. 체육. 체육이요 축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거 딱 차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 강좌가 만약에 한 50개라고 치면 한 40개는 다 딱 차요. 다 딱 차고 그 뒤에 우리는 추첨 안 하고 대기 10명을 받는데, 그 대기 10명도 다 기다려 그러니까 뭐는 이렇게 뭐 좀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잘 돼요. 제가 보니까 장소만 있으면 더욱 활성화시키겠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체육 이런 거는 뭐 몇 초 컷이거든요. 그리고 막 이거 못 들어갔다 막 민원 전화 엄청 오고 뭐.. (실장 A)

고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형으로 넘어가 보면 선택형 또한 풋살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풋살을 통해서 이제 교육적인 효과도 그때 이제 자료를 드렸지만 효과 또 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은 일단 풋살 시간만 가장 기다릴 정도로 체육 활동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이번에 웹툰 수업을 이제 실시를 해 보았는데 웹툰이 이제 저희 연계형 프로그램이거든요. 교육청 순회 방과 후 연계 프로그램인데 왜 좋아하나 하면 그냥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전통 미술 같은 경우에는 도화지에 그리지만 애들이 이제 디지털 세대다 보니까 전자기기 안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생각을 워낙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친구들인 세대다 보니까 전자기기와 자신의 생각을 접목하는 이 창의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웹툰이 미래 신수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한두 번 특강으로 이렇게 웹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과 후에 이 늘봄 프로그램으로 1년을 쭉 이용하다 보면 웹툰 또한 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질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웹툰이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있습니다. (실장 E)

선택형 같은 경우는 역사 여행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학교 안에서 하는데 그 부서가 이렇게 두 반이 있거든요. a반 b반 학년으로 나눠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재미없어

서 신청을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프로그램들을 짜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저희는 주입식 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조작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 부서가 항상 거의 답이에요. 1분기, 2분기 모두 다 25명 정원에 막 50 몇 명씩 지원을 하고, 그래서 추천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기 많은 그런.. (실장 C)

한편, 고학년으로 갈수록 선택형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역별 사교육 환경, 학생들의 시간 부족, 흥미도 저하, 강사의 전문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학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 보드 게임, 뉴스포츠 등 흥미 중심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교육적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국어·영어·수학 등 주지교과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사교육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차별화된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가 이제 어제 2분기 신청 현황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은 고학년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시간대가 늦다는 거. 그래서 6교시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들의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부서가 아이들이 막 특히 5~6학년 아이들은 좀 새로운 거 본인 관심 있는 거 이쪽에 관심 있고 부모님 께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기존에 하던 그냥 부서들 예전에 내가 중학년 저학년 했던 것들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겠다 하는 부서가 생기면 아이들이 어떻게든 학교 끝나고도 아까 풋살 같은 경우 막 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장 D)

아동 발달이나 교육 측면에서 학습 위주보다는 체육이나 미술, 음악 등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실장 A)

선택형이든 맞춤형이든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정서적인 걸 이렇게 좀 만져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 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온다면 ... 이제 실질적으로 뭐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 어떨까. 그게 검사제도 비용이 좀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걸 또 지원해서 해주시면 학부모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애들도 한 번도 못 해본 거라 그런 거 좀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있거든요. (실장 C)

아동 발달이나 교육 측면에서는 메타인지 및 자기주도학습(학습계획,시간관리), 사회성, 정서 조절력 발달, 논리적 사고, 자기표현력 강화, 디지털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함. (실장 D)

첫째는 이제 사회 정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학부모님한테 홍보만 잘 되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애들이 이제 지나친 휴대폰 사용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 굉장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학원도 없고. 매일 이런 것들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는 늘봄 학교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정서를 이제 매주 한두 번 이렇게 친구들의 정서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학원이 아닌 이걸 늘봄 학교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명상도 좋고 이제 휴대폰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집집마다 저도 교사를 할 때도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처음에 전화했을 때 "휴대폰 사용이 이제 시간 조절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실장 E)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일반 교사 시절에도 한번 세 차례 네 차례 일회성으로 했는데 진정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쭉 1년 동안 할 수 있는 늘봄 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로 프로그램을 탐색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들었을 때 내가 뭘 잘 하는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하나를 1년 동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해서 나는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어떤 쪽으로 분야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서 (실장 E)

근데 사실상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사건인데, 보통 고학년 애들이 방과 후에 참여하는 케이스는 사실상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된 애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애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상 주지교과의 학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사실상 개발이 되는 게 저는 제일 급선무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 애네가 고학년이 방과 후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 시간에 학원에 가 있기 때문인데, 그걸 못하고 방과 후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그런 그 쪽에서 약간 소외된 부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채워주지 못하면 사실상 거의 학원을 이제 못 다니고 그냥 하루 종일 땡자땡자 놀게 되는 그런 류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습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또 결국에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실장 B)

#### 4) 대학 또는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의견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면담에 참여한 학교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이러한 외부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장점으로서는 주강사 외에 대학생 보조 강사의 참여로 인한 수업 밀도 향상, 신선한 콘텐츠 제공, 높은 학생 만족도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경우 강사 선발, 자료 준비 등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습 지도안과 운영계획서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등 프로그램 질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우리는 그런 걸 뭐 공간이 없어서 절대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서경대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촉감 놀이, 책 놀이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 강사가 오면 한 명이 한 20명을 케어하는데 이렇게 대학생에서 오면은 서너 명이 와서 같이 해주니까 그것도 좋고(참석자 2, 3 맞아요 그게 진짜 좋아요) 강사 선정부터 뭐 이렇게 다 모니터링 해 짝 다 해주니까 (실장 A)

제가 있는 학교는 (대학 또는 전문기관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냥 오기 전에 안 그래도 이거 보고 그 화성에 이제 있는, 지원받고 있는 학교랑 실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한 학기 들어와서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맞춤형 수업을 해 주신대요. 근데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실장 C)

이제 대학 라이즈라든지 이렇게 외부 프로그램 이제 늘봄 허브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저희가 너무 이제 신선하죠. 프로그램이 다 신선하고 이제 하고 싶은 걸 고를 수 있고 (실장 E)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기관 연계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프로그램 선정의 어려움, 도입 시기의 지연, 학교 상황과의 운영 시간 불일치, 맞춤형 설계의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외부 기관 간 프로그램 체계의 통일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단기 운영 중심의 현행 방식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장기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거 되게 좋다고 했는데 그게 당첨되기가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외부 프로그램 신청시 당첨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안될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실장 A)

이번에 라이즈 연계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인데 좀 급하게 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대학이 5개가 참여를 하고요. 네 분야도 8개. 그러면서 지금 최단기 목표는 이번 여름방학 때 각 돌봄 교실에 오후에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목표인데 아직 학교에 가 수요 조사도 안 했고 강사들 등록해서 연수도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방학 계획은 세워야겠는데 강사를 따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지 그거 나오면 그때 신청하면 다 되는지 약간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약간은 거꾸로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이런 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번에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걸 준비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실장 D)

이런 게 구축되다 보니까 일단은 환영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10개가 있다 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제외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싶어도 이제 못 가져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대학 라이즈 사업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거의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0개 중에 1~2학년만 요거를 운영을 하고 싶다 해도 3, 4, 5, 6학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또 안 오고 3, 4만 운영할 때 오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하루에 이제 오셔서 적어도 4시간을 수업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결과적으로 너무 보기는 화려하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실장 E)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 분야로는 일반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체험 중심 콘텐츠가 우선적으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연극, 뮤지컬 등 표현력과 정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이나, 방학 기간 동안 운영되는 단기 집중형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일부 보호자는 1년간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정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 연극, 뮤지컬 같은 학생들의 표현 능력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으나, 방과후가 아니라 현재 5-6학년이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 협력종합예술의 형태로 지원하였으면 좋겠음. 현재 협력종합예술 강사들을 학교 자체에서 선발하고 있어 1년 동안 진행 될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사와 수업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대학 및 전문기관이 방과후보다는 정규 수업을 지원하였으면 함.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는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는 그 중요성을 다소 모를 수 있으므로 무료로 실시하는 맞춤형 수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함. (실장 A)

지금은 이제 실장이 되고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들이 밖에 학원에 없는 거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야 같이 상생이 또 되잖아요. 전문 기관에 가서 배울 것들은 전문 기관 배우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접하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또는 학원 때문에 못했던 거 단기로라도 집중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주는 거. 그것도 특별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고 (실장 D)

진로탐색 장기프로그램, 문화,예술: 합창, 오케스트라, 연극, 디지털미디어제작(영상 편집,

유튜브 콘텐츠 제작(장비,기술,편집)), 과학,공학(로봇, 드론), 체육(골프, 축구, 풋살) 등을 제공해주면 좋겠음. 단기 특강 형식이 아닌 연중으로 운영하고, 학교 특색(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음. (실장 D)

전회가 또 시골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비해서 이제 지금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미래 신수요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실장 E)

### 5) 학교 담당자들이 인식한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

늘봄실장들은 늘봄학교 운영으로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있어 긍정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시간 테이블을 학생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계획할 여지가 많아지고 방학 중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취약 지역의 경우 소외된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형 돌봄 수요자와 맞춤형 교육 수요자가 50% 이상 겹치면서, 기존 선택형 돌봄 교실의 실수요자가 대폭 줄음. 맞춤형 이전 돌봄 교실 이용자들은 70% 이상이 선택형 교육(방과후)을 이용하였는데, 선택형 교육을 이용하지 않았던 초 1-2 학생들마저 맞춤형 교육을 이용하면서 돌봄 교실을 간식 먹는 곳이나 틈새 돌봄처럼 이용함. 이미 안정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맞춤형 프로그램의 강사의 질과 교육 마인드로 인하여 늘봄 지원실 지원이 많이 필요함. 늘봄 실무자(회계, 학생 및 교실 관리 등)의 업무가 과중화 된 반면, 선택형 돌봄 교실의 학생 돌봄 업무가 줄어듦. 돌봄전담사 입장에서는 매우 좋아함. 방학중 업무 부담이 컸는데 방학중에도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긍정적임. (실장 A)

학부모님들은 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맞춤형 끝났다가 선택형 갔다가 돌봄까지 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인 타임 테이블을 본인이 좀 유동적으로 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돌봄이 좀 과밀이었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해소되는 부분도 좀 많아서 학부모님들 만족도는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원하는 경우도 보면 이제 좀 작은 규모의 학교들인데 이게 확실히 좀 이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학교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 없는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래도 그냥 이게 지역적인 특징일 수는 있으나 이게 조금 그래도 소외되는 아이들이 좀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그런 애들을 그래도 좀 학교에 붙잡아서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이제 이렇게 좀 다듬어만 지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잘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장 B)

방과후 명칭의 변화와 하교관리강화 등이 변화된 것이지만 그 외 기존대로 유지되어 별다른 변화 못 느낌. 돌봄은 시간대별 모집과 운영, 간식 신청 및 시간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지역늘봄협의체 운영이 권역별에서 단위학교 중심 지역늘봄협의체로 운영의 변화가 있었음. 늘봄학교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확대되었고 외부 행정복지센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음. (실장 D)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는 무상 프로그램 제공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 지역 여건 반영, 늘봄허브·라이즈 사업과의 연계, 플랫폼 기반 통합 운영 모델 개발 등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미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무상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교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교실 및 공간의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함.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들 활동 장소 확보가 매우 시급함. 학교 안에 장소가 없다면, 학생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공공 시설의 장소 대여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함. 반드시 도보여야 학생 인솔이 가능함. (실장 A)

연속성은 좋은 것 같은데, 확! 안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1년씩.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식으로. 3, 4학년 5, 6학년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3~6학년!! 이거는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굳이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방과후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지 보수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녹여가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실장 B)

선택형 교육에 그냥 농산어촌 지원금 지급 나가는 것처럼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면 제 곁 임교 중에 한 군데는 농산어촌 지원금을 모든 아이들한테 1인당 다 줘요. 그래서 선택형 교육 들을 때 강좌 듣는 것만큼 지원을 한 걸로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또 좀 괜찮지 않을까, 굳이 이 맞춤형으로 무상으로. (실장 C)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지원(예: AI, 드론, 문화예술 등)이 필요하며, 시설 및 공간 한계로 전용 교실 조성 예산 지원, 이동형 시설(예: 찾아가는 과학차, 미디어버스 등) 등이 필요함. 운영 시간의 유연성 부족으로 맞벌이 가정에 맞춘 돌봄과 학습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탄력적 운영 시간 설계 등이 필요함. 학교 업무분장 적정 운영을 위한 안전, 시설, 생활, 문화예술 등의 업무 정상화가 필요하고 경계가 불분명하여 늘봄지원팀의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해소가 요구됨 (실장 D)

### 3절 요약 및 결론

2025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된 학부모 및 학교담당자 면담을 통해, 늘봄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자녀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학부모 17명과의 면담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평균 8점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무상 지원과 프로그램의 높은 질이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부모들이 제시한 만족의 주요 이유로는 안전한 돌봄 기능, 다양한 체험과 활동 제공, 자녀의 시간 관리 용이성,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학부모는 2학기나 다음 학년도에도 자녀를 계속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자녀가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 참여하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참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의사와 교과 학습 필요 여부,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에 따라 향후 참여 여부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불만족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부족 또는 선택의 폭이 좁은 점, 일부 프로그램 또는 강사의 질이 낮은 경우, 학생의 연령대와 맞지 않는 수업 내용,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부족한 운영 방식,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의 부족 등이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언급되었다.

학부모들은 향후 늘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고학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코딩, 컴퓨터, 예체능 활동, 스포츠 활동 등 흥미 중심의 활동과 더불어, 영어·수학 등 주지 교과 특화 프로그램의 병행 운영이 요구되었다. 둘째, 운영 방식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반영, 시간표의 체계화, 수업 내용의 연속성 확보, 학생 수준에 맞춘 개별화 운영, 강사 역량 강화(예: 학생 생활지도 및 수업 운영방식 향상) 등 운영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보호자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안내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진행된 늘봄전담실장 5명과의 면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담실장들은 서울 지역은 업체 위탁 중심, 그 외 지역은 학교 자체 운영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현황을 공유하였다. 늘봄학교의 주요 성과로는 운영의 유연성 확보, 방학 중에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교육 소외 지역 학생 돌봄 기능 강화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유형은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저학년(1~2학년)의 경우 창작무용, 체육, 보드게임, 창의미술, 전래놀이 등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 중심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었으며, 고학년(3~6학년)의 경우 한자, 창의사고력 수학, 역사·지리 관련 학습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학년이 될수록 참여율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교육 참여 증가, 시간 제약, 흥미 저하, 강사 전문성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고학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육·보드게임·뉴스포츠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흥미 중심 프로그램 확대, 정서 지원, 진로 탐색 등 교육 목적 기반 프로그램 도입, 학습이 취약한 학

생을 위한 주지 교과 중심 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사교육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습 지원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사교육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고급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콘텐츠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안되었다.

다만,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활용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선하고 충실한 내용 구성, 대학생 보조 인력의 참여, 수업 준비물의 다양성 등 여러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학교와 운영기관 간 체제 불일치, 추진 시기 지연, 선정 과정의 어려움, 단기 중심 운영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기관 제공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및 프로그램 관리 체계의 통일과 일정 조율, 장기 운영 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강사 및 프로그램 관리 체계의 표준화, 장기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늘봄허브·라이즈사업 등과의 플랫폼 연계 구축, 학교별 여건에 맞춘 단계적 확대 및 지역별 맞춤형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 제5장

# 사례 조사

1절 | 바우처 운영 사례

2절 | 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사례

3절 | 요약 및 시사점



## 1절 바우처 운영 사례

본 절에서는 바우처 정책을 학교 기반 교육·돌봄 정책에서 활용 가능한 하나의 공급 방식으로 보고, 그 운영 구조와 특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바우처는 공공이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기보다, 재정 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과 외부 공급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선별적 교육 바우처와 보편 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교육 바우처를 중심으로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아울러 교육 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서 바우처 제도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 1 교육 격차 해소 관련 바우처

교육 영역의 바우처는 주로 소득 수준이나 학습 여건의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계된다.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학교 교육 보완형’, ‘학습 환경 지원형’, ‘발달·특수 지원형’, ‘지역 맞춤형 재능 지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학교 교육 보완형 바우처

이 유형은 정규 수업 이후 또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학습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중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있다(교육부, 2026).

대표적으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역시 초·중·고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학습 관련 비용을 현금성 급여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학습 조건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5년 기준, 초등학생 487천원, 중학생 679천원, 고등학생 768천원, 연 1회 지급). 이러한 바우처는 학교 밖 사교육 의존을 완화하고, 공적 지원을 통해 기본 학습 여건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와 교재비를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함으로써,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되, 일부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a). 교육비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 나 학습 환경 지원형 바우처

기초 학습 환경 자체를 지원하는 유형도 존재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일환인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유해 차단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접근성 격차가 학습 격차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서울특

별시교육청, 2025a). 이는 학습 활동을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학습 환경 조성의 문제로 인식한 바우처 설계라는 점이 특징이다.

### **다** 발달·특수 지원형 바우처

일부 바우처는 소득 기준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 특성이나 가족 구성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기반하여 제공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의사소통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형 바우처로, 언어재활·독서지도·수어지도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d). 이 유형은 교육 격차를 단순한 학업 성취 차이가 아니라, 발달 단계와 환경 조건의 차이로 확장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라** 지역 맞춤형 재능·자기계발 지원형 바우처

교육 격차 해소 바우처 중 일부는 지역 단위에서 재능 계발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주시의 열린교육바우처, 정읍시의 별별꿈 재능 바우처, 광주광역시 꿈드림 사업은 공통적으로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 과목과 방식에 차이를 둔다.

열린교육바우처 사업은 전주시 거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초·중학생 중 358명(초 179명, 중 179명)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주시, 2025). 이 사업은 민관 공동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 교육비 ‘꿈드림’ 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바우처 제도이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26). 이 사업은 학생 개인에게 제공되는 ‘꿈드림 체크카드’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졸업앨범비,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입학준비금 등 각종 교육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의 아동·청소년 550명에게 예능, 컴퓨터, 기술 과목 등을 중심으로 학원 수강료 일부를 지원한다(정읍시, 2025). 이 사업은 대상자가 실제로 학원에 수강한 이후 월별 수강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인당 월 97,500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학업 중심 교과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흥미와 소질을 반영한 교육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바우처 설계로 볼 수 있다.

이들 바우처는 학업 중심 교과 외에도 예술·체육·기술·컴퓨터 등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거나, 체크카드·포인트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교육 격차 해소를 성적 보완에서 나아가 경험과 기회의 확장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2 보편 복지 기반 교육 바우처 운영 사례

보편 복지 바우처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적 자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선별적 복지 중심의 교육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을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기초를 반영한다.

### 가 정기적 교육 활동 지원형 바우처

전남 학생교육수당(전남 꿈 실현 공생카드)은 전라남도 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교육 바우처이다(전라남도교육청, 2025). 이 사업은 학생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 대상자별 전남 꿈 실현 공생카드에 포인트를 배정 및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포인트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를 범위로 하며(단, 교육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도 외 사업체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 도서, 학습 준비물, 진로 교육 체험 학습,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교육 목적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과 경험이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나 학령 전환기 지원형 바우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학교급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우처로, 무상교복뿐 아니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구입을 지원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c).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학 준비 필요 물품 전반에서 사용 가능하며, 1인당 초등학교 신입생 2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30만원(학교로 예산 교부, 교복 구매 지원)이 지원된다. 이는 교육비 지원을 특정 항목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보편 복지 바우처라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 3 교육 외 영역의 바우처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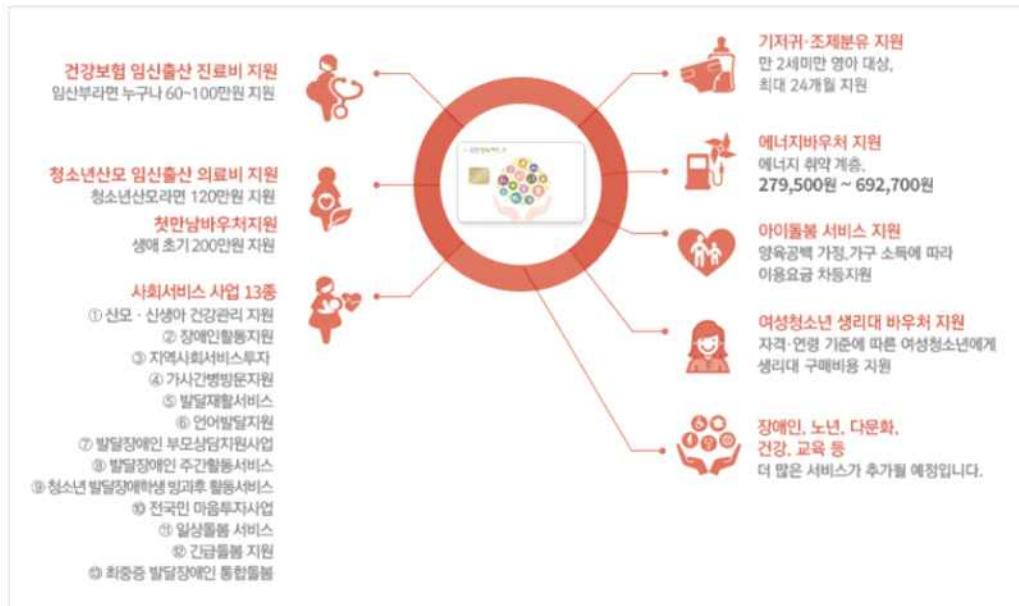
바우처는 교육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과학·산업·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바우처 제도가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의 하나의 모델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과학 공연, 전시·체험, 과학강연·교육 프로그램, 과학교구, 과학도서 등의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0,000원의 온라인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b). 이는 문화·과학 활동을 선택형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경험 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다만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바우처로, 발급 물량과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 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 중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지닌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이용하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6). 본 사업은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우처이다.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육아·돌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로, 서비스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a). 국가바우처는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또는 물품)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19종의 국가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수단이다. 카드 자체는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실제 바우처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이 다르다. 또한 카드 발급과 바우처 신청은 별도의 절차로 운영되어, 카드 소지 여부와 바우처 수혜 여부는 구분된다.

[그림 70]은 국가바우처 사업이 교육을 포함하여 임신·출산·육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가바우처 제도가 특정 정책 영역에 한정된 수단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보편적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0]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한 국가바우처 사업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6c). 국가바우처사업.

## 2절 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사례

### 1 교육복지 분야 외부 교육 프로그램

#### 가 대학생 재능봉사 프로그램

대학생 재능봉사 프로그램은 교육복지 분야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외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대학생지식멘토링 사업이 있다(한국장학재단, 2025). 이 프로그램은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지적, 정서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전인적 인재 양성과 사회적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학습 지원을 넘어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까지 포함하는 멘토링 기반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교육복지 관점에서 취약집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은 다문화, 탈북, 보훈 가정, 학교 밖 청소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재학생, 한부모, 조손 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 등으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주요 활동은 교과목 학습지도, 진로 및 고민 상담,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약 4~6일간 진행되는 맞춤형 방학 캠프 형태의 멘토링 봉사활동으로 운영된다.

#### 나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운영 사례

서울에서는 학교가 단독으로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보다, 지역의 전문기관 및 복지기관 등 외부 자원을 연계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서울형 교육복지 사업 중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에서는 지역기관이 보유한 특색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공모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 거점학교 및 일반학교의 교육취약학생들을 중심으로 생활권 인근에서 가족지원, 학습, 문화, 정서, 진로, 돌봄 등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관에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b). 2024년에는 총 538,350천 원의 협력사업비를 투입해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의 '가족애 재발견' 등 82개 프로그램을 선정 및 운영했고, 거점학교 266교를 포함한 582개 학교의 2,356명 학생이 지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복지거점학교인 T학교의 사례는 <표 79>와 같다. 지역 어린이도서관, 외부 업체, 전문 상담기관 등과 협력해 독서활동(이야기책 만들기), 제과제빵 체험(협동심·성취감), 인지행동 기반 심리정서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79〉 교육복지거점학교 T 초등학교 운영 사례

프로그램	내용
책놀이터 (독서학습활동)	① 협력기관 : 지역 어린이도서관 ② 주요내용: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독후활동 나만의 이야기책 만들기 ③ 장소: 교육복지실
빵야빵야 (제과제빵)	① 협력기관: 지역 외부 업체 ② 주요내용: 모듬활동을 통한 협동심 배우기,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 얻기 ③ 장소: 교육복지실
마음 더하기 (인지행동치료)	① 협력기관: 한국아동마음챙김연구소 ② 주요내용: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 심리정서지원 ③ 장소: 교육복지실
행복미소 (심리정서지원)	① 협력기관: 지역 병원, 지역 심리센터 및 지역 인지심리연구소 ② 주요내용: 교육취약학생들이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및 심리치료 ③ 장소: 병원, 상담센터

#### 다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사업 - 새 꿈 그라운드

새 꿈 그라운드 프로그램은 교육취약학생에게 스포츠 경기 관람 기회와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성 및 협동심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b). 본 프로그램은 야구 경기관람, 서울형 교육복지사업학교(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한 찾아가는 야구교실, 치어리딩 스쿨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표 80〉과 같다.

〈표 80〉 새 꿈 그라운드 운영 내용

구분	야구 경기관람	찾아가는 야구 교실	치어리딩 스쿨
지원 대상	서울시 교육취약학생 및 인솔 교(직)원 총 1,200명	서울형 교육복지사업학교(초) 5~6학교 시범운영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60명 ※ 교육취약학생 5~6명 특별 추가 지원 포함
운영 장소	잠실야구장 (LG트윈스 홈경기장)	본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운동장·체육관 등	(연습)학생체육관 경기장 (공연)잠실야구장
지원 내용	프로야구 정규시즌(4~9월) 중 월 1회 야구 경기관람 지원	야구·티볼 경기 체험, 야구와 구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	스포츠 응원 체험, 치어리딩 기본 교육 및 공연 진행

## 2 다문화 관련 외부 교육 프로그램

### 가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어가 부족한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예비학교는 학교 편·입학 초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가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문화다양성 교육, 학교생활 안내 등을 제공하는 위탁교육기관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d). 이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교육 체제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학교생활적응 징검다리 과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편·입학 초기 단계에서 한국어 집중 교육과 학교생활 안내를 강화하여 조기 적응을 돕고, 다문화학생의 학습 준비도를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참여 대상은 이주배경 중, 고등학생이며, 위탁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에는 재적교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심리, 정서 상담 프로그램

학교에서 활용하는 외부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불안, 우울, 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적응 문제를 겪는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다문화학생을 위해 상담 및 다문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학교로 연계하여 총 8회기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d). 학생의 편의를 위해 신청 학교의 상담실을 활용해 진행된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 및 정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업중단 위기 등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함께 지원 내용 공유 및 사례 관리를 진행한다.

## 3 방과후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사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연계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은 학교 밖 지역 자원을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주체로 적극 활용한 우수사례로, 지역 내 단체와 공공기관이 방과후 운영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대표적으로 지역 학부모 단체와의 연계 사례에서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학부모 놀이연구모임인 ‘해노리팀’이 매년 자체적으로 강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전래놀이와 놀이체육 등 방과후 수업을 책임지고 운영한다(임재훈, 2019.3.4.).

또한 장수군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한 사례에서는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반기 2개월 동안 총 17회, 주 2회(회당 1시간) 운영되는 청소년 건강생활 프로그램 「키워드림」을 실시하였다(전라일보, 2024). 이처럼 지역의 전문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학교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의 생활·건강 영역까지 포괄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절 요약 및 시사점

### 1 교육 및 복지 분야 바우처 운영 양상

사례조사결과, 교육 및 복지 분야 바우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뿐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와 영역에 맞추어 예산을 활용하는 선택 기반 지원 형태로도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운영 방식 측면에서는 전용 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사용 가능 업종을 제한하거나 특정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정책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는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바우처가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려는 제도 설계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외부 자원 연계

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학교가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방식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예체능 및 심리·정서 지원과 같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외부 공급 주체와의 연계가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 탐색, 전문 스포츠 활동 등 수요와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 내 대학·기업 등 유관 기관이나 지역 단체가 공급 주체로 참여할 경우,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함께 제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외부 자원 연계가 단순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기반 교육·돌봄 정책의 실행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지속가능한 늘봄 체계 구축의 과제

늘봄학교는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제도이므로, 단순한 프로그램 수 확대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늘봄학교 운영 안정화의 핵심 과제는 프로그램의 개발-선택-매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단독 운영을 전제로 하기보다 대학, 지역 전문기관, 지자체 등 외부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여 공급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가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매칭 플랫폼(늘봄허브)를 중심으로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여 공급-수요 연결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어촌 등 공급 기반이 취약한 소외지역은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제공기관 자체를 발굴·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보강하는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수요자 중심 바우처 제도 설계 및 행정 효율화

늘봄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바우처 방식을 검토할 때에는 ‘학교 단위 강좌 개설 → 학생 신청’ 방식에 더해 ‘바우처 지급 → 학생의 능동적 선택’ 방식도 병행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의 정책 참여를 단순 배정이 아니라 선택 과정으로 구성함으로써 체감 효용과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다. 포인트 지급 방식을 도입할 때에는 재정 소요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뒤 학년별, 나아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바우처 운영 모델에 따라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의 정산 및 관리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행정 부담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 5 늘봄허브’를 통한 공급자 품질 관리 및 협력 표준화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급 모델을 대학 연계형, 민관형(재단형), 검증기관 풀 연계형 등 일정 수준으로 유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조합하여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바우처 제도는 지급 방식(포인트/실비정산) 자체보다 어떤 공급자를 허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하므로, 늘봄학교에서의 공통 기준과 매칭 지원 체계를 결합하여 인증된 공급(늘봄허브 중심)을 우선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늘봄허브는 단순한 매칭 기능을 넘어 등록-검증-평가-환류 기능까지 포함하는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 단가·정산 혼선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바우처가 사교육비 보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용처 규제와 우수 기관 인증을 병행하는 등 관리 장치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6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공급망 보강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바우처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기관 발굴·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공간’을 묶음으로 공급하는 지자체 협력 모델을 구축하거나, 권역 단위 공급, 기관 유치, 공간 연계 등 제공기관 발굴 및 지원을 바우처/늘봄 확대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우처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순회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대체 공급 방식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간과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일정, 안전, 책임, 예산 등을 표준화하여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제 6 장

##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방안

1절 | 단위 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활용 제고 방안

2절 | 대학·전문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방안

3절 |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기반 조성 방안



## 1절 단위 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활용 제고 방안

### 1 맞춤형·선택형·돌봄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 및 현장 수요연계방안

#### 가 맞춤형·선택형·돌봄 프로그램의 기본 운영 방향 유지 및 정교화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맞춤형, 선택형, 돌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유형은 대상 학년과 운영 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현재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선택형 프로그램은 방과후 시간대에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표 81〉 참조). 이러한 기본 운영 체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프로그램 유형별 대상 특성과 핵심 목적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학교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구조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학년군에 따른 특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초 1~2학년은 학생의 발달 단계 상 돌봄과 보호가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체 및 근육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놀이, 움직임 등을 통한 신체적 활동과 충분한 휴식이 장려되어야 한다. 초 3~4학년은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상 1~2학년과 유사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점차 다른 교육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상 본격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기 시작해 가는 시기이고 이를 잘 준비하기 위한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 5~6학년 시기는 신체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부모로부터 이탈하고 친구들과의 친밀감이 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균형있는 발달을 위한 신체 활동과 관계 형성 경험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과 관련 학습의 심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희망과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런 점은 이 연구의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학년군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은 유형의 세분화보다는 프로그램 내용과 방식의 다양화와 특화가 필요하다. 현재 늘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 유형의 운영도 이런 점을 반영하여 재조직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기초학습 역량의 기반 형성 및 생활·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시기는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이므로, 학습 성취 중심의 접근보다는 또래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기본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된다.

선택형 프로그램은 방과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과 특기·적성 개발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개인의 흥미와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굴·계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체육, 문화예술, 디지털 분야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영역 중심의 프로그램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정적 보호와 생활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결과 초 3학년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돌봄과 보호의 필요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닌만큼 1~2학년 시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돌봄 공백 해소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맞춤형,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은 각각의 목적과 대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향성을 유지하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개별적 필요에 따라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표 81〉 늘봄학교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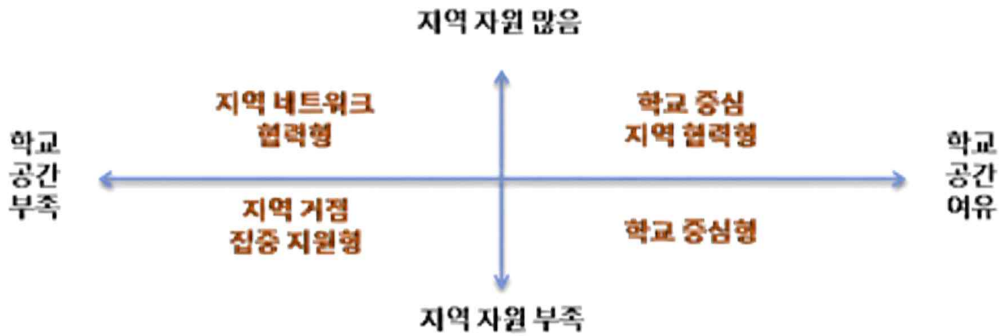
구분	대상	핵심 목적	주요 내용
맞춤형	초1~2학년	학교 적응, 기초학습, 생활·정서 지원	학교생활 초기 적응 지원, 기초학습 능력 기반 형성, 또래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안정 도모
선택형	초1~6학년 (방과후)	학생 선택권 보장, 특기적성 개발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프로그램 선택, 개인별 잠재력·특기 발굴 및 계발, 체육·문화예술·디지털 분야 중점
돌봄	초1~6학년	안정적 보호, 생활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 후 환경 제공,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돌봄 공백 해소

## 나 학교 여건 및 상황에 따른 맞춤형 운영 모델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및 전문기관 지원 사업(RISE, 창의재단 등)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외부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된 정책적 틀을 유지하되,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운영 모델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른 운영 모델을 '학교 공간 여유' 정도와 '지역자원의 활용 가능성'이라는 두 축으로 설정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그림 63] 참조). 이때 유의할 점은 지역자원의 풍부함이 반드시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지리적 구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역자원이 풍부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지역 구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의 존재 여부와 연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학교 여건을 진단하는 접근이 보다 타당하다.

이와 같은 맞춤형 운영 모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 여건에 대한 사전 진단이 핵심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제시된 네 가지 운영 모델이 모든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포괄할 수는 없으므로, 각 학교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운영 모델을 참고하여, 학교별 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경우, 단위학교는 보다 수월하게 적합한 운영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1] 학교 여건에 따른 늘봄학교 운영 모델 유형화

**(1) 학교중심 지역협력형**

학교중심 지역협력형은 학교 공간이 충분하고,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이 풍부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운영 모델이다. 이 유형에서는 학교가 운영의 중심 주체로서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주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지역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의 경우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특화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운영 측면에서 공간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프로그램은 학교가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강사는 학교가 직고용 또는 위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보한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므로 별도의 차량 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안전 및 보험 관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가 책임진다. 협의체는 학교 주도로 지역 내 기관들과 구성하고, 정보 연계 역시 학교의 자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유형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은 사교육 대체·차별화가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다.

**(2) 지역 네트워크 협력형**

지역 네트워크 협력형은 학교 공간은 부족하나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기관과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 적합하며, 학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에서 공간은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지자체 시설을 활용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강사는 학교에서 확보하되 지자체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 자원도 함께 연계하여 활용한다. 학생 이동이 필요한 경우 차량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안전 및 보험 관리는 학교 내 활동은 학교가, 이동 후 지자체 시설 내 활동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협의체는 교육지원청과 기초 지자체 간에 구성하여 운영하며, 정보 연계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늘봄허브와 지자체 사업을 연결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유형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지자체 프로그램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는 체계의 마련이다.

### (3) 지역거점 집중지원형

지역거점 집중지원형은 학교 공간과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이 모두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모델로,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 유형에서는 폐교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공간을 확보하며, 공간 조성 및 관리 책임은 도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담당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예산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강사 확보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강사인력풀을 구축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러 학교 학생의 이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통합차량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전 및 보험은 거점센터 단위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한다. 협의체는 도교육청-광역 지자체-교육지원청-기초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 구조로 구성하며, 정보 연계는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통합 관리한다. 이 유형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은 통합차량 운영과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다.

### (4) 학교 중심형

학교 중심형은 학교 공간은 비교적 여유가 있으나,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며, 학교가 운영을 주도하면서 외부 기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공간은 학교 시설을 활용하되, 저녁 돌봄 등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 공간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이때 공간 제공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가 책임지는 역할 분담 구조를 취한다.

프로그램 예산은 도교육청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활용한다. 강사는 학교에서 확보하되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외부 강사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학생 이동이 필요한 경우 차량 지원은 지자체 또는 학교 예산으로 확보하며, 안전 및 보험은 학교 내 활동과 주민센터 내 활동을 분리하여 각각의 공간에서 책임지는 방식을 취한다. 협의체는 학교와 읍면 단위 지자체 간에 직접적인 협의가 가능한 소통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 촉진 및 지자체 공간 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 지원이다.

앞서 제시한 학교 여건 및 상황에 따른 맞춤형 운영 모델의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표 82>에 제시하였다.

〈표 82〉 늘봄학교 맞춤형 운영 모델 유형별 특징 및 운영 전략

유형	외부 프로그램 활용		
	특징	운영 전략	필요 프로그램의 특징
(1) 학교중심 지역 협력형	학교 공간 여유, 활용가능 기관 및 자원 많음 (사교육 강세)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기관을 연계하여 운영, 긴밀한 협의체 운영 핵심	사교육(학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특화된 프로그램
(2) 지역 네트워크 협력형	학교 공간 부족, 지역기관 풍부 (사교육 강세)	학교가 지역의 한 기관으로 참여하여 학생 분산 배치 학생 안전한 이동 및 수요 매칭 중요	교육 및 학습, 예술체육, 체험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사교육 경쟁)
(3) 지역거점 집중 지원형	학교 공간 부족, 지역 기관 다양함 부족	학교 공동 운영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주변 소규모 학교와의 상생 방안 고려	개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 (학교교육과정 연계)
(4) 학교 중심형	학교 공간 여유, 활용할 지역 자원 부족	대학 및 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 프로그램 적극 활용	상호 연계성 높은 프로그램 및 교육, 학습관련 프로그램

〈표 83〉에서는 각 운영 모델별로 필요한 예산, 공간, 인력, 협의체, 정보 연계 등 정책 지원 요소를 종합하여 유형별 정책 주요 운영 지원 요소를 정리하였다.

〈표 83〉 늘봄학교 맞춤형 운영 모델 유형별 주요 운영 요소

구분	(1) 학교중심 지역협력형	(2) 지역 네트워크 협력형	(3) 지역거점 집중지원형	(4) 학교 중심형
공간	학교 (학교)	지자체 시설 (지자체)	거점센터·폐교 활용 (시도교육청/지자체)	학교 + 주민센터 등 (학교/지자체)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직접 또는 위탁 (학교)	학교·지자체 분담 (학교/지자체)	거점센터 통합 운영 (교육지원청)	학교 직접 운영 (학교)
프로그램 예산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 지자체	시도교육청 + 지자체	시도교육청 + 지자체 교육경비
강사 확보	학교 (직고용/위탁)	학교 + 지자체 프로그램 연계	교육지원청 통합 관리	학교 + 대학·전문기관 연계
차량 지원	-	지자체 (이동 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통합차량)	지자체 또는 학교 예산
안전·보험	학교 (학교안전공제회)	학교 + 지자체 (이동 후 지자체 책임)	거점센터 (별도 보험)	학교 + 주민센터 (공간별 분리)

협업체 구성	학교-지역기관 협업체 (학교 주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 협업체	시도교육청-광역지자체-교육지원청-기초 지자체협의	학교-지자체 (읍면) 협의
정보 연계	학교 자체 네트워크	늘봄허브-지자체 사업 연계 필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통합 관리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연계 (시도교육청)
핵심 지원 사항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자체 프로그램 정보 공유 체계	통합차량, 거점센터 운영비	외부기관 연계, 공간 활용 협약

한편, 운영 과정에서 강사 확보 및 관리 방식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직고용 방식은 질 좋은 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강사 유고 시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4대 보험 등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위탁 방식은 행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강사의 질 관리가 어렵고 부적합한 강사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두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다** 학교 밖 자원 연계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학교의 돌봄 기능과 관련하여, 학교 내부에서는 돌봄의 일정 부분을 학교 밖 기관과 지역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 정부의 운동네 초등돌봄정책 추진에 따라, 학교를 넘어선 지역 단위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지역맞춤형 돌봄 협력 모델의 체계적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맞춤형 협력 모델은 단순히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지역 구분에 기반하기 보다는,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의 보유 여부와 학교 규모를 핵심 기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자원의 축적 정도와 연계 가능성에 따라 학교 여건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협력 운영 모델을 제안한다.

##### **(1) 지자체 시설 연계형**

소규모 학교가 인접한 지역에서 지자체 시설(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는 모델이다. 학교에서 일정 시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연장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지자체 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받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 또는 교육청이 프로그램과 예산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한다. 인근 학교 학생들을 통합 차량으로 이동시켜 공동 돌봄을 실시할 수 있어 소규모 학교의 돌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의 유휴 공간을 오후 4시 이후 학생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종료 후 통합 차량을 통해 해당 센터로 이동하여 돌봄을 제공받되, 시설은 주민자치센터가 제공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관리는 학교가 총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학교 공간이 제한적인 소규모 학

교의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돌봄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대학 연계형

대학 연계형은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이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이 유형에서 대학은 공간 운영과 전공 기반 특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자체는 추가 프로그램이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사례에서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이 인근 학교 사이에 공간을 임차하여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복수 학교의 학생들이 해당 센터를 공동 이용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대학의 전공 분야(물리치료, 간호, 체육 등)를 활용한 성장 클리닉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대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유형은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지원을 결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향후 RISE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 가능성이 크다.

## (3) 거점센터 집중형

거점센터 집중형은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돌봄 거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모델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거점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유형에서는 지자체가 거점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하며, 학교는 학생 연계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원도 화천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례를 들 수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과 같이 소규모 학교가 다수 분포한 지역에서는 거점센터 설치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학생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거점센터 도입 시에는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학교 내 다원화형

학교 내 다원화형은 공간 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내에서 다양한 돌봄·방과후 선택지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학교 내 돌봄, 외부기관 위탁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병행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가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고, 외부기관이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 가지 운영 유형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 안전 관리의 강화이다.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사전 인증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이동·활동·귀가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보 공유 체계의 구축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최소 정보 공유 원칙을 적용하되,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이력과 지원 현황을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체

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 간 협력 체계의 고도화이다. 학교와 외부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을 활성화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협의체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교육청·지자체·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밖 자원 연계 확대를 위한 협력 운영 모델의 유형별 특징과 운영 방식을 <표 84>에 정리하였다.

<표 84> 학교·지역 연계를 통한 늘봄학교 돌봄 운영 모델 비교

유형	적용 대상	주요 특징	운영 방식	역할 분담
지자체 시설 연계형	지자체 시설이 인접한 소규모 학교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지자체 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후, 연장 돌봄 필요 학생은 지자체 시설로 이동</li> <li>• 인근 학교 학생 통합 차량 이동 및 공동 돌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공간 제공</li> <li>• 학교/교육청: 프로그램 예산 담당</li> </ul>
대학 연계형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인근 학교	지역 내 대학이 돌봄 거점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이 인근 학교 사이에 공간 임차하여 돌봄 센터 운영</li> <li>• 복수 학교 학생이 센터 이용</li> <li>• 대학 전공 분야(물리치료, 간호, 체육 등) 활용 특화 프로그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공간 운영, 특화 프로그램</li> <li>• 교육청: 사업비 지원</li> <li>• 지자체: 추가 프로그램 지원</li> </ul>
거점센터 집중형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	지자체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돌봄 거점시설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거점에 집중 배치</li> <li>• 인근 학교 학생들이 거점시설 이용</li> <li>• 거점센터-개별 학교 간 역할 분담 및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거점시설 설치·운영</li> <li>• 교육청: 프로그램·인력 지원</li> <li>• 학교: 학생 연계·관리</li> </ul>
학교 내 다원화형	공간 확보가 가능한 대규모 학교	학교 내에서 다양한 돌봄·방과후 선택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돌봄, 외부기관 위탁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등 병행 운영</li> <li>• 학생·학부모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전체 프로그램 총괄 관리</li> <li>• 외부기관: 일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li> </ul>

## 2 초3 바우처(무상 프로그램) 제도 도입 및 운영

현재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현장 조사 결과, 고학

년 학생과 학부모는 교과 관련 학습(영어·수학 등), 진로 탐색, 전문 체육·예술 활동 등 심화·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현행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고학년의 발달 수준과 학습 요구를 반영한 수준별·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방과후 시간 활용에 대한 선택권 요구가 확대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를 제고함으로써 고학년 참여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 바우처 지원범위 및 대상

현재 설정된 연간 50만원의 지원 금액에서, 사용처는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되 늘봄허브에 등록·인증된 외부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가 사교육비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용처 규제와 우수 기관 인증을 병행하는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설계하되, 전용 카드(포인트)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정책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는 통제 장치를 갖추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내외)과의 사용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정립(예: 자유수강권 → 바우처 사용)하여, 중복 지원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을 제도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나 단계적 확대 방안

제도 도입은 2026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고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2026년 초등학교 3학년 도입 이후, 2027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2028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는 재정 소요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뒤, 학년별 확산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특정 학년이 제도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확대 일정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고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 보완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다 바우처 도입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개선과제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는 바우처 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바우처 제도는 수요-공급의 연결 강화, 수요자에게 서비스 접근 기회 확대,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해결 과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바우처 제도 도입 과정에서 몇 가지 정책적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바우처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격차 문제의 해결이다. 공급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바우처 확대와 함께 공급기관 발굴 및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순회형 프로그램 편성, 지역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등 대체 공급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적합성 측면에서, 고학년 학생의 수요는 저학년과 달리 교과 학습, 진로 탐색, 전문 스포츠·예술 활동 등 심화·특화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한 바우처 지급만으로는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화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충분한 프로그램 개발·공급이 이루어지고 수준별·연속형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이 바우처 도입과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 목적 부합성 측면에서는 바우처 사용처를 학교 밖 민간 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사교육비 보전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늘봄허브를 중심으로 한 등록-검증-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된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바우처 사용을 제한하는 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신규 바우처 간의 중복 지원 여부, 통합 운영 가능성, 대상자 구분 기준 등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행정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지급·가맹점 관리·정산 등 행정 절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 또는 전담 기관이 관련 행정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방식보다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교육지원청별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

## 2절 대학·전문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방안

### 1 현장 수요 기반 프로그램 기획·구성 체계 구축

#### 가 학년군별·지역별 프로그램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체계

현재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대학 등 공급기관이 자체적인 관심과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학교가 신청·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 체계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년군별 특성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저학년의 경우 돌봄 기능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 연계 학습, 특기·적성 개발, 진로 탐색 등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학년군별 수요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의 활용도와 참여 지속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별 교육 환경과 자원 격차 역시 프로그램 기획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사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민간 교육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체험·문화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사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지원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개발 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담 기관이 전국 단위에서 학교의 프로그램 수요를 내용, 수준, 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공모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 구조를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학교 현장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질 높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분야별 수요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는 향후 늘봄학교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표 85>에서는 고학년 대상 정책 확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요구되는 분야와 이에 대응한 수요 특성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고학년 학

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공급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학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체육, 문화예술,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특정 분야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급기관의 프로그램 분야는 체육 분야가 수요에 비해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고 디지털 관련 분야의 프로그램도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수요와 실제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희망하는 프로그램 수강에 실패할 경우, 해당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좌 수 확대 등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 연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성도 함께 나타난다. 공급 기관 설문조사의 결과는 교과교육 분야의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초 1~2학년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학년 확대를 염두에 둔다면 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공급처를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학년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학습 수준과 성장 단계에 따라 상위 단계로 연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별·단계별 프로그램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개발이 필요한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 프로그램 개발과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현장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85〉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프로그램 분야별 수요 및 개발 방향

분야	수요분석	방향성
체육	맞춤형 및 선택형 프로그램으로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분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스포츠 분야 개발 필요 또한 수강 탈락(대기)가 발생하므로 강좌 수 등의 충분한 공급 필요</li> <li>☞ 공간 문제, 좁은 공간에도 가능한 뉴스포츠 프로그램</li> <li>☞ 다양한 시간대 운영</li> </ul>
문화 예술	실기 위주보다는 놀이와 체험이 융합된 프로그램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교육 콘텐츠와 체험형 콘텐츠 교육안 개발</li> </ul>
인문사회	맞춤형과 선택형에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한 인문 사회 분야 프로그램보다는 특기 적성과 연계한 인문 사회분야 프로그램 개발</li> </ul>
창의과학	선호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로 질 높은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 확보</li> </ul>

기후환경	주제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 수요가 많지 않은 편임	☞ 학생과 학부모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 개발
학교적응 정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선호가 있는 편이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임	☞ 학년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학교적응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 개발
교과 관련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기 듣기 등 사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기타	디지털, AI 등 미래사회 신수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가 높음	☞ 저학년, 고학년 등 학년별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 학원에 없는 프로그램 ☞ 방학 중 프로그램

## 2 대학·전문기관 공급 프로그램 품질관리 강화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위 학교가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에는 인력, 전문성, 자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예체능, 진로탐색, STEAM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학교 단독 운영만으로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학,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 외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공급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콘텐츠 개발 역량, 강사 양성 체계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늘봄허브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공급 주체와 재원에 따라 RISE, 창의재단, 범부처, 교육청 자체사업, MOU 협력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각 사업 유형별 주관기관과 핵심 특성은 다음 <표 86>과 같다.

<표 86> 늘봄학교 공급 유형별 주관기관과 핵심 특성

유형	주관기관	핵심 특성
RISE	시·도 지자체, RISE센터, 대학	-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 - 지역 수요 기반 대학 연계 - 강사 양성과정 병행
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 전국 단위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 - 우수한 운영 여건(검증된 운영 모델) - 재단 주도의 매칭 용이
범부처	부·처·청	- 부처별 고유 전문성 활용 - 주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운영</li> <li>- 기존 강사 인력풀 활용 가능</li> <li>- 지역사회 연계 용이</li> </ul>
MOU 협력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전문성 활용</li> <li>- 주제 특화 프로그램 운영</li> </ul>

이러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운영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도 확인된다. 첫째, RISE, 범부처, 창의재단 사업 등 여러 사업이 늘봄허브에 통합 등록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탐색 및 선택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창의재단 사업은 운영 조건이 우수하여 매칭이 용이한 반면, 타 사업은 상대적으로 매칭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등 사업 유형 간 조건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습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프로그램 질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늘봄허브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공급·활용 과정 전반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품질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를 정비하고,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체계를 표준화하며, 공급자-수요자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공급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공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 **가**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개발·공급 - 평가환류 체계 마련

대학·전문기관이 개발·공급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공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품질관리 체계를 <표 87>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개발 단계에서는 공급 기관이 수요에 따라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지침서를 개발·보급한다. 지침서에는 학생 발달 단계별 특성, 교육과정 연계 방안, 학년군별 프로그램 구성 원리 등을 포함하여 공급 기관이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급 단계에서는 대학·전문기관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늘봄허브에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신청·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셋째, 평가 단계에서는 늘봄허브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정기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영역은 프로그램 적절성, 교육내용의 우수성, 강사 역량(교수학습방법 등), 만족도(교육 효과), 학교현장 기여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모든 프로그램을 매년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3년 주기로 모든 프로그램이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환류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과 확산의 두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미흡 이하로 평가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반면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매년 대학 및 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 중 학교 현장에서 적

용·활용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경우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프로그램과 공급 기관을 홍보한다.

〈표 87〉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개발-공급-평가-환류 체계(안)

	단계	주요 내용	세부 사항
①	개발	프로그램 개발 지침서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발달 단계별 특성 안내</li> <li>• 교육과정 연계 방안 제시</li> <li>• 학년군별 프로그램 구성 원리</li> </ul>
②	공급	늘봄허브 등록 및 학교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등록</li> <li>• 학교 신청·매칭</li> </ul>
③	평가	프로그램 정기 품질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대상: 늘봄허브 등록 프로그램</li> <li>• 평가 영역: 프로그램 적절성, 교육내용 우수성, 강사 역량, 만족도, 현장 기여도</li> <li>• 평가 주기: 3년 주기 전체 프로그램 1회 이상</li> </ul>
④	환류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미흡 이하 평가 시 개선 요구 및 이행 확인</li> <li>• (확산)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우수 프로그램 기관 홍보</li> </ul>

## 나 강사 확보 및 역량 강화

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강사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강사의 체계적인 확보와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양성-평가-환류로 이어지는 강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 강사 선정 기준 및 절차 표준화

공급기관에 공통 적용 가능한 강사 선정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사 선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공급 기관이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시 기준과 절차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강사 역량 평가 지침 개발

분야별 강사 역량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강사 역량 평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공급기관이 강사 양성, 선정,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평가 영역으로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교수법, 학생 발달단계 및 특징 이해, 학생 관리 및 학부모 상담 역량, 학교 교직원과의 협업 역량 등을 포함한다.

### (3) 강사 연수 체계 마련

강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연수 내용에는 해

당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교수법, 학생 발달단계 및 특징 이해, 학생 관리 및 학부모 상담 역량, 학교 교직원과의 협업 역량 등을 포함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와 학생 니즈를 파악하는 발문 기법 등에 관한 연수내용 강화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연수 내용에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교수법을 필수 영역으로 포함하고,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연수 프로그램 개선에 환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늘봄허브를 통해 공급되는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인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연수 지원 체계로는 기초, 고급, 심화 등 단계별 세부 연수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고, 강사연수 추진 및 이수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4) 우수 강사 선순환 구조 마련

우수한 강사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우수 강사 공모전을 개최하여 참여 강사의 수기를 모집·심사하고, 우수 강사로 선발된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강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5)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강사 확보 지원

농산어촌 등 벽지 지역의 강사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벽지 지역에 양질의 강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벽지 지역 파견 강사에 대한 출장비 지급, 시내 학교와 벽지 학교를 연계한 세트 매칭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벽지 지역 강사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 강사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산 자율성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 방과후, 돌봄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마련

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강사 양성 및 자격 기준 등 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대학을 활용한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의 기본 역할에 늘봄학교 강사 양성 기능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전문기관의 사업 운영을 확대·체계화하여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강사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개발·공급 - 평가환류 체계 마련

### 가 학교-공급기관 프로그램 매칭 지원 체계

늘봄허브 플랫폼을 통한 공급자(대학·전문기관, 개인 강사)와 수요자(학교/센터) 간 프로그램의 매칭 절차(안)를 단계별로 <표 88>에서 제시하였다. 매칭 절차는 총 6단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등록 단계에서 대학·기관 또는 개인 강사가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학교/센터가 이를 신

청하고, 양측 간 협의를 거쳐 공급기관의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학교/센터는 강사에 대한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매칭이 완료된다. 특히 개인 강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록 후 교육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플랫폼에 노출되며, 강사 면접평가 단계에서 학교/센터는 필요시 강사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학교 현장의 자율적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표 88〉 늘봄허브를 통한 프로그램 매칭 절차(안)

프로그램 등록	대학·기관 개인 강사	개인 강사의 경우 교육청 심사 후 프로그램 노출
↓		
신청	학교/센터	
↓		
협의를	대학·기관/강사, 학교/센터	
↓		
승인/미승인	대학·기관	
↓		
강사 면접평가	학교/센터	강사 관련 서류 요청 가능
↓		
매칭 최종결정	학교/센터	계약서 작성 후 매칭완료

또한, 공급자-사용자(학교/센터) 매칭 효율성 제고를 위한 늘봄허브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매칭 자동화 및 조정 기능 도입

일부 공급기관 관계자 의견에 따르면, 현재 프로그램 매칭 과정에서 복수의 학교가 동일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경우 중복 신청을 조정하는 데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기관 담당자 협의회 차원에서는 동일 프로그램에 대한 다수 학교의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단 간 협의를 통해 1·2순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운영 주체에게 일정한 행정적 소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늘봄허브 내에 매칭 자동화 기능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학교별 우선순위, 지역 접근성, 과거 프로그램 운영 이력 등을 반영한 자동 배정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일부 매칭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어촌 등 일부 벽지 지역에서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할 때, 벽지 학교에 대한 우선 매칭 기능이나 권역 단위 묶음 배정 기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지역 간 격차 완화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 (2) 프로그램 분류 체계 정비 및 검색 기능 고도화

일부 현장 의견에 따르면, 현재 늘봄허브에는 창의재단 사업, RISE 사업, 범부처 사업, 교육청 자체 사업 등 다양한 공급 경로의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어, 단위학교에서 학교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분류 기준이 미흡할 경우,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유형, 대상 학년, 운영 시간대, 프로그램 분야 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분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학교가 자체 여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검색 및 필터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 학년(예: 1~2학년 한정, 전 학년 대상 등)과 운영 가능 시간대를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학교가 학사 일정 및 강사 운용 계획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 (3) 사업 유형 무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현재 RISE 사업, 창의재단 사업, 범부처 사업, 교육청 자체 사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급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신청·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늘봄허브를 중심으로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가 단일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을 조회·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함으로써, 공급기관 간 중복 배정이나 매칭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 강사를 포함한 모든 공급 주체에 대해 강사 이력, 연수 이수 현황,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늘봄허브 내에 프로그램별 누적 만족도(평점) 확인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에 기반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매칭 이후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운영 상황 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공급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 (1) 단위학교 사전 요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학교 요구 반영을 통한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 사전 요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방식은 공급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단위학교가 신청·매칭하는 구조이나, 단위학교가 먼저 개발을 요청하고 개발 가능한 공급기관을 모집·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학기의 단위학교 수요조사 → 2학기 프로그램 개발 → 11월 전 프로그램 개설 등의 과정으로, 학교의 요구 및 학사과정 계획 일정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공급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지역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 예측이 어려워 신청자가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

는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 (2) 정보 제공 및 소통 지원

공급기관이 단위학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정보(수요, 학교/센터 특성)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늘봄허브를 통해 학교 및 학부모 수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전문기관과 학교/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활성화하여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 (3) 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컨설팅 강화

단위학교의 공급기관 프로그램 활용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공급기관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관리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및 시도교육청별 컨설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4) 프로그램 공급·활용 통합 관리 체계 마련

늘봄허브에 참여하는 공급기관은 사업 유형(창의재단, 범부처, 라이즈, 교육청 자체 등)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공급·활용 과정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늘봄허브에 다양한 사업 유형의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 유형별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단위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공급기관 간 매칭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칭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

단위학교 차원의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중심으로 홍보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우수사례는 늘봄학교 운영체계 개선, 대학 및 전문기관 프로그램 활용, 지역사회 연계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참고·확산 가능한 차별화된 성과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늘봄허브 내에 우수 프로그램 표시·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가 우수한 프로그램, 신청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등을 명확히 식별·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학교의 프로그램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 (6) 공급기관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대학 및 전문기관의 프로그램 공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공급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급 기관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를 연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비 비율 인상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봉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수업 준비, 자료준비,

행정 처리 등 실제 투입되는 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벽지·소규모 학교에 대한 강사 파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출장비 지원, 강사료의 탄력적 운영 허용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강사 수급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한(예: 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보조강사 배치에 대한 이해,)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 3절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기반 조성 방안

### 1 늘봄학교 프로그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급기관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년군별 프로그램 분야, 내용, 수준 등의 체계화를 지원한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특성 및 수요 차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기관에 안내한다.

둘째, 공급기관의 학교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워크숍)를 실시하고 세부 가이드를 제공한다. 공급기관이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체계와 학교 현장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현장 적합성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강사연수 등 공통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급기관에 공유한다. 개별 공급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통 연수 자료를 전문기관에서 개발·보급함으로써 강사 역량 강화의 효율성을 높인다.

넷째, 프로그램 공급자(대학·기관, 개인 강사)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컨설팅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질 제고를 지원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한다. 학교,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의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급기관에 제공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수요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늘봄허브 고도화 추진

#### 가 늘봄허브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현재 RISE 사업, 창의재단 사업, 범부처 사업, 교육청 자체 사업 등 다양한 경로로 공급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관리되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허브를 중심으로 대학·전문기관 및 개인강사 등을 포함한 공급 주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가 단일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을 조회·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나 주체별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늘봄허브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기관, 단위학교, 학부모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주체별 차별화된 정보 제공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대학·전문기관, 개인강사)에게는 운영자(학교/센터) 및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예: 주변 사교육 현황, 사전학습 정도, 지역 특성 등)와 동일 프로그램의 이전 운영 사례 및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운영자(학교/센터)에게는 다양한 기관에서 양성·모집된 강사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기능 등을 제공하고, 수요자(학생, 학부모)에게는 프로그램별 누적 만족도(평점) 확인 기능 등을 탑재하여 정보에 기반한 프로그램 선택을 지원할 수 있다.

#### **다** 프로그램 및 강사 질 관리 기능 강화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질 관리 기능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질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개인 강사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 심사 및 만족도 조사(일정 기준 이하 시 등록 제한)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동일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강사 질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매칭 과정에서 개별 학교/센터가 수행하는 서류심사, 면접평가(강사이력서, 면접 및 시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등의 절차를 늘봄허브 내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강사별 이력 및 평가 정보를 축적하여 학교의 강사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늘봄허브 내 강사별 연수 이수 현황(저학년 발달단계 이해 교육 포함) 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학교의 강사 평가 결과를 축적·공유하여 강사 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라** 프로그램 평가·환류 체계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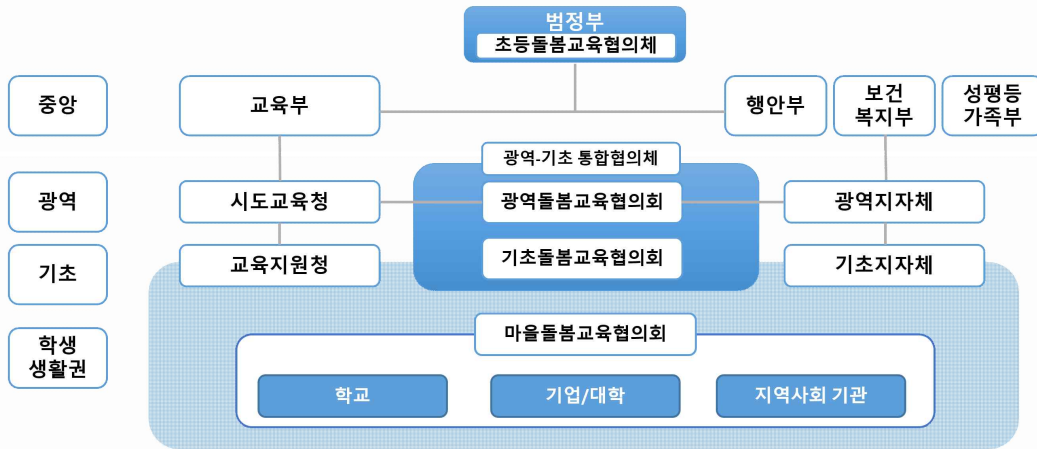
늘봄허브가 단순한 매칭 기능을 넘어 프로그램 운영 전 주기에 걸친 평가·환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질은 늘봄학교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매칭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수요자(학부모)에게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 결과를 프로그램별로 누적 관리하여 품질 개선에 환류하고, 만족도 기준 미달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등록 제한 등의 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수요자 선택에 기반한 자율적 품질관리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 **3**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돌봄 협력 체계 구축

#### **가** 중앙-광역-기초-학교 단위의 다층적 교육·돌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1) 중앙-지역 연계 다층적 교육·돌봄 협의체 구조

늘봄학교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 관계 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교 및 지역사회 주체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광역 단위와 기초단위가 분리된 층위로 운영되는 기존 협의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가 하나의 협의 장에서 직접 만나는 ‘광역-기초 통합협의체’를 거버넌스의 핵심축으로 설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72]와 같이 중앙에서 학교·학생생활권 단위까지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초등 교육·돌봄 협의체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림 72] 다층적 초등 교육·돌봄 협의체 구성(안)

중앙 단위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협력 거버넌스의 최상위 축으로 설정한다. 교육부가 주관 부처로서 정책 기획과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자원 조정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초등 교육·돌봄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 조율 기능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보하고자 한다.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는 기존의 분절된 협의 방식을 넘어,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광역-기초 통합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 구조를 재편한다. 통합협의체는 광역 단위의 정책 방향과 기초 단위의 현장 수요가 동일한 협의 장에서 직접 논의·조정되는 구조로, 각 기관이 보유한 공간, 인력, 예산, 프로그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상호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광역 단위의 정책 기획과 기초 단위의 실행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자원 연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연계하여, 광역돌봄교육협의회와 기초돌봄교육협의회는 통합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하여 운영된다. 광역돌봄교육협의회는 통합협의체에서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광역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과 자원 배분 조정을 담당하고, 기초돌봄교육협의회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실행 계획 수립과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과 실행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학생생활권 단위에서는 ‘마을돌봄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교, 기업·대학, 지역사회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학생과 가정에 가장 근접한 층위에서 돌봄 수요와 자원을 직접 연계하는 실행 단위로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자원 공유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된다.

현재 관계 부처 간 협력 기구인 ‘초등돌봄·교육협의체’와 지역 단위 협력 체계인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1월 27일 교육부 주관으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본 연구의 제안은 이러한 기존 협의체를 토대로, 중앙-광역-기초-학교·학생생활권 단위 간 수직적 연계와 층위별 수평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기획-사업 운영-현장 실행이 유기적으로 환류되는 교육·돌봄 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보다 정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광역-기초 통합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늘봄학교 운영에서 실질적인 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층위별 협의체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기초 단위가 동시에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협의체는 광역교육청, 광역지자체,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공간·인력·예산·프로그램 정보를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상호 필요 사항을 직접 조정하는 협의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통합협의체의 운영 주체는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장학, 민원 대응, 현안 처리 등 다수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협의체 운영에 전담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인 반면, 시도교육청은 광역 단위 조정 권한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통합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교육청 주도의 통합협의체 운영에서는 광역 단위 전체 회의, 권역별 통합 회의, 기초지자체별 개별 협의 등을 네트워크 형태로 연계하여, 광역 정책 방향과 기초 단위 현장 수요가 상호 환류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운영 주체: 시도교육청 주관, 교육지원청 실무 지원
- 참여 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 참석 범위: 교육지원청 장학사·팀장급, 기초지자체 담당 팀장·과장급

## (3)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협의 운영 방식

동일한 광역 단위 내에서도 도심과 농촌 지역의 교육·돌봄 여건은 상이하다. 도심 지역은 민간 교육 시장이 발달하여 체험·문화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은 사교육 접근성이 낮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전체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협의·운영하기보다는,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협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별 개별 협의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먼저 파악하고, 도심형·농촌형·중간형 등 지역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기준의 차별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개별 협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광역 단위의 정책 방향으로 환류함으로써, 획일적 운영을 지양하고 지역 맞춤형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단위별 협의체 운영 방안

늘봄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학교 각 단위의 협의체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단위별 협의체의 목적, 주요 기능, 논의 안건, 운영 방안을 <표 89>와 같이 정리하였다.

### (1) 중앙 단위 협의체

중앙 단위 협의체는 국가 차원의 교육·돌봄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부처 간 역할 중복 및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 교육·돌봄의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법·제도 정비

를 통한 근거 규정과 재정 분담 원칙 마련, 현장 운영 지침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교육·돌봄 정책의 통합 설계 및 조정,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 분담 기준,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관계부처 정례 협의를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개최하고, 실무 TF 운영을 통해 정책의 구체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2) 광역 단위 협의체

광역 단위 협의체는 중앙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조정·실행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도 단위 교육·돌봄 실행 전략 수립, 기초 단위 협의체 운영 지원·컨설팅, 광역 차원의 인력풀·시설·프로그램 연계 등의 기능이 요구된다. 핵심 논의 안건으로는 시·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모델 설계, 학교-지역 돌봄 자원의 매칭 기준 마련, 도교육청과 도청 간 예산 협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중심의 정례 회의 개최와 분과별 운영을 통해 세부 사안을 협의하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3) 기초 단위 협의체

기초 단위 협의체는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 간 실질적 연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교육·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돌봄·방과후·지역 유관기관 간 시설 연계 추진과 학교 밖 돌봄 공백 최소화 기능을 담당한다. 기초 단위에서는 협력의 기반이 되는 교육철학 공유와 공동 의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 및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리스트 공유와 상호 참관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돌봄 수요·공급 조정, 지자체 시설 활용 조건 및 강사 연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의 연계, 돌봄 인력 운영 및 안전 관리 등 실무적 사안을 협의한다. 정례 협의와 수시 회의를 병행하는 실무 중심 협의체 운영으로 현장 밀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4) 학교 단위 협의체

학교 단위 협의체는 학생 개별 수준의 교육·돌봄 통합 지원과 학교 현장 운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늘봄·방과후·돌봄 운영 조정, 학생별 돌봄 필요도 파악, 학부모 및 지역 자원 연계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논의 안건에는 학년·학생별 돌봄 운영 계획 수립, 돌봄 교실과 방과후 운영 시간 조정, 강사운영 방식 결정, 외부시설 연계 시 학생 인계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교장 주관의 교내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지역 돌봄 담당자 간 공동 회의를 통해 외부 자원 연계 등을 조율해야 할 수 있다.

〈표 89〉 교육·돌봄 협의체별 운영관련 사항(안)

단위	목적	주요 기능	주요 논의 안건(예)	운영 방식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차원의 교육·돌봄 정책 통합 조정</li> <li>부처 간 역할 중복·공백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교육·돌봄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li> <li>법·제도 정비(근거 규정, 재정 분담 원칙)</li> <li>운영 지침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돌봄 정책 통합 설계/조정</li> <li>국가재정-지방재정 분담</li> <li>지역간 형평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부처 정례 협의 (분기·반기)</li> <li>실무 TF 운영</li> </ul>
광역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정책의 지역 맞춤형 조정/실행</li> <li>기초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단위 교육·돌봄 실행 전략 수립</li> <li>기초단위 협의체 운영 지원·컨설팅</li> <li>광역 인력풀·시설·프로그램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형 늘봄학교 모델 설계</li> <li>학교-지역 돌봄 자원 매칭 기준 마련</li> <li>도교육청-도청 간 예산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교육청 중심 정례 회의</li> <li>분과 운영</li> </ul>
기초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지역사회-지자체 실질적 연계</li> <li>교육·돌봄 수요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돌봄·방과후 지역 유관기관 시설 연계</li> <li>학교 밖 돌봄 공백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철학 공유/논의, 의제설정</li> <li>교육프로그램 리스트 공유/참관</li> <li>초등돌봄 수요·공급 조정</li> <li>지자체 시설 활요 조건 및 강사 연계</li> <li>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연계</li> <li>돌봄 인력 운영 및 안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례 협의 + 수시 회의</li> <li>실무 중심 협의체 운영</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개별 수준의 교육·돌봄 통합 지원</li> <li>학교 현장 운영 문제 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늘봄 방과후·돌봄 운영 조정</li> <li>학생별 돌봄 필요도 파악</li> <li>학부모·지역 자원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년·학생별 돌봄 운영 계획</li> <li>돌봄교실·방과후 운영 시간 조정</li> <li>강사운영 방식</li> <li>외부시설 연계시 인계 및 학생 안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장 주관 교내 협의체 운영</li> <li>학교-지역 돌봄 담당자 공동 회의</li> </ul>

## 4 늘봄·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또는 별도 특별법(안) 마련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늘봄학교 정책 추진과 함께 교육부에서 늘봄학교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

황이다. 향후 초중등교육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마련을 통해 늘봄학교의 기본 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늘봄학교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중앙 및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 및 예산 협력 구조 구축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개정 또는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협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자체는 상위 기관의 예산 지원을 근거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 조례를 통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기초지자체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역 단위에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분담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의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 방식을 조례에 명시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분담의 표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제 7 장

# 요약 및 제언

1절 | 요약

2절 |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1절 요약

2023년 이후 시행된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고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다만 현재 성과가 초1~2 맞춤형에 집중되어 고학년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학년의 발달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공급이 미흡하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고학년 중심의 수요를 확인하고, 대학·전문기관 등 외부 공급 주체의 참여 확대와 늘봄허브를 중심으로 한 학교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공급·활용 체계 및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정책 추진 현황과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학부모, 학교 담당자, 공급기관을 대상으로한 설문 조사와 면담, 바우처 및 외부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요와 활용 과정의 특징 및 제약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수요가 높음에도 공간, 인력, 지역 여건에 따라 활용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대학·전문기관 등 외부 공급 주체는 개발 역량이 있음에도 학교와의 연결 경로와 운영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실제 제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확인되었다. 즉, 수요와 공급이 모두 존재함에도 이를 연결하는 매칭 구조와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활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늘봄학교 확대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개발·공급·활용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공급·활용 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공간 여건, 지역자원 수준, 사교육 환경 등 조건에 따라 운영 모델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지원을 차등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 주도의 지역기관 연계형, 지역 네트워크 기반 분산 운영형, 거점센터 중심 공동 운영형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에 맞춰 이동·안전 관리, 수요 매칭, 협의체 운영 등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학년 참여 확대는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우수 프로그램 확보와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므로, 중·고학년을 중심으로 바우처를 보완적으로 도입해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 설계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과 전문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절차를 ‘학교 수요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교가 먼저 개발 요청을 제시하고 → 공급기관을 모집·매칭 → 개발·개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개발 타당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동시에 늘봄허브를 활용해 학교·학부모 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대학·전문기관과 학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플랫폼을 추가하기보다 늘봄허브를 고도화하여(표준 템플릿 제공, 중개 기능 강화, 교육청·거점의 매칭 지원) 운영의 속도와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급기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간접비 조정, 교육봉사 인정 확대, 출장비 지원, 강사료 탄력 운영, 예산 편성 자율성 보장 등 참여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활용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공급과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려면 프로그램의 질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품질관리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 기관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년군별 분야, 내용, 수준 등의 체계화를 지원하고, 공급기관 대상 현장 이해 연수와 가이드 제공, 강사 연수 및 공통 콘텐츠 개발·공유, 서면 및 현장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 등 품질관리-지원-피드백의 상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굴·확산(우수사례집, 늘봄허브 내 우수 프로그램 표시·인정)과 컨설팅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지역 단위의 교육·돌봄 협력 체계 구축과 늘봄·방과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 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공급 활용 체계 구축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증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방과후 돌봄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늘봄지원실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지원인력 및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대학 및 전문기관이 개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단위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역량을 갖춘 담당 인력이 필수적이다.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의 결과들에서 보면 프로그램 내용과 질적 수준이 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편성되는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교육 전문성이 필수적이지만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직 경험이 풍부한 늘봄지원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늘봄지원실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고 지원인력인 늘봄실무사의 배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양질의 방과 후 강사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연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단위학교에서의 개별 강사 위축, 대학의 프로그램 공급을 위한 강사 위축 등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일수록 이런 어려움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과후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강사의 풀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강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집중 연수 보다는 교사 양성만큼은 아니더라도 대학 및 대학원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등을 활용하여 좀 더 긴 시간을 투자하여 교육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강사들을 위한 재교육 및 연수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 방과후 돌봄과 교육이 학교에서 필수적인 교육 활동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교육과정 고시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단지 방과후 학교가 처음 도입될 당시의 취지와 같이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의미로서는 충분할 수 있겠지만 맞벌이 가정 증가, 저출생 현상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인 근거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와 학교의 책임으로서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돌봄과 교육기회 보장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운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방과후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측면에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교과, 창의, 체험 등) 확대를 통한 학부모 수요와 교육적 필요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직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부모로부터의 교육(특히 교과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와 면담 조사 결과는 초 3학년 이후 점차 돌봄과 보호의 필요성은 감소하지만 여전히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런 수요는 방과후학교 참여가 낮아지고 사교육으로의 이동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2학년의 경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지만 고학년의 경우는 정규 수업 시간의 연장으로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의 문제는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학습) 중심의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은 고학년에게 필요한 돌봄과 교육을 균형있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교육내용과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경우 자녀의 돌봄과 보호를 위해 외부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서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교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정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별 지원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제공 체계를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은 공간, 인력, 자원 등의 제약으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체제로 다소간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초 1-2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에서 나타난 어려움은 공간 부족과 행정 업무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공간 부족이나 업무 부담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운영에서의 자율성이 높일 수 있는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실제 단위학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위한 지역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교육과 돌봄은 서로 다른 기능이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두 가지 영역이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피해를 더 보게되는 쪽은 교육이다. 충분히 돌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지만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를 돌보거나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공적 사회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에 대한 돌봄은 지역이나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요구가 학교로 집중되는 데에는 지역과 가정의 돌봄과 보호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돌봄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과 가정의 기능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학교의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가정의 돌봄과 교육 기능이 잘 작동되고 학교교육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도 지역과 가정의 돌봄과 교육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칭)방과후 돌봄·교육 지원 특구과 같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는 정책 사업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늘봄허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공급과 매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과학창

의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고학년 확대에 맞추어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공급과 프로그램 연결 지원만으로 학교 현장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학교는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요구하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받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급기관인 대학이나 공공기관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공급의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의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결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별도의 기관별로 분산되기보다는 통합되어 실행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허브가 프로그램의 학교-공급기관 매칭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학교와 공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강사 모집과 질 관리 기능, 운영 프로그램의 평가 환류 체제로서의 기능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늘봄허브를 고도화하고 프로그램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교육청(2026). 꿈드림미. <https://kkumdreami.gen.go.kr/>
- 교육부(2023).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2023.1).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 교육부(2024).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https://www.data.go.kr/data/3038855/fileData.do>
- 교육부(2025a).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 교육부(2025b). 2025 늘봄학교 시행방안.
- 교육부(2026).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 김수동, 윤준영, 정영모(2017). 방과후학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2), 855-864.
- 김지애(2023.5.17.). 초등돌봄 기다리는 학생 8700명…“연내 대기 수요 흡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5/17/20230517500197>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6a).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card/introduce.do?p\\_sn=51](http://www.voucher.go.kr/card/introduce.do?p_sn=51)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6b).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welfareInfoId=WLF00004658>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6c). 국가바우처사업. [http://www.voucher.go.kr/voucher/subIndex.do?p\\_sn=63](http://www.voucher.go.kr/voucher/subIndex.do?p_sn=63)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6d). 언어발달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2](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2)
- 서울특별시교육청(2025a). 2025학년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기본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2025b). 2025학년도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2025c). 서울교육의 복지 입학준비금.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서울특별시교육청(2025d). 2025학년도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유승민(2025). 늘봄학교 정책 이슈 분석 : CONCOR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3(3), 191-215.
- 이희현, 김민희, 김성기, 하봉운, 황준성(2022). 방과후학교정책의 성과 및 재구조화 방향: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50, 172-206.
- 임재훈(2019.3.4.). 무주 전래놀이연구회 ‘해노리’. 전북도민일보.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692>
- 전라남도교육청(2025). 2025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운영 지침.
- 전라일보(2024). 장수군, 청소년의 건강한 꿈 키워드림 프로그램 운영(2024.10.2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02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실무자료집.
- 전주시(2025). 2025 열린교육바우처 추진계획.
- 정읍시(2025). 2025년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 변경 추진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6).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역특화 프로젝트 Re

gend 50+. <https://www.smtech.go.kr/regend50/board?menuId=MENU002070100000000>

통계청(2025).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20).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한국장학재단(2025). 대학생지식멘토링. <https://portal.kosaf.go.kr/CO/jspAction.do>

한병규(2023.5.8.).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상승.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8818>

## 부록1. 설문 조사 질문지

### 가. 학교 담당자 설문지

**[기본정보]**

1. 학교 기본정보 (별도 수집)
2. 소재지 :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여건]**

3. 프로그램 편성 책임자

① 늘봄실장	② 늘봄실무사	③ 기간제	④ 교감·교사	⑤ 기타 (    )
--------	---------	-------	---------	-------------

4. 실장 배치 여부 :

① 실장 배치	② 인근학교 실장이 겸임	③ 미배치
---------	---------------	-------

5. 지역 특성

①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	--------	--------

6. 학교 규모

① 대규모(31학급 이상)	② 중규모(30~13학급)	③ 소규모(12학급 이하)
----------------	----------------	----------------

7. 학교 인근 학원가 밀집도

① 없음	② 밀집도 낮음	③ 보통	④ 밀집도 높음
------	----------	------	----------

**[초 1~2 프로그램 운영]**

8.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방식

① 참여 여부만 조사	② 전년도 프로그램 대상 수요조사	③ 프로그램 분야별 수요조사	④ 구체적인 새로운 프로그램 제시
-------------	--------------------	-----------------	--------------------

9. 늘봄과정 유형별 프로그램 강좌 수

① 맞춤형 교육 00개	② 선택형 교육 00개	③ 선택형 돌봄 00실
--------------	--------------	--------------

- 9-1.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비율(유형별 참여학생 수 / 초 1~2 전체학생 수)

① 늘봄학교 전체 00%	② 맞춤형 교육 00%	③ 선택형 교육 00%	④ 선택형 돌봄 00%
---------------	--------------	--------------	--------------

- 9-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유형

① 맞춤형 교육	② 선택형 교육	③ 선택형 돌봄
----------	----------	----------

- 9-3. 문항 9-2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① 선택권이 보장되어서	② 비용 부담이 적어서	③ 프로그램 품질이 높아서	④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⑤ 일정 시간동안 확실한 돌봄 제공	⑥기타 (    )
--------------	--------------	----------------	---------------------	---------------------	------------

10.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중복선택가능)

① 개인위탁	② 업체위탁	③ 대학·기관연계	④ 내부교원
--------	--------	-----------	--------

10-1. 강사 활용 방식에 대한 학교의 선호도(1순위, 학교에서 활용하지 않는 방식도 선택 가능)

① 개인위탁	② 업체위탁	③ 대학·기관연계	④ 내부교원
--------	--------	-----------	--------

10-2. 문항 10-1에서 선택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복 가능)

① 프로그램 내용	② 강사 역량	③ 교재·교구 품질	④ 교육 효과	⑤ 업무 경감	⑥ 기타 ( )
-----------	---------	------------	---------	---------	----------

1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3개 (중복선택 3개)

① 체육	② 문화예술	③ 인문·사회	④ 창의과학
⑤ 기후환경	⑥ 학교적응·정서	⑦ 교과교육	⑧ 기타

11-1.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3개 (중복선택 3개)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 (특기적성)	⑫ 기타

11-2.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

① 강사 섭외 애로	② 적합한 공간 부재	③ 기존 강사 활용	④ 비용 부족	⑤ 기타 ( )
------------	----------------	------------	---------	----------

12. 현재 수강료(강사료+교구비)가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부담 정도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부담이 되는 편이다	⑤ 매우 부담이 된다
---------------	------------------	--------	------------------	-------------

13.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간 부족 정도

① 전혀 부족하지 않다	② 별로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⑤ 매우 부족하다
--------------	------------------	--------	---------------	-----------

13-1. 공간 부족 시, 외부 공간 또는 협력 가능한 돌봄 기관 등을 활용할 의사

① 없음	② 있음
------	------

13-2. 문 13-1에서 외부 공간, 기관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 그 이유

① 활용 가능한 공간, 기관 없음	② 안전사고 등 학생 관리 문제	③ 학부모 선호도 낮음	④ 외부 공간/기관 프로그램의 낮은 질	⑤ 외부기관과 협력 채널 부재	⑥ 기타 ( )
--------------------	-------------------	--------------	-----------------------	------------------	----------

**[초등 고학년 프로그램 운영]**

14.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① 학생·학부모 선택권 강화	② 프로그램 수강료 경감	③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④ 사교육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⑤ 안정적 돌봄 시간 보장	⑥ 기타 ( )
-----------------	---------------	----------------	--------------------	----------------	----------

14-1.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중복가능)

①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② 방과후 자유수강권 확대	③ 대학·전문기관 우수 프로그램 공급	④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확충	⑤ 기타 ( )
---------------	----------------	----------------------	------------------	----------

15. 학교에서 향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고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분야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 (특기적성)	⑫ 기타

16. 대학·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 기관이 좀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 (특기적성)	⑫ 기타

17. 기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나. 학부모 설문지

### [기본정보]

1. 자녀 기본정보 (2학년 여부)
2. 소재지 : 17개 시도교육청

### [자녀 교육 여건]

3. 맞벌이 등으로 정규 수업 후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인지?

① 맞벌이 가정 등으로 부모 모두 돌봄 불가 (학원이나 돌봄기관 이용 필요)	② 맞벌이 가정 등이지만 조부모 등이 자녀 돌봄 지원	③ 부모 중 1인이 돌봄 가능
--	-------------------------------	------------------

4. 거주지 인근 학원가 밀집도는 어떠합니까?

① 없음	② 밀집도 낮음	③ 보통	④ 밀집도 높음
------	----------	------	----------

5.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자녀의 돌봄·교육 참여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늘봄학교	②가정 돌봄·교육	③ 사교육 참여	④ 외부 돌봄기관	⑤ 기타( )
--------	-----------	----------	-----------	---------

### [늘봄학교 참여 현황: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문 6-2 까지만 작성]

6. 현재 자녀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 6-1. 문항 6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면, 자녀 돌봄·교육 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가정 돌봄·교육	② 사교육 참여	③ 학교 밖 돌봄 이용	④ 기타( )
------------	----------	--------------	---------

- 6-2. 문항 6-1에서 응답한 방식을 늘봄학교 대신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적 측면	② 안정적인 돌봄	③ 자녀 희망	④ 기타( )
----------	-----------	---------	---------

7.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2시간 이내	③ 3시간 이내	④ 4시간 이내	⑤ 4시간 초과
----------	----------	----------	----------	----------

8. 현재 참여하고 있는 늘봄과정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맞춤형 교육	② 선택형 교육	③ 선택형 돌봄
----------	----------	----------

- 8-1. 가장 선호하는 늘봄과정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맞춤형 교육	② 선택형 교육	③ 선택형 돌봄
----------	----------	----------

- 8-2. 문 8-1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선택권이 보장되어서	② 비용 부담이 적어서	③ 프로그램 품질이 높아서	④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⑤ 일정 시간동안 확실한 돌봄 제공	⑥기타 ( )
--------------	--------------	----------------	---------------------	---------------------	---------

9.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체육	② 문화예술	③ 인문·사회	④ 창의과학
⑤ 기후환경	⑥학교적응·정서	⑦교과교육	⑧ 기타

9-1.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 (특기적성)	⑫ 기타

10. 학교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	--------	------------	-----------

10-1.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프로그램 내용	② 강사 역량	③ 교재·교구 품질	④ 교육 효과	⑤ 교우 관계	⑥ 비용	⑦기타( )
-----------	---------	------------	---------	---------	------	--------

10-2.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부모 수요 반영	② 비용 부담 경감	③ 프로그램 내용	④ 강사 역량	⑤ 교재·교구 품질	⑥ 교육 효과	⑦기타( )
-------------	------------	-----------	---------	------------	---------	--------

**[초등 고학년 진학 시 늘봄학교 참여 의사]**

11.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올라갔을 때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현재 참여 중이고 계속 참여 예정	② 현재 참여 중이나, 참여 중단 고려 중	③ 현재 참여하지 않으나 향후 참여 가능	④ 현재도, 앞으로도 참여 의사 없음
----------------------	-------------------------	------------------------	----------------------

11-1. 문 11에서 현재 참여중이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수업 시간 확대로 돌봄 수요 해소	② 교과 교육을 위해 사교육 참여 확대	③ 거주지 인근 돌봄센터 등 이용	④ 기타 ( )
------------------------	-----------------------	--------------------	----------

11-2. 늘봄학교에 어떤 점이 보완되면 참여 또는 참여 시간 확대를 고려하겠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안정적 돌봄 시간 보장	② 프로그램 내용의 품질 제고	③ 수강료 비용 지원	④ 교과과목 프로그램 편성 확대	⑤ 특기적성 프로그램 편성 확대	⑥ 기타 ( )
----------------	------------------	-------------	-------------------	-------------------	----------

12.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은 제한되더라도 안정적인 돌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	②안정적 돌봄 우선	③ 선택권 우선	⑤ 참여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	⑤기타 ( )
---	------------	----------	---	---------

13. 학년군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13-1. 초 3~4학년군은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 (특기적성)	⑫ 기타

13-2. 초 5~6학년군은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 (특기적성)	⑫ 기타

14.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체 관계 (참여 내용이 유사함)	② 보완 관계 (참여 내용이 구분됨)	③ 독립적 관계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음)	④ 기타 ( )
-------------------------	-------------------------	----------------------------	----------

14-1.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주지교과 (영어, 수학 등)	② 기타 교과 (사회, 과학 등)	③ 특기적성 (체육, 음악, 미술 등)	④ 기타 ( )
----------------------	-----------------------	--------------------------	----------

15. 기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다. 공급기관 설문지

### [기본정보]

1. 공급기관 기본정보 (별도 수집)
2. 소재지 : 17개 시도

### [기관 여건]

3. 늘봄학교·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참여 유형(중복 가능)

① 창의재단	② 범부처	③ RISE	④ 교육청 위탁	⑥ 기타
--------	-------	--------	----------	------

4. 기관 유형

① 종합대학	② 전문대학	③ 교육대학	④ 공공기관	⑤ 민간기관	⑥ 기타 ( )
--------	--------	--------	--------	--------	----------

5. 기관의 초·중등교육 분야 이해도(초·중등분야 교육 활동 경험, 관련 기관 네트워크 보유 등)

① 매우 낮음	② 다소 낮음	③ 보통	④ 다소 높음	⑤ 매우 높음
---------	---------	------	---------	---------

6. 늘봄학교·방과후학교 관련 활동 기간(정부 사업 등으로 지원받지 않은 기간도 포함)

① 1년 이내	② 1~2년	③ 2~3년	④ 3~4년	⑤ 4~5년	⑥ 5년 초과
---------	--------	--------	--------	--------	---------

7.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 여부

① 없다	②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구성	③ 정부 사업과 무관히 늘봄학교·방과후 관련 조직 구성
------	---------------------------	--------------------------------

8.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인력 구성

구분	인원수
① 총 인원	명
② 행정 인력	명
③ 전문가 인력	명

### [프로그램 공급 현황]

9. 현재 어떤 분야 프로그램 공급 중인지?(중복 가능)

① 체육	② 문화예술	③ 인문·사회	④ 창의과학	⑤ 기후환경	⑥ 학교적응·정서	⑦ 교과교육
------	--------	---------	--------	--------	-----------	--------

10.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 수는 어떻게 되는지?

① 1~2종	② 3~4종	③ 5~6종	④ 7~8종	⑤ 9~10종	⑥ 10종 초과
--------	--------	--------	--------	---------	----------

11. 프로그램 공급 학급 공급 규모

① 10개 이내	② 11~20개	③ 21~30개	④ 31~40개	⑤ 41~50개	⑥ 50개 초과
----------	----------	----------	----------	----------	----------

12. 기관이 보유한 소속 강사 자원

① 10명 이내	② 11~20명	③ 21~30명	④ 31~40명	⑤ 41~50명	⑥ 50명 초과
----------	----------	----------	----------	----------	----------

13.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보 방식은?

① 자체 전문가를 활용해 개발한 프로그램만 활용	② 자체 개발 프로그램만 활용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협력기관 콘텐츠, 전문가 등 활용	③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 협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활용	④ 기타 ( )
----------------------------	--	---	----------

14.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중복 가능)

① 자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외부 강사 선발	② 협력기관이 추천·선발한 강사풀 활용	③ 대학졸업생 (대학원생), 기관 전속 인력 등 공급 기관 자체 인력 활용	④ 기타 ( )
-------------------------	-----------------------	---	----------

15.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을 어느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① 사전 교육 없음	② 5시간 이내	③ 6~10시간	④ 11~15시간	⑤ 15~20시간	⑥ 20시간 초과
------------	----------	----------	-----------	-----------	-----------

16. 선발한 강사에 대한 사전 교육(연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중복 가능)

① 초등학생 교수·학습법	② 학생 생활지도	③ 해당 분야 전문성 함양	④ 커리큘럼 이해 및 활용	⑤ 정책 이해 및 유의사항	⑥ 기타 ( )
---------------	-----------	----------------	----------------	----------------	----------

17. 현재 주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학교에 매칭하고 있는지?

① 늘봄허브 플랫폼 활용	② 프로그램 공급기관의 별도 매칭 플랫폼 활용	③ 교육청 협력을 통해 매칭	④ 기타 ( )
---------------	---------------------------	-----------------	----------

18.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당초 계획했던 만큼 학교와 충분히 활용되었는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19.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중복 가능)

① 학교 현장의 프로그램 수요 파악 어려움	② 기관 내에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 전문가 부족	③ 기관 내에 프로그램 분야별 내용 전문가 부족	④ 기관이 보유한 교육용 콘텐츠, 교육용 자료 부족	⑤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 활용 시 협력의 어려움	⑥ 기타 ( )
-------------------------	------------------------------	----------------------------	------------------------------	-----------------------------	----------

20. 강사 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중복 가능)

① 강사 모집 시 역량있는 강사가 지원하지 않음	② 충분한 강사 연수를 실시할 전문성, 시간 부족	③ 강사는 모집했으나, 매칭되는 학교가 부족	④ 소외 지역 학교에 출강 가능한 강사 부족	⑤ 동일한 강사가 계속 활동하지 않음	⑥ 기타 ( )
----------------------------	-----------------------------	--------------------------	--------------------------	----------------------	----------

21.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혹은 예상되는지?)(중복 가능)

① 학부모 민원 대응	② 학생 관리 (학생 이동, 문제 학생 지도 등)	③ 강사 관리 및 모니터링	④ 학교와의 소통, 업무 협력, 불만사항 등 대응	⑤ 프로그램 운영 공간, 기자재 등 인프라 충분	⑥ 기타 ( )
-------------	-----------------------------	----------------	-----------------------------	----------------------------	----------

**[고학년 프로그램 공급 방향]**

22.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전반에서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	② 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수강료 부담 경감	③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④ 사교육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⑤ 고학년에 맞는 교과 과정 프로그램 확대
-----------------------	--------------------------	---------------------	-----------------------	-------------------------

23.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전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① 대학·전문기관이 우수한 콘텐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일반 강사에게 까지 확산
② 역량있는 강사가 학교에 출강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요건 강화
③ 프로그램 강사의 교수법 및 해당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④ 학교, 학부모가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강사 정보 공개 확대
⑤ 우수한 강사, 교구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 단가 인상
⑥ 기타 ( )

24. 학교의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①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학부모 수요 반영 확대	②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	③ 매칭과정에서 늘봄허브 활성화 및 교육청 지원 확대	④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 인하 (또는 학교에 비용 추가 지원)	⑤ 학교에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⑥ 기타 ( )
-----------------------------	--------------------------------------	-------------------------------	-------------------------------------	------------------------------	----------

25. 소속 강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① 강사 선발 시 자격 요건 강화	② 기본 강사로 단가 인상	③ 선발된 강사에 대한 연수 강화	④ 성과에 따른 강사비 차등 (만족도, 수강생 수)	⑤ 기타 ( )
--------------------	----------------	--------------------	------------------------------	----------

26. 학교밖 지역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지?  
(늘봄학교·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	------

26-1. 문26에서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① 어려움이 없음 (학교와 동일)	① 학교 밖 돌봄센터 등의 수강료 예산 부족	② 공급기관과 학교 밖 돌봄센터 등을 연결하는 채널 부재	③ 학교 밖 돌봄센터 운영 방식이 프로그램 운영에 맞지 않음 (돌봄 중심)	④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생이 없음	⑤ 기타 ( )
--------------------	--------------------------	---------------------------------	---	------------------------------------	----------

27. 학부모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향후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27-1. 문27에서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① 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참여 취지와 다름	② 기관 내에 교과과목 관련 전문가, 콘텐츠가 없음	③ 교과과목에서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④ 학교의 교과과목 강사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⑤ 기타 ( )
-------------------------	------------------------------	------------------------------	-----------------------------	----------

28.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면 그 방향은?

① 특기적성, 놀이와 연계한 형태로 운영	②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형태로 운영	③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사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④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 (진도 범위 내)	⑤ 기타 ( )
------------------------	---------------------------	--------------------------------	--------------------------------------	----------

29. 프로그램 공급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① 학교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가이드 제공	② 소속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수 지원	③ 교육청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④ 프로그램 공급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품질관리 지원	⑤ 기타 ( )
-------------------------------	--------------------------------	--------------------------	---------------------------------	----------

30.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된 정책 방향,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재

--

## 라. 학교 담당자 설문지 (2차 조사)

### [A. 학교기본정보]

- A1. 학교기본정보 (별도 수집)  
 A2. 소재지 : 17개 시도교육청  
 A3. 응답자(작성자)  
 ① 학교관리자 (교장, 교감)  
 ② 늘봄지원실장  
 ③ 늘봄실무사  
 ④ 교사  
 ⑤ 기타  
 A4. 늘봄지원실장 배치 여부 :

① 실장 배치	② 인근학교 실장이 겸임	③ 미배치
---------	---------------	-------

A5.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식

- ① 업체 위탁 (전체 프로그램)  
 ② 업체 위탁이지만 일부 프로그램 개인 강사 위탁  
 ③ 개인 강사 위탁 중심이지만 일부 프로그램 업체 위탁 있음  
 ④ 개인 강사 위탁 (전체 프로그램)  
 ⑤ 기타 ( )

A6. 지역 특성

①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	--------	--------

A7. 학교 규모

① 대규모(31학급 이상)	② 중규모(30~13학급)	③ 소규모(12학급 이하)
----------------	----------------	----------------

### [B. 학교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현황]

B1. [2025학년도 2학기] 방과후·돌봄 유형별 프로그램 수

① 맞춤형 교육 00개	② 선택형 교육 00개	③ 선택형 돌봄 00실
--------------	--------------	--------------

B2. [2025학년도 2학기]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현황(25년 12월 기준, 중복이용 가능)

- 초1-2 전체 학생 수 (      명)  
 늘봄학교 전체 참여 학생 수 (      명)  
 맞춤형 교육 참여 학생 수 (      명)  
 선택형 교육 참여 학생 수 (      명)  
 선택형 돌봄 참여 학생 수 (      명)

B3. [2025학년도 2학기] 방과후·돌봄 선택형 프로그램 중 무상 프로그램 수

\* 학부모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 프로그램 (강사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재료비는 부담하는 프로그램 포함)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중 무상 프로그램	00개
-----------------------	-----

B4. [2025학년도 2학기] 방과후·돌봄 전체 프로그램 중 외부 기관 제공 프로그램 활용

- \* 맞춤형, 선택형 교육, 선택형 돌봄 모두 포함
- \* 늘봄허브 외 대학, 지역 기관, 지자체 등이 별도 지원한 프로그램도 포함
- \* 방학, 주말 프로그램 포함
- \* 강사가 학교로 방문하는 경우만 해당 (학생이 외부로 이동하는 것은 제외)

- ① 활용
- ② 활용하지 않음

B4-1. (활용한 경우만 응답) 운영한 프로그램 수 (        개)

B4-2 (활용한 경우만 응답) 활용한 프로그램 유형 (여러 개 활용 시 복수응답 가능)

- ① 대학 운영    ② 전문기관 운영(범부처)    ③ 민간기관 운영    ④ 기타 (        )

B4-3. (활용한 경우만 응답)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 이유 (복수응답 가능)

- ① 자체적인 강사 확보가 어려워서
- ② 예산이 부족해서
- ③ 우리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 ④ 지역적 특성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해서
- ⑤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 프로그램이어서
- ⑥ 사교육(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 ⑦ 기타 (        )

B4-4. 외부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복수 응답 가능)

- ① 1년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
- ② 차년도 계획 수립 전 홍보 및 안내
- ③ 학교 시정표에 맞는 탄력적 운영
- ④ 프로그램 다양화 (예: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특화된 프로그램)
- ⑤ 학교 교실 공간 확보
- ⑥ 연계 매칭 과정의 행정 업무 간소화
- ⑦ 기타 (        )

**[C. 학교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개선 의견]**

C1. 2025년, 희망하는 초 1~2 학생 모두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강사 섭외 애로	② 학교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③ 행정 업무 증가	④ 기타(        )
------------	----------------------	------------	----------------

C2. 2026년 이후, 방과후·돌봄 집중 지원 대상을 고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때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사 섭외 애로	② 학교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③ 행정 업무 증가	④ 기타(        )
------------	----------------------	------------	----------------

C3. 학교 내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한 경우, 학생들이 지역 내 돌봄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C4. 학교에서 초과 수요 발생 시, 학생들이 지역 내 돌봄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가 방과후, 돌봄 참여 수요조사 시 학부모에게 지역 돌봄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역돌봄센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운영하는 이동버스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와 지역 내 돌봄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간·인력·프로그램 등을 연계한 협력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돌봄 센터와의 협력 모델, 우수사례 공유	①	②	③	④	⑤

## 마. 학부모 설문지 (2차 조사)

### [A. 기본정보]

- A1. 학교명 : ○○초등학교  
 A2. 소재지 : 광역지자체 단위로 기입

(기존 문항)

### [B. 자녀 교육 여건]

- B1. 자녀의 정규 수업 후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① 맞벌이 가정 등으로 부모 모두 돌봄 불가 (학원이나 돌봄기관 이용 필요)	② 맞벌이 가정 등이지만 조부모 등이 자녀 돌봄 지원	③ 부모 중 1인이 돌봄 가능
--	-------------------------------	------------------

- B2. 거주지 인근 학원가 밀집도는 어떠합니까?

① 없음	② 밀집도 낮음	③ 보통	④ 밀집도 높음
------	----------	------	----------

### [C.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늘봄학교) 참여 현황]

####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늘봄학교) 내 프로그램 유형]

구분	프로그램 유형	내용
초등 돌봄·교육 (늘봄학교)	맞춤형	초 1~2학년 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 등을 매일 2시간(차시)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선택형 교육	초 1~6학년 학생 대상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편성·운영하는 특기 적성 및 교과 관련 프로그램 (학교별 상이, 유료 또는 무료)
	선택형 돌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전담인력(늘봄전담사) 등이 돌봄교실에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

- C1. 2025학년도 2학기 자녀가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맞춤형, 선택형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 C2. (C1 문항 예로 응답한 경우) 2학기에 자녀가 참여하였던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늘봄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① 맞춤형 교육	② 선택형 교육	③ 선택형 돌봄
----------	----------	----------

- C3. 학교에서 편성한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늘봄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	--------	------------	-----------

C4.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부모 수요 반영	② 비용 부담 경감	③ 프로그램 내용	④ 강사 역량	⑤ 교재·교구 품질	⑥ 교육 효과	⑦기타( )
-------------	------------	-----------	---------	------------	---------	--------

**D. 초등 고학년 진학 시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늘봄학교) 참여 의사 및 의견**

D1.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올라갔을 때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현재 참여 중이고 계속 참여 예정	② 현재 참여 중이나, 참여 중단 고려 중	③ 현재 참여하지 않으나 향후 참여 가능	④ 현재도, 앞으로도 참여 의사 없음
----------------------	-------------------------	------------------------	----------------------

D2. (위의 문항 D1에서 현재 참여중이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규수업 시간 확대로 돌봄·교육 수요 해소	② 질높은 교육을 위해 사교육 참여 확대	③ 안정적 돌봄을 위해 지역 돌봄센터 등 이용	④ 기타 ( )
---------------------------	------------------------	---------------------------	----------

D3.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은 제한되더라도 안정적인 돌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	②안정적 돌봄 우선	③ 선택권 우선	⑤ 참여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	⑤기타 ( )
---	------------	----------	---	---------

D4. 학년군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D5. 자녀가 초3 학년이 되었을 때 아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정규수업 시간이 늘어나서 1-2학년 때 보다 학교 돌봄 참여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돌봄(휴식, 보호, 놀이 등)보다는 교육(학습, 체험 등) 활동이 더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마다 특성이나 관심사가 생기는 시기이므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D6. 초3 학년이후 고학년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는 데 아래 사항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형 프로그램(특기적성 및 교과)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유료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지원 (예: 바우처 지급)	①	②	③	④	⑤
3) 사교육(학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방과후학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사교육(학원)과 경쟁할 수 있는 질 높은 교과 프로그램 제공 확대	①	②	③	④	⑤

D7. 초3 학년 이후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부록2. 면담 조사 질문지

### 가. 늘봄지원실장

구분	질문	비고
1. 프로그램 현황	1-1. 현재 선생님 학교의 <b>늘봄학교 프로그램 현황</b> 은 어떠한가요? - <b>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프로그램 (교육, 돌봄) 현황</b> ※ 공개 가능한 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현황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	
2. 늘봄학교 성과 및 과제	2-1. <b>늘봄학교 운영의 성과 또는 변화</b> 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늘봄학교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 등의 부문에서 변화 - 외부 프로그램 활용 측면에서의 변화  2-2. <b>대학 또는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b> 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학생과 학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늘봄지원실장 입장에서) 대학 또는 전문기관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제와 관련하여 좋은 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프로그램 수요 현황	3-1. <b>초1-2 맞춤형 프로그램</b> 중에서 <b>인기가 많은(효과적인) 프로그램</b> 은 어떤 것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어떠합니까? (별도 자료) *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에도(2학기 등) 그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b>초3-6 선택형 프로그램(이전 방과후학교)</b> 중에서 <b>인기가 많은(효과적인) 프로그램</b> 은 어떤 것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어떠합니까? (별도 자료) *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에도(2학기 등) 그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1. <b>초1-2 선택형 프로그램(이전 방과후학교)</b> 중 <b>인기가 많은(효과적인) 프로그램</b> 에 대해서도 질문	
	3-3* 향후 (2학기, 또는 내년도)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많이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4. 고학년 확대 의견	4-1. 초3-6 선택형 프로그램 <b>참여 확대 또는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문제점, 필요한 지원 등)</b> 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학년이 올라가면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하는 이유나 영향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1-1. 초3-6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질문	

	<p>4-2. 초3-6 선택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할 때, <b>학년군별로 강화하거나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영역) 또는 프로그램</b>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아동 발달이나 교육 측면에서 필요한 분야나 프로그램                  -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분야나 프로그램                  -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나 프로그램</p> <p>4-2-1. 각 학년군에게 보다 필요한 기능 유형 및 과목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기능 vs 돌봄 기능)                  (교과 vs 특기적성)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4-3. 초3-6 선택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할 때, 개별 학교의 여건으로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b>대학 및 전문기관이 개발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은 분야(영역)나 프로그램</b>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p>	
5. 개선 방안	<p>5-1. 선생님 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b>해결이 필요한 과제, 선결 조건 또는 필요한 지원</b>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p>	
6. 학교 기초 사항	<p>6-1. 학교 기초 현황                  - 학교 규모와 특성                  - 학교 주변 지역 환경                  - 학부모의 사교육 참여 현황 등                  ※ 공개 가능한 참고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p>	

나. 학부모

구분	질문	비고
1. 참여프로그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자녀가 참여 중인 늘봄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li> <li>- 참여중인 프로그램 중에 맞춤형/선택형 교육/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은 맞춤형, 선택형 교육/선택형 돌봄 구분은 잘 모를 수 있고, 수강료를 내는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무상 프로그램인가로 구분될 있음에 유의하여 질문 필요)</li> </ul>	
2. 늘봄학교 성과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늘봄학교 운영의 성과 또는 변화</b>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li> <li>- 늘봄학교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 등의 부문에서 변화</li> <li>- 외부 프로그램 활용 측면에서의 변화</li> </ul>	
3. 현재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학 또는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b>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li> <li>-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학생과 학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li> <li>- (늘봄지원실장 입장에서) 대학 또는 전문기관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제와 관련하여 좋은 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 현재 참여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를 매긴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10점이 매우 만족, 0점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응답해주세요.</li> <li>- 만족 중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li> <li>-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li> </ul>	

	<p>3-2. <b>초3-6 선택형 프로그램(이전 방과후학교) 중에서 인기가 많은(효과적인) 프로그램</b>은 어떤 것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어떠합니까? (별도 자료)          *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에도(2학기 등) 그 프로그램을 편성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1. <b>초1-2 선택형 프로그램(이전 방과후학교) 중 인기가 많은(효과적인) 프로그램</b>에 대해서도 질문</p>	
	<p>3-3* 향후 (2학기, 또는 내년도)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많이 편성할 계획이십니까?</p>	
<p>4. 프로그램 참여 의사 및 의견</p>	<p>- 2학년 2학기에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참여하고자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참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년(자녀가 3학년이 되는) 늘봄학교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참여를 희망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희망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떤 운영방식/서비스의 개선이 있다면 늘봄에 참여할 것 같으신가요?          - 고학년(4-6학년) 시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자녀를 참여시킬 것 같으신가요?          * 고학년(4-6학년) 시기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봄을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p>	
<p>5. 기타 의견</p>	<p>-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늘봄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6. 기초 사항</p>	<p>6-1. 기초 사항          - 학부모 연령대/성별          - 자녀 수/연령          - 외벌이/맞벌이 여부          - 사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거주지 및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주변의 사교육 환경은 어떠한가요?</p>	

## 다. 공급기관 담당자

구분	질문	비고
1. 운영프로그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귀 기관이 개발 제공하고 있는 늘봄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li> <li>* 강사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li> <li>* 학교와의 프로그램 매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나요?</li> </ul>	
2. 프로그램 개발 운영 중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li> <li>* 향후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이 있습니까?</li> </ul>	
3. 지원 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학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li> <li>- 대학 및 전문기관이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li> <li>*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li> </ul>	
4.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급 활용 체계 구축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li> </ul>	

### 부록3. 설문조사 문항별 기초분석 결과

#### 가. 학교 담당자 조사

##### ○ 시도별 응답 현황 (시도별 응답참여 학교수 및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서울특별시교육청	16	7.4
부산광역시교육청	16	7.4
대구광역시교육청	15	6.9
인천광역시교육청	13	6.0
광주광역시교육청	12	5.6
대전광역시교육청	13	6.0
울산광역시교육청	14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8	3.7
경기도교육청	18	8.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9	4.2
충청북도교육청	12	5.6
충청남도교육청	8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	6.0
전라남도교육청	11	5.1
경상북도교육청	14	6.5
경상남도교육청	15	6.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	4.2
계	216	100.0

## 3. 프로그램 편성 책임자

구분	사례수	비율(%)
① 늘봄실장	102	47.2
② 늘봄실무사	89	41.2
③ 기간제	8	3.7
④ 교감·교사	5	2.3
⑤ 기타	12	5.6
계	216	100.0

## 4. 실장 배치 여부 : 실장 배치, 인근 학교 실장이 겸임, 미배치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실장 배치	80	37.0
② 인근학교 실장이 겸임	87	40.3
③ 미배치	49	22.7
계	216	100.0

## 5. 지역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①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	100	46.3
② 중소도시	61	28.2
③ 읍면지역	55	25.5
계	216	100.0

## 6. 학교 규모

구분	사례수	비율(%)
① 대규모(31학급 이상)	56	25.9
② 중규모(13학급~30학급)	113	52.3
③ 소규모(12학급 이하)	47	21.8
계	216	100.0

## 7. 학교 인근 학원가 밀집도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없음	19	8.8
② 밀집도 낮음	78	36.1
③ 보통	80	37.0
④ 밀집도 높음	39	18.1
계	216	100.0

## [초 1-2 프로그램 운영]

## 8.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 방식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39	60	94	23	216	9.516		
	%	18.1	27.8	43.5	10.6	100.0			
늘봄 실장	배치	N	14	18	34	14		80	
		%	17.5	22.5	42.5	17.5		100.0	
	겸임	N	14	27	42	4		87	
		%	16.1	31.0	48.3	4.6		100.0	
미배치	N	11	15	18	5	49			
	%	22.4	30.6	36.7	10.2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18	26	47	9		100	3.983
		%	18.0	26.0	47.0	9.0		100.0	
	중소 도시	N	8	18	26	9		61	
		%	13.1	29.5	42.6	14.8		100.0	
	읍면 지역	N	13	16	21	5		55	
		%	23.6	29.1	38.2	9.1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11	11	25	9		56	8.343
		%	19.6	19.6	44.6	16.1		100.0	
	중규모	N	19	30	54	10	113		
		%	16.8	26.5	47.8	8.8	100.0		
	소규모	N	9	19	15	4	47		
		%	19.1	40.4	31.9	8.5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1	6	7	5	19	11.156	
		%	5.3	31.6	36.8	26.3	100.0		
	낮음	N	15	25	30	8	78		
		%	19.2	32.1	38.5	10.3	100.0		
	보통	N	13	21	40	6	80		
		%	16.3	26.3	50.0	7.5	100.0		
높음	N	10	8	17	4	39			
	%	25.6	20.5	43.6	10.3	100.0			
참여율	고	N	18	37	37	14	106	8.769*	
		%	17.0	34.9	34.9	13.2	100.0		
	저	N	21	23	57	9	110		
		%	19.1	20.9	51.8	8.2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참여 여부만 조사, ② 전년도 프로그램 대상 수요조사, ③ 프로그램 분야별 수요조사, ④ 구체적인 새로운 프로그램 제시

## 9. 프로그램 유형별 프로그램 강좌 수(비율)

### 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비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늘봄 실장	배치	80	35.73	19.95	1.629	
	겸임	87	30.64	14.95		
	미배치	49	31.55	23.17		
지역 규모	대도시	100	30.68	14.78	1.081	
	중소 도시	61	34.38	22.13		
	읍면 지역	55	34.61	21.87		
학교 규모	대규모	56	28.70	17.33	3.000	소규모>대규모
	중규모	113	32.61	18.99		
	소규모	47	37.81	20.08		
학원 밀집도	없음	19	34.11	24.77	3.484*	낮음>높음 보통>높음
	낮음	78	35.42	19.47		
	보통	80	33.99	17.17		
	높음	39	24.08	16.58		
참여율	고	106	30.75	19.55	2.258	
	저	110	34.63	18.34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비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늘봄 실장	배치	80	54.55	19.84	2.008	
	겸임	87	60.10	14.99		
	미배치	49	58.91	21.46		
지역 규모	대도시	100	60.21	14.88	1.635	
	중소 도시	61	55.96	20.90		
	읍면 지역	55	55.35	21.36		
학교 규모	대규모	56	61.65	16.69	4.090*	대규모>소규모
	중규모	113	58.45	18.49		
	소규모	47	51.52	19.53		
학원 밀집도	없음	19	54.95	25.53	3.709*	높음>낮음 높음>보통
	낮음	78	54.84	18.39		
	보통	80	57.15	17.42		
	높음	39	66.29	14.93		
참여율	고	106	60.22	19.70	3.637	
	저	110	55.42	17.10		

\*:  $p < .05$ , \*\*:  $p < .01$ , \*\*\*:  $p < .001$

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비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늘봄 실장	배치	80	9.73	6.52	0.139	
	겸임	87	9.26	4.42		
	미배치	49	9.54	6.23		
지역 규모	대도시	100	9.11	5.31	0.511	
	중소 도시	61	9.66	5.69		
	읍면 지역	55	10.04	6.31		
학교 규모	대규모	56	9.65	7.31	1.60	
	중규모	113	8.93	4.58		
	소규모	47	10.68	5.74		
학원 밀집도	없음	19	10.94	7.06	0.801	
	낮음	78	9.74	5.46		
	보통	80	8.86	4.96		
	높음	39	9.63	6.69		
참여율	고	106	9.03	5.68	1.411	
	저	110	9.95	5.65		

\*:  $p < .05$ , \*\*:  $p < .01$ , \*\*\*:  $p < .001$

## 9-1.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학생 비율(유형별 참여학생 수/초1~2 전체학생 수)

## 가. 늘봄학교 전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늘봄 실장	배치	80	67.78	22.27	6.647**	겸임>배치
	겸임	87	79.00	16.40		
	미배치	49	74.59	21.60		
지역 규모	대도시	100	74.17	20.83	0.104	
	중소 도시	61	72.84	16.87		
	읍면 지역	55	74.36	23.51		
학교 규모	대규모	56	67.86	19.10	4.890**	소규모>대규모
	중규모	113	74.14	19.81		
	소규모	47	80.26	21.89		
학원 밀집도	없음	19	77.53	28.86	1.594	
	낮음	78	77.10	18.32		
	보통	80	70.88	21.79		
	높음	39	71.62	15.95		
참여율	고	106	78.55	20.77	11.511***	고>저
	저	110	69.31	19.18		

\*:  $p < .05$ , \*\*:  $p < .01$ , \*\*\*:  $p < .001$

나. 맞춤형 교육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늘봄 실장	배치	80	43.49	30.14	0.201	
	겸임	87	46.23	28.67		
	미배치	49	46.02	31.79		
지역 규모	대도시	100	41.13	25.96	1.718	
	중소 도시	61	48.80	31.15		
	읍면 지역	55	48.47	34.25		
학교 규모	대규모	56	32.39	25.36	13.85***	소규모>대규모, 중규모 중규모>대규모
	중규모	113	44.62	27.19		
	소규모	47	61.70	33.33		
학원 밀집도	없음	19	50.89	39.31	7.852***	낮음>보통 낮음>높음
	낮음	78	55.44	28.06		
	보통	80	41.21	29.01		
	높음	39	29.95	21.30		
참여율	고	106	47.89	32.32	1.726	
	저	110	42.55	27.11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선택형 교육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늘봄 실장	배치	80	42.44	24.97	5.598**	겸임>배치
	겸임	87	55.94	24.51		
	미배치	49	50.53	30.45		
지역 규모	대도시	100	55.99	23.38	5.781**	대도시>중소도시
	중소 도시	61	42.25	25.33		
	읍면 지역	55	46.58	31.20		
학교 규모	대규모	56	42.84	22.81	2.62	중규모>대규모
	중규모	113	52.65	25.27		
	소규모	47	50.85	32.72		
학원 밀집도	없음	19	50.11	40.45	0.391	
	낮음	78	51.78	26.27		
	보통	80	47.25	25.23		
	높음	39	50.44	22.57		
참여율	고	106	55.05	28.63	8.553**	고>저
	저	110	44.57	23.68		

\*:  $p < .05$ , \*\*:  $p < .01$ , \*\*\*:  $p < .001$

다. 선택형 돌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분석
늘봄 실장	배치	80	38.02	23.72	3.719*	미배치>배치
	겸임	87	41.47	23.26		
	미배치	49	50.41	30.56		
지역 규모	대도시	100	37.61	21.20	6.660**	읍면지역>대도시
	중소 도시	61	40.41	22.21		
	읍면 지역	55	52.62	32.82		
학교 규모	대규모	56	29.29	18.95	20.87***	소규모>대규모, 중규모 중규모>대규모
	중규모	113	41.56	20.87		
	소규모	47	59.23	32.63		
학원 밀집도	없음	19	50.74	36.31	7.698***	낮음>보통 낮음>높음
	낮음	78	50.31	26.68		
	보통	80	38.46	20.41		
	높음	39	29.62	20.05		
참여율	고	106	46.80	27.40	6.816*	고>저
	저	110	37.81	22.94		

\*:  $p < .05$ , \*\*:  $p < .01$ , \*\*\*:  $p < .001$

## 9-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유형

구분		①	②	③	계	$\chi^2$		
전체	N	56	88	72	216	9.030		
	%	25.9	40.7	33.3	100.0			
늘봄 실장	배치	N	25	28	27		80	
		%	31.3	35.0	33.8		100.0	
	겸임	N	15	45	27		87	
		%	17.2	51.7	31.0		100.0	
	미배치	N	16	15	18		49	
		%	32.7	30.6	36.7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18	60	22		100	37.220 ***
		%	18.0	60.0	22.0		100.0	
	중소 도시	N	24	18	19		61	
		%	39.3	29.5	31.1		100.0	
	읍면 지역	N	14	10	31		55	
		%	25.5	18.2	56.4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12	31	13		56	16.739 **
		%	21.4	55.4	23.2		100.0	
	중규모	N	26	49	38	113		
		%	23.0	43.4	33.6	100.0		
	소규모	N	18	8	21	47		
		%	38.3	17.0	44.7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6	5	8	19	8.531	
		%	31.6	26.3	42.1	100.0		
	낮음	N	25	26	27	78		
		%	32.1	33.3	34.6	100.0		
	보통	N	19	35	26	80		
		%	23.8	43.8	32.5	100.0		
높음	N	6	22	11	39			
	%	15.4	56.4	28.2	100.0			
참여율	고	N	29	45	32	106	0.932	
		%	27.4	42.5	30.2	100.0		
	저	N	56	88	72	110		
		%	25.9	40.7	33.3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맞춤형 교육, ② 선택형 교육, ③ 선택형 돌봄

9-3. 문항 9-2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12	27	20	69	79	9	216	3.949		
	%	5.6	12.5	9.3	31.9	36.6	4.2	100.0			
늘봄 실장	배치	N	4	10	6	27	31	2		80	
		%	5.0	12.5	7.5	33.8	38.8	2.5		100.0	
	겸임	N	6	11	9	29	27	5		87	
		%	6.9	12.6	10.3	33.3	31.0	5.7		100.0	
	미배치	N	2	6	5	13	21	2		49	
		%	4.1	12.2	10.2	26.5	42.9	4.1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9	10	14	37	23	7		100	35.471 ***
		%	9.0	10.0	14.0	37.0	23.0	7.0		100.0	
	중소 도시	N	3	13	3	19	22	1		61	
		%	4.9	21.3	4.9	31.1	36.1	1.6		100.0	
	읍면 지역	N	0	4	3	13	34	1		55	
		%	0.0	7.3	5.5	23.6	61.8	1.8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5	7	7	19	16	2		56	13.076
		%	8.9	12.5	12.5	33.9	28.6	3.6		100.0	
	중규모	N	7	13	12	37	41	3	113		
		%	6.2	11.5	10.6	32.7	36.3	2.7	100.0		
	소규모	N	0	7	1	13	22	4	47		
		%	0.0	14.9	2.1	27.7	46.8	8.5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1	4	1	3	10	0	19	8.531	
		%	5.3	21.1	5.3	15.8	52.6	0.0	100.0		
	낮음	N	3	8	6	26	30	5	78		
		%	3.8	10.3	7.7	33.3	38.5	6.4	100.0		
	보통	N	4	11	8	29	26	2	80		
		%	5.0	13.8	10.0	36.3	32.5	2.5	100.0		
높음	N	4	4	5	11	13	2	39			
	%	10.3	10.3	12.8	28.2	33.3	5.1	100.0			
참여율	고	N	6	17	14	29	36	4	106	7.428	
		%	5.7	16.0	13.2	27.4	34.0	3.8	100		
	저	N	6	10	6	40	43	5	110		
		%	5.5	9.1	5.5	36.4	39.1	4.5	1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선택권이 보장되어서, ② 비용 부담이 적어서, ③ 프로그램 품질이 높아서, ④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⑤ 일정 시간동안 확실한 돌봄 제공, ⑥ 기타

## 10.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중복선택가능)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사례비율(%)
① 개인위탁	175	51.0	81.0
② 업체위탁	79	23.0	36.6
③ 대학·기관연계	57	16.6	26.4
④ 내부교원	32	9.3	14.8
계	343	100.0	158.8

## 10-1. 강사 활용 방식에 대한 학교의 선호도(1순위, 학교에서 활용하지 않는 방식도 선택 가능)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118	70	22	6	216		
	%	54.6	32.4	10.2	2.8	100.0		
늘봄 실장	배치	N	39	31	8	2	80	8.386
		%	48.8	38.8	10.0	2.5	100.0	
	겸임	N	48	30	8	1	87	
		%	55.2	34.5	9.2	1.1	100.0	
	미배치	N	31	9	6	3	49	
		%	63.3	18.4	12.2	6.1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46	42	9	3	100	9.418
		%	46.0	42.0	9.0	3.0	100.0	
	중소 도시	N	35	17	7	2	61	
		%	57.4	27.9	11.5	3.3	100.0	
	읍면 지역	N	37	11	6	1	55	
		%	67.3	20.0	10.9	1.8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29	21	6	0	56	10.958
		%	51.8	37.5	10.7	0.0	100.0	
	중규모	N	55	41	13	4	113	
		%	48.7	36.3	11.5	3.5	100.0	
	소규모	N	34	8	3	2	47	
		%	72.3	17.0	6.4	4.3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11	6	1	1	19	6.713
		%	57.9	31.6	5.3	5.3	100.0	
	낮음	N	48	20	7	3	78	
		%	61.5	25.6	9.0	3.8	100.0	
	보통	N	37	31	10	2	80	
		%	46.3	38.8	12.5	2.5	100.0	
높음	N	22	13	4	0	39		
	%	56.4	33.3	10.3	0.0	100.0		
참여율	고	N	61	32	9	4	106	1.970
		%	57.5	30.2	8.5	3.8	100	
	저	N	57	38	13	2	110	
		%	51.8	34.5	11.8	1.8	1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개인위탁, ② 업체위탁, ③ 대학·기관연계, ④ 내부교원

10-2. 문항 10-1에서 선택한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복 가능)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사례비율(%)
① 프로그램 내용	102	29.0	47.2
② 강사 역량	113	32.1	52.3
③ 교재·교구 품질	16	4.5	7.4
④ 교육 효과	33	9.4	15.3
⑤ 업무 경감	88	25.0	40.7
⑥ 기타	0	0.0	0.0
계	352	100.0	163.0

1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3개 (중복선택 3개)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사례비율(%)
① 체육	198	31.0	91.7
② 문화예술	197	30.8	91.2
③ 인문·사회	27	4.2	12.5
④ 창의과학	126	19.7	58.3
⑤ 기후환경	3	0.5	1.4
⑥ 학교적응·정서	43	6.7	19.9
⑦ 교과교육	45	7.0	20.8
⑧ 기타	0	0.0	0.0
계	639	100.0	295.8

11-1.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학부모(또는 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 3개  
(중복선택 3개)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사례비율(%)
① 국어	3	0.5	1.4
② 영어	62	9.6	28.7
③ 수학	36	5.6	16.7
④ 사회(교과)	1	0.2	0.5
⑤ 과학	91	14.0	42.1
⑥ 제2외국어·한문	17	2.6	7.9
⑦ 음악	61	9.4	28.2
⑧ 미술	82	12.7	38.0
⑨ 체육	155	23.9	71.8
⑩ 디지털	93	14.4	43.1
⑪ 인문·사회(특기적성)	22	3.4	10.2
⑫ 기타	25	3.9	11.6
계	648	100.0	300.0

11-2.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이유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90	83	12	14	17	216	8.737		
	%	41.7	38.4	5.6	6.5	7.9	100.0			
늘봄 실장	배치	N	29	37	4	4	6		80	
		%	36.3	46.3	5.0	5.0	7.5		100.0	
	겸임	N	37	29	6	5	10		87	
		%	42.5	33.3	6.9	5.7	11.5		100.0	
	미배치	N	24	17	2	5	1		49	
		%	49.0	34.7	4.1	10.2	2.0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38	38	10	4	10		100	18.514 *
		%	38.0	38.0	10.0	4.0	10.0		100.0	
	중소 도시	N	21	30	0	5	5		61	
		%	34.4	49.2	0.0	8.2	8.2		100.0	
	읍면 지역	N	31	15	2	5	2		55	
		%	56.4	27.3	3.6	9.1	3.6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12	38	0	2	4		56	44.929 ***
		%	21.4	67.9	0.0	3.6	7.1		100.0	
	중규모	N	48	40	11	7	7	113		
		%	42.5	35.4	9.7	6.2	6.2	100.0		
	소규모	N	30	5	1	5	6	47		
		%	63.8	10.6	2.1	10.6	12.8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13	4	1	1	0	19	25.214 *	
		%	68.4	21.1	5.3	5.3	0.0	100.0		
	낮음	N	37	23	5	6	7	78		
		%	47.4	29.5	6.4	7.7	9.0	100.0		
	보통	N	33	31	6	5	5	80		
		%	41.3	38.8	7.5	6.3	6.3	100.0		
높음	N	7	25	0	2	5	39			
	%	17.9	64.1	0.0	5.1	12.8	100.0			
참여율	고	N	49	36	7	8	6	106	4.186	
		%	46.2	34.0	6.6	7.5	5.7	100.0		
	저	N	41	47	5	6	11	110		
		%	37.3	42.7	4.5	5.5	10.0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강사 섭외 애로, ② 적합한 공간 부재, ③ 기존 강사 활용, ④ 비용 부족, ⑤ 기타

## 12. 현재 수강료(강사료+교구비)가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주는 부담 정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38	82	83	13	0	216	8.737	
	%		17.6	38.0	38.4	6.0	0.0	100.0		
늘봄 실장	배치	N	15	31	27	7	0	80		
		%	18.8	38.8	33.8	8.8	0.0	100.0		
	겸임	N	13	34	38	2	0	87		
		%	14.9	39.1	43.7	2.3	0.0	100.0		
	미배치	N	10	17	18	4	0	49		
		%	20.4	34.7	36.7	8.2	0.0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11	43	41	5	0	100		13.403 *
		%	11.0	43.0	41.0	5.0	0.0	100.0		
	중소 도시	N	9	22	26	4	0	61		
		%	14.8	36.1	42.6	6.6	0.0	100.0		
	읍면 지역	N	18	17	16	4	0	55		
		%	32.7	30.9	29.1	7.3	0.0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9	23	19	5	0	56		12.532
		%	16.1	41.1	33.9	8.9	0.0	100.0		
	중규모	N	14	41	51	7	0	113		
		%	12.4	36.3	45.1	6.2	0.0	100.0		
	소규모	N	15	18	13	1	0	47		
		%	31.9	38.3	27.7	2.1	0.0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9	7	2	1	0	19	22.949 **	
		%	47.4	36.8	10.5	5.3	0.0	100.0		
	낮음	N	16	26	32	4	0	78		
		%	20.5	33.3	41.0	5.1	0.0	100.0		
	보통	N	7	31	38	4	0	80		
		%	8.8	38.8	47.5	5.0	0.0	100.0		
높음	N	6	18	11	4	0	39			
	%	15.4	46.2	28.2	10.3	0.0	100.0			
참여율	고	N	23	40	39	4	0	106	3.885	
		%	21.7	37.7	36.8	3.8	0.0	100.0		
	저	N	15	42	44	9	0	110		
		%	13.6	38.2	40.0	8.2	0.0	1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부담이 되는 편이다, ⑤ 매우 부담이 된다

### 13.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간 부족 정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33	41	37	59	46	216	17.183 *
	%		15.3	19.0	17.1	27.3	21.3	100.0	
늘봄 실장	배치	N	9	12	13	19	27	80	
		%	11.3	15.0	16.3	23.8	33.8	100.0	
	겸임	N	19	17	16	22	13	87	
		%	21.8	19.5	18.4	25.3	14.9	100.0	
	미배치	N	5	12	8	18	6	49	
		%	10.2	24.5	16.3	36.7	12.2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21	22	18	20	19	100	
		%	21.0	22.0	18.0	20.0	19.0	100.0	
	중소 도시	N	5	9	8	20	19	61	
		%	8.2	14.8	13.1	32.8	31.1	100.0	
	읍면 지역	N	7	10	11	19	8	55	
		%	12.7	18.2	20.0	34.5	14.5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1	5	3	17	30	56	
		%	1.8	8.9	5.4	30.4	53.6	100.0	
	중규모	N	21	21	26	30	15	113	
		%	18.6	18.6	23.0	26.5	13.3	100.0	
	소규모	N	11	15	8	12	1	47	
		%	23.4	31.9	17.0	25.5	2.1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2	5	3	8	1	19	
		%	10.5	26.3	15.8	42.1	5.3	100.0	
	낮음	N	15	20	12	24	7	78	
		%	19.2	25.6	15.4	30.8	9.0	100.0	
	보통	N	13	13	20	16	18	80	
		%	16.3	16.3	25.0	20.0	22.5	100.0	
높음	N	3	3	2	11	20	39		
	%	7.7	7.7	5.1	28.2	51.3	100.0		
참여율	고	N	19	22	20	28	17	106	
		%	17.9	20.8	18.9	26.4	16.0	100.0	
	저	N	14	19	17	31	29	110	
		%	12.7	17.3	15.5	28.2	26.4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전혀 부족하지 않다, ② 별로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부족한 편이다, ⑤ 매우 부족하다

## 13-1. 공간 부족 시, 외부 공간 또는 협력 가능한 돌봄 기관 등을 활용할 의사

구분			①	②	계	$\chi^2$
전체	N		150	66	216	3.153
	%		69.4	30.6	100.0	
늘봄 실장	배치	N	54	26	80	
		%	67.5	32.5	100.0	
	겸임	N	57	30	87	
		%	65.5	34.5	100.0	
	미배치	N	39	10	49	
		%	79.6	20.4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76	24	100	
		%	76.0	24.0	100.0	
	중소 도시	N	40	21	61	
		%	65.6	34.4	100.0	
	읍면 지역	N	34	21	55	
		%	61.8	38.2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36	20	56	
		%	64.3	35.7	100.0	
	중규모	N	85	28	113	
		%	75.2	24.8	100.0	
	소규모	N	29	18	47	
		%	61.7	38.3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13	6	19	
		%	68.4	31.6	100.0	
	낮음	N	53	25	78	
		%	67.9	32.1	100.0	
	보통	N	60	20	80	
		%	75.0	25.0	100.0	
높음	N	24	15	39		
	%	61.5	38.5	100.0		
참여율	고	N	86	20	106	
		%	81.1	18.9	100.0	
	저	N	64	46	110	
		%	58.2	41.8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없음, ② 있음

13-2. 문 13-1에서 외부 공간, 기관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 그 이유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7	118	17	2	1	5	150		
	%	4.7	78.7	11.3	1.3	0.7	3.3	100.0		
늘봄 실장	배치	N	2	44	6	1	0	1	54	5.299
		%	3.7	81.5	11.1	1.9	0.0	1.9	100.0	
	겸임	N	2	45	6	0	1	3	57	
		%	3.5	78.9	10.5	0.0	1.8	5.3	100.0	
	미배치	N	3	29	5	1	0	1	39	
		%	7.7	74.4	12.8	2.6	0.0	2.6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3	61	7	0	0	5	76	12.280
		%	3.9	80.3	9.2	0.0	0.0	6.6	100.0	
	중소 도시	N	1	31	6	1	1	0	40	
		%	2.5	77.5	15.0	2.5	2.5	0.0	100.0	
	읍면 지역	N	3	26	4	1	0	0	34	
		%	8.8	76.5	11.8	2.9	0.0	0.0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2	27	6	1	0	0	36	11.256
		%	5.6	75.0	16.7	2.8	0.0	0.0	100.0	
	중규모	N	3	71	6	1	0	4	85	
		%	3.5	83.5	7.1	1.2	0.0	4.7	100.0	
	소규모	N	2	20	5	0	1	1	29	
		%	6.9	69.0	17.2	0.0	3.4	3.4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3	9	1	0	0	0	13	20.206
		%	23.1	69.2	7.7	0.0	0.0	0.0	100.0	
	낮음	N	2	42	5	0	1	3	53	
		%	3.8	79.2	9.4	0.0	1.9	5.7	100.0	
	보통	N	1	50	6	2	0	1	60	
		%	1.7	83.3	10.0	3.3	0.0	1.7	100.0	
높음	N	1	17	5	0	0	1	24		
	%	4.2	70.8	20.8	0.0	0.0	4.2	100.0		
참여율	고	N	6	68	7	1	1	3	86	4.926
		%	7.0	79.1	8.1	1.2	1.2	3.5	100.0	
	저	N	1	50	10	1	0	2	64	
		%	1.6	78.1	15.6	1.6	0.0	3.1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활용 가능한 공간, 기관 없음, ② 안전사고 등 학생 관리 문제, ③ 학부모 선호도 낮음, ④ 외부 공간/기관 프로그램의 낮은 질, ⑤ 외부기관과 협력 채널 부재, ⑥ 기타

## [초등 고학년 프로그램 운영]

## 14.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19	15	109	64	5	4	216	16.848		
	%	8.8	6.9	50.5	29.6	2.3	1.9	100.0			
늘봄 실장	배치	N	6	5	45	20	2	2		80	
		%	7.5	6.3	56.3	25.0	2.5	2.5		100.0	
	겸임	N	3	8	46	26	2	2		87	
		%	3.4	9.2	52.9	29.9	2.3	2.3		100.0	
	미배치	N	10	2	18	18	1	0		49	
		%	20.4	4.1	36.7	36.7	2.0	0.0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11	6	53	27	0	3		100	16.768
		%	11.0	6.0	53.0	27.0	0.0	3.0		100.0	
	중소 도시	N	4	4	35	14	4	0		61	
		%	6.6	6.6	57.4	23.0	6.6	0.0		100.0	
	읍면 지역	N	4	5	21	23	1	1		55	
		%	7.3	9.1	38.2	41.8	1.8	1.8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5	3	31	12	4	1		56	12.421
		%	8.9	5.4	55.4	21.4	7.1	1.8		100.0	
	중규모	N	11	8	58	34	0	2		113	
		%	9.7	7.1	51.3	30.1	0.0	1.8		100.0	
	소규모	N	3	4	20	18	1	1		47	
		%	6.4	8.5	42.6	38.3	2.1	2.1		100.0	
학원 밀집도	없음	N	4	3	9	3	0	0	19	13.516	
		%	21.1	15.8	47.4	15.8	0.0	0.0	100.0		
	낮음	N	5	4	41	24	1	3	78		
		%	6.4	5.1	52.6	30.8	1.3	3.8	100.0		
	보통	N	7	6	38	26	3	0	80		
		%	8.8	7.5	47.5	32.5	3.8	0.0	100.0		
높음	N	3	2	21	11	1	1	39			
	%	7.7	5.1	53.8	28.2	2.6	2.6	100.0			
참여율	고	N	11	5	55	33	1	1	106	4.940	
		%	10.4	4.7	51.9	31.1	0.9	0.9	100.0		
	저	N	8	10	54	31	4	3	110		
		%	7.3	9.1	49.1	28.2	3.6	2.7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학생·학부모 선택권 강화, ② 프로그램 수강료 경감, ③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④ 사교육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⑤ 안정적 돌봄 시간 보장, ⑥ 기타

14-1. 고학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중복가능)

구분	사례수	반응비율(%)	사례비율(%)
①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36	11.2	16.7
② 방과후 자유수강권 확대	54	16.8	25.0
③ 대학·전문기관 우수 프로그램 공급	88	27.4	40.7
④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확충	126	39.3	58.3
⑤ 기타	17	5.3	7.9
계	321	100.0	148.6

15. 학교에서 향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고학년 학생 대상 프로그램 분야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chi^2$		
전체	N	10	21	15	2	24	11	10	1	34	51	25	12	216	21.892		
	%	4.6	9.7	6.9	0.9	11.1	5.1	4.6	0.5	15.7	23.6	11.6	5.6	100.0			
늘봄실장	배치	N	3	10	6	1	9	5	4	0	14	18	5	5		80	
		%	3.8	12.5	7.5	1.3	11.3	6.3	5.0	0.0	17.5	22.5	6.3	6.3		100.0	
	겸임	N	2	6	7	0	7	3	3	0	15	25	14	5		87	
		%	2.3	6.9	8.0	0.0	8.0	3.4	3.4	0.0	17.2	28.7	16.1	5.7		100.0	
	미배치	N	5	5	2	1	8	3	3	1	5	8	6	2		49	
		%	10.2	10.2	4.1	2.0	16.3	6.1	6.1	2.0	10.2	16.3	12.2	4.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N	6	5	9	2	10	5	5	0	18	24	10	6		100	15.724
		%	6.0	5.0	9.0	2.0	10.0	5.0	5.0	0.0	18.0	24.0	10.0	6.0		100.0	
	중소 도시	N	2	10	3	0	7	4	2	0	9	15	7	2		61	
		%	3.3	16.4	4.9	0.0	11.5	6.6	3.3	0.0	14.8	24.6	11.5	3.3		100.0	
	읍면 지역	N	2	6	3	0	7	2	3	1	7	12	8	4		55	
		%	3.6	10.9	5.5	0.0	12.7	3.6	5.5	1.8	12.7	21.8	14.5	7.3		100.0	
학교규모	대규모	N	2	7	2	0	6	4	1	0	12	16	3	3		56	26.018
		%	3.6	12.5	3.6	0.0	10.7	7.1	1.8	0.0	21.4	28.6	5.4	5.4	100.0		
	중규모	N	7	11	11	2	14	4	9	0	13	23	14	5	113		
		%	6.2	9.7	9.7	1.8	12.4	3.5	8.0	0.0	11.5	20.4	12.4	4.4	100.0		
	소규모	N	1	3	2	0	4	3	0	1	9	12	8	4	47		
		%	2.1	6.4	4.3	0.0	8.5	6.4	0.0	2.1	19.1	25.5	17.0	8.5	100.0		
학원밀집도	없음	N	3	1	1	0	2	1	1	1	2	1	5	1	19	13.516	
		%	15.8	5.3	5.3	0.0	10.5	5.3	5.3	5.3	10.5	5.3	26.3	5.3	100.0		
	낮음	N	3	9	7	0	6	4	4	0	12	18	10	5	78		
		%	3.8	11.5	9.0	0.0	7.7	5.1	5.1	0.0	15.4	23.1	12.8	6.4	100.0		
	보통	N	2	7	5	1	12	4	5	0	12	23	7	2	80		
		%	2.5	8.8	6.3	1.3	15.0	5.0	6.3	0.0	15.0	28.7	8.8	2.5	100.0		
높음	N	2	4	2	1	4	2	0	0	8	9	3	4	39			
	%	5.1	10.3	5.1	2.6	10.3	5.1	0.0	0.0	20.5	23.1	7.7	10.3	100.0			
참여율	고	N	6	12	6	1	11	6	6	1	16	19	16	6	106	8.406	
		%	5.7	11.3	5.7	0.9	10.4	5.7	5.7	0.9	15.1	17.9	15.1	5.7	100.0		
	저	N	4	9	9	1	13	5	4	0	18	32	9	6	110		
		%	3.6	8.2	8.2	0.9	11.8	4.5	3.6	0.0	16.4	29.1	8.2	5.5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특기적성), ⑫ 기타

16. 대학·전문기관 등 프로그램 공급 기관이 좀 더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야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chi^2$	
전체	N	5	18	7	1	25	5	15	2	27	72	36	3	216	18.838	
	%	2.3	8.3	3.2	0.5	11.6	2.3	6.9	0.9	12.5	33.3	16.7	1.4	100.0		
늘봄실장	배치	N	2	7	3	0	11	2	5	0	8	25	15	2		80
		%	2.5	8.8	3.8	0.0	13.8	2.5	6.3	0.0	10.0	31.3	18.8	2.5		100.0
	검임	N	1	5	3	1	5	2	5	2	15	32	15	1		87
		%	1.1	5.7	3.4	1.1	5.7	2.3	5.7	2.3	17.2	36.8	17.2	1.1		100.0
	미배치	N	2	6	1	0	9	1	5	0	4	15	6	0		49
		%	4.1	12.2	2.0	0.0	18.4	2.0	10.2	0.0	8.2	30.6	12.2	0.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N	4	5	6	1	9	2	5	1	17	33	16	1		100
		%	4.0	5.0	6.0	1.0	9.0	2.0	5.0	1.0	17.0	33.0	16.0	1.0		100.0
	중소 도시	N	0	7	1	0	9	2	4	1	6	21	8	2		61
		%	0.0	11.5	1.6	0.0	14.8	3.3	6.6	1.6	9.8	34.4	13.1	3.3		100.0
	읍면 지역	N	1	6	0	0	7	1	6	0	4	18	12	0		55
		%	1.8	10.9	0.0	0.0	12.7	1.8	10.9	0.0	7.3	32.7	21.8	0.0		100.0
학교규모	대규모	N	1	4	2	0	7	1	2	0	8	24	5	2	56	
		%	1.8	7.1	3.6	0.0	12.5	1.8	3.6	0.0	14.3	42.9	8.9	3.6	100.0	
	중규모	N	4	11	3	1	15	3	10	1	12	32	21	0	113	
		%	3.5	9.7	2.7	0.9	13.3	2.7	8.8	0.9	10.6	28.3	18.6	0.0	100.0	
	소규모	N	0	3	2	0	3	1	3	1	7	16	10	1	47	
		%	0.0	6.4	4.3	0.0	6.4	2.1	6.4	2.1	14.9	34.0	21.3	2.1	100.0	
학원밀집도	없음	N	2	2	1	0	1	0	1	0	3	5	4	0	19	
		%	10.5	10.5	5.3	0.0	5.3	0.0	5.3	0.0	15.8	26.3	21.1	0.0	100.0	
	낮음	N	0	9	2	1	10	3	6	2	7	22	15	1	78	
		%	0.0	11.5	2.6	1.3	12.8	3.8	7.7	2.6	9.0	28.2	19.2	1.3	100.0	
	보통	N	3	4	2	0	10	1	5	0	13	30	12	0	80	
		%	3.8	5.0	2.5	0.0	12.5	1.3	6.3	0.0	16.3	37.5	15.0	0.0	100.0	
높음	N	0	3	2	0	4	1	3	0	4	15	5	2	39		
	%	0.0	7.7	5.1	0.0	10.3	2.6	7.7	0.0	10.3	38.5	12.8	5.1	100.0		
참여율	고	N	3	8	5	1	9	3	10	2	16	28	19	2	106	
		%	2.8	7.5	4.7	0.9	8.5	2.8	9.4	1.9	15.1	26.4	17.9	1.9	100.0	
	저	N	2	10	2	0	16	2	5	0	11	44	17	1	110	
		%	1.8	9.1	1.8	0.0	14.5	1.8	4.5	0.0	10.0	40.0	15.5	0.9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특기적성), ⑫ 기타

## 나. 학부모 조사

## ○ 시도별 응답 현황 (시도별 응답 사례수 및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서울특별시교육청	183	6.7
부산광역시교육청	199	7.3
대구광역시교육청	272	10.0
인천광역시교육청	153	5.6
광주광역시교육청	167	6.2
대전광역시교육청	107	3.9
울산광역시교육청	76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12	4.1
경기도교육청	190	7.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44	5.3
충청북도교육청	123	4.5
충청남도교육청	92	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32	4.9
전라남도교육청	190	7.0
경상북도교육청	220	8.1
경상남도교육청	179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6	6.5
계	2,715	100.0

○ 학부모 배경특성

3. 부모의 자녀 돌봄 상황

구분	사례수	비율(%)
① 맞벌이 가정 등으로 부모 모두 돌봄 불가(학원이나 돌봄기관 이용 필요)	1,536	56.6
② 맞벌이 가정 등이지만 조부모 등이 자녀 돌봄 지원	229	8.4
③ 부모 중 1인이 돌봄 가능	950	35.0
계	2,715	100.0

4. 거주지 인근 학원가 밀집도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없음	188	6.9
② 밀집도 낮음	864	31.8
③ 보통	1,051	38.7
④ 밀집도 높음	612	22.5
계	2,715	100.0

5.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자녀의 돌봄·교육 참여 유형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사례비율(%)
① 늘봄학교	2,093	44.3	77.1
② 가정 돌봄·교육	637	13.5	23.5
③ 사교육 참여	1,813	38.3	66.8
④ 외부 돌봄기관	133	2.8	4.9
⑤ 기타	53	1.1	2.0
계	4,729	100.0	174.2

## 6. 현재 자녀의 늘봄학교 참여 여부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계	$\chi^2$	
전체	N		2,020	463	2,483		
	%		81.4	18.6	100.0		
늘봄 실장	배치	N	944	225	1,169	5.873	
		%	80.8	19.2	100.0		
	겸임	N	723	141	864		
		%	83.7	16.3	100.0		
	미배치	N	353	97	450		
		%	78.4	21.6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939	199	1,138	2.600	
		%	82.5	17.5	100.0		
	중소 도시	N	720	183	903		
		%	79.7	20.3	100.0		
	읍면 지역	N	361	81	442		
		%	81.7	18.3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825	245	1,070	28.543 ***	
		%	77.1	22.9	100.0		
	중규모	N	1,001	198	1,199		
		%	83.5	16.5	100.0		
	소규모	N	194	20	214		
		%	90.7	9.3	100.0		
학교 인근 밀집도	없음	N	128	24	152	16.875 ***	
		%	84.2	15.8	100.0		
	낮음	N	535	89	624		
		%	85.7	14.3	100.0		
	보통	N	786	182	968		
		%	81.2	18.8	100.0		
높음	N	571	168	739			
	%	77.3	22.7	100.0			
참 여 율	고	N	969	195	1,164	7.144 **	
		%	83.2	16.8	100.0		
	저	N	1,228	323	1,551		
		%	79.2	20.8	100.0		
전체	N	2,197	518	2,715			
	%	80.9	19.1	100.0			
부모 배경 특성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1,337	199	1,536	85.938 ***
			%	87.0	13.0	100.0	
	조부모 지원	N	168	61	229		
		%	73.4	26.6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692	258	950		
		%	72.8	27.2	100.0		
	거주지 인근 밀집도	없음	N	161	27	188	13.631 **
			%	85.6	14.4	100.0	
		낮음	N	723	141	864	
			%	83.7	16.3	100.0	
		보통	N	842	209	1,051	
			%	80.1	19.9	100.0	
높음	N	471	141	612			
	%	77.0	23.0	100.0			

\*: p &lt; .05, \*\*: p &lt; .01, \*\*\*: p &lt; .001

### 6-1. 자녀 돌봄·교육 방식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91	322	32	18	463			
	%	19.7	69.5	6.9	3.9	100.0			
늘봄 실장	배치	N	40	164	11	10	225	6.342	
		%	17.8	72.9	4.9	4.4	100.0		
	겸임	N	27	96	14	4	141		
		%	19.1	68.1	9.9	2.8	100.0		
	미배치	N	24	62	7	4	97		
		%	24.7	63.9	7.2	4.1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41	141	10	7	199	32.472 ***	
		%	20.6	70.9	5.0	3.5	100.0		
	중소 도시	N	34	135	5	9	183		
		%	18.6	73.8	2.7	4.9	100.0		
	읍면 지역	N	16	46	17	2	81		
		%	19.8	56.8	21.0	2.5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41	185	7	12	245	40.649 ***	
		%	16.7	75.5	2.9	4.9	100.0		
	중규모	N	46	130	19	3	198		
		%	23.2	65.7	9.6	1.5	100.0		
	소규모	N	4	7	6	3	20		
		%	20.0	35.0	30.0	15.0	100.0		
학교 인근 밀집도	없음	N	5	16	3	0	24	16.574	
		%	20.8	66.7	12.5	0.0	100.0		
	낮음	N	17	55	12	5	89		
		%	19.1	61.8	13.5	5.6	100.0		
	보통	N	39	122	13	8	182		
		%	21.4	67.0	7.1	4.4	100.0		
높음	N	30	129	4	5	168			
	%	17.9	76.8	2.4	3.0	100.0			
참 여 율	고	N	39	135	8	13	195	51.00	
		%	20.0	69.2	4.1	6.7	100.0		
	저	N	63	222	26	12	323		
		%	19.5	68.7	8.0	3.7	100.0		
전체	N	102	357	34	25	518			
	%	19.7	68.9	6.6	4.8	100.0			
부모 배경 특성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8	147	29	15	199	81.855 ***
			%	4.0	73.9	14.6	7.5	100.0	
		조부모 지원	N	13	46	1	1	61	
			%	21.3	75.4	1.6	1.6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81	164	4	9	258		
		%	31.4	63.6	1.6	3.5	100.0		
	거주지 인근 밀집도	없음	N	8	13	4	2	27	34.164 ***
			%	29.6	48.1	14.8	7.4	100.0	
		낮음	N	31	81	17	12	141	
			%	22.0	57.4	12.1	8.5	100.0	
보통		N	38	150	12	9	209		
		%	18.2	71.8	5.7	4.3	100.0		
높음	N	25	113	1	2	141			
	%	17.7	80.1	0.7	1.4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가정 돌봄·교육, ② 사교육 참여, ③ 학교 밖 돌봄 이용, ④ 기타

## 6-2. 늘봄학교 대신 선택한 이유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205	89	97	72	463			
	%	44.3	19.2	21.0	15.6	100.0			
늘봄 실장	배치	N	106	40	51	28	225	6.939	
		%	47.1	17.8	22.7	12.4	100.0		
	겸임	N	62	29	28	22	141		
		%	44.0	20.6	19.9	15.6	100.0		
	미배치	N	37	20	18	22	97		
		%	38.1	20.6	18.6	22.7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100	34	46	19	199	13.715 *	
		%	50.3	17.1	23.1	9.5	100.0		
	중소 도시	N	74	35	37	37	183		
		%	40.4	19.1	20.2	20.2	100.0		
	읍면 지역	N	31	20	14	16	81		
		%	38.3	24.7	17.3	19.8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109	46	50	40	245	13.132 *	
		%	44.5	18.8	20.4	16.3	100.0		
	중규모	N	92	36	45	25	198		
		%	46.5	18.2	22.7	12.6	100.0		
	소규모	N	4	7	2	7	20		
		%	20.0	35.0	10.0	35.0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13	2	7	2	24	7.992	
		%	54.2	8.3	29.2	8.3	100.0		
	낮음	N	40	21	13	15	89		
		%	44.9	23.6	14.6	16.9	100.0		
	보통	N	79	37	41	25	182		
		%	43.4	20.3	22.5	13.7	100.0		
높음	N	73	29	36	30	168			
	%	43.5	17.3	21.4	17.9	100.0			
참 여 율	고	N	79	43	40	33	195	2.070	
		%	40.5	22.1	20.5	16.9	100.0		
	저	N	412	61	75	45	323		
		%	44.0	18.9	23.2	13.9	100.0		
전체	N	221	104	115	78	518			
	%	42.7	20.1	22.2	15.1	100.0			
부모 배경 특성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88	38	31	42	199	17.288 **
			%	44.2	19.1	15.6	21.1	100.0	
		조부모 지원	N	28	8	17	8	61	
			%	45.9	13.1	27.9	13.1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105	58	67	28	258		
		%	40.7	22.5	26.0	10.9	100.0		
	거주지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8	9	3	7	27	13.568
			%	29.6	33.3	11.1	25.9	100.0	
		낮음	N	56	31	28	26	141	
			%	39.7	22.0	19.9	18.4	100.0	
보통		N	93	43	47	26	209		
		%	44.5	20.6	22.5	12.4	100.0		
높음	N	64	21	37	19	141			
	%	45.4	14.9	26.2	13.5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교육적 측면, ② 안정적인 돌봄, ③ 자녀 희망, ④ 기타

### 7. 정규수업 종료 후 늘봄학교 이용 시간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492	991	382	132	23	2,020			
	%	24.4	49.1	18.9	6.5	1.1	100.0			
늘봄 실장	배치	N	225	461	177	66	15	944	13.885	
		%	23.8	48.8	18.8	7.0	1.6	100.0		
	겸임	N	188	338	137	53	7	723		
		%	26.0	46.7	18.9	7.3	1.0	100.0		
	미배치	N	79	192	68	13	1	353		
		%	22.4	54.4	19.3	3.7	0.3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224	488	160	59	8	939	11.675	
		%	23.9	52.0	17.0	6.3	0.9	100.0		
	중소 도시	N	171	332	158	50	9	720		
		%	23.8	46.1	21.9	6.9	1.3	100.0		
	읍면 지역	N	97	171	64	23	6	361		
		%	26.9	47.4	17.7	6.4	1.7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200	409	153	51	12	825	8.913	
		%	24.2	49.6	18.5	6.2	1.5	100.0		
	중규모	N	256	489	182	65	9	1,001		
		%	25.6	48.9	18.2	6.5	0.9	100.0		
	소규모	N	36	93	47	16	2	194		
		%	18.6	47.9	24.2	8.2	1.0	100.0		
학교 인근 밀집도	없음	N	20	77	16	14	1	128	20.613	
		%	15.6	60.2	12.5	10.9	0.8	100.0		
	낮음	N	123	259	109	39	5	535		
		%	23.0	48.4	20.4	7.3	0.9	100.0		
	보통	N	192	387	147	50	10	786		
		%	24.4	49.2	18.7	6.4	1.3	100.0		
높음	N	157	268	110	29	7	571			
	%	27.5	46.9	19.3	5.1	1.2	100.0			
참 여 율	고	N	236	466	195	62	10	969	2.667	
		%	24.4	48.1	20.1	6.4	1.0	100.0		
	저	N	285	617	227	80	19	1,228		
		%	23.2	50.2	18.5	6.5	1.5	100.0		
전체	N	521	1,083	422	142	29	2,197			
	%	23.7	49.3	19.2	6.5	1.3	100.0			
부모 배경 특성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230	598	353	129	27	1,337	238.559 ***
			%	17.2	44.7	26.4	9.6	2.0	100.0	
		조부모 지원	N	54	87	22	5	0	168	
			%	32.1	51.8	13.1	3.0	0.0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237	398	47	8	2	692		
		%	34.2	57.5	6.8	1.2	0.3	100.0		
	거주지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29	66	40	23	3	161	38.068 ***
			%	18.0	41.0	24.8	14.3	1.9	100.0	
		낮음	N	163	354	137	57	12	723	
			%	22.5	49.0	18.9	7.9	1.7	100.0	
보통		N	198	429	164	41	10	842		
		%	23.5	51.0	19.5	4.9	1.2	100.0		
높음	N	131	234	81	21	4	471			
	%	27.8	49.7	17.2	4.5	0.8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1시간 이내, ② 2시간 이내, ③ 3시간 이내, ④ 4시간 이내, ⑤ 4시간 초과

## 8. 현재 참여하고 있는 늘봄과정 유형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	사례비율 (%)
① 맞춤형 교육(초 1, 2학년 대상 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479	43.6	67.3
② 선택형 교육(선택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481	43.6	67.4
③ 선택형 돌봄	435	12.8	19.8
계	3,395	100.0	154.5

## 8-1. 가장 선호하는 늘봄과정 유형

구분		①	②	③	계	$\chi^2$	
전체	N	1,030	801	189	2,020		
	%	51.0	39.7	9.4	100.0		
늘봄 실장	배치	N	477	367	100	944	4.491
		%	50.5	38.9	10.6	100.0	
	겸임	N	365	300	58	723	
		%	50.5	41.5	8.0	100.0	
	미배치	N	188	134	31	353	
		%	53.3	38.0	8.8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424	428	87	939	38.710 ***
		%	45.2	45.6	9.3	100.0	
	중소 도시	N	427	223	70	720	
		%	59.3	31.0	9.7	100.0	
	읍면 지역	N	179	150	32	361	
		%	49.6	41.6	8.9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414	326	85	825	14.317 **
		%	50.2	39.5	10.3	100.0	
	중규모	N	499	420	82	1,001	
		%	49.9	42.0	8.2	100.0	
	소규모	N	117	55	22	194	
		%	60.3	28.4	11.3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70	49	9	128	12.888 *
		%	54.7	38.3	7.0	100.0	
	낮음	N	291	187	57	535	
		%	54.4	35.0	10.7	100.0	
	보통	N	400	325	61	786	
		%	50.9	41.3	7.8	100.0	
높음	N	269	240	62	571		
	%	47.1	42.0	10.9	100.0		
참 여 율	고	N	457	430	82	969	22.322 ***
		%	47.2	44.4	8.5	100.0	
	저	N	674	424	130	1,228	
		%	54.9	34.5	10.6	100.0	
전체	N	1,131	854	212	2,197		
	%	51.5	38.9	9.6	100.0		

부모 배경 특성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699	453	185	1,337	89.962 ***		
			%	52.3	33.9	13.8	100.0			
	조부모 지원		N	76	79	13	168		22.535 ***	
			%	45.2	47.0	7.7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356	322	14	692			
			%	51.4	46.5	2.0	100.0			
	거주지 인근	없음	N	83	57	21	161			
			%	51.6	35.4	13.0	100.0			
	학원 밀집도	낮음	N	403	253	67	723			
			%	55.7	35.0	9.3	100.0			
		보통	N	441	322	79	842			
			%	52.4	38.2	9.4	100.0			
	높음	N	204	222	45	471				
		%	43.3	47.1	9.6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맞춤형 교육(초 1,2학년 대상 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② 선택형 교육(선택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③ 선택형 돌봄

## 8-2. 문 8-1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한 이유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159	403	122	777	546	13	2,020			
	%	7.9	20.0	6.0	38.5	27.0	0.6	100.0			
늘봄 실장	배치	N	82	169	54	362	272	5	944	14.502	
		%	8.7	17.9	5.7	38.3	28.8	0.5	100.0		
	겸임	N	50	167	43	279	181	3	723		
		%	6.9	23.1	5.9	38.6	25.0	0.4	100.0		
	미배치	N	27	67	25	136	93	5	353		
		%	7.6	19.0	7.1	38.5	26.3	1.4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73	201	69	356	235	5	939	24.847 **	
		%	7.8	21.4	7.3	37.9	25.0	0.5	100.0		
	중소 도시	N	58	152	32	258	216	4	720		
		%	8.1	21.1	4.4	35.8	30.0	0.6	100.0		
	읍면 지역	N	28	50	21	163	95	4	361		
		%	7.8	13.9	5.8	45.2	26.3	1.1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61	148	50	306	253	7	825	20.895 *	
		%	7.4	17.9	6.1	37.1	30.7	0.8	100.0		
	중규모	N	88	218	64	394	233	4	1,001		
		%	8.8	21.8	6.4	39.4	23.3	0.4	100.0		
	소규모	N	10	37	8	77	60	2	194		
		%	5.2	19.1	4.1	39.7	30.9	1.0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6	30	13	51	27	1	128	24.878	
		%	4.7	23.4	10.2	39.8	21.1	0.8	100.0		
	낮음	N	46	115	32	192	148	2	535		
		%	8.6	21.5	6.0	35.9	27.7	0.4	100.0		
	보통	N	60	156	47	326	189	8	786		
		%	7.6	19.8	6.0	41.5	24.0	1.0	100.0		
높음	N	47	102	30	208	182	2	571			
	%	8.2	17.9	5.3	36.4	31.9	0.4	100.0			
참 여 율	고	N	76	176	58	407	247	5	969	12.944 *	
		%	7.8	18.2	6.0	42.0	25.5	0.5	100.0		
	저	N	95	257	81	428	357	10	1,228		
		%	7.7	20.9	6.6	34.9	29.1	0.8	100.0		
	전체	N	171	433	139	835	604	15	2,197		
		%	7.8	19.7	6.3	38.0	27.5	0.7	100.0		
부모 배경 특성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90	232	75	455	476	9	1,337	127.275 ***
			%	6.7	17.4	5.6	34.0	35.6	0.7	100.0	
		조부모 지원	N	24	29	14	66	34	1	168	
			%	14.3	17.3	8.3	39.3	20.2	0.6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57	172	50	314	94	5	692		
		%	8.2	24.9	7.2	45.4	13.6	0.7	100.0		
	거주지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11	34	7	60	48	1	161	8.918
			%	6.8	21.1	4.3	37.3	29.8	0.6	100.0	
		낮음	N	50	156	44	266	201	6	723	
			%	6.9	21.6	6.1	36.8	27.8	0.8	100.0	
보통		N	66	159	53	325	233	6	842		
		%	7.8	18.9	6.3	38.6	27.7	0.7	100.0		
높음	N	44	84	35	184	122	2	471			
	%	9.3	17.8	7.4	39.1	25.9	0.4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선택권이 보장되어서, ② 비용 부담이 적어서, ③ 프로그램 품질이 높아서, ④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⑤ 일정 시간동안 확실한 돌봄 제공, ⑥ 기타

### 9.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	사례비율 (%)
① 체육	1,013	24.9	46.1
② 문화예술	1,228	30.2	55.9
③ 인문·사회	377	9.3	17.2
④ 창의과학	767	18.9	34.9
⑤ 기후환경	47	1.2	2.1
⑥ 학교적응·정서	166	4.1	7.6
⑦ 교과교육	464	11.4	21.1
⑧ 기타	0	0.0	0.0
계	4,062	100.0	184.9

#### 9-1.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	사례비율 (%)
① 국어	213	4.7	9.7
② 영어	359	7.8	16.3
③ 수학	345	7.5	15.7
④ 사회(교과)	31	0.7	1.4
⑤ 과학	556	12.1	25.3
⑥ 제2외국어·한문	206	4.5	9.4
⑦ 음악	483	10.5	22.0
⑧ 미술	686	15.0	31.2
⑨ 체육	802	17.5	36.5
⑩ 디지털	398	8.7	18.1
⑪ 인문·사회(특기적성)	171	3.7	7.8
⑫ 기타	331	7.2	15.1
계	4,581	100.0	208.5

## 10. 학교 편성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58	108	741	1,122	451	2,480			
	%	2.3	4.4	29.9	45.2	18.2	100.0			
늘봄 실장	배치	N	28	59	323	556	203	1,169	17.784 *	
		%	2.4	5.0	27.6	47.6	17.4	100.0		
	겸임	N	19	29	291	375	148	862		
		%	2.2	3.4	33.8	43.5	17.2	100.0		
	미배치	N	11	20	127	191	100	449		
		%	2.4	4.5	28.3	42.5	22.3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24	51	347	528	185	1,135	9.252	
		%	2.1	4.5	30.6	46.5	16.3	100.0		
	중소 도시	N	27	37	258	405	176	903		
		%	3.0	4.1	28.6	44.9	19.5	100.0		
	읍면 지역	N	7	20	136	189	90	442		
		%	1.6	4.5	30.8	42.8	20.4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31	57	309	493	180	1,070	13.322	
		%	2.9	5.3	28.9	46.1	16.8	100.0		
	중규모	N	23	47	370	534	222	1,196		
		%	1.9	3.9	30.9	44.6	18.6	100.0		
	소규모	N	4	4	62	95	49	214		
		%	1.9	1.9	29.0	44.4	22.9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4	4	54	54	36	152	20.267	
		%	2.6	2.6	35.5	35.5	23.7	100.0		
	낮음	N	14	19	175	297	119	624		
		%	2.2	3.0	28.0	47.6	19.1	100.0		
	보통	N	22	44	293	424	184	967		
		%	2.3	4.6	30.3	43.8	19.0	100.0		
높음	N	18	41	219	347	112	737			
	%	2.4	5.6	29.7	47.1	15.2	100.0			
참 여 율	고	N	21	43	322	544	232	1,162	13.639 **	
		%	1.8	3.7	27.7	46.8	20.0	100.0		
	저	N	41	80	494	666	269	1,550		
		%	2.6	5.2	31.9	43.0	17.4	100.0		
	전체	N	62	123	816	1,210	501	2,712		
		%	2.3	4.5	30.1	44.6	18.5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42	75	409	693	316	1,535	31.056 ***	
		%	2.7	4.9	26.6	45.1	20.6	100.0		
	조부모 지원	N	6	13	77	103	29	228		
		%	2.6	5.7	33.8	45.2	12.7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14	35	330	414	156	949		
		%	1.5	3.7	34.8	43.6	16.4	100.0		
부모 배경 특성	없음	N	6	7	64	69	41	187	19.258	
		%	3.2	3.7	34.2	36.9	21.9	100.0		
	거주지 인근	N	20	42	269	381	152	864		
		%	2.3	4.9	31.1	44.1	17.6	100.0		
	학원 밀집도	보통	N	22	37	329	467	196		1,051
		%	2.1	3.5	31.3	44.4	18.6	100.0		
높음	N	14	37	154	293	112	610			
	%	2.3	6.1	25.2	48.0	18.4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24	71	532	1,083	487	2,197	390.295 ***	
		%	1.1	3.2	24.2	49.3	22.2	100.0		
	미참여	N	38	52	284	127	14	515		
		%	7.4	10.1	55.1	24.7	2.7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0-1. 개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chi^2$		
전체	N	1,690	235	12	316	77	51	99	2,480			
	%	68.1	9.5	0.5	12.7	3.1	2.1	4.0	100.0			
늘봄 실장	배치	N	829	103	3	135	32	19	48	1,169	15.571	
		%	70.9	8.8	0.3	11.5	2.7	1.6	4.1	100.0		
	겸임	N	572	80	5	125	28	21	31	862		
		%	66.4	9.3	0.6	14.5	3.2	2.4	3.6	100.0		
	미배치	N	289	52	4	56	17	11	20	449		
		%	64.4	11.6	0.9	12.5	3.8	2.4	4.5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782	112	4	143	39	16	39	1,135	17.206	
		%	68.9	9.9	0.4	12.6	3.4	1.4	3.4	100.0		
	중소 도시	N	626	83	3	108	22	24	37	903		
		%	69.3	9.2	0.3	12.0	2.4	2.7	4.1	100.0		
	읍면 지역	N	282	40	5	65	16	11	23	442		
		%	63.8	9.0	1.1	14.7	3.6	2.5	5.2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742	108	4	116	33	16	51	1,070	23.777 *	
		%	69.3	10.1	0.4	10.8	3.1	1.5	4.8	100.0		
	중규모	N	815	103	7	174	33	26	38	1,196		
		%	68.1	8.6	0.6	14.5	2.8	2.2	3.2	100.0		
	소규모	N	133	24	1	26	11	9	10	214		
		%	62.1	11.2	0.5	12.1	5.1	4.2	4.7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105	17	1	21	4	3	1	152	13.762	
		%	69.1	11.2	0.7	13.8	2.6	2.0	0.7	100.0		
	낮음	N	417	56	3	87	19	16	26	624		
		%	66.8	9.0	0.5	13.9	3.0	2.6	4.2	100.0		
	보통	N	673	83	5	123	30	19	34	967		
		%	69.6	8.6	0.5	12.7	3.1	2.0	3.5	100.0		
높음	N	495	79	3	85	24	13	38	737			
	%	67.2	10.7	0.4	11.5	3.3	1.8	5.2	100.0			
참여 율	고	N	783	110	4	154	38	27	46	1,162	2.423	
		%	67.4	9.5	0.3	13.3	3.3	2.3	4.0	100.0		
	저	N	1,067	143	9	186	50	30	65	1,550		
		%	68.8	9.2	0.6	12.0	3.2	1.9	4.2	100.0		
전체	N	1,850	253	13	340	88	57	111	2,712			
	%	68.2	9.3	0.5	12.5	3.2	2.1	4.1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1,040	137	10	191	51	35	71	1,535	9.827	
		%	67.8	8.9	0.7	12.4	3.3	2.3	4.6	100.0		
	조부모 지원	N	159	20	0	33	5	2	9	228		
		%	69.7	8.8	0.0	14.5	2.2	0.9	3.9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651	96	3	116	32	20	31	949		
		%	68.6	10.1	0.3	12.2	3.4	2.1	3.3	100.0		
부모 배경 특성	없음	N	121	15	4	23	10	6	8	187	27.988	
		%	64.7	8.0	2.1	12.3	5.3	3.2	4.3	100.0		
	거주지 인근	N	593	77	3	110	20	21	40	864		
		%	68.6	8.9	0.3	12.7	2.3	2.4	4.6	100.0		
	학원 밀집도	보통	N	720	96	4	133	43	21	34		1,051
		%	68.5	9.1	0.4	12.7	4.1	2.0	3.2	100.0		
높음	N	416	65	2	74	15	9	29	610			
	%	68.2	10.7	0.3	12.1	2.5	1.5	4.8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1,510	194	12	268	65	51	97	2,197	14.179 *	
		%	68.7	8.8	0.5	12.2	3.0	2.3	4.4	100.0		
	미참여	N	340	59	1	72	23	6	14	515		
		%	66.0	11.5	0.2	14.0	4.5	1.2	2.7	100.0		

\*: p < .05, \*\*: p < .01, \*\*\*: p < .001

① 프로그램 내용, ② 강사 역량, ③ 교재·교구 품질, ④ 교육 효과, ⑤ 교우 관계, ⑥ 비용, ⑦ 기타

## 10-2.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chi^2$	
전체	N	454	272	909	293	58	346	148	2,480		
	%	18.3	11.0	36.7	11.8	2.3	14.0	6.0	100.0		
늘봄 실장	배치	N	247	132	404	151	24	141	70	1,169	34.817 ***
		%	21.1	11.3	34.6	12.9	2.1	12.1	6.0	100.0	
	겸임	N	125	94	354	83	22	140	44	862	
		%	14.5	10.9	41.1	9.6	2.6	16.2	5.1	100.0	
	미배치	N	82	46	151	59	12	65	34	449	
		%	18.3	10.2	33.6	13.1	2.7	14.5	7.6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190	122	445	150	33	135	60	1,135	41.154 ***
		%	16.7	10.7	39.2	13.2	2.9	11.9	5.3	100.0	
	중소 도시	N	193	104	305	108	11	128	54	903	
		%	21.4	11.5	33.8	12.0	1.2	14.2	6.0	100.0	
	읍면 지역	N	71	46	159	35	14	83	34	442	
		%	16.1	10.4	36.0	7.9	3.2	18.8	7.7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226	114	379	152	16	115	68	1,070	42.369 ***
		%	21.1	10.7	35.4	14.2	1.5	10.7	6.4	100.0	
	중규모	N	197	134	457	117	35	188	68	1,196	
		%	16.5	11.2	38.2	9.8	2.9	15.7	5.7	100.0	
	소규모	N	31	24	73	24	7	43	12	214	
		%	14.5	11.2	34.1	11.2	3.3	20.1	5.6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29	9	63	20	5	18	8	152	41.037 **
		%	19.1	5.9	41.4	13.2	3.3	11.8	5.3	100.0	
	낮음	N	85	77	225	71	16	108	42	624	
		%	13.6	12.3	36.1	11.4	2.6	17.3	6.7	100.0	
	보통	N	186	114	349	95	20	142	61	967	
		%	19.2	11.8	36.1	9.8	2.1	14.7	6.3	100.0	
높음	N	154	72	272	107	17	78	37	737		
	%	20.9	9.8	36.9	14.5	2.3	10.6	5.0	100.0		
참 여 율	고	N	215	123	407	136	33	177	71	1,162	7.088
		%	18.5	10.6	35.0	11.7	2.8	15.2	6.1	100.0	
	저	N	280	169	597	183	32	197	92	1,550	
		%	18.1	10.9	38.5	11.8	2.1	12.7	5.9	100.0	
전체	N	495	292	1,004	319	65	374	163	2,712		
	%	18.3	10.8	37.0	11.8	2.4	13.8	6.0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304	186	508	188	39	206	104	1,535	36.656 ***
		%	19.8	12.1	33.1	12.2	2.5	13.4	6.8	100.0	
	조부모 지원	N	45	15	97	18	6	35	12	228	
		%	19.7	6.6	42.5	7.9	2.6	15.4	5.3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146	91	399	113	20	133	47	949	
		%	15.4	9.6	42.0	11.9	2.1	14.0	5.0	100.0	
부모 배경 특성	없음	N	28	34	69	18	7	19	12	187	28.039
		%	15.0	18.2	36.9	9.6	3.7	10.2	6.4	100.0	
	거주지 인근	N	158	89	325	97	17	121	57	864	
		%	18.3	10.3	37.6	11.2	2.0	14.0	6.6	100.0	
	보통	N	188	110	394	118	28	161	52	1,051	
		%	17.9	10.5	37.5	11.2	2.7	15.3	4.9	100.0	
높음	N	121	59	216	86	13	73	42	610		
	%	19.8	9.7	35.4	14.1	2.1	12.0	6.9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401	278	771	253	61	295	138	2,197	59.937 ***
		%	18.3	12.7	35.1	11.5	2.8	13.4	6.3	100.0	
	미참여	N	94	14	233	66	4	79	25	515	
		%	18.3	2.7	45.2	12.8	0.8	15.3	4.9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학부모 수요 반영, ② 비용 부담 경감, ③ 프로그램 내용, ④ 강사 역량, ⑤ 교재·교구 품질, ⑥ 교육 효과, ⑦ 기타

[초등 고학년 진학 시 늘봄학교 참여 의사]

11. 현재 초2 자녀가 초3으로 올라갔을 때 늘봄학교에 참여할 의사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1,704	303	360	113	2,480		
	%	68.7	12.2	14.5	4.6	100.0		
늘봄 실장	배치	N	791	142	188	48	1,169	12.709 *
		%	67.7	12.1	16.1	4.1	100.0	
	겸임	N	610	113	103	36	862	
		%	70.8	13.1	11.9	4.2	100.0	
	미배치	N	303	48	69	29	449	
		%	67.5	10.7	15.4	6.5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788	145	150	52	1,135	7.308
		%	69.4	12.8	13.2	4.6	100.0	
	중소 도시	N	609	105	152	37	903	
		%	67.4	11.6	16.8	4.1	100.0	
	읍면 지역	N	307	53	58	24	442	
		%	69.5	12.0	13.1	5.4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688	126	208	48	1,070	50.795 ***
		%	64.3	11.8	19.4	4.5	100.0	
	중규모	N	842	157	134	63	1,196	
		%	70.4	13.1	11.2	5.3	100.0	
	소규모	N	174	20	18	2	214	
		%	81.3	9.3	8.4	0.9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112	15	17	8	152	30.607 ***
		%	73.7	9.9	11.2	5.3	100.0	
	낮음	N	465	75	62	22	624	
		%	74.5	12.0	9.9	3.5	100.0	
	보통	N	654	122	140	51	967	
		%	67.6	12.6	14.5	5.3	100.0	
높음	N	473	91	141	32	737		
	%	64.2	12.3	19.1	4.3	100.0		
참 여 율	고	N	826	135	159	42	1,162	9.093 *
		%	71.1	11.6	13.7	3.6	100.0	
	저	N	1,030	193	242	85	1,550	
		%	66.5	12.5	15.6	5.5	100.0	
	전체	N	1,856	328	401	127	2,712	
		%	68.4	12.1	14.8	4.7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1,145	180	171	39	1,535	89.075 ***
		%	74.6	11.7	11.1	2.5	100.0	
	조부모 지원	N	146	22	43	17	228	
		%	64.0	9.6	18.9	7.5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565	126	187	71	949	
		%	59.5	13.3	19.7	7.5	100.0	
부모 배경 특성	없음	N	146	15	21	5	187	30.584 ***
		%	78.1	8.0	11.2	2.7	100.0	
	거주지 인근	N	627	95	106	36	864	
		%	72.6	11.0	12.3	4.2	100.0	
	보통	N	709	127	163	52	1,051	
		%	67.5	12.1	15.5	4.9	100.0	
높음	N	374	91	111	34	610		
	%	61.3	14.9	18.2	5.6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1,842	317	28	10	2,197	2323.385 ***
		%	83.8	14.4	1.3	0.5	100.0	
	미참여	N	14	11	373	117	515	
		%	2.7	2.1	72.4	22.7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현재 참여 중이고 계속 참여 예정, ② 현재 참여 중이나, 참여 중단 고려 중, ③ 현재 참여하지 않으나 향후 참여 가능, ④ 현재도, 앞으로도 참여 의사 없음

## 11-1. 문 11에서 현재 참여중이나 초3부터 참여 중단을 고려 중인 경우 그 이유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60	198	5	49	312			
	%	19.2	63.5	1.6	15.7	100.0			
늘봄 실장	배치	N	33	84	3	25	145	4.699	
		%	22.8	57.9	2.1	17.2	100.0		
	겸임	N	18	82	2	17	119		
		%	15.1	68.9	1.7	14.3	100.0		
	미배치	N	9	32	0	7	48		
		%	18.8	66.7	0.0	14.6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34	94	1	23	152	8.296	
		%	22.4	61.8	0.7	15.1	100.0		
	중소 도시	N	18	69	1	18	106		
		%	17.0	65.1	0.9	17.0	100.0		
	읍면 지역	N	8	35	3	8	54		
		%	14.8	64.8	5.6	14.8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20	85	2	21	128	11.661	
		%	15.6	66.4	1.6	16.4	100.0		
	중규모	N	35	101	1	26	163		
		%	21.5	62.0	0.6	16.0	100.0		
	소규모	N	5	12	2	2	21		
		%	23.8	57.1	9.5	9.5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2	13	0	0	15	10.958	
		%	13.3	86.7	0.0	0.0	100.0		
	낮음	N	14	44	3	15	76		
		%	18.4	57.9	3.9	19.7	100.0		
	보통	N	29	75	1	19	124		
		%	23.4	60.5	0.8	15.3	100.0		
높음	N	15	66	1	15	97			
	%	15.5	68.0	1.0	15.5	100.0			
참 여 율	고	N	30	95	2	17	144	3.716	
		%	20.8	66.0	1.4	11.8	100.0		
	저	N	32	122	3	37	194		
		%	16.5	62.9	1.5	19.1	100.0		
	전체	N	62	217	5	54	338		
		%	18.3	64.2	1.5	16.0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39	112	5	33	189	8.229	
		%	20.6	59.3	2.6	17.5	100.0		
	조부모 지원	N	3	18	0	2	23		
		%	13.0	78.3	0.0	8.7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20	87	0	19	126		
		%	15.9	69.0	0.0	15.1	100.0		
부모 배경 특성	없음	N	1	10	0	5	16	11.662	
		%	6.3	62.5	0.0	31.3	100.0		
	거주지 인근	N	17	59	4	16	96		
		%	17.7	61.5	4.2	16.7	100.0		
	학원 밀집도	N	27	84	0	18	129		
		%	20.9	65.1	0.0	14.0	100.0		
높음	N	17	64	1	15	97			
	%	17.5	66.0	1.0	15.5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61	209	4	53	327	5.450	
		%	18.7	63.9	1.2	16.2	100.0		
	미참여	N	1	8	1	1	11		
		%	9.1	72.7	9.1	9.1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정규수업 시간 확대로 돌봄 수요 해소, ② 교과 교육을 위해 사교육 참여 확대, ③ 거주지 인근 돌봄센터 등 이용, ④ 기타

11-2. 늘봄학교에 어떤 점이 보완되면 참여 또는 참여 시간 확대를 고려하겠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사례비율(%)
① 안정적 돌봄 시간 보장	1,056	19.66	38.94
② 프로그램 내용의 품질 제고	1,259	23.45	46.42
③ 수강료 비용 지원	674	12.55	24.85
④ 교과과목 프로그램 편성 확대	973	18.12	35.88
⑤ 특기적성 프로그램 편성 확대	1,344	25.03	49.56
⑥ 기타	64	1.19	2.36
계	5,370	100.00	198.01

12. 초3 이후 고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525	384	219	1,336	16	2,480		
	%	21.2	15.5	8.8	53.9	0.6	100.0		
늘봄 실장	배치	N	241	182	115	623	8	1,169	4.680
		%	20.6	15.6	9.8	53.3	0.7	100.0	
	겸임	N	184	127	67	479	5	862	
		%	21.3	14.7	7.8	55.6	0.6	100.0	
	미배치	N	100	75	37	234	3	449	
		%	22.3	16.7	8.2	52.1	0.7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228	158	101	640	8	1,135	11.396
		%	20.1	13.9	8.9	56.4	0.7	100.0	
	중소 도시	N	203	161	83	451	5	903	
		%	22.5	17.8	9.2	49.9	0.6	100.0	
	읍면 지역	N	94	65	35	245	3	442	
		%	21.3	14.7	7.9	55.4	0.7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212	157	98	597	6	1,070	16.032 *
		%	19.8	14.7	9.2	55.8	0.6	100.0	
	중규모	N	263	179	109	635	10	1,196	
		%	22.0	15.0	9.1	53.1	0.8	100.0	
	소규모	N	50	48	12	104	0	214	
		%	23.4	22.4	5.6	48.6	0.0	100.0	
학교 인근 밀집도	없음	N	33	17	13	88	1	152	16.075
		%	21.7	11.2	8.6	57.9	0.7	100.0	
	낮음	N	145	109	45	323	2	624	
		%	23.2	17.5	7.2	51.8	0.3	100.0	
	보통	N	197	146	96	517	11	967	
		%	20.4	15.1	9.9	53.5	1.1	100.0	
높음	N	150	112	65	408	2	737		
	%	20.4	15.2	8.8	55.4	0.3	100.0		

참여율	고	N	258	168	113	618	5	1,162	7.220
		%	22.2	14.5	9.7	53.2	0.4	100.0	
	저	N	326	266	125	820	13	1,550	
		%	21.0	17.2	8.1	52.9	0.8	100.0	
전체		N	584	434	238	1,438	18	2,712	
		%	21.5	16.0	8.8	53.0	0.7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424	297	130	670	14	1,535	148.678
		%	27.6	19.3	8.5	43.6	0.9	100.0	
	조부모 지원	N	34	29	20	144	1	228	***
		%	14.9	12.7	8.8	63.2	0.4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126	108	88	624	3	949		
	%	13.3	11.4	9.3	65.8	0.3	100.0		
부모 배경 특성	거주지 인근	N	58	30	12	86	1	187	31.740
		%	31.0	16.0	6.4	46.0	0.5	100.0	
	학원 밀집도	N	213	141	79	427	4	864	**
		%	24.7	16.3	9.1	49.4	0.5	100.0	
보통	N	212	175	90	567	7	1,051		
	%	20.2	16.7	8.6	53.9	0.7	100.0		
높음	N	101	88	57	358	6	610		
	%	16.6	14.4	9.3	58.7	1.0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502	358	201	1,122	14	2,197	
		%	22.8	16.3	9.1	51.1	0.6	100.0	
	미참여	N	82	76	37	316	4	515	20.200
		%	15.9	14.8	7.2	61.4	0.8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개별 프로그램 선택권은 제한되더라도 안정적인 돌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 ② 안정적돌봄 우선, ③ 선택권 우선, ④ 참여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 ⑤ 기타

13. 학년군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104	168	499	1,157	552	2,480		
	%	4.2	6.8	20.1	46.7	22.3	100.0		
늘봄 실장	배치	N	48	80	227	528	286	1,169	13.015
		%	4.1	6.8	19.4	45.2	24.5	100.0	
	겸임	N	39	53	185	425	160	862	
		%	4.5	6.1	21.5	49.3	18.6	100.0	
	미배치	N	17	35	87	204	106	449	
		%	3.8	7.8	19.4	45.4	23.6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44	63	203	552	273	1,135	18.489 *
		%	3.9	5.6	17.9	48.6	24.1	100.0	
	중소 도시	N	39	67	189	415	193	903	
		%	4.3	7.4	20.9	46.0	21.4	100.0	
	읍면 지역	N	21	38	107	190	86	442	
		%	4.8	8.6	24.2	43.0	19.5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43	73	186	494	274	1,070	18.048 *
		%	4.0	6.8	17.4	46.2	25.6	100.0	
	중규모	N	51	77	265	566	237	1,196	
		%	4.3	6.4	22.2	47.3	19.8	100.0	
	소규모	N	10	18	48	97	41	214	
		%	4.7	8.4	22.4	45.3	19.2	100.0	
학교 인근 밀집도	없음	N	11	7	38	70	26	152	21.123 *
		%	7.2	4.6	25.0	46.1	17.1	100.0	
	낮음	N	19	47	135	306	117	624	
		%	3.0	7.5	21.6	49.0	18.8	100.0	
	보통	N	38	63	190	451	225	967	
		%	3.9	6.5	19.6	46.6	23.3	100.0	
높음	N	36	51	136	330	184	737		
	%	4.9	6.9	18.5	44.8	25.0	100.0		
참 여 율	고	N	52	73	256	532	249	1,162	5.651
		%	4.5	6.3	22.0	45.8	21.4	100.0	
	저	N	65	107	288	730	360	1,550	
		%	4.2	6.9	18.6	47.1	23.2	100.0	
	전체	N	117	180	544	1,262	609	2,712	
		%	4.3	6.6	20.1	46.5	22.5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67	94	334	685	355	1,535	15.328
		%	4.4	6.1	21.8	44.6	23.1	100.0	
	조부모 지원	N	5	17	49	113	44	228	
		%	2.2	7.5	21.5	49.6	19.3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45	69	161	464	210	949	
		%	4.7	7.3	17.0	48.9	22.1	100.0	
부모 배경 특성	없음	N	15	13	45	82	32	187	44.267 ***
		%	8.0	7.0	24.1	43.9	17.1	100.0	
	거주지 인근	N	39	62	176	404	183	864	
		%	4.5	7.2	20.4	46.8	21.2	100.0	
	보통	N	37	65	242	489	218	1,051	
		%	3.5	6.2	23.0	46.5	20.7	100.0	
높음	N	26	40	81	287	176	610		
	%	4.3	6.6	13.3	47.0	28.9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107	154	446	1,033	457	2,197	25.737 ***
		%	4.9	7.0	20.3	47.0	20.8	100.0	
	미참여	N	10	26	98	229	152	515	
		%	1.9	5.0	19.0	44.5	29.5	100.0	

\*: p < .05, \*\*: p < .01, \*\*\*: p < .00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3-1. 초 3~4학년군은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chi^2$		
학교 특성	전체	N	143	492	246	85	205	249	106	72	350	181	314	37	2,480	37.660 *	
		%	5.8	19.8	9.9	3.4	8.3	10.0	4.3	2.9	14.1	7.3	12.7	1.5	100.0		
	늘봄 실장	배치	N	73	216	115	32	106	112	47	37	172	90	154	15		1,169
			%	6.2	18.5	9.8	2.7	9.1	9.6	4.0	3.2	14.7	7.7	13.2	1.3		100.0
		겸임	N	35	200	93	34	59	77	40	24	119	54	114	13		862
	%		4.1	23.2	10.8	3.9	6.8	8.9	4.6	2.8	13.8	6.3	13.2	1.5	100.0		
	미배치	N	35	76	38	19	40	60	19	11	59	37	46	9	449		
		%	7.8	16.9	8.5	4.2	8.9	13.4	4.2	2.4	13.1	8.2	10.2	2.0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65	209	108	52	108	99	55	35	164	87	139	14		1,135
			%	5.7	18.4	9.5	4.6	9.5	8.7	4.8	3.1	14.4	7.7	12.2	1.2		100.0
		중소 도시	N	50	191	88	26	64	101	29	31	130	59	116	18		903
	%		5.5	21.2	9.7	2.9	7.1	11.2	3.2	3.4	14.4	6.5	12.8	2.0	100.0		
	읍면 지역	N	28	92	50	7	33	49	22	6	56	35	59	5	442		
		%	6.3	20.8	11.3	1.6	7.5	11.1	5.0	1.4	12.7	7.9	13.3	1.1	100.0		
	학교 규모	대규모	N	67	172	108	41	99	110	42	26	163	80	144	18		1,070
%			6.3	16.1	10.1	3.8	9.3	10.3	3.9	2.4	15.2	7.5	13.5	1.7	100.0		
중규모		N	61	269	119	34	95	115	54	40	163	87	145	14	1,196		
	%	5.1	22.5	9.9	2.8	7.9	9.6	4.5	3.3	13.6	7.3	12.1	1.2	100.0			
소규모	N	15	51	19	10	11	24	10	6	24	14	25	5	214			
	%	7.0	23.8	8.9	4.7	5.1	11.2	4.7	2.8	11.2	6.5	11.7	2.3	100.0			
학교 인근 밀집도	없음	N	6	27	13	2	16	16	9	7	21	10	21	4	152		
		%	3.9	17.8	8.6	1.3	10.5	10.5	5.9	4.6	13.8	6.6	13.8	2.6	100.0		
낮음	N	38	142	70	21	43	56	24	17	84	44	75	10	624			
	%	6.1	22.8	11.2	3.4	6.9	9.0	3.8	2.7	13.5	7.1	12.0	1.6	100.0			
보통	N	51	182	95	42	86	111	46	23	136	71	113	11	967			
	%	5.3	18.8	9.8	4.3	8.9	11.5	4.8	2.4	14.1	7.3	11.7	1.1	100.0			

참여율	높음	N	48	141	68	20	60	66	27	25	109	56	105	12	737	14,339	
		%	6.5	19.1	9.2	2.7	8.1	9.0	3.7	3.4	14.8	7.6	14.2	1.6	100.0		
	고	N	69	241	131	42	95	115	45	36	149	95	130	14	1,162		
		%	5.9	20.7	11.3	3.6	8.2	9.9	3.9	3.1	12.8	8.2	11.2	1.2	100.0		
	저	N	86	311	139	46	131	155	75	45	227	100	210	25	1,550		
		%	5.5	20.1	9.0	3.0	8.5	10.0	4.8	2.9	14.6	6.5	13.5	1.6	100.0		
전체		N	155	552	270	88	226	270	120	81	376	195	340	39	2,712		
		%	5.7	20.4	10.0	3.2	8.3	10.0	4.4	3.0	13.9	7.2	12.5	1.4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79	321	164	42	114	158	65	45	216	115	192	24	1,535	23,319	
		%	5.1	20.9	10.7	2.7	7.4	10.3	4.2	2.9	14.1	7.5	12.5	1.6	100.0		
	조부모 지원	N	17	39	21	5	23	18	9	6	34	20	30	6	228		
		%	7.5	17.1	9.2	2.2	10.1	7.9	3.9	2.6	14.9	8.8	13.2	2.6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59	192	85	41	89	94	46	30	126	60	118	9	949		
		%	6.2	20.2	9.0	4.3	9.4	9.9	4.8	3.2	13.3	6.3	12.4	0.9	100.0		
부모 배경 특성	없음	N	15	36	14	8	13	20	9	6	29	14	22	1	187	29,671	
		%	8.0	19.3	7.5	4.3	7.0	10.7	4.8	3.2	15.5	7.5	11.8	0.5	100.0		
	거주지 인근 밀집도	낮음	N	41	192	89	21	67	89	36	29	115	71	101	13		864
			%	4.7	22.2	10.3	2.4	7.8	10.3	4.2	3.4	13.3	8.2	11.7	1.5		100.0
		보통	N	61	220	106	39	93	103	46	31	127	70	142	13		1,051
			%	5.8	20.9	10.1	3.7	8.8	9.8	4.4	2.9	12.1	6.7	13.5	1.2		100.0
	높음	N	38	104	61	20	53	58	29	15	105	40	75	12	610		
		%	6.2	17.0	10.0	3.3	8.7	9.5	4.8	2.5	17.2	6.6	12.3	2.0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123	467	220	70	169	226	90	62	307	156	281	26	2,197	21,949	
		%	5.6	21.3	10.0	3.2	7.7	10.3	4.1	2.8	14.0	7.1	12.8	1.2	100.0		
	미참여	N	32	85	50	18	57	44	30	19	69	39	59	13	515		
		%	6.2	16.5	9.7	3.5	11.1	8.5	5.8	3.7	13.4	7.6	11.5	2.5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특기적성), ⑫ 기타

## 13-2. 초 5~6학년군은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chi^2$	
전체	N	72	506	349	105	157	310	43	24	202	279	404	29	2,480		
	%	2.9	20.4	14.1	4.2	6.3	12.5	1.7	1.0	8.1	11.3	16.3	1.2	100.0		
늘봄 실장	배치	N	35	229	157	51	80	145	19	11	100	133	195	14	1,169	10.905
		%	3.0	19.6	13.4	4.4	6.8	12.4	1.6	0.9	8.6	11.4	16.7	1.2	100.0	
	겸임	N	22	187	122	38	50	102	15	7	63	99	148	9	862	
		%	2.6	21.7	14.2	4.4	5.8	11.8	1.7	0.8	7.3	11.5	17.2	1.0	100.0	
	미배치	N	15	90	70	16	27	63	9	6	39	47	61	6	449	
		%	3.3	20.0	15.6	3.6	6.0	14.0	2.0	1.3	8.7	10.5	13.6	1.3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30	213	165	61	86	120	27	9	88	128	192	16	1,135	38.374 *
		%	2.6	18.8	14.5	5.4	7.6	10.6	2.4	0.8	7.8	11.3	16.9	1.4	100.0	
	중소 도시	N	31	198	127	28	52	122	8	11	83	101	132	10	903	
		%	3.4	21.9	14.1	3.1	5.8	13.5	0.9	1.2	9.2	11.2	14.6	1.1	100.0	
	읍면 지역	N	11	95	57	16	19	68	8	4	31	50	80	3	442	
		%	2.5	21.5	12.9	3.6	4.3	15.4	1.8	0.9	7.0	11.3	18.1	0.7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31	192	147	50	89	133	16	9	101	117	170	15	1,070	34.047 *
		%	2.9	17.9	13.7	4.7	8.3	12.4	1.5	0.8	9.4	10.9	15.9	1.4	100.0	
	중규모	N	35	259	178	47	56	145	25	11	90	141	197	12	1,196	
		%	2.9	21.7	14.9	3.9	4.7	12.1	2.1	0.9	7.5	11.8	16.5	1.0	100.0	
	소규모	N	6	55	24	8	12	32	2	4	11	21	37	2	214	
		%	2.8	25.7	11.2	3.7	5.6	15.0	0.9	1.9	5.1	9.8	17.3	0.9	100.0	
학교 인근 밀집도	없음	N	2	28	21	6	12	22	4	2	17	13	24	1	152	28.807
		%	1.3	18.4	13.8	3.9	7.9	14.5	2.6	1.3	11.2	8.6	15.8	0.7	100.0	
	낮음	N	16	148	93	28	34	76	10	6	43	59	105	6	624	
		%	2.6	23.7	14.9	4.5	5.4	12.2	1.6	1.0	6.9	9.5	16.8	1.0	100.0	
	보통	N	30	169	141	43	59	120	19	9	84	128	155	10	967	
		%	3.1	17.5	14.6	4.4	6.1	12.4	2.0	0.9	8.7	13.2	16.0	1.0	100.0	

참여율	높음	N	24	161	94	28	52	92	10	7	58	79	120	12	737	13.683
		%	3.3	21.8	12.8	3.8	7.1	12.5	1.4	0.9	7.9	10.7	16.3	1.6	100.0	
	고	N	36	253	174	58	66	145	20	12	81	130	179	8	1,162	
		%	3.1	21.8	15.0	5.0	5.7	12.5	1.7	1.0	7.0	11.2	15.4	0.7	100.0	
	저	N	42	315	205	58	105	195	32	13	136	171	255	23	1,550	
		%	2.7	20.3	13.2	3.7	6.8	12.6	2.1	0.8	8.8	11.0	16.5	1.5	100.0	
전체		N	78	568	379	116	171	340	52	25	217	301	434	31	2,712	
		%	2.9	20.9	14.0	4.3	6.3	12.5	1.9	0.9	8.0	11.1	16.0	1.1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44	340	201	56	83	204	33	16	126	176	235	21	1,535	28.708
		%	2.9	22.1	13.1	3.6	5.4	13.3	2.1	1.0	8.2	11.5	15.3	1.4	100.0	
	조부모 지원	N	3	41	31	15	23	27	4	1	21	25	34	3	228	
		%	1.3	18.0	13.6	6.6	10.1	11.8	1.8	0.4	9.2	11.0	14.9	1.3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31	187	147	45	65	109	15	8	70	100	165	7	949	
		%	3.3	19.7	15.5	4.7	6.8	11.5	1.6	0.8	7.4	10.5	17.4	0.7	100.0	
부모 배경 특성	없음	N	1	46	23	9	7	30	4	2	16	18	30	1	187	28.602
		%	0.5	24.6	12.3	4.8	3.7	16.0	2.1	1.1	8.6	9.6	16.0	0.5	100.0	
	가주지 인근	N	27	181	127	37	47	107	15	7	66	99	141	10	864	
		%	3.1	20.9	14.7	4.3	5.4	12.4	1.7	0.8	7.6	11.5	16.3	1.2	100.0	
	학원 밀집도	N	29	222	148	45	71	140	21	11	79	110	168	7	1,051	
		%	2.8	21.1	14.1	4.3	6.8	13.3	2.0	1.0	7.5	10.5	16.0	0.7	100.0	
		N	21	119	81	25	46	63	12	5	56	74	95	13	610	
		%	3.4	19.5	13.3	4.1	7.5	10.3	2.0	0.8	9.2	12.1	15.6	2.1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55	493	304	92	124	268	43	21	180	238	356	23	2,197	30.137
		%	2.5	22.4	13.8	4.2	5.6	12.2	2.0	1.0	8.2	10.8	16.2	1.0	100.0	
	미참여	N	23	75	75	24	47	72	9	4	37	63	78	8	515	
		%	4.5	14.6	14.6	4.7	9.1	14.0	1.7	0.8	7.2	12.2	15.1	1.6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교과), ⑤ 과학, ⑥ 제2외국어·한문, ⑦ 음악, ⑧ 미술, ⑨ 체육, ⑩ 디지털, ⑪ 인문·사회(특기적성), ⑫ 기타

## 14. 고학년 시기 늘봄학교와 사교육 간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458	1,222	781	19	2,480			
	%	18.5	49.3	31.5	0.8	100.0			
늘봄 실장	배치	N	197	594	371	7	1,169	5.740	
		%	16.9	50.8	31.7	0.6	100.0		
	겸임	N	174	411	268	9	862		
		%	20.2	47.7	31.1	1.0	100.0		
	미배치	N	87	217	142	3	449		
		%	19.4	48.3	31.6	0.7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205	563	358	9	1,135	8.832	
		%	18.1	49.6	31.5	0.8	100.0		
	중소 도시	N	161	455	284	3	903		
		%	17.8	50.4	31.5	0.3	100.0		
	읍면 지역	N	92	204	139	7	442		
		%	20.8	46.2	31.4	1.6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172	535	356	7	1,070	12.048	
		%	16.1	50.0	33.3	0.7	100.0		
	중규모	N	242	581	365	8	1,196		
		%	20.2	48.6	30.5	0.7	100.0		
	소규모	N	44	106	60	4	214		
		%	20.6	49.5	28.0	1.9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26	70	53	3	152	14.069	
		%	17.1	46.1	34.9	2.0	100.0		
	낮음	N	129	308	179	8	624		
		%	20.7	49.4	28.7	1.3	100.0		
	보통	N	165	493	304	5	967		
		%	17.1	51.0	31.4	0.5	100.0		
높음	N	138	351	245	3	737			
	%	18.7	47.6	33.2	0.4	100.0			
참 여 율	고	N	237	582	339	4	1,162	8.784 *	
		%	20.4	50.1	29.2	0.3	100.0		
	저	N	279	753	502	16	1,550		
		%	18.0	48.6	32.4	1.0	100.0		
전체	N	516	1,335	841	20	2,712			
	%	19.0	49.2	31.0	0.7	100.0			
부모 배경 특성	모두 불가	N	306	784	433	12	1,535	14.491 *	
		%	19.9	51.1	28.2	0.8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조부모	N	45	109	73	1		228
		지원	%	19.7	47.8	32.0	0.4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165	442	335	7	949		
		%	17.4	46.6	35.3	0.7	100.0		
	거주지 인근 학원	없음	N	41	83	60	3		187
			%	21.9	44.4	32.1	1.6		100.0

밀집도	낮음	N	167	423	268	6	864	10.352
		%	19.3	49.0	31.0	0.7	100.0	
	보통	N	208	530	305	8	1,051	
		%	19.8	50.4	29.0	0.8	100.0	
	높음	N	100	299	208	3	610	
		%	16.4	49.0	34.1	0.5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435	1,090	657	15	2,197	9.020
		%	19.8	49.6	29.9	0.7	100.0	
	미참여	N	81	245	184	5	515	
		%	15.7	47.6	35.7	1.0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① 대체 관계(참여 내용이 유사함), ② 보완 관계(참여 내용이 구분됨), ③ 독립적 관계(내용적으로 관련이 없음), ④ 기타

## 14-1.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1,580	173	699	28	2,480			
	%	63.7	7.0	28.2	1.1	100.0			
늘봄 실장	배치	N	733	91	331	14	1,169	10.967	
		%	62.7	7.8	28.3	1.2	100.0		
	겸임	N	573	49	235	5	862		
		%	66.5	5.7	27.3	0.6	100.0		
	미배치	N	274	33	133	9	449		
		%	61.0	7.3	29.6	2.0	100.0		
지역 규모	대도시	N	731	87	303	14	1,135	13.492 *	
		%	64.4	7.7	26.7	1.2	100.0		
	중소 도시	N	581	54	264	4	903		
		%	64.3	6.0	29.2	0.4	100.0		
	읍면 지역	N	268	32	132	10	442		
		%	60.6	7.2	29.9	2.3	100.0		
학교 특성	대규모	N	683	100	275	12	1,070	21.913 **	
		%	63.8	9.3	25.7	1.1	100.0		
	중규모	N	764	66	352	14	1,196		
		%	63.9	5.5	29.4	1.2	100.0		
	소규모	N	133	7	72	2	214		
		%	62.1	3.3	33.6	0.9	100.0		
학교 인근 학원 밀집도	없음	N	91	9	50	2	152	5.861	
		%	59.9	5.9	32.9	1.3	100.0		
	낮음	N	395	38	181	10	624		
		%	63.3	6.1	29.0	1.6	100.0		
	보통	N	615	71	271	10	967		
		%	63.6	7.3	28.0	1.0	100.0		
높음	N	479	55	197	6	737			
	%	65.0	7.5	26.7	0.8	100.0			
참 여 율	고	N	756	74	317	15	1,162	5.302	
		%	65.1	6.4	27.3	1.3	100.0		
	저	N	965	115	453	17	1,550		
		%	62.3	7.4	29.2	1.1	100.0		
	전체	N	1,721	189	770	32	2,712		
		%	63.5	7.0	28.4	1.2	100.0		
부모의 돌봄 여건	모두 불가	N	1,004	92	425	14	1,535	13.298 *	
		%	65.4	6.0	27.7	0.9	100.0		
	조부모 지원	N	132	24	67	5	228		
		%	57.9	10.5	29.4	2.2	100.0		
	부모 중 1명 가능	N	585	73	278	13	949		
		%	61.6	7.7	29.3	1.4	100.0		
부모 배경 특성	없음	N	114	9	62	2	187	15.545	
		%	61.0	4.8	33.2	1.1	100.0		
	거주지 인근	N	546	45	263	10	864		
		%	63.2	5.2	30.4	1.2	100.0		
	학원 밀집도	보통	N	683	83	275	10		1,051
		%	65.0	7.9	26.2	1.0	100.0		
높음	N	378	52	170	10	610			
	%	62.0	8.5	27.9	1.6	100.0			
늘봄 참여 여부	참여	N	1,416	133	622	26	2,197	15.734 **	
		%	64.5	6.1	28.3	1.2	100.0		
	미참여	N	305	56	148	6	515		
		%	59.2	10.9	28.7	1.2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① 주지교과(영어, 수학 등), ② 기타 교과(사회, 과학 등), ③ 특기적성(체육, 음악, 미술 등), ④ 기타

## 다. 공급기관 담당자 조사

### 5. 기관의 초등교육 분야 이해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1	5	17	39	52	114	21.957			
	%	0.9	4.4	14.9	34.2	45.6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0	0	0	3	13		16		
		%	0.0	0.0	0.0	18.8	81.2		14.0		
	범부처	N	0	1	5	8	10		24		
		%	0.0	4.2	20.8	33.3	41.7		21.1		
	RISE	N	1	4	8	15	10		38		
		%	2.6	10.5	21.1	39.5	26.3		33.3		
	교육청 위탁	N	0	0	4	11	17		32		
		%	0.0	0.0	12.5	34.4	53.1		28.1		
	기타	N	0	0	0	2	2		4		
		%	0.0	0.0	0.0	50.0	5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1	2	6	18		17	44	28.872
			%	2.3	4.5	13.6	40.9		38.6	38.6	
전문대학		N	0	2	6	3	6		17		
		%	0.0	11.8	35.3	17.6	35.3		14.9		
교육대학		N	0	0	0	1	10		11		
		%	0.0	0.0	0.0	9.1	90.9		9.6		
공공기관		N	0	0	4	7	8		19		
		%	0.0	0.0	21.1	36.8	42.1		16.7		
민간기관		N	0	0	0	5	9		14		
		%	0.0	0.0	0.0	35.7	64.3	12.3			
기타		N	0	1	1	5	2	9			
		%	0.0	11.1	11.1	55.6	22.2	7.9			
지역 규모	서울	N	0	2	4	8	9	23	3.994		
		%	0.0	8.7	17.4	34.8	39.1	20.2			
	광역시	N	0	1	3	8	16	28			
		%	0.0	3.6	10.7	28.6	57.1	24.6			
	도지역	N	1	2	10	23	27	63			
		%	1.6	3.2	15.9	36.5	42.9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0	2	9	24	25	60	3.106		
		%	0.0	3.3	15.0	40.0	41.7	52.6			
	비수도권	N	1	3	8	15	27	54			
		%	1.9	5.6	14.8	27.8	50.0	47.4			

① 매우 낮음 ② 다소 낮음 ③ 보통 ④ 다소 높음 ⑤ 매우 높음

## 6. 늘봄학교·방과후학교 관련 활동 기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48	18	17	3	4	24	114	38.846**	
	%	42.1	15.8	14.9	2.6	3.5	21.1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3	3	4	0	2	4		16
		%	18.8	18.8	25.0	0.0	12.5	25.0		14.0
	범부처	N	12	8	3	0	0	1		24
		%	50.0	33.3	12.5	0.0	0.0	4.2		21.1
	RISE	N	22	3	5	0	0	8		38
		%	57.9	7.9	13.2	0.0	0.0	21.1		33.3
	교육청 위탁	N	10	3	5	3	1	10		32
		%	31.2	9.4	15.6	9.4	3.1	31.2		28.1
	기타	N	1	1	0	0	1	1		4
		%	25.0	25.0	0.0	0.0	25.0	25.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21	5	5	1	1	11		44
		%	47.7	11.4	11.4	2.3	2.3	25.0		38.6
	전문대학	N	14	1	2	0	0	0		17
		%	82.4	5.9	11.8	0.0	0.0	0.0		14.9
	교육대학	N	2	2	3	0	2	2		11
		%	18.2	18.2	27.3	0.0	18.2	18.2	9.6	
	공공기관	N	6	6	5	1	0	1	19	
		%	31.6	31.6	26.3	5.3	0.0	5.3	16.7	
	민간기관	N	2	2	2	0	1	7	14	
		%	14.3	14.3	14.3	0.0	7.1	50.0	12.3	
기타	N	3	2	0	1	0	3	9		
	%	33.3	22.2	0.0	11.1	0.0	33.3	7.9		
지역 규모	서울	N	10	5	5	0	0	3	23	
		%	43.5	21.7	21.7	0.0	0.0	13.0	20.2	
	광역시	N	8	6	4	1	2	7	28	
		%	28.6	21.4	14.3	3.6	7.1	25.0	24.6	
	도지역	N	30	7	8	2	2	14	63	
		%	47.6	11.1	12.7	3.2	3.2	22.2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24	12	11	3	0	10	60	
		%	40.0	20.0	18.3	5.0	0.0	16.7	52.6	
	비수도권	N	24	6	6	0	4	14	54	
		%	44.4	11.1	11.1	0.0	7.4	25.9	47.4	

\*\*:  $p < .01$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3년 미만 ④ 3~4년 미만 ⑤ 4~5년 미만 ⑥ 5년 이상

7.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 여부

구분		①	②	③	계	$\chi^2$		
전체	N	35	58	21	114	25.916**		
	%	30.7	50.9	18.4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1	9	6		16	
		%	6.2	56.2	37.5		14.0	
	범부처	N	14	8	2		24	
		%	58.3	33.3	8.3		21.1	
	RISE	N	9	26	3		38	
		%	23.7	68.4	7.9		33.3	
	교육청 위탁	N	9	15	8		32	
		%	28.1	46.9	25.0		28.1	
	기타	N	2	0	2		4	
		%	50.0	0.0	5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13	23	8		44	33.709***
		%	29.5	52.3	18.2		38.6	
	전문대학	N	5	12	0		17	
		%	29.4	70.6	0.0		14.9	
	교육대학	N	0	9	2		11	
		%	0.0	81.8	18.2	9.6		
	공공기관	N	11	6	2	19		
		%	57.9	31.6	10.5	16.7		
	민간기관	N	1	5	8	14		
		%	7.1	35.7	57.1	12.3		
기타	N	5	3	1	9			
	%	55.6	33.3	11.1	7.9			
지역 규모	서울	N	6	11	6	23	1.8734	
		%	26.1	47.8	26.1	20.2		
	광역시	N	8	14	6	28		
		%	28.6	50.0	21.4	24.6		
	도지역	N	21	33	9	63		
		%	33.3	52.4	14.3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20	29	11	60	0.4474	
		%	33.3	48.3	18.3	52.6		
	비수도권	N	15	29	10	54		
		%	27.8	53.7	18.5	47.4		

\*\* :  $p < .01$ , \*\*\* :  $p < .001$

① 없다 ②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구성 ③ 정부 사업과 무관히 늘봄학교·방과후 관련 조직 구성

## 10. 현재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42	17	13	12	5	25	114	59.560***		
	%	36.8	14.9	11.4	10.5	4.4	21.9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1	1	0	2	1	11		16	
		%	6.2	6.2	0.0	12.5	6.2	68.8		14.0	
	범부처	N	18	4	0	1	1	0		24	
		%	75.0	16.7	0.0	4.2	4.2	0.0		21.1	
	RISE	N	14	5	4	5	0	10		38	
		%	36.8	13.2	10.5	13.2	0.0	26.3		33.3	
	교육청 위탁	N	7	6	9	4	3	3		32	
		%	21.9	18.8	28.1	12.5	9.4	9.4		28.1	
	기타	N	2	1	0	0	0	1		4	
		%	50.0	25.0	0.0	0.0	0.0	25.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15	4	7	5	1		12	44
			%	34.1	9.1	15.9	11.4	2.3		27.3	38.6
전문대학		N	9	2	1	1	1	3		17	
		%	52.9	11.8	5.9	5.9	5.9	17.6		14.9	
교육대학		N	0	1	2	1	1	6		11	
		%	0.0	9.1	18.2	9.1	9.1	54.5		9.6	
공공기관		N	10	6	1	1	1	0		19	
		%	52.6	31.6	5.3	5.3	5.3	0.0		16.7	
민간기관		N	4	2	1	2	1	4	14		
		%	28.6	14.3	7.1	14.3	7.1	28.6	12.3		
기타		N	4	2	1	2	0	0	9		
		%	44.4	22.2	11.1	22.2	0.0	0.0	7.9		
지역 규모	서울	N	8	5	2	3	2	3	23		
		%	34.8	21.7	8.7	13.0	8.7	13.0	20.2		
	광역시	N	11	1	6	3	1	6	28		
		%	39.3	3.6	21.4	10.7	3.6	21.4	24.6		
	도지역	N	23	11	5	6	2	16	63		
		%	36.5	17.5	7.9	9.5	3.2	25.4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17	11	7	7	4	14	60		
		%	28.3	18.3	11.7	11.7	6.7	23.3	52.6		
	비수도권	N	25	6	6	5	1	11	54		
		%	46.3	11.1	11.1	9.3	1.9	20.4	47.4		

p &lt; .001

① 1~2종 ② 3~4종 ③ 5~6종 ④ 7~8종 ⑤ 9~10종 ⑥ 10종 초과

### 11. 프로그램 공급 학급 공급 규모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60	15	7	3	4	25	114	46.138***	
	%	52.6	13.2	6.1	2.6	3.5	21.9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2	2	1	0	0	11		16
		%	12.5	12.5	6.2	0.0	0.0	68.8		14.0
	범부처	N	18	2	0	1	1	2		24
		%	75.0	8.3	0.0	4.2	4.2	8.3		21.1
	RISE	N	19	7	4	1	1	6		38
		%	50.0	18.4	10.5	2.6	2.6	15.8		33.3
	교육청 위탁	N	20	3	1	0	2	6		32
		%	62.5	9.4	3.1	0.0	6.2	18.8		28.1
	기타	N	1	1	1	1	0	0		4
		%	25.0	25.0	25.0	25.0	0.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23	7	3	1	1	9		44
		%	52.3	15.9	6.8	2.3	2.3	20.5		38.6
	전문대학	N	11	3	0	1	1	1		17
		%	64.7	17.6	0.0	5.9	5.9	5.9		14.9
	교육대학	N	1	2	1	0	0	7		11
		%	9.1	18.2	9.1	0.0	0.0	63.6		9.6
	공공기관	N	16	1	0	0	0	2		19
		%	84.2	5.3	0.0	0.0	0.0	10.5		16.7
	민간기관	N	4	1	2	1	0	6	14	
		%	28.6	7.1	14.3	7.1	0.0	42.9	12.3	
기타	N	5	1	1	0	2	0	9		
	%	55.6	11.1	11.1	0.0	22.2	0.0	7.9		
지역 규모	서울	N	13	3	1	0	2	4	23	
		%	56.5	13.0	4.3	0.0	8.7	17.4	20.2	
	광역시	N	12	4	3	1	1	7	28	
		%	42.9	14.3	10.7	3.6	3.6	25.0	24.6	
	도지역	N	35	8	3	2	1	14	63	
		%	55.6	12.7	4.8	3.2	1.6	22.2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36	10	2	3	2	7	60	
		%	60.0	16.7	3.3	5.0	3.3	11.7	52.6	
	비수도권	N	24	5	5	0	2	18	54	
		%	44.4	9.3	9.3	0.0	3.7	33.3	47.4	

\*:  $p < .05$ , \*\*:  $p < .01$ , \*\*\*:  $p < .001$

① 10개 이내 ② 11~20개 ③ 21~30개 ④ 31~40개 ⑤ 41~50개 ⑥ 50개 초과

## 12. 기관이 보유한 소속 강사 자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31	25	9	6	1	42	114	30.165		
	%	27.2	21.9	7.9	5.3	0.9	36.8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2	2	1	1	0	10		16	
		%	12.5	12.5	6.2	6.2	0.0	62.5		14.0	
	범부처	N	7	5	1	0	0	11		24	
		%	29.2	20.8	4.2	0.0	0.0	45.8		21.1	
	RISE	N	11	13	2	4	0	8		38	
		%	28.9	34.2	5.3	10.5	0.0	21.1		33.3	
	교육청 위탁	N	10	3	5	0	1	13		32	
		%	31.2	9.4	15.6	0.0	3.1	40.6		28.1	
	기타	N	1	2	0	1	0	0		4	
		%	25.0	50.0	0.0	25.0	0.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11	12	4	2	0		15	44
			%	25.0	27.3	9.1	4.5	0.0		34.1	38.6
		전문대학	N	6	4	2	2	0		3	17
			%	35.3	23.5	11.8	11.8	0.0		17.6	14.9
교육대학		N	1	2	0	1	0	7		11	
		%	9.1	18.2	0.0	9.1	0.0	63.6		9.6	
공공기관		N	8	3	0	0	0	8		19	
		%	42.1	15.8	0.0	0.0	0.0	42.1		16.7	
민간기관		N	3	1	1	1	1	7	14		
		%	21.4	7.1	7.1	7.1	7.1	50.0	12.3		
기타		N	2	3	2	0	0	2	9		
		%	22.2	33.3	22.2	0.0	0.0	22.2	7.9		
지역 규모		서울	N	6	2	3	1	0	11	23	
			%	26.1	8.7	13.0	4.3	0.0	47.8	20.2	
	광역시	N	8	7	1	2	1	9	28		
		%	28.6	25.0	3.6	7.1	3.6	32.1	24.6		
	도지역	N	17	16	5	3	0	22	63		
		%	27.0	25.4	7.9	4.8	0.0	34.9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17	13	6	1	0	23	60		
		%	28.3	21.7	10.0	1.7	0.0	38.3	52.6		
	비수도권	N	14	12	3	5	1	19	54		
		%	25.9	22.2	5.6	9.3	1.9	35.2	47.4		

① 10명 이내 ② 11~20명 ③ 21~30명 ④ 31~40명 ⑤ 41~50명 ⑥ 50명 초과

### 13.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확보 방식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44	36	31	3	114		
	%	38.6	31.6	27.2	2.6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6	4	6	0	16	10.633
		%	37.5	25.0	37.5	0.0	14.0	
	범부처	N	4	9	10	1	24	
		%	16.7	37.5	41.7	4.2	21.1	
	RISE	N	19	10	8	1	38	
		%	50.0	26.3	21.1	2.6	33.3	
	교육청 위탁	N	14	11	6	1	32	
		%	43.8	34.4	18.8	3.1	28.1	
	기타	N	1	2	1	0	4	
		%	25.0	50.0	25.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21	9	13	1	44	18.972
		%	47.7	20.5	29.5	2.3	38.6	
	전문대학	N	9	3	4	1	17	
		%	52.9	17.6	23.5	5.9	14.9	
	교육대학	N	4	5	2	0	11	
		%	36.4	45.5	18.2	0.0	9.6	
	공공기관	N	6	8	4	1	19	
		%	31.6	42.1	21.1	5.3	16.7	
	민간기관	N	2	5	7	0	14	
		%	14.3	35.7	50.0	0.0	12.3	
기타	N	2	6	1	0	9		
	%	22.2	66.7	11.1	0.0	7.9		
지역 규모	서울	N	7	8	6	2	23	6.523
		%	30.4	34.8	26.1	8.7	20.2	
	광역시	N	9	11	8	0	28	
		%	32.1	39.3	28.6	0.0	24.6	
도지역	N	28	17	17	1	63		
	%	44.4	27.0	27.0	1.6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26	19	13	2	60	2.396
		%	43.3	31.7	21.7	3.3	52.6	
	비수도권	N	18	17	18	1	54	
		%	33.3	31.5	33.3	1.9	47.4	

① 자체 전문가를 활용해 개발한 프로그램만 활용 ② 자체 개발 프로그램만 활용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협력기관 콘텐츠, 전문가 등 활용 ③ 자체 개발 프로그램과 협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활용 ④ 기타

## 15. 선발한 강사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 교육(연수) 시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7	35	31	10	8	23	114				
	%	6.1	30.7	27.2	8.8	7.0	20.2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1	2	4	3	2	4	16	21.144		
		%	6.2	12.5	25.0	18.8	12.5	25.0	14.0			
	범부처	N	3	4	7	1	4	5	24			
		%	12.5	16.7	29.2	4.2	16.7	20.8	21.1			
	RISE	N	1	13	12	3	2	7	38			
		%	2.6	34.2	31.6	7.9	5.3	18.4	33.3			
	교육청 위탁	N	2	15	7	3	0	5	32			
		%	6.2	46.9	21.9	9.4	0.0	15.6	28.1			
	기타	N	0	1	1	0	0	2	4			
		%	0.0	25.0	25.0	0.0	0.0	5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2	17	12	4	4	5		44	19.406
			%	4.5	38.6	27.3	9.1	9.1	11.4		38.6	
전문대학		N	1	5	4	2	0	5	17			
		%	5.9	29.4	23.5	11.8	0.0	29.4	14.9			
교육대학		N	1	2	3	2	0	3	11			
		%	9.1	18.2	27.3	18.2	0.0	27.3	9.6			
공공기관		N	2	6	6	0	1	4	19			
		%	10.5	31.6	31.6	0.0	5.3	21.1	16.7			
민간기관		N	0	2	5	1	1	5	14			
		%	0.0	14.3	35.7	7.1	7.1	35.7	12.3			
기타		N	1	3	1	1	2	1	9			
		%	11.1	33.3	11.1	11.1	22.2	11.1	7.9			
지역 규모	서울	N	0	3	12	1	2	5	23	21.438*		
		%	0.0	13.0	52.2	4.3	8.7	21.7	20.2			
	광역시	N	0	7	6	3	3	9	28			
		%	0.0	25.0	21.4	10.7	10.7	32.1	24.6			
	도지역	N	7	25	13	6	3	9	63			
		%	11.1	39.7	20.6	9.5	4.8	14.3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4	23	16	4	3	10	60	4.621		
		%	6.7	38.3	26.7	6.7	5.0	16.7	52.6			
	비수도권	N	3	12	15	6	5	13	54			
		%	5.6	22.2	27.8	11.1	9.3	24.1	47.4			

\*:  $p < .05$ 

① 사전 교육 없음 ② 5시간 이내 ③ 6~10시간 ④ 11~15시간 ⑤ 16~20시간 ⑥ 20시간 초과

17. 현재 프로그램을 학교에 매칭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구분			①	②	③	④	계	$\chi^2$	
전체	N		47	11	52	4	114	39.668***	
	%		41.2	9.6	45.6	3.5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8	2	6	0	16		
		%	50.0	12.5	37.5	0.0	14.0		
	범부처	N	19	3	1	1	24		
		%	79.2	12.5	4.2	4.2	21.1		
	RISE	N	14	3	18	3	38		
		%	36.8	7.9	47.4	7.9	33.3		
	교육청 위탁	N	4	2	26	0	32		
		%	12.5	6.2	81.2	0.0	28.1		
	기타	N	2	1	1	0	4		
		%	50.0	25.0	25.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12	3	26	3	44		15.423
		%	27.3	6.8	59.1	6.8	38.6		
	전문대학	N	9	1	7	0	17		
		%	52.9	5.9	41.2	0.0	14.9		
	교육대학	N	5	1	5	0	11		
		%	45.5	9.1	45.5	0.0	9.6		
	공공기관	N	9	4	5	1	19		
		%	47.4	21.1	26.3	5.3	16.7		
	민간기관	N	6	1	7	0	14		
		%	42.9	7.1	50.0	0.0	12.3		
기타	N	6	1	2	0	9			
	%	66.7	11.1	22.2	0.0	7.9			
지역 규모	서울	N	11	5	6	1	23	17.772**	
		%	47.8	21.7	26.1	4.3	20.2		
	광역시	N	18	1	9	0	28		
		%	64.3	3.6	32.1	0.0	24.6		
도지역	N	18	5	37	3	63			
	%	28.6	7.9	58.7	4.8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19	7	33	1	60	7.015	
		%	31.7	11.7	55.0	1.7	52.6		
	비수도권	N	28	4	19	3	54		
		%	51.9	7.4	35.2	5.6	47.4		

\*\* :  $p < .01$ , \*\*\* :  $p < .001$

① 늘봄허브 플랫폼 활용 ② 프로그램 공급기관의 별도 매칭 플랫폼 활용 ③ 교육청 협력을 통해 매칭 ④ 기타

## 18.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했던 만큼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되었는지 여부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8	5	18	41	42	114	43.071***	
	%	7.0	4.4	15.8	36.0	36.8	100.0		
창의재단	N	0	1	0	3	12	16		
	%	0.0	6.2	0.0	18.8	75.0	14.0		
범부처	N	5	2	5	8	4	24		
	%	20.8	8.3	20.8	33.3	16.7	21.1		
RISE	N	3	2	11	13	9	38		
	%	7.9	5.3	28.9	34.2	23.7	33.3		
교육청 위탁	N	0	0	2	17	13	32		
	%	0.0	0.0	6.2	53.1	40.6	28.1		
기타	N	0	0	0	0	4	4		
	%	0.0	0.0	0.0	0.0	100.0	3.5		
종합대학	N	2	3	6	20	13	44		32.183*
	%	4.5	6.8	13.6	45.5	29.5	38.6		
전문대학	N	2	0	6	3	6	17		
	%	11.8	0.0	35.3	17.6	35.3	14.9		
교육대학	N	0	0	0	3	8	11		
	%	0.0	0.0	0.0	27.3	72.7	9.6		
공공기관	N	4	1	2	8	4	19		
	%	21.1	5.3	10.5	42.1	21.1	16.7		
민간기관	N	0	0	1	6	7	14		
	%	0.0	0.0	7.1	42.9	50.0	12.3		
기타	N	0	1	3	1	4	9		
	%	0.0	11.1	33.3	11.1	44.4	7.9		
서울	N	5	1	5	6	6	23	14.543	
	%	21.7	4.3	21.7	26.1	26.1	20.2		
광역시	N	0	1	5	8	14	28		
	%	0.0	3.6	17.9	28.6	50.0	24.6		
도지역	N	3	3	8	27	22	63		
	%	4.8	4.8	12.7	42.9	34.9	55.3		
수도권	N	5	1	8	24	22	60	3.507	
	%	8.3	1.7	13.3	40.0	36.7	52.6		
비수도권	N	3	4	10	17	20	54		
	%	5.6	7.4	18.5	31.5	37.0	47.4		

\*:  $p < .05$ , \*\*\*:  $p < .00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전반에서 고학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14	9	18	25	42	6	114	26.823		
	%	12.3	7.9	15.8	21.9	36.8	5.3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1	1	2	4	7	1		16	
		%	6.2	6.2	12.5	25.0	43.8	6.2		14.0	
	범부처	N	2	1	9	3	6	3		24	
		%	8.3	4.2	37.5	12.5	25.0	12.5		21.1	
	RISE	N	7	6	1	8	15	1		38	
		%	18.4	15.8	2.6	21.1	39.5	2.6		33.3	
	교육청 위탁	N	4	1	6	8	12	1		32	
		%	12.5	3.1	18.8	25.0	37.5	3.1		28.1	
	기타	N	0	0	0	2	2	0		4	
		%	0.0	0.0	0.0	50.0	50.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6	6	5	13	14	0		44	25.059
		%	13.6	13.6	11.4	29.5	31.8	0.0		38.6	
	전문대학	N	3	0	1	3	9	1		17	
		%	17.6	0.0	5.9	17.6	52.9	5.9		14.9	
	교육대학	N	1	1	2	1	6	0		11	
		%	9.1	9.1	18.2	9.1	54.5	0.0		9.6	
	공공기관	N	2	1	6	3	5	2		19	
		%	10.5	5.3	31.6	15.8	26.3	10.5		16.7	
	민간기관	N	2	1	1	3	5	2	14		
		%	14.3	7.1	7.1	21.4	35.7	14.3	12.3		
기타	N	0	0	3	2	3	1	9			
	%	0.0	0.0	33.3	22.2	33.3	11.1	7.9			
지역 규모	서울	N	1	2	6	5	8	1	23	9.665	
		%	4.3	8.7	26.1	21.7	34.8	4.3	20.2		
	광역시	N	3	1	5	3	14	2	28		
		%	10.7	3.6	17.9	10.7	50.0	7.1	24.6		
	도지역	N	10	6	7	17	20	3	63		
		%	15.9	9.5	11.1	27.0	31.7	4.8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6	4	10	17	21	2	60	4.222	
		%	10.0	6.7	16.7	28.3	35.0	3.3	52.6		
	비수도권	N	8	5	8	8	21	4	54		
		%	14.8	9.3	14.8	14.8	38.9	7.4	47.4		

① 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 ② 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수강료 부담 경감 ③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④ 사교육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⑤ 고학년에 맞는 교과 과정 프로그램 확대 ⑥ 기타

23.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전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32	7	20	11	39	5	114	14.019	
	%	28.1	6.1	17.5	9.6	34.2	4.4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7	1	4	0	4	0		16
		%	43.8	6.2	25.0	0.0	25.0	0.0		14.0
	범부처	N	8	0	5	1	8	2		24
		%	33.3	0.0	20.8	4.2	33.3	8.3		21.1
	RISE	N	10	4	5	5	13	1		38
		%	26.3	10.5	13.2	13.2	34.2	2.6		33.3
	교육청 위탁	N	6	2	5	4	13	2		32
		%	18.8	6.2	15.6	12.5	40.6	6.2		28.1
	기타	N	1	0	1	1	1	0		4
		%	25.0	0.0	25.0	25.0	25.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14	3	5	6	16	0		44
		%	31.8	6.8	11.4	13.6	36.4	0.0		38.6
	전문대학	N	5	1	3	3	4	1		17
		%	29.4	5.9	17.6	17.6	23.5	5.9		14.9
	교육대학	N	5	1	4	0	1	0		11
		%	45.5	9.1	36.4	0.0	9.1	0.0		9.6
	공공기관	N	5	0	4	1	7	2		19
		%	26.3	0.0	21.1	5.3	36.8	10.5		16.7
	민간기관	N	0	1	3	1	8	1	14	
		%	0.0	7.1	21.4	7.1	57.1	7.1	12.3	
기타	N	3	1	1	0	3	1	9		
	%	33.3	11.1	11.1	0.0	33.3	11.1	7.9		
지역 규모	서울	N	7	0	5	2	8	1	23	
		%	30.4	0.0	21.7	8.7	34.8	4.3	20.2	
	광역시	N	6	4	4	0	11	3	28	
		%	21.4	14.3	14.3	0.0	39.3	10.7	24.6	
	도지역	N	19	3	11	9	20	1	63	
		%	30.2	4.8	17.5	14.3	31.7	1.6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19	2	10	7	19	3	60	
		%	31.7	3.3	16.7	11.7	31.7	5.0	52.6	
	비수도권	N	13	5	10	4	20	2	54	
		%	24.1	9.3	18.5	7.4	37.0	3.7	47.4	

① 대학·전문기관이 우수한 콘텐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일반 강사에게 까지 확산 ② 역량있는 강사가 학교에 출강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요건 강화 ③ 프로그램 강사의 교수법 및 해당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④ 학교, 학부모가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강사 정보 공개 확대 ⑤ 우수한 강사, 교구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 단가 인상 ⑥ 기타

24. 학교의 대학·전문기관 프로그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15	46	32	15	2	4	114	20.832		
	%	13.2	40.4	28.1	13.2	1.8	3.5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4	4	3	4	1	0		16	
		%	25.0	25.0	18.8	25.0	6.2	0.0		14.0	
	범부처	N	3	8	10	1	0	2		24	
		%	12.5	33.3	41.7	4.2	0.0	8.3		21.1	
	RISE	N	3	21	7	6	0	1		38	
		%	7.9	55.3	18.4	15.8	0.0	2.6		33.3	
	교육청 위탁	N	5	12	10	3	1	1		32	
		%	15.6	37.5	31.2	9.4	3.1	3.1		28.1	
	기타	N	0	1	2	1	0	0		4	
		%	0.0	25.0	50.0	25.0	0.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4	21	13	5	1	0		44	37.250
		%	9.1	47.7	29.5	11.4	2.3	0.0		38.6	
	전문대학	N	3	10	2	1	0	1		17	
		%	17.6	58.8	11.8	5.9	0.0	5.9		14.9	
	교육대학	N	2	3	1	5	0	0		11	
		%	18.2	27.3	9.1	45.5	0.0	0.0		9.6	
	공공기관	N	2	5	7	2	0	3		19	
		%	10.5	26.3	36.8	10.5	0.0	15.8		16.7	
	민간기관	N	3	4	4	2	1	0	14		
		%	21.4	28.6	28.6	14.3	7.1	0.0	12.3		
기타	N	1	3	5	0	0	0	9			
	%	11.1	33.3	55.6	0.0	0.0	0.0	7.9			
지역 규모	서울	N	2	9	6	5	0	1	23	8.364	
		%	8.7	39.1	26.1	21.7	0.0	4.3	20.2		
	광역시	N	2	10	10	4	0	2	28		
		%	7.1	35.7	35.7	14.3	0.0	7.1	24.6		
	도지역	N	11	27	16	6	2	1	63		
		%	17.5	42.9	25.4	9.5	3.2	1.6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7	25	15	10	1	2	60	1.896	
		%	11.7	41.7	25.0	16.7	1.7	3.3	52.6		
	비수도권	N	8	21	17	5	1	2	54		
		%	14.8	38.9	31.5	9.3	1.9	3.7	47.4		

①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학부모 수요 반영 확대 ② 대학·전문 기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 ③ 매칭과정에서 늘봄허브 활성화 및 교육청 지원 확대 ④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용 인하 (또는 학교에 비용 추가 지원) ⑤ 학교에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⑥ 기타

25. 소속 강사들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11	57	32	8	6	114	17.650
	%		9.6	50.0	28.1	7.0	5.3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2	7	7	0	0	16	
		%	12.5	43.8	43.8	0.0	0.0	14.0	
	범부처	N	2	16	5	0	1	24	
		%	8.3	66.7	20.8	0.0	4.2	21.1	
	RISE	N	4	20	10	2	2	38	
		%	10.5	52.6	26.3	5.3	5.3	33.3	
	교육청 위탁	N	2	12	9	6	3	32	
		%	6.2	37.5	28.1	18.8	9.4	28.1	
	기타	N	1	2	1	0	0	4	
		%	25.0	50.0	25.0	0.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2	23	13	4	2	44	
		%	4.5	52.3	29.5	9.1	4.5	38.6	
	전문대학	N	4	9	2	1	1	17	
		%	23.5	52.9	11.8	5.9	5.9	14.9	
	교육대학	N	1	3	7	0	0	11	
		%	9.1	27.3	63.6	0.0	0.0	9.6	
	공공기관	N	1	13	4	0	1	19	
		%	5.3	68.4	21.1	0.0	5.3	16.7	
	민간기관	N	3	4	4	2	1	14	
		%	21.4	28.6	28.6	14.3	7.1	12.3	
기타	N	0	5	2	1	1	9		
	%	0.0	55.6	22.2	11.1	11.1	7.9		
지역 규모	서울	N	3	11	8	1	0	23	
		%	13.0	47.8	34.8	4.3	0.0	20.2	
	광역시	N	4	14	8	0	2	28	
		%	14.3	50.0	28.6	0.0	7.1	24.6	
	도지역	N	4	32	16	7	4	63	
		%	6.3	50.8	25.4	11.1	6.3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6	31	16	5	2	60	
		%	10.0	51.7	26.7	8.3	3.3	52.6	
	비수도권	N	5	26	16	3	4	54	
		%	9.3	48.1	29.6	5.6	7.4	47.4	

① 강사 선발 시 자격 요건 강화 ② 기본 강사료 단가 인상 ③ 선발된 강사에 대한 연수 강화 ④ 성과에 따른 강사비 차등(만족도, 수강생 수) ⑤ 기타

26. 학교밖 지역 돌봄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늘봄학교·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구분		①	②	계	$\chi^2$		
전체	N	68	46	114	2.506		
	%	59.6	40.4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10	6		16	
		%	62.5	37.5		14.0	
	범부처	N	12	12		24	
		%	50.0	50.0		21.1	
	RISE	N	26	12		38	
		%	68.4	31.6		33.3	
	교육청 위탁	N	18	14		32	
		%	56.2	43.8		28.1	
기타	N	2	2	4			
	%	50.0	5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27	17		44	4.512
		%	61.4	38.6		38.6	
	전문대학	N	12	5		17	
		%	70.6	29.4		14.9	
	교육대학	N	7	4		11	
		%	63.6	36.4		9.6	
	공공기관	N	11	8		19	
		%	57.9	42.1		16.7	
민간기관	N	5	9	14			
	%	35.7	64.3	12.3			
기타	N	6	3	9			
	%	66.7	33.3	7.9			
지역 규모	서울	N	11	12	23	1.736	
		%	47.8	52.2	20.2		
	광역시	N	17	11	28		
		%	60.7	39.3	24.6		
도지역	N	40	23	63			
	%	63.5	36.5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34	26	60	0.243	
		%	56.7	43.3	52.6		
	비수도권	N	34	20	54		
		%	63.0	37.0	47.4		

① 없다 ② 있다

26-1. 문26에서 학교 밖 돌봄센터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		
전체	N	7	7	13	7	5	7	46	18.638		
	%	15.2	15.2	28.3	15.2	10.9	15.2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0	1	2	2	1	0		6	
		%	0.0	16.7	33.3	33.3	16.7	0.0		13.0	
	범부처	N	4	1	2	1	2	2		12	
		%	33.3	8.3	16.7	8.3	16.7	16.7		26.1	
	RISE	N	2	4	4	0	0	2		12	
		%	16.7	33.3	33.3	0.0	0.0	16.7		26.1	
	교육청 위탁	N	1	1	4	3	2	3		14	
		%	7.1	7.1	28.6	21.4	14.3	21.4		30.4	
	기타	N	0	0	1	1	0	0		2	
		%	0.0	0.0	50.0	50.0	0.0	0.0		4.3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4	5	4	0	3		1	17
			%	23.5	29.4	23.5	0.0	17.6		5.9	37.0
전문대학		N	0	1	2	0	0	2		5	
		%	0.0	20.0	40.0	0.0	0.0	40.0		10.9	
교육대학		N	0	0	2	2	0	0		4	
		%	0.0	0.0	50.0	50.0	0.0	0.0		8.7	
공공기관		N	2	1	1	2	1	1		8	
		%	25.0	12.5	12.5	25.0	12.5	12.5		17.4	
민간기관		N	0	0	4	2	0	3	9		
		%	0.0	0.0	44.4	22.2	0.0	33.3	19.6		
기타		N	1	0	0	1	1	0	3		
		%	33.3	0.0	0.0	33.3	33.3	0.0	6.5		
지역 규모	서울	N	2	0	5	1	1	3	12		
		%	16.7	0.0	41.7	8.3	8.3	25.0	26.1		
	광역시	N	0	3	3	2	1	2	11		
		%	0.0	27.3	27.3	18.2	9.1	18.2	23.9		
	도지역	N	5	4	5	4	3	2	23		
		%	21.7	17.4	21.7	17.4	13.0	8.7	50.0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4	2	8	6	3	3	26		
		%	15.4	7.7	30.8	23.1	11.5	11.5	56.5		
	비수도권	N	3	5	5	1	2	4	20		
		%	15.0	25.0	25.0	5.0	10.0	20.0	43.5		

① 어려움이 없음(학교와 동일) ② 학교 밖 돌봄센터 등의 수강료 예산 부족 ③ 공급기관과 학교 밖 돌봄센터 등을 연결하는 채널 부재 ④ 학교 밖 돌봄센터 운영 방식이 프로그램 운영에 맞지 않음(돌봄 중심) ⑤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생이 없음 ⑥ 기타

27. 학부모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24	17	13	34	26	114		
	%	21.1	14.9	11.4	29.8	22.8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0	1	1	8	6	16	36.580**
		%	0.0	6.2	6.2	50.0	37.5	14.0	
	범부처	N	12	3	3	6	0	24	
		%	50.0	12.5	12.5	25.0	0.0	21.1	
	RISE	N	3	5	4	13	13	38	
		%	7.9	13.2	10.5	34.2	34.2	33.3	
	교육청 위탁	%	8	6	4	7	7	32	
		N	25.0	18.8	12.5	21.9	21.9	28.1	
	기타	%	1	2	1	0	0	4	
		N	25.0	50.0	25.0	0.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6	4	5	18	11	44	36.314*
		%	13.6	9.1	11.4	40.9	25.0	38.6	
	전문대학	N	2	2	5	2	6	17	
		%	11.8	11.8	29.4	11.8	35.3	14.9	
	교육대학	N	0	1	1	5	4	11	
		%	0.0	9.1	9.1	45.5	36.4	9.6	
	공공기관	N	9	3	1	5	1	19	
		%	47.4	15.8	5.3	26.3	5.3	16.7	
	민간기관	N	4	5	1	1	3	14	
		%	28.6	35.7	7.1	7.1	21.4	12.3	
기타	N	3	2	0	3	1	9		
	%	33.3	22.2	0.0	33.3	11.1	7.9		
지역 규모	서울	N	6	4	1	7	5	23	8.251
		%	26.1	17.4	4.3	30.4	21.7	20.2	
	광역시	N	6	7	1	8	6	28	
%		21.4	25.0	3.6	28.6	21.4	24.6		
도지역	N	12	6	11	19	15	63		
	%	19.0	9.5	17.5	30.2	23.8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13	7	7	22	11	60	4.025
		%	21.7	11.7	11.7	36.7	18.3	52.6	
비수도권	N	11	10	6	12	15	54		
	%	20.4	18.5	11.1	22.2	27.8	47.4		

\*:  $p < .05$ , \*\*:  $p < .0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1. 문27에서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40	5	7	2	0	54	16.698		
	%	74.1	9.3	13.0	3.7	0.0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2	0	0	0	0		2	
		%	100.0	0.0	0.0	0.0	0.0		3.7	
	범부처	N	17	1	0	0	0		18	
		%	94.4	5.6	0.0	0.0	0.0		33.3	
	RISE	N	6	3	2	1	0		12	
		%	50.0	25.0	16.7	8.3	0.0		22.2	
	교육청 위탁	N	12	0	5	1	0		18	
		%	66.7	0.0	27.8	5.6	0.0		33.3	
	기타	N	3	1	0	0	0		4	
		%	75.0	25.0	0.0	0.0	0.0		7.4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9	4	2	0	0		15	20.895
		%	60.0	26.7	13.3	0.0	0.0		27.8	
	전문대학	N	5	0	3	1	0		9	
		%	55.6	0.0	33.3	11.1	0.0		16.7	
	교육대학	N	2	0	0	0	0		2	
		%	100.0	0.0	0.0	0.0	0.0		3.7	
	공공기관	N	12	1	0	0	0		13	
		%	92.3	7.7	0.0	0.0	0.0		24.1	
	민간기관	N	9	0	1	0	0	10		
		%	90.0	0.0	10.0	0.0	0.0	18.5		
기타	N	3	0	1	1	0	5			
	%	60.0	0.0	20.0	20.0	0.0	9.3			
지역 규모	서울	N	10	0	1	0	0	11	8.106	
		%	90.9	0.0	9.1	0.0	0.0	20.4		
	광역시	N	10	3	0	1	0	14		
		%	71.4	21.4	0.0	7.1	0.0	25.9		
	도지역	N	20	2	6	1	0	29		
		%	69.0	6.9	20.7	3.4	0.0	53.7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21	1	5	0	0	27	5.186	
		%	77.8	3.7	18.5	0.0	0.0	50.0		
	비수도권	N	19	4	2	2	0	27		
		%	70.4	14.8	7.4	7.4	0.0	50.0		

① 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참여 취지와 다름 ② 기관 내에 교과과목 관련 전문가, 콘텐츠가 없음 ③ 교과과목에서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④ 학교의 교과과목 강사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⑤ 기타

28.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면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52	28	19	10	5	114	21.557	
	%		45.6	24.6	16.7	8.8	4.4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8	2	3	2	1	16		
		%	50.0	12.5	18.8	12.5	6.2	14.0		
	범부처	N	9	7	6	1	1	24		
		%	37.5	29.2	25.0	4.2	4.2	21.1		
	RISE	N	15	12	5	5	1	38		
		%	39.5	31.6	13.2	13.2	2.6	33.3		
	교육청 위탁	N	20	6	2	2	2	32		
		%	62.5	18.8	6.2	6.2	6.2	28.1		
	기타	N	0	1	3	0	0	4		
		%	0.0	25.0	75.0	0.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23	8	8	5	0	44		15.453
		%	52.3	18.2	18.2	11.4	0.0	38.6		
	전문대학	N	8	6	1	1	1	17		
		%	47.1	35.3	5.9	5.9	5.9	14.9		
	교육대학	N	5	2	1	2	1	11		
		%	45.5	18.2	9.1	18.2	9.1	9.6		
	공공기관	N	5	6	5	1	2	19		
		%	26.3	31.6	26.3	5.3	10.5	16.7		
	민간기관	N	6	4	3	0	1	14		
		%	42.9	28.6	21.4	0.0	7.1	12.3		
기타	N	5	2	1	1	0	9			
	%	55.6	22.2	11.1	11.1	0.0	7.9			
지역 규모	서울	N	13	2	6	1	1	23	11.812	
		%	56.5	8.7	26.1	4.3	4.3	20.2		
	광역시	N	10	7	6	2	3	28		
		%	35.7	25.0	21.4	7.1	10.7	24.6		
	도지역	N	29	19	7	7	1	63		
		%	46.0	30.2	11.1	11.1	1.6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32	10	11	5	2	60	5.428	
		%	53.3	16.7	18.3	8.3	3.3	52.6		
	비수도권	N	20	18	8	5	3	54		
		%	37.0	33.3	14.8	9.3	5.6	47.4		

① 특기적성, 놀이와 연계한 형태로 운영 ②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형태로 운영 ③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사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④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진도 범위 내) ⑤ 기타

29. 프로그램 공급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chi^2$		
전체	N	17	27	49	9	12	114	29.827*		
	%	14.9	23.7	43.0	7.9	10.5	100.0			
참여 유형	창의재단	N	2	8	5	0	1		16	
		%	12.5	50.0	31.2	0.0	6.2		14.0	
	범부처	N	5	5	7	0	7		24	
		%	20.8	20.8	29.2	0.0	29.2		21.1	
	RISE	N	6	4	21	4	3		38	
		%	15.8	10.5	55.3	10.5	7.9		33.3	
	교육청 위탁	N	4	8	14	5	1		32	
		%	12.5	25.0	43.8	15.6	3.1		28.1	
	기타	N	0	2	2	0	0		4	
		%	0.0	50.0	50.0	0.0	0.0		3.5	
기관 유형	종합대학	N	6	9	24	2	3		44	32.739*
		%	13.6	20.5	54.5	4.5	6.8		38.6	
	전문대학	N	5	2	7	2	1		17	
		%	29.4	11.8	41.2	11.8	5.9		14.9	
	교육대학	N	1	5	2	2	1		11	
		%	9.1	45.5	18.2	18.2	9.1		9.6	
	공공기관	N	3	3	8	0	5		19	
		%	15.8	15.8	42.1	0.0	26.3		16.7	
	민간기관	N	1	7	3	3	0	14		
		%	7.1	50.0	21.4	21.4	0.0	12.3		
기타	N	1	1	5	0	2	9			
	%	11.1	11.1	55.6	0.0	22.2				
지역 규모	서울	N	4	6	8	1	4	23	2.812	
		%	17.4	26.1	34.8	4.3	17.4	20.2		
	광역시	N	4	6	12	3	3	28		
		%	14.3	21.4	42.9	10.7	10.7	24.6		
	도지역	N	9	15	29	5	5	63		
		%	14.3	23.8	46.0	7.9	7.9	55.3		
수도권 여부	수도권	N	10	14	28	1	7	60	7.048	
		%	16.7	23.3	46.7	1.7	11.7	52.6		
	비수도권	N	7	13	21	8	5	54		
		%	13.0	24.1	38.9	14.8	9.3	47.4		

\*:  $p < .05$

① 학교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가이드 제공 ② 소속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수 지원 ③ 교육청과의 협력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④ 프로그램 공급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 품질관리 지원 ⑤ 기타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a Program Supply-Utilization System for the  
Expansion of Neulbom School)

---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협력부서 교육활동지원실  
김보경(선임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김성식 (연구책임자)  
곽현석 (공동연구자)  
김영화 (공동연구자)  
최예슬 (공동연구자)  
문서연 (연구보조원)  
현유정 (연구보조원)

※ 이 보고서는 2025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a Program Supply-Utilization System for the Expansion of Neulbom School

### 주 의 문

-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언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이 보고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시행한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Korea Foundation for Science and Creativity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4~5층(역삼동)

TEL 02-555-0701 FAX 02-555-0702 www.kosac.re.kr

26-B552111-000030-01

#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a Program Supply-Utilization System for  
the Expansion of Neulbom School

##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활용 체계 구축 연구

### 주 의 문

-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언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이 보고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시행한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4~5층(역삼동)  
TEL 02-555-0701 FAX 02-555-0702 www.kosac.re.kr

